

2009 청소년상담연구 · 146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책임 연구자 : 강 석 영

공동 연구자 : 김 동 민

하 창 순

청소년상담연구 146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인 쇄 : 2009년 12월

발 행 : 2009년 12월

저 자 : 한국청소년상담원

발 행 인 : 차 정 섭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T. (02)2250-3074 / F. (02)2250-3005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아름기획

비매품

ISBN 978-89-8234-445-9 93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본 간행물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 책임연구자: 강석영 ; 공동
연구자: 김동민, 하창순. --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9
p. ; cm. -- (청소년상담연구 ; 146)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8234-445-9 93330 : 비매품

ISBN 978-89-8234-001-7(세트)

청소년 문제 [靑少年問題]

청소년 보호 [靑少年保護]

334.3-KDC4

362.7-DDC21

CIP2009003961

간행사

현재 청소년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입시와 취업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인생에 대한 자주적인 의사결정이나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방식, 건강한 생활양식 등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기 때문에 청소년기를 더욱 위기의 상황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마스크를 통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청소년의 자살, 성, 패륜, 차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시위주의 교육, 학교폭력, 다문화가정, 인터넷 중독, 학교부적응 등의 다양한 문제로 발생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정책과 사회전체의 위기의식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기청소년의 증가와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청소년 문제는 그 복잡성에 비해 너무 쉽게 범죄 차원에서 그리고 사후 개입의 방식으로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병리 현상을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교육환경, 사회 환경 등 제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들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예방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의 책임은 청소년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선도해야 하는 가정은 물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유익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학교, 사회, 정부 등 모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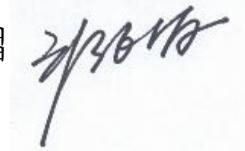
1993년 이후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상담정책의 연구개발, 청소년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08년까지 144개의 청소년정책 및 상담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전국16개시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위기실태조사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은 물론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제 정책계획 및 정책수립 그리고 정책대상의 정의를 제안하고 위기청소년의 성공적인 지원과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고자 애쓴 강석영 박사, 김동민 교수, 하창순 교수님께 수고의 치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 조사에 협조해주신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담

당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향후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12월

원장 차 정 섭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be '정섭' (Jeong Seop), written in a cursive style.

초 록

현재 청소년문제는 가정요인, 개인요인, 사회요인 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로 위기상황에 있고, 위기청소년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청소년범죄의 증가와 가정의 붕괴 등 사회전체의 문제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 청소년이 처한 위기상황, 위기유형과 수준 등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위기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정책과 지원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실시된 청소년의 위기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의 지역별로 차이, 일률적이지 못한 설문 문항 및 분석 요인 등으로 인해 위기유형, 위기수준, 위기빈도, 위가요인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청소년 위기상황과약과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실태를 비교하는 데이터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정하였다.

첫째, 효율적인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하였다.

둘째, 위기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위기청소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국내외 위기청소년 관련법과 지원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정보와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넷째,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16개 시도 69,75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수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으로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의 위기가능 수준의 분포 및 각 위가요소별 위기수준의 분포를 (1)16개 시도별, (2)성별, (3)학교급별, (4)학년별, (5)가족형태별, (6)거주형태별, (7)지각된 가정경제 수준별, (8)지각된 가정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원 수준 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1)신체적 학대 경험, (2)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로 시달린 경험, (3)가출고려 및 시도, (4)학업중단 고려, (5)자퇴경고 및 퇴학 통보 경험, (6)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 (7)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8)음주 및 흡연 경험, (9)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및 일상장애 경험, (10)물품을 훔치거나 갈취한 경험, (11)성폭력(성희롱) 경험, (12)성매매 유혹 경험, (13)자살 생각 및 시도 경험 등을 위

기경험으로 정의하고, 이들 각각을 위기 수준 및 각 위기요소별 위기수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가족복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1388 청소년 전화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분석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주요 문제점과 분석내용을 토대로 고위험 청소년 규모 추정, 가정 및 또래 요인의 심각성, 가정 및 또래 요인에 대한 조기개입의 중요성, 자살 및 인터넷 중독 문제의 심각성, 지역적 특성에 따른 고위험군의 발현 빈도 차이 등에 대한 문제해결방안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 및 그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및 개입프로그램 마련, 중첩적인 개입망의 필요,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 필요, 자살 예방 및 인터넷 관련 문제에 대한 개입방안 재검토 필요, 지역별 청소년 및 유해 환경에 대한 검토 및 지역별 특화된 개입모델 개발 필요,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와 같은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	4
II. 이론적 배경	6
1. 위기청소년의 개념	6
2. 위기청소년의 특성	7
3. 국내 위기청소년 관련법 및 지원체계	22
4. 외국 위기청소년 관련법과 지원체계	44
III. 연구 방법	90
1. 측정도구 선택 및 실시	90
2. 조사대상	93
3. 자료수집방법	94
IV.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결과분석	95
V.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368
1. 요약	368
2. 논의	375
VI. 제언	378
참고문헌	384
부 록	393



표

〈표 1〉 입학정원 대비 학업중단자 비율	13
〈표 2〉 2008년 CYS-Net운영지역	31
〈표 3〉 2007년 2008년 진행-신규-종결 사례수(명)	32
〈표 4〉 CYS-Net 지원 대상 청소년의 위기수준 분포	33
〈표 5〉 설문지 구성	91
〈표 6〉 설문지 결과	92
〈표 7〉 16개 시도 청소년 생활실태조사 인원	93
〈표 8〉 시도별 분포	95
〈표 9〉 성별 분포	96
〈표 10〉 학교별 분포	96
〈표 11〉 학년별 분포	97
〈표 12〉 가족형태별 분포	97
〈표 13〉 현재 거주 형태 분포 (울산, 제주는 문항형식 상이하어 분석에서 제외함) ..	98
〈표 14〉 가정경제수준 분포	98
〈표 15〉 위험요소 척도의 문항구성과 내적합치도	99
〈표 16〉 위기결과 척도의 문항구성과 내적합치도	99
〈표 17〉 전체 위기요소 구분 기준	100
〈표 18〉 전체 위기요소 분포	100
〈표 19〉 심리적 위기요소 수준	101
〈표 20〉 개인적 위기요소 수준	101
〈표 21〉 가정적 위기요소 수준(대전, 충북 문항 상이하어 분석에서 제외됨)	102
〈표 22〉 학교 위기요소 수준	103
〈표 23〉 또래 위기요소 수준	103
〈표 24〉 지역사회 위기요소 수준	104
〈표 25〉 시도별 전체위기요소 수준	105



〈표 26〉 시도별 심리위요소 수준	107
〈표 27〉 시도별 개인위요소 수준	109
〈표 28〉 시도별 가정위요소 수준	111
〈표 29〉 시도별 학교위요소 수준	113
〈표 30〉 시도별 또래위요소 수준	115
〈표 31〉 시도별 지역사회위요소 수준	117
〈표 32〉 성별 전체위요소수준	118
〈표 33〉 성별 심리위요소 수준	119
〈표 34〉 성별 개인위요소수준	120
〈표 35〉 성별 가정위요소수준	120
〈표 36〉 성별 학교위요소수준	121
〈표 37〉 성별 또래위요소수준	122
〈표 38〉 성별 지역사회위요소수준	122
〈표 39〉 학교급별 전체위요소수준	123
〈표 40〉 학교급별 심리위요소수준	124
〈표 41〉 학교급별 개인위요소수준	125
〈표 42〉 학교급별 가정위요소수준	126
〈표 43〉 학교급별 학교위요소수준	127
〈표 44〉 학교급별 또래위요소수준	128
〈표 45〉 학교급별 지역사회위요소수준	129
〈표 46〉 학년별 전체위요소수준	130
〈표 47〉 학년별 심리위요소수준	131
〈표 48〉 학년별 개인위요소수준	132
〈표 49〉 학년별 가정위요소수준	133
〈표 50〉 학년별 학교위요소 수준	134
〈표 51〉 학년별 또래위요소수준	135
〈표 52〉 학년별 지역사회위요소수준	136



〈표 53〉 가족형태별 전체위기로소수준	137
〈표 54〉 가족형태별 심리위기로소수준	138
〈표 55〉 가족형태별 개인위기로소수준	139
〈표 56〉 가족형태별 가정위기로소수준	140
〈표 57〉 가족형태별 학교위기로소수준	141
〈표 58〉 가족형태별 또래위기로소수준	142
〈표 59〉 가족형태별 지역사회위기로소수준	143
〈표 60〉 거주형태별 전체위기로소수준	145
〈표 61〉 거주형태별 심리위기로소수준	146
〈표 62〉 거주형태별 개인위기로소수준	147
〈표 63〉 거주형태별 가정위기로소수준	148
〈표 64〉 거주형태별 학교위기로소수준	149
〈표 65〉 거주형태별 또래위기로소수준	150
〈표 66〉 거주형태별 지역사회위기로소수준	151
〈표 67〉 가정경제수준별 전체위기로소수준	152
〈표 68〉 가정경제수준별 심리위기로소수준	153
〈표 69〉 가정경제수준별 개인위기로소수준	154
〈표 70〉 가정경제수준별 가정위기로소수준	155
〈표 71〉 가정경제수준별 학교위기로소수준	155
〈표 72〉 가정경제수준별 또래위기로소수준	156
〈표 73〉 가정경제수준별 지역사회위기로소수준	157
〈표 74〉 전체 위기수준별 가족형태	158
〈표 75〉 전체 위기수준별 거주형태	159
〈표 76〉 전체 위기수준별 가정경제수준	160
〈표 77〉 심리위기수준별 가족형태	161
〈표 78〉 심리위기수준별 거주형태	162
〈표 79〉 심리위기수준별 가정경제수준	163



〈표 80〉 개인위기수준별 가족형태	164
〈표 81〉 개인위기수준별 거주형태	165
〈표 82〉 개인위기수준별 가정경제수준	166
〈표 83〉 가정위기수준별 가족형태	166
〈표 84〉 가정위기수준별 거주형태	167
〈표 85〉 가정위기수준별 가정경제수준	168
〈표 86〉 학교위기수준별 가족형태	168
〈표 87〉 학교위기수준별 거주형태	169
〈표 88〉 학교위기수준별 가정경제수준	170
〈표 89〉 또래위기수준별 가족형태	171
〈표 90〉 또래위기수준별 거주형태	172
〈표 91〉 또래위기수준별 가정경제수준	173
〈표 92〉 지역사회위기수준별 가족형태	174
〈표 93〉 지역사회위기수준별 거주형태	175
〈표 94〉 지역사회위기수준별 가정경제수준	176
〈표 95〉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분포	177
〈표 96〉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분포	178
〈표 97〉 3일 이상 가출 시도 경험 분포	178
〈표 98〉 심각한 가출 고려 경험 분포	179
〈표 99〉 심각한 학업중단 고려 경험 분포	180
〈표 100〉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분포	180
〈표 101〉 학교폭력 피해 경험 분포	181
〈표 102〉 학교폭력 가해 경험 분포	182
〈표 103〉 가스, 분드, 마약류 흡입 경험 분포	183
〈표 104〉 음주, 흡연 경험 분포	183
〈표 105〉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분포	184
〈표 106〉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분포	184



〈표 107〉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분포	185
〈표 108〉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분포	185
〈표 109〉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분포	186
〈표 110〉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분포	187
〈표 111〉 자살 생각 경험 분포	187
〈표 112〉 자살 시도 경험 분포	188
〈표 113〉 시도별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188
〈표 114〉 시도별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190
〈표 115〉 시도별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192
〈표 116〉 시도별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194
〈표 117〉 시도별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195
〈표 118〉 시도별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197
〈표 119〉 시도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198
〈표 120〉 시도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200
〈표 121〉 시도별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201
〈표 122〉 시도별 음주, 흡연 경험	202
〈표 123〉 시도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203
〈표 124〉 시도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205
〈표 125〉 시도별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206
〈표 126〉 시도별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208
〈표 127〉 시도별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209
〈표 128〉 시도별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211
〈표 129〉 시도별 자살 생각 경험	212
〈표 130〉 시도별 자살 시도 경험	214
〈표 131〉 성별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216
〈표 132〉 성별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217
〈표 133〉 성별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218



〈표 134〉 성별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218
〈표 135〉 성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219
〈표 136〉 성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220
〈표 137〉 성별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220
〈표 138〉 성별 음주, 흡연 경험	221
〈표 139〉 성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221
〈표 140〉 성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222
〈표 141〉 성별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222
〈표 142〉 성별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223
〈표 143〉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223
〈표 144〉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224
〈표 145〉 자살 생각 경험	224
〈표 146〉 자살 시도 경험	225
〈표 147〉 학교급별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225
〈표 148〉 학교급별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226
〈표 149〉 학교급별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227
〈표 150〉 학교급별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227
〈표 151〉 학교급별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228
〈표 152〉 학교급별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229
〈표 153〉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230
〈표 154〉 학교급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231
〈표 155〉 학교급별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232
〈표 156〉 학교급별 음주, 흡연 경험	232
〈표 157〉 학교급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233
〈표 158〉 학교급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234
〈표 159〉 학교급별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234
〈표 160〉 학교급별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235



〈표 161〉 학교급별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236
〈표 162〉 학교급별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236
〈표 163〉 학교급별 자살 생각 경험	237
〈표 164〉 학교급별 자살 시도 경험	237
〈표 165〉 학년별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238
〈표 166〉 학년별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239
〈표 167〉 학년별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240
〈표 168〉 학년별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241
〈표 169〉 학년별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242
〈표 170〉 학년별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243
〈표 171〉 학년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244
〈표 172〉 학년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245
〈표 173〉 학년별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246
〈표 174〉 학년별 음주, 흡연 경험	247
〈표 175〉 학년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248
〈표 176〉 학년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249
〈표 177〉 학년별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250
〈표 178〉 학년별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251
〈표 179〉 학년별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252
〈표 180〉 학년별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253
〈표 181〉 학년별 자살 생각 경험	254
〈표 182〉 학년별 자살 시도 경험	255
〈표 183〉 가족형태별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256
〈표 184〉 가족형태별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257
〈표 185〉 가족형태별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258
〈표 186〉 가족형태별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259
〈표 187〉 가족형태별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260



〈표 188〉 가족형태별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261
〈표 189〉 가족형태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262
〈표 190〉 가족형태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263
〈표 191〉 가족형태별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264
〈표 192〉 가족형태별 음주, 흡연 경험	265
〈표 193〉 가족형태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266
〈표 194〉 가족형태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267
〈표 195〉 가족형태별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268
〈표 196〉 가족형태별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269
〈표 197〉 가족형태별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270
〈표 198〉 가족형태별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271
〈표 199〉 가족형태별 자살 생각 경험	272
〈표 200〉 가족형태별 자살 시도 경험	273
〈표 201〉 거주형태별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274
〈표 202〉 거주형태별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275
〈표 203〉 거주형태별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276
〈표 204〉 거주형태별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277
〈표 205〉 거주형태별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278
〈표 206〉 거주형태별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279
〈표 207〉 거주형태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280
〈표 208〉 거주형태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281
〈표 209〉 거주형태별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282
〈표 210〉 거주형태별 음주, 흡연 경험	283
〈표 211〉 거주형태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284
〈표 212〉 거주형태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285
〈표 213〉 거주형태별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286
〈표 214〉 거주형태별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287



〈표 215〉 거주형태별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288
〈표 216〉 거주형태별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289
〈표 217〉 자살 생각 경험	290
〈표 218〉 자살 시도 경험	291
〈표 219〉 가정경제수준별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292
〈표 220〉 가정경제수준별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293
〈표 221〉 가정경제수준별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294
〈표 222〉 가정경제수준별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295
〈표 223〉 가정경제수준별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296
〈표 224〉 가정경제수준별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297
〈표 225〉 가정경제수준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298
〈표 226〉 가정경제수준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299
〈표 227〉 가정경제수준별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300
〈표 228〉 가정경제수준별 음주, 흡연 경험	301
〈표 229〉 가정경제수준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302
〈표 230〉 가정경제수준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303
〈표 231〉 가정경제수준별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304
〈표 232〉 가정경제수준별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305
〈표 233〉 가정경제수준별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306
〈표 234〉 가정경제수준별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307
〈표 235〉 가정경제수준별 자살 생각 경험	307
〈표 236〉 가정경제수준별 자살 시도 경험	308
〈표 237〉 위기수준별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309
〈표 238〉 위기수준별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309
〈표 239〉 위기수준별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310
〈표 240〉 위기수준별 심각한 가출 고려 경험	311
〈표 241〉 위기수준별 심각한 학업중단 고려 경험	311



〈표 242〉 위기수준별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312
〈표 243〉 위기수준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313
〈표 244〉 위기수준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313
〈표 245〉 위기수준별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314
〈표 246〉 위기수준별 음주, 흡연 경험	315
〈표 247〉 위기수준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315
〈표 248〉 위기수준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316
〈표 249〉 위기수준별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317
〈표 250〉 위기수준별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317
〈표 251〉 위기수준별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318
〈표 252〉 위기수준별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318
〈표 253〉 위기수준별 자살 생각 경험	319
〈표 254〉 위기수준별 자살 시도 경험	319
〈표 255〉 가정의 물질적 지원 분포	320
〈표 256〉 가정의 정서적 지원 분포	321
〈표 257〉 가정의 물질적 지원별 위기수준 분포	321
〈표 258〉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위기수준 분포	322
〈표 259〉 위기수준별 가정의 물질적 지원	322
〈표 260〉 위기수준별 가정의 정서적 지원	323
〈표 261〉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324
〈표 262〉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325
〈표 263〉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326
〈표 264〉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326
〈표 265〉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327
〈표 266〉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328
〈표 267〉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329
〈표 268〉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330



〈표 269〉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331
〈표 270〉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음주, 흡연 경험	332
〈표 271〉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333
〈표 272〉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	334
〈표 273〉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335
〈표 274〉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336
〈표 275〉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337
〈표 276〉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337
〈표 277〉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자살 생각 경험	338
〈표 278〉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자살 시도 경험	338
〈표 279〉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339
〈표 280〉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340
〈표 281〉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341
〈표 282〉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342
〈표 283〉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342
〈표 284〉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343
〈표 285〉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344
〈표 286〉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345
〈표 287〉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346
〈표 288〉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음주, 흡연 경험	347
〈표 289〉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348
〈표 290〉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	349
〈표 291〉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350
〈표 292〉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350
〈표 293〉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351
〈표 294〉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352
〈표 295〉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자살 생각 경험	353



〈표 296〉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자살 시도 경험	353
〈표 297〉 헬프콜 인지 분포	354
〈표 298〉 헬프콜 이용경험 분포	355
〈표 299〉 위기수준별 헬프콜 인지여부	355
〈표 300〉 위기수준별 헬프콜 이용경험	356
〈표 301〉 헬프콜 인지자의 위기수준	356
〈표 302〉 헬프콜 이용자의 위기수준	357
〈표 303〉 헬프콜 이용여부별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357
〈표 304〉 헬프콜 이용여부별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358
〈표 305〉 헬프콜 이용여부별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358
〈표 306〉 헬프콜 이용여부별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359
〈표 307〉 헬프콜 이용여부별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359
〈표 308〉 헬프콜 이용여부별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360
〈표 309〉 헬프콜 이용여부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360
〈표 310〉 헬프콜 이용여부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361
〈표 311〉 헬프콜 이용여부별 가스, 본드, 마약 흡입 경험	362
〈표 312〉 헬프콜 이용여부별 음주, 흡연 경험	362
〈표 313〉 헬프콜 이용여부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363
〈표 314〉 헬프콜 이용여부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364
〈표 315〉 헬프콜 이용여부별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험	364
〈표 316〉 헬프콜 이용여부별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365
〈표 317〉 헬프콜 이용여부별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365
〈표 318〉 헬프콜 이용여부별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366
〈표 319〉 헬프콜 이용여부별 자살 생각 경험	366
〈표 320〉 헬프콜 이용여부별 자살 시도 경험	367



그림 I

[그림 1]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CYS-Net)	30
[그림 2] 지역별 진행사례 실적	32
[그림 3] 청소년 동반자 지원체계	34
[그림 4] 가출청소년 예방과 청소년 쉼터 지원체계	35
[그림 5] 1388 청소년 전화 상담 모형	36
[그림 6] 청소년 특별지원 체계	37
[그림 7] 학교안전 통합 시스템 지원체계	39
[그림 8] 두드림존 지원 체계	40
[그림 9]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42
[그림 10] 해밀 지원체계	43
[그림 11] 다중체계치료의 원리	52
[그림 12] 영국 런던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흐름도	62
[그림 13] 커넥션스의 핵심 원리 8가지	65
[그림 14] 독일 위기청소년 처리 흐름도	7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 환경과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청소년으로 인해 청소년문제는 많은 국가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위기상황의 발생도 과거에는 주로 빈곤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학업중단청소년의 증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적응문제, 학교붕괴, 은둔형 외톨이, 자살 등 청소년문제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최근 청소년의 위기 상황이란 과거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발생되거나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가정, 사회, 개인의 특성 등의 복합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청소년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삶을 이끌어 갈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대한 예방과 지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양육과 주된 정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은 물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해야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청소년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보호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와 상호보완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위기상황의 예방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윤철경(2006)은 '위기청소년(at-risk youth)이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직업이나 성인으로서의 삶을 성취해내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결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이라는 OECD의 정의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16.2%(170만 명)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추정하여 위기청소년의 범주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7조)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정에 대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둘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 즉,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청소년,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청소년, 비행청소년, 범죄 가해 및 피해 청소년 등이다.

이와 같이 위기청소년의 범주를 정함에 있어 현재생활상의 보호자의 유무 및 학교적응의 여부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2008년 학업중단 청소년은 53,044명으로 전체학생의 3.46%이고 최근 3년간 2005년 2.87%, 2006년 2.95%, 2007년 3.07%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중·고등학교 학업중단률=유예자, 면제자/당해 연도 입학정원수, 교육인적자원부통계 2008). 학업중단과 연계되어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가출의 경우는 학교의 제도적 보호는 물론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2007년 기준 가출청소년은 12,240명이다. 이외에 보호자원의 부족으로 위기상황에 취약한 중·고등학교 소년·소녀가장은 2,105명이며,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컴퓨터의 연간 이용 인원은 191,914명에 이른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상황에 의해 청소년 범죄자는 165,992명이며 이 중 형법 범죄자는 99,816으로 전체 청소년 범죄자 중 60.1%에 해당한다(통계청, 2007).

이렇듯 현재 청소년문제는 가정요인, 개인요인, 사회요인 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로 위기상황에 있고, 위기청소년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청소년범죄의 증가와 가정의 붕괴 등 사회전체의 문제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있어 청소년기본법(12조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 지원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대한 정책수립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다. 법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위기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 청소년이 처한 위기상황, 위기유형과 수준 등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위기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정책과 지원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실시된 청소년의 위기실태조사는 2006년부터 각 시도별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그리고 2008년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가 되었으나 그 조사 대상이 쉼터나 일시보호소, 청소년지원센터 및 유관기관 이용 청소년, 초·중·고등학교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분석한 요인에도 일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유형, 위기수준, 위기빈도, 위기요인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청소년 위기상황과 약과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실태를 비교하는 데이터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의 범

주를 살펴보고 청소년 정책의 제안 및 수립과 위기청소년 지원현장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위기청소년의 이해를 돕고 개념을 정립한다. 효과적인 정책제안 및 지원을 위해서는 위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생활에 적용 가능한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청소년의 개인, 가족 그리고 학교를 포함한 사회영역으로 구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그리고 위기상황들 간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위기청소년의 파악과 위험요인으로 인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기청소년의 개인, 가족, 사회적인 심리적 그리고 행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외 위기청소년 관련법과 지원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정보와 발전방향을 살펴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위기청소년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와 활용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위기청소년지원관련 법과 지원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실용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본다.

셋째, 16개 시도 청소년의 위기가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위기경험의 실태를 파악한다.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중·고등학교 및 관련시설과 학업중단 청소년 등 약 7만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으로는 위기가능 수준의 분포 및 각 위기요소별 위기수준의 분포를 지역별, 성별, 학교별, 학년별 등 8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신체적 학대경험,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로 시달린 경험, 가출고려 및 시도, 학업중단 고려 등을 위기경험으로 정의하고 이들 각각을 위기수준 및 각 위기요소별 위기수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위험행동, 위험수준, 학대, 가출, 자살, 학업중단 등의 경험 및 잠재적 위기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별 위기상황과 청소년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전략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시스템의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의 수와 주요대상을 설명하고 청소년 중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의 비율과 지역별 위기수준 및 위험요소별 위기수준의 편차 등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부터 매년 16개 시도센터에서 실시된 청소년위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2008년에 실시된 실태조사를 수합하여 분석한 것이다. 기존에 각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분석되어온 것과 달리 2008년 조사결과를 수합하여 전국적인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대한 파악을 통해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발전시키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선정하였다.

첫째, 위기(가능)청소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하였다.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정의 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첫째, 위기청소년은 가정이나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결손가정, 경제적인 문제, 학교폭력 피해, 유해환경 등의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말하고, 둘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힘든 위험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가정과 학교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해 건강한 성장을 위협받고 나아가 문제 행동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위기(가능)청소년(youth at-risk)' 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위기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탈한 청소년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이상현, 윤명성, 2007)

둘째, 위기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위기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

위기청소년이 처하고 있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해 개인요인, 가족요인, 사회요인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위기청소년이 접하게 되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경험하고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위기청소년 문제의 특성인 복합성을 설명하고자 각 요인들 간의 상호연계적인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셋째, 국내외 위기청소년 관련 법 및 지원체계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위기청소년들에게 유기적으로 통합된 종합적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부처들 간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소속이 각기 다른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실

무적 협조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이에 실제 활용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성에 대한 파악을 하고 안정 적인 수행과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또한 외국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넷째,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16개 시도 69,75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수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으로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의 위기가능 수준의 분포 및 각 위기요소별 위기수준의 분포를 (1)16개 시도별, (2)성별, (3)학교급별, (4)학년별, (5)가족형태별, (6)거주형태별, (7)지각된 가정경제 수준별, (8)지각된 가정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원 수준 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1)신체적 학대 경험, (2)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로 시달린 경험, (3)가출고려 및 시도, (4)학업중단 고려, (5)자퇴경고 및 퇴학 통보 경험, (6)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 (7)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8)음주 및 흡연 경험, (9)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및 일상장애 경험, (10)물품을 훔치거나 갈취한 경험, (11)성폭력(성희롱) 경험, (12)성매매 유혹 경험, (13)자살 생각 및 시도 경험 등을 위기경험으로 정의하고, 이들 각각을 위기 수준 및 각 위기요소별 위기수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가족복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16개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1388 청소년 전화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분석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주요 문제점과 분석내용을 토대로 고위험 청소년 규모 추정, 가정 및 또래 요인의 심각성, 가정 및 또래 요인에 대한 조기개입의 중요성, 자살 및 인터넷 중독 문제의 심각성, 지역적 특성에 따른 고위험군의 발현 빈도 차이 등에 대한 문제해결방안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여섯째, 이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 및 그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및 개입프로그램 마련, 중첩적인 개입망의 필요,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 필요, 자살 예방 및 인터넷 관련 문제에 대한 개입방안 재검토 필요, 지역별 청소년 및 유해 환경에 대한 검토 및 지역별 특화된 개입모델 개발 필요,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와 같은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위기청소년의 개념

위기(가능)청소년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교육 수월성 추구를 위한 국가위원회보고서가 중도에 학업을 그만 둘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류진아, 2007).

위기란 인간의 항상성 체계들을 압도하는 불균형 상태의 기간으로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평온한 상태가 어떤 위기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나 사건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청소년대화의 광장, 1997)한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상태의 안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세의 급격한 변화 또는 어떤 사상의 결정적이고도 중대한 단계'로도 본다.

청소년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중요한 성장단계에 있으며 자신이 속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 그리고 청소년은 위기의 사전적 의미와 같이 학교, 가정, 또래, 환경요인 등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쉽게 영향을 받는 시기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위기의 단계로 볼 수 있다.

Jeffries 등(2004)은 위기(At-Risk)를 '현재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을 때 미래에는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 이라고 정의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없다면 사회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된 위험요소를 키워나가는 일일 것이며 개인적으로도 독립적인 성인으로 정상적인 삶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은경 등(2006)은 현재는 파괴적 행동을 보이지는 않지만 가정과 학교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돌봄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출, 학업이나 훈련의 중단, 신체장애, 폭력이나 성매매 등의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위기(가능)청소년이라고 정의하였고 유성경(2000)은 위기청소년이 위기상태에 이르는 데에는 학교뿐 아니라 만성적인 가정불화, 부모의 이혼, 자녀에 대한 낮은 관여 등의 가족 요인, 또래의 비행 여부,

또래와의 관계 문제 등의 또래요인, 물리적으로 낙후된 환경, 범죄 관련 환경, 낮은 사회적 유대감 등의 지역사회요인이 관여되며, 청소년 개인의 정신 건강 및 낮은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위기청소년이란 영국에서는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으로 보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대상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보호시설청소년, 가출청소년”으로 보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대상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보호시설청소년, 가출청소년, 미혼모나 임신학생을 지칭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위기청소년’이라 함은 중학교 중퇴자, 고등학교 미진학자, 직업교육훈련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 직업교육 중퇴자, 실업청소년 등을 의미하며, 노르웨이 역시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교육과 직업적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14-2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윤철경, 2005). 그리고 OECD(1995)에서는 ‘위기청소년이란 학교에서 실패하고 성공적으로 직업이나 독립적인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결과 사회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지승희, 2006).

이상의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살펴보면 첫째, 위기청소년은 가정이나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결손가정, 경제적인 문제, 학교폭력 피해, 유해환경 등의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말하고, 둘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힘든 위험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아울러 최근 정부는 가정과 학교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해 건강한 성장을 위협받고 나아가 문제 행동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위기(가능)청소년(youth at-risk)’ 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위기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탈한 청소년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이상현, 윤명성, 2007)

2. 위기청소년의 특성

가. 위험요인

최근의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이 위기상태에 이르는 요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청소년 개인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즉 가정, 또래, 학교 등에 초점을 둔

원인적 접근을 사용하고 있다. 위험요인에 대해 Garmezy(1990)는 일반집단의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청소년이 어떤 정서적, 행동적 장애를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인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여기에는 개인의 특성과 가족, 학교 및 또래, 지역사회 또는 이들 요인간의 상호작용이 포함될 수 있다(Smith and Carlson, 1997)고 하였다. 또한 Pollard, Hawkins와 Arthur(1999) 등은 한 개인이 타인에 비해 발달상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평균적으로 높은 특성이나 변인을 위험요인이라고 하였다. 즉 위험요인이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인 환경 중에서 발달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양종국, 2002).

또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유성경, 이소래, 2001; 지승희, 2006 등)은 위험요인 모델에 관심을 두고 청소년위기를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이 무엇인가를 주로 밝혀왔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주로 개인특성, 가족요인, 학교 및 지역사회요인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개인적 위험요인으로는 감각적, 충동적 성향, 문제행동, 신체적 특징, 불안 등으로, 가정적인 위험요인으로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 가족갈등,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허용적 태도 등으로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회 요인으로 낮은 학업 성취도, 부모의 낮은 참여, 약물과 알코올의 사용가능성, 교사의지지, 학교성적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권지은, 1998; 박현선, 1998; 유성경, 2000, sharp, 2001; Butcher, 2000).

위기와 관련한 청소년 개인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면, 유성경 등(2000)의 개관에서는 정신건강 문제, 낮은 자존감 및 학습동기 등을 포함한 심리적 문제, 비행 등이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Connexions 프로그램에서도 약물, 성, 가출, 폭력 등의 품행문제와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신건강 상의 문제, 낮은 자존감 및 동기 부족과 같은 심리적 문제 그리고 학습장애 및 부진과 같은 학습문제 등을 개인의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은 대개 청소년기의 상황적(situational) 및 발달적(developmental) 위기(crisis)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상황적 위기란 예상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위기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 외상적 스트레스 사건이나 정신과적 장애 등에 의해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발달적 위기란 성장의 한 부분으로 발생하는 위기로 임신과 같은 심리적 문제, 삶의 의미 상실, 공허감,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 갈등과 같이 성숙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성장과정상의 문제 등에 의해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적 그리고 발달적 위기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

응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것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앞서 열거한 위기요인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위기와 관련한 청소년 가족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정신건강관련 요인연구(한국청소년상담원, 2005)’에서는 가족관계 문제, 가정생활 만족도, 가족관계의 질, 자아존중감, 부모-자녀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의 정서적 지지, 부모의 정서적 지지 등이 위험요인으로 보고되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구조적 결손, 가정불화, 비합리적인 양육태도, 부적절한 리모델링, 가족 갈등적 위험, 가족의 의료적 위험, 부모의 교육수준, 과잉기대(김장대, 1998; 박현선, 1998; 유성경; 2000)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관련 위험요인은 아동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긍정적 사고 등에 영향을 주어 학교부적응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반면에 학교 내의 교사 및 또래 그리고 학업 등에 대한 문제로 학교부적응의 문제가 발생되어도 가족 내, 특히 부모의 관심과 지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적응을 돕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에 청소년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위기와 관련한 학교 및 지역사회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면, 거주환경이나 사회경제적 상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요인으로 청소년기 학교생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성경등(2000)이나 구본용 등(2005)에 의한 청소년들이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는데 관련되는 요소들을 개관한 결과에 따르면, 가정 관련 요인으로 만성적인 가정불화, 부모의 이혼, 비일관적인 양육태도, 문제행동에 대한 허용적 태도, 자녀에 대한 낮은 관여 등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결손과 가난으로 대표되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있으며, 학교 관련 요인으로는 낮은 학업성적, 교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 학교에서의 낮은 지지, 소외감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요인으로는 물리적으로 낙후된 환경, 범죄관련 환경, 낮은 사회적 유대감 등이 있으며, 또래 관련 요인으로 또래의 비행여부, 또래와의 관계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위기청소년의 보호요인

보호요인은 아동 및 청소년의 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들로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여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변인이다(정재희, 안지현, 유성경·심혜원, 2002). 이러한 보호요인을 강화시켜주고 제공해주는 것은 문제 상황의 예방은 물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독립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지원이다. Butcher(2000)도 청소년들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서 보호요인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양종국, 2002).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보호요인을 구분한다면 크게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 복지제도요인 등으로 나뉘게 된다(유성경, 2002; 구본용, 유제민, 2003; 안지현, 2007; 정재희, 2009 등). 모든 선행연구에서 공통된 것은 개인요인과 가족요인이고 그 외 지역사회요인, 학교요인, 사회복지제도요인 등을 사회요인으로 보고 각 보호요인에 대한 기능을 살펴보고자한다.

1) 개인요인

위기청소년의 보호요인으로서 개인요인이라 함은 위기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개인 정서 및 심리적 요인과 유능감 등을 말한다(김정민, 2001; 유성경, 2002; 구본용, 유제민, 2003등). 개인요인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긍정적 가치관, 긍정적 자기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유능감, 사회적 유능감이 보호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권지은, 1998; 박현선, 1998; 유성경, 2000; 이해령, 2004). 이러한 요인들은 비행을 유발하는 충동과 불안 등의 상황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리고 준법정신과 책임감을 발달시켜 비행을 억제하는 능력을 키워나가게 한다. 특히 위기청소년의 경우 불안정한 가정환경, 학교부적응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이창식, 2007; 이상현, 2007)가정 및 학교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자신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충분히 적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위기청소년에게 있어 자존감은 개인 발달 및 사회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인식을 통해 다른 개인요인의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다.

2) 가족요인

위기청소년의 비행의 원인이 되는 주요 원인인 학업중단의 경우 가장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지지집단으로서의 역할을 들 수 있다. 물론 가족은 지지집단이전에 청소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일차적 환경이며 건강한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부모의 지지는 학업중단 및 비행을 방지하는 주요 보호요인이다. 선행연구에서도 가족 보호요인으로 원만한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지, 양육태도 등을 주요 보호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구본용·유제민, 2003). 그리고 구조적 결혼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호적이지 못하며 신뢰성이 부족하며 열등감과 무기력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김성이, 1992; 이관희, 1998; 김광수·김영진, 2003; 신은정, 2004). 하지만 권지은(1999)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구조적인 결혼보다는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가족분위기, 가족갈등과 같은 가족의 기능적인 역할이 비행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어 가족의 지지와 관계방식이 위기청소년의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가정 내의 보호요인인 가족 환경 및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과 부모의 지지체계로서 애정과 안위를 제공하고 온화한 자녀 양육방식이 사회적응력을 높여주며 긍정적인 성격형성을 도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비행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일탈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가정 내의 보호요인 중 특히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학습관여는 학교적응에 도움이 되며 개인적 위험요인과 가족관련 위험요인으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줄이 역할을 하는 보호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이애령, 2004; 김정, 2004)

또한 박현선(1998)과 Mena(1987)의 연구에서도 유능하고 애정적이며, 자녀와 부모가 가치를 공유하며, 부모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 적절한 가족 내의 의사소통, 가족응집력과 뚜렷한 역할 규정과 같은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발달시켜 위기유연성 대한 전반적인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David(2000)는 가족응집력과 같은 부모-자녀간의 높은 유대감은 청소년의 성격형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녀는 애정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으로 공격적 행동, 자기 비하, 무관심등의 성격을 형성하여 목적을 이루고자한다(박준학, 2004).

결론적으로 부모의 정서적인 성숙과 안정된 태도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에 정

서적·성격적 안정을 주게 되어 학교생활은 물론 또래관계에서도 유능함을 보이고 긍정적인 자아에 대한 경험을 갖게 되어 삶의 전반적인 위기상황으로부터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3) 사회요인

청소년기에 위기상황에 영향을 주는 사회요인으로서의 보호요인으로는 가장 먼저 학교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또래관계 그리고 지역 사회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가족 이외에 친구나 동료로 불리는 또래집단과 가장 많이 상호작용을 주고받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 중에서 친구의 지지는 학교에서 받게 되는 학업 및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집단과의 관계 등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또래관계의 경우 청소년기에 또래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 즉 또래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적어도 한 사람 이상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Garmezy, 1971; Wemer, 1990). 그리고 친구보호요인 중 가장 많이 다루는 친구지지는 자신을 이해해주거나 도움을 받을 친구가 많을 때 비행억제의 개연성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어(윤진, 1990; 김성이, 1997; 김장대, 1998; 박현선, 1998; 이애령, 2003; 서정아, 2005) 위기청소년의 보호요인으로서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집단스포츠 활동, 학교, 종교, 지역사회조직의 운동팀과 같은 특정집단의 활동과 같은 청소년들의 단체 활동 참여는 위험행동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경우 부정적 또래압력이나 또래규준의 영향을 더 적게 받으며, 성인의 감시 없이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파생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 단체 활동 참여도에 따른 청소년비행은 전체비행, 비사회적 비행, 반사회적 비행 모두에 있어서 단체 활동 참여도가 낮을수록 비행수준이 높다고 하였다(Voydanoff & Donnelly, 1999; 유지은, 2000; 한상철, 2001).

다음으로 보호요인으로서 지역사회요인은 지역 내의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및 종교단체 그리고 후견인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자원은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안정은 물론 신체적 발달과정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복지지원은 물론 위기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도록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최윤정, 2004).

학교요인의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고 청소년의 성장에 중요한 지적·정서적·신체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러므로 학교에 대한 낮은 소속감은 비행과 위험행동에 대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지승희, 2002).

학업중단을 한 청소년의 경우 대다수가 비행을 저지르게 되고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학교적응이란 위험요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서울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2001)가 서울시내 중고생 1,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3.5%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65.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보고하여 상당수의 학생들이 잠재적으로 학업중단욕구를 가지고 있어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표 I>과 같이 지난 3년간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 입학정원 대비 학업중단자 비율 (단위:%)

연도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2008년 (2007.03.01 - 2008.02.29)	2.97	2.27	9.88
2007년 (2006.03.01 - 2007.02.28)	2.79	1.88	8.64
2006년 (2005.03.01 - 2006.02.28)	2.27	2.28	7.29
2005년 (2004.03.01 - 2005.02.28)	2.01	2.12	7.97

자료 : 통계청 2009 재구성

이렇게 증가하는 학업중단청소년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학업중단청소년이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학업중퇴를 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Carter, 1998; Dupper, 1993; Ziesemer, 1984; 송복 외, 1996). 우리나라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범죄율은 1981년 이후 증가추세로 10명 중 3명 이상이 범죄에 연루될 정도로 학업중단과 사회적 비행과의 연관성도 증대되고 있다(조영숙, 2007).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가족, 또

래, 학교 및 사회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권현지, 1997; 금명자, 2005; 정지인, 1997; Rumberger, 1987, 김경식, 1997b; 박영숙, 1999; Walker, 1998;). 특히 유교주의 의식이 강한 한국은 학업중단청소년이 있는 가정의 경우 부모들의 자녀지도에 대한 자신감 상실, 부모 및 자녀간의 관계 악화 등 가족전체의 스트레스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는 등 사회전체의 문제로 확대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는 학교의 제도적 장치, 교사의 지지, 학업육구, 민주적 학교분위기 등을 보호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 중 가장 많이 다루고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지지이다(권지원, 1998; 박현선, 1998; 유성경, 2000; 지승희, 2003; 서정아, 2005; 이석형, 2006).

다시 말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증가는 범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범죄로 인한 사회비용과 복지비용의 증가는 물론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는 등 그 파급이 크다.

다. 위기상황들 간의 연계성

청소년 자신의 상황적 요구 및 발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개인적 특성, 가정의 양육능력, 그리고 학교 및 기타 환경적 요소 중 어느 하나에서의 결핍 또는 둘이상의 결핍에서 위기청소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상황적 요구란 청소년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적 그리고 발달적 위기 해소의 필요성을 말하며, 발달적 필요란 청소년이 사회에 공헌하는 성인으로 성장발달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및 태도의 습득 필요성을 말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가 가정, 학교 및 기타 환경적 제재가 제공하는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보호·교육 기능에 의해 적절히 지원받지 못하면 청소년은 점차 문제행동의 빈도와 정도를 증가시켜 가게 되고 그 결과로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와 관련하여 윤철경(2006)은 개인적 위기상황, 가족적 위기상황, 교육적 위기상황, 그리고 사회적 위기상황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네 가지 위기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경우 위기청소년은 한 가지 문제보다는 몇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며, 위기청소년

이 처해있는 위기상황은 여러 문제들의 조합 결과로 파악될 것이다. 이 경우 청소년이 처한 위기상황은 다음 4가지 유형 중의 하나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는 윤철경(2006)의 분류와 같이 청소년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의 위기상황 내에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위기상황 내에 있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위기상황 내에 있는 경우이며, 네 번째는 세 가지 모두의 위기상황에 연관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위기상황들의 조합에 위한 위기청소년 분류는 청소년들이 어느 한 가지 이상의 복수의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또한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문제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말하자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다른 문제에 관련되기가 더 쉬우며,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제 3의 문제를 연쇄적으로 파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개입은 어느 한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처한 복수의 위험요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라.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위기청소년은 가정, 학교, 동료관계, 개인심리적 문제, 지역사회문제 등에서 심리적으로 그리고 행동적으로 경험하고 반응하게 되는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위험요소를 경험하게 되는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자기에 대한 만족 및 수용정도가 낮아 자신이 못나고 열등하며, 쓸모없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고 자신의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또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충분히 경험하거나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자신이나 환경에 대해 무관심한 듯이 보이는데 이는 반복된 욕구좌절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무시하거나 때로는 감정이나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이정희, 1998). 이와 같은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의 원인은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청소년에 비해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의 경우 가정환경에 있어서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부모와의 갈등이 많다. 또한 학교환경에서는 교우관

계가 좋지 않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가 사회화(socialization)가 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class)를 결정짓게 되고, 가정의 구성원과 그 형성과정은 개인적인 인격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이상현2007).

이상현(2007)의 연구에서도 위기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이고 일반청소년에 비해 가정생활 만족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며 부모로부터 폭행을 많이 당하기도하고 부모와의 갈등이 많다고 하였다. 이는 김현식(2000)의 연구에서처럼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낮으며 부모와의 동일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가족 내에서 형성되는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은 유성경 등(2000)이나 구본용 등(2002)의 학업중단에 대한 요소를 설명한 것에 잘 드러나 있다. 학업중단청소년의 가정적 특성을 살펴보면 만성적인 가정불화, 부모의 이혼, 비밀관적인 양육태도, 문제행동에 대한 허용적 태도, 자녀에 대한 낮은 관여 등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결손과 빈곤으로 인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중단을 하는 위기청소년을 유발하는 큰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은 부정적인 부모와의 관계 형성과 낮은 의사소통수준을 초래하며 결국에는 청소년의 개인정서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학교 내에서도 교사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결국에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또한 낮게 나타나게 되어 학업중단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살펴보면 위기청소년의 경우 전반적인 삶의 장면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결국 자아에 대해 부정적이 자아개념과 낮은 자존감이 위험요인을 형성하고 위기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유종관(1996)의 연구에서도 비행청소년집단은 일반청소년집단에 비해서 자기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즉 자존심이 유의하게 낮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욕구나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자기통제력이 약하고 자기 능력의 마음에 대한 자각 등 요구수준이 낮을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김영희(2002)의 연구에서도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자부심과 자존심, 자기 통제 그리고 자기신뢰감이 유의하게 높게나왔다. 그러므로 위기청소년에게 있어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인식인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존감이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신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되는 것이며, 자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신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되는 것이며, 자기를 존경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Decay, J. & Kenny, M. 1996). 또한 자존감에 대해 Beanden(1969)은 인간의 기본욕구로서 이 욕구의 충족여부는 생사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며 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알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존감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자존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Brook(1994)은 자존감은 자신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값진 성취를 이루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통제해 나아가고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에 직면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서 나아가며, 자기규율을 발달시키고, 성공과 실패경험 모두에게서 무언가 값진 교훈을 얻고 자신과 타인을 모두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루는 것 등으로 정의하여 위기청소년에게 있어 꼭 필요한 심리적으로 인입을 시사하고 있다.

자존감은 청소년이 사회관을 형성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인 가정에서부터 형성되며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위기청소년의 경우 학교현장에서 가정에서 학습된 사회성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교우관계의 문제와 무기력하고 충동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학교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김영희(2002)의 연구에서 위기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보다 사회적 성숙도가 낮고 정서적 부적응 상태에서 신경질적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국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과 사회경험을 하게 되는 학교에서의 부적응은 위기청소년으로 하여금 더욱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학업중단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청소년비행으로 유도되는 순환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은 다양한지만 이들 요인은 상호 복합적이며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위기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순환적 구조로 인해 위기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 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거나 문제초기에 효율적인 지원이 없다면 결국 복합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 위기청소년의 행동적 특성

위기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의 주된 생활공간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일반학생과 다른 상황에 대한 행동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행동특성의 원인을 살펴보면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자신의 욕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억압되어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김진익외, 1997)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주변의 민감한 자극 및 갈등에 대해서 스스로의 감정조절 능력이 부족해 비행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한동주, 2006). 또한 위기청소년의 대부분이 갖게 되는 낮은 자존감은 열등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긍정적인 정체감을 유지하기 위해, 손상된 자아감을 보상하기 위한 단으로 비행행위를 하며 우월감을 표현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른다. 즉 높은 자긍심이 위협을 받을 때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유희정, 1999 재인용). 이처럼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평가와 인정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비행을 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정, 대인관계, 학교생활에서 위기청소년의 행동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1) 가정

위기청소년의 발생원인과 해결방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은 가족요인이다. 위기청소년의 가족 관계에서의 행동적 특성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동일시의 대상인 건강한 부모역할의 부재로 인해 정서적인 불안을 보이고 가출, 품행장애, 폐륜, 병리적인 애착장애행동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위기청소년이 학교와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선택하는 대표적인 것이 가출이다. 이와 같이 가출은 위기청소년의 개인요인으로 인해 발생되기 보다는 가족요인이나 학교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해결방법이다. 윤옥현(2007)의 연구에서 가출청소년들의 가정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가출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의 이유에 대해서도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불화, 부모의 무관심과 지나친 간섭이 중요한 이유로 보고되었다. 즉, 위기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대화를 하지 않고 부모와 갈등을 느끼며, 가족과의 여가생활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2) 대인관계

위기청소년들의 경우는 부모의 지나친 엄격함과 처벌적인 훈육으로 권위적인 인물에 대해 무조건적인 불신과 반항을 한다(김진숙 외, 1997). Weiner(1992)의 연구에서도 비행청소년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박탈당하거나, 부모 또는 의미 있는 타자를 상실한 경험으로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였다(이화련, 2007 재인용)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이혼가정, 조손가정, 해체가정 등 구조적 결손가정에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 구조적 결손가정 청소년은 일반 가정 청소년보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다(김성이, 1992). 그리고 구조적 결손가정의 아동이 정상가정 아동보다 대인관계 신뢰성이 부족하며, 애정이 결핍되어 있다(박혜경, 2001).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위기청소년은 주로 접하게 되는 또래집단이나 교사 등과 긍정적인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Glueck(1974)에 의하면 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에 비해서 반항적이며 타인에 대해서 적개심과 의심을 가지며 이것으로 인해 파괴성 또는 파괴적 경향, 정서 이변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영희, 2002 재인용). 이와 같은 요인들은 위기청소년의 비행 생활을 통제,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박진영, 2000) 자기를 무가치한 인물로 보며, 종종 불안을 느끼고 불행스럽게 느껴 대인관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난점을 보이기도 한다(김성미, 2002). 이와 같이 위기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는 개인특성에 기인하고 그 원인을 가정에서 찾고 해결하려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종숙(000)의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주변 친구들의 폭력행동이 가장 높기 때문에 위기청소년의 친한 친구 역시 위기청소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영희(2002)의 연구에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근접성과 호혜성이 높게나와 교우관계를 통하여 함께 다니며 고통이나 비밀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여 위기청소년의 지원 및 선도를 위해서는 당사자 뿐 만 아니라 주변 교우들도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이 위기청소년의 위험행동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일반청소년에 비해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학교생활

위기청소년의 경우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성장과정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과 무기력 및 즉흥적인 행동으로 인해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최중숙, 2002) 일반청소년에 비해 교사로부터 체벌을 많이 당하고 교우관계가 좋지 않으며 학교생활에 만족도가 낮다(이상현, 2007). 또한 고기홍(2003)은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의 80%가 이미 학업중단 시점에서 비행을 저지른다고 하였고 장석민(1997)은 비행청소년이 학업중단 후 98%정도가 비행을 계속하거나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여 위기청소년의 학업중단과 비행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Masten과 Coatsworth 또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중 아동, 청소년 발달의 가장 강력한 사회적 문맥의 하나는 학교이며, 학업성취와 학교로부터 탈락되느냐 아니냐가 이러한 발달적 맥락의 적용에서 개인의 성공을 재는 잣대가 된다고 하였으며,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통제이론에 의하면 청소년이 학교에 대한 유대적 관계가 약할 때 비행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른 후 중퇴, 퇴학, 징계처분 등으로 학교에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교사의 지지가 결여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며, 이들 가운데 학교에 복귀하는 비율이 아주 낮고, 상당수가 비행 등과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비행의 정도가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그 수가 적다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중단하기 전보다 비행을 2배 이상 경험하며, 학업중단자의 약 30%가 범법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은, 1998; 윤영선, 2000; 홍은애 외, 2000; 강용진, 2003 재인용).

이와 같이 비행과 강한 연계성을 가진 학업중단에 대해 유성경 등(2000)이나 구본용 등(2002)의 연구에서는 학업중단의 위험요인으로 낮은 학업성적, 교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 학교에서의 낮은 지지, 소외감 등을 지적하였다. 김선남(1994)의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의 경우 소외감을 갖고 있으며 이는 폭력유발, 교사지시 불응, 폭력조직 가입, 학업중단 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특히 수감 중인 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소외감 고립감, 무력감을 많이 보였다. 그리고 성비행의 발생과정에도 사람들로부터의 거부에 대한 예측이 고립감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성비행과 연결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소외감을 경험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지지집단은 보호요인이 될 수 있으며 주요 지지집단으로는 부모와 교사 그리고 또래집단

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학업중단의 경우 지지집단의 유무는 학교적응에 큰 영향을 준다.

4) 비행성향

비행성향은 비행친구를 사귀는 것과 비행에 관련된 성격, 정서적 특성, 또는 비행과 관련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유희정1999).

청소년기는 사회성 발달과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집단행동을 추구하게 되는 시기이다. 위기청소년의 경우 주변 친구들도 위기청소년일 경우가 많듯이 주변동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행하여지는 비행의 경우도 공범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의 가출의 경우 실제로 모든 청소년들은 가출충동을 느끼고 있으며 부모의 속박과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데 이러한 욕망을 실제 현실로 옮기는 행위가 청소년의 가출이다(김향초, 2001). 그리고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 및 가정 등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은 충동에서 가출을 택하게 된다. 가출을 하게 되는 경우 자포자기의 형태나 도피의 일환으로 가출을 하면서 학업의 지속성은 더 이상 큰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가출은 청소년 비행의 대표적인 비행행위로 동료집단에 대한 애착이라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불안정한 가족관계로 인한 대표적인 비행성향이라고 하겠다. 가출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 동료집단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절도나 폭행 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위기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소외감이 증가함에 따라 과격하고 극단적인 비행형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한상철, 1999). 이러한 비행성향을 유발하는 공격성과 충동성은 비행유발의 직간접적인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과의 관계방식과 낮은 자존감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부모의 적절치 못한 양육 방식이나 갈등과 긴장을 초래하는 가족구조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유발하는 성격을 형성하거나 비행 문화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들은 실험적 비행을 하게 된다. 이런 실험적 비행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이나 훈육이 없다면 청소년은 비행 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비행을 통해 얻게 되는 만족감이 비행을 지속시키는 강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의 비행이 고착화 된다(김진희 외, 1995).

3. 국내 위기청소년 관련법 및 지원체계

가. 국내 위기 청소년 관련 지원 법률

청소년 관련 지원 법률은 크게 청소년 관련 개별법으로 직접적인 규제로 존재하는 법률과 기타 법률에 일부 조항으로 포함되어 간접적인 규제를 하는 법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 관련 법률은 총 80여 가지 이상이 있다. 이중청소년 관련 개별법으로 위기 청소년 관련 직접적인 규제를 하는 법률로는 크게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아동 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5가지가 있으며 기타 법률에 일부 조항으로 간접적인 규제를 하는 위기청소년 관련 법률은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활동 진흥법,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11가지가 있다.

1) 위기 청소년 관련 개별법

가) 청소년 기본법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제3조 1항).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5항).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설립한 한국청소년상담원(제42조 1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청소년상담 관련정책의 연구개발
- ② 청소년 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 자료의 제작·보급
- ③ 청소년 상담사업의 시범운영

- ④ 상담인력의 양성 및 연수
- ⑤ 청소년 상담기관 상호간의 연계 및 지원
- ⑥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기관의 청소년상담·위기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⑦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정립과 부모교육
- ⑧ 학업중단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⑨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상담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한 상담원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교육·연구를 보다 과학적·실증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제42조 2항)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둘 수 있다(제42조 3항).

즉, 이 법률은 사회 속에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이나 발달을 위한 권리와 책임을 보장해주는 것을 강조한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청소년 보호법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 이 법을 근거로 청소년폭력·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청소년보호센터를 둘 수 있으며(제33조의2 1항) 청소년보호센터에는 피해를 당한 청소년에게 법률상담, 소송 업무 대행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를 둘 수 있다(제33조의2 2항). 또한 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가해청소년 및 약물로부터 고통을 받는 청소년의 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청소년재활센터를 둘 수 있다(제33조의2 3항). 그리고 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행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제지·선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안 때,

또는 청소년폭력·학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안 때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등에 신고·고발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제4조의 1항). 또한, 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안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제5조 1항).

즉, 이 법률은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신체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을 제외한 청소년을 특별지원청소년(제2조 3항)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강구해야한다(제12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하여야 하며(제13조 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는 청소년기본법 제42조,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설치된 한국청소년상담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청소년상담원·기관은 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3조 2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제14조 1항) 청소년쉼터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4조 2항). 또한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4조 3항).

즉, 이 법률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지원하여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제4조 1항). 또한 국가는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제31조의 상담시설로 하여금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 25조). 대상 아동, 청소년의 보호시설에 관해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 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 2의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제30조)등에서는 대상 아동,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제30조 1항)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대상아동, 청소년의 다른 기관과 연계 및 위탁(제30조 2항)을 할 수 있다.

즉,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마) 아동 복지법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제2조 1항)하여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범위를 포괄한다. 이 법의 제2조 2항에서 말하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기 청소년이라 볼 수 있으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제2조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제14조 1항)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기관의 종류와 업무는 다음과 같다(제16조 1항).

①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 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④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⑤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⑥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⑦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⑧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⑨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⑩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⑪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또한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 업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제12조 3항).

- ① 아동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 ② 아동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 ③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 ④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 ⑤ 공동생활 가정 사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⑥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다(제4조 2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제4조 3항)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제4조 4항).

즉, 이 법률은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 내 폭력을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나. 국내법 논의 및 시사점

국내 청소년 관련 법률 중 위기청소년에 관련된 직접적인 법률 조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아동 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으로 축약하여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의 특징은 위기청소년들 문제의 예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청소년 기본법은 사회 속에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이나 발달을 위한 권리와 책임을 보장해주는 것을 강조한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육성, 활동, 복지, 보호, 시설, 단체 등 청소년들을 위한 전반적인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 명시하였으나, 현행 법률을 보면 이러한 책임의 한계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에 따른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신체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물 및 약물 등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위기청소년들에 관한 조직적인 보호(전달)체계가 미비하여 이에 따른 규정이 따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 복지지원법 및 아동복지법은 아동·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지원하여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주로 상담, 교육, 직업훈련과 관련되어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으며, 아동복지법은 실질적 보호대상이 가정에서 학대, 방임 또는 폭력을 당하는 청소년들로 한정되어 있어서 지원 또한 주로 양육, 보호, 치료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복지를 통합 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덧붙여 '특별지원청소년'과 같이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정의 및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넷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피해 청소년과 동시에 가해아동·청소년 또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피해 및 가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확립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 내 폭력을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으나 예방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교 내 폭력을 다룰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법이나 제도가 직접적인 청소년 관련 개별법이나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타 법률의 일부 조항들이 있으나 이렇게 수십여 가지가 넘는 직·간접적 법률로 인하여 위기지원체계에 있어 중복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을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단체나 민간 기업이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 국내의 위기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1)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는 시·도, 시·군·구 등 일정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관련기관 및 시설들이 각자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서비스 및 활동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정상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가장,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청소년 안전 시스템이다.

가) 사업 목적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에게 적시에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에 의해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는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중추적 역할 모델 제시하고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문화 조성하여 청소년이 만족하는 다차원적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 시도 : 16개
- 시·군·구 : 총 65개 (시 44개, 구 18개, 군 3개)

〈표 2〉 2008년 CYS-Net 운영지역

시도	시·군·구	
서울	수서, 목동, 문래, 중랑, 금천, 서대문, 노원, (성동, 창동)*	
부산	종합지원센터	진구, 영도구, 금정구, 북구
대구		
광주		
인천	연수구, 계양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북구	
강원도	원주, 강릉, 영월, 철원, 속초	
경기도	성남, 안양, 안산, 화성, 고양, 의정부, 광주, 오산, 구리, 포천, 평택	
충청북도	제천, 청주, 충주	
충청남도	보령, 홍성, 아산, 천안, 공주	
전라북도	임실	
전라남도	목포, 여수, 나주, 해남	
경상북도	영주, 구미, 영천, 포항, 경산, 문경, 경주	
경상남도	마산,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거제, 사천, 통영, 진해, 밀양	
제주도	서귀포	

- 진하계 : 2006년 신규 운영 지역
- 진하계 밑줄 : 2008년 신규 운영지역

마) CYS-Net 지원 실적(2008년 11월 30일까지 실적)

1) 위기청소년 지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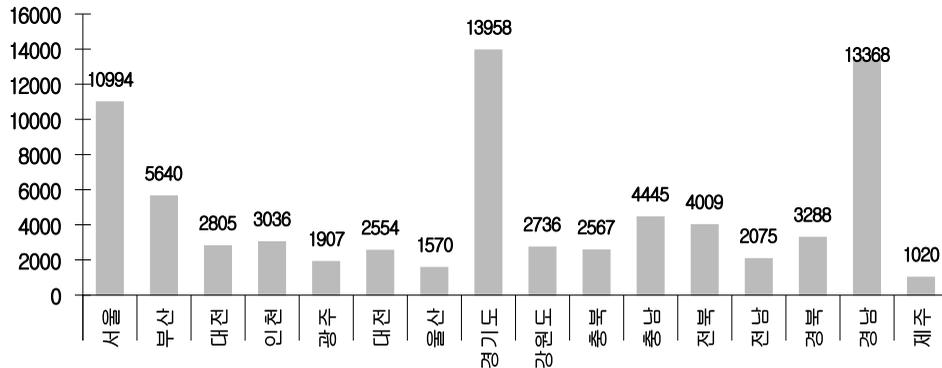
2008년 1월부터 11월까지 CYS-Net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청소년 수는 75,972명(실인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130% 증가하였다. 신규

등록 사례수는 2007년 54,148명에서 2008년 71,356명으로 132% 증가하였다. 종결 사례수는 11월까지의 실적으로 36,612명이다.

〈표 3〉 2007년 2008년 진행-신규-종결 사례수(명)

	구분	남	여	합계
2007년 (1월~12월)	진행사례수	28,514	29,742	58,256
	신규사례수	26,416	27,732	54,148
	종결사례수	24,114	27,480	51,594
2008년 (1월~11월)	진행사례수	38,406	37,566	75,972
	신규사례수	36,111	35,245	71,356
	종결사례수	18,813	17,799	36,612

지역별 진행사례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75,972명 중 경기도 13,958명(18.4%), 경남 13,368명(17.6%), 서울 10,994명(18.5%) 순으로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지역별 진행사례 실적

CYS-Net에서 지원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의 위기위험정도를 분석한 결과, 대상 청소년의 31.1%의 청소년이 고위험군 청소년이었고, 9.5%의 청소년이 중위험군, 59.4%가 저위험군 청소년이었다.

〈표 4〉 CYS-Net 지원 대상 청소년의 위기수준 분포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21,555	22,931	44,486	3,838	3,298	7,136	12,511	10,779	23,290

2) 청소년 동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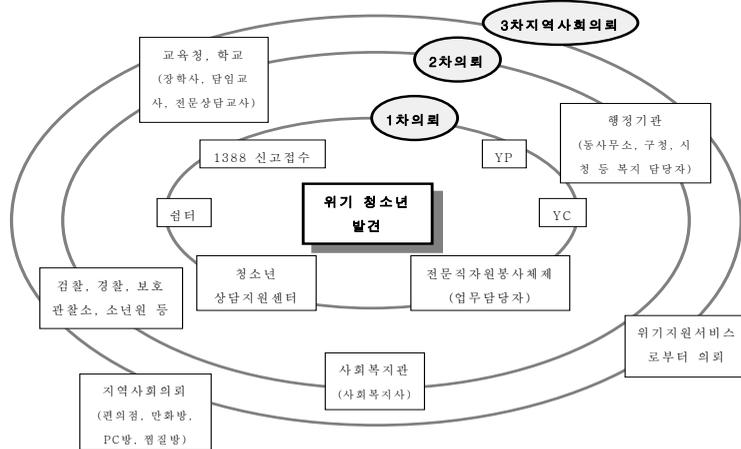
가) 사업목적

위기 청소년들 및 일반의 문제를 바로잡고 지원해 주기 위해 청소년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가 청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일대일의 관계를 맺고, 정서적 지지, 심리상담, 지역자원 연계 등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원대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한다. 그러나 주요 대상은 현재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으나, 변화가능성도 또한 높은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다. 청소년동반자들이 다루는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는 성, 도박, 약물 등의 비행 관련 문제, 왕따, 집단 폭력, 가출, 무단결석 등의 학교부적응 관련 문제, 자살, 자해,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로 특히 이들이 여러 영역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경우(예, 가정, 학교, 또래관계, 지역 사회에 걸친 다영역의 문제)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한다.

다) 지원체계



[그림 3] 청소년 동반자 지원체계

라) 지원내용

위기청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동반자가 직접 찾아가 청소년의 심리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며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정서적 지지한다. 또한 생활환경에서 필요한 숙식, 교육, 의료, 보건, 법률, 여가, 직업훈련, 취업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 자원 연계하고 위기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학습체험·체육·문화체험, 자기계발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한다.

3) 가출 청소년 예방과 청소년 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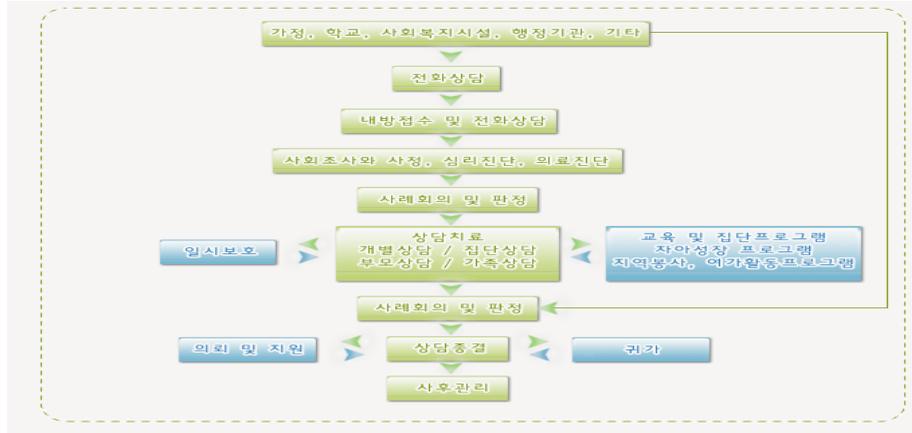
가) 사업목적

가족 내 갈등, 폭력, 방임, 빈곤 등으로 인한 가정의 기능상실, 학교부적응, 청소년 개인 및 또래,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일시 및 중단기 보호를 제공하여 청소년을 위기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며, 당면한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전문적 개입을 통해 위기청소년과 가족을 돕고,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위기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학부모와 선생님

다) 지원체계



[그림 4] 가출청소년 예방과 청소년 쉼터 지원체계

라) 지원내용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홍보, 민간협력사업 추진, 선도프로그램 개발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와 가출청소년에 대한 일시적인 생활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가정·사회복귀, 중장기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한다. 가출 및 이성교제, 친구관계, 가족관계,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를 전화나 서신, 면접상담, 개인 및 집단상담을 통하여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지원한다.

4) 청소년 전화 1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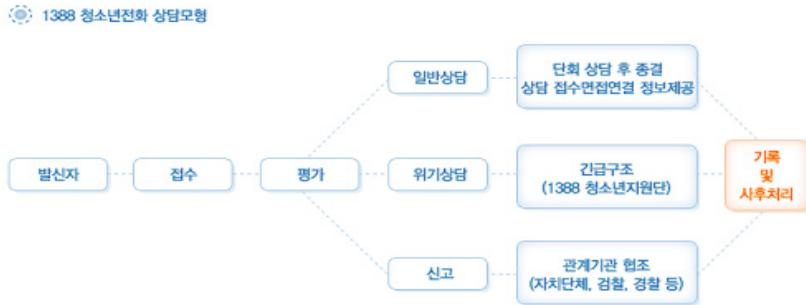
가) 사업목적

청소년전화 1388은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의 관문으로서 전국의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학교, 병원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처한 문제를 원인 진단부터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원대상

일반 청소년과 위기(가능)청소년, 부모님이나 선생님, 이웃 등 청소년 관련문제의 상담을 원하고 청소년관련 신고나 안내를 받고 싶은 모든 사람

다) 지원체계



[그림 5] 1388 청소년 전화 상담 모형

라) 지원내용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진로 등의 고민이나 폭력이나 가출, 학대 등의 위험상황이 있을 때, 또는 청소년 관련 유해환경 등의 신고사항이나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안내와 정보제공 등이 필요할 때에 청소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청소년의 위기 문제와 고민 등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방법과 근본적인 심리적 지원은 물론이고 청소년 지원에 관련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빠르고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5) 청소년 특별지원

가) 사업목적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지원 사업이란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1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운영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수행기관, 참여자,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원대상

가출, 범죄·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과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가정, 학교, 사회 복귀가 필요한 청소년, 동반자 사업 대상 청소년, 기타 청소년 중심적 복지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 지원체계



[그림 6] 청소년 특별지원 체계

라) 지원내용

-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찰·식찰·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제공 및 서비스
-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
- 학업지원: 청소년이 지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
- 자립지원: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 청소년활동지원: 특별 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비용 및 서비스
- 그 밖의 지원: 기타 특별 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지원 비용

6) 학교 안전 통합시스템(Wee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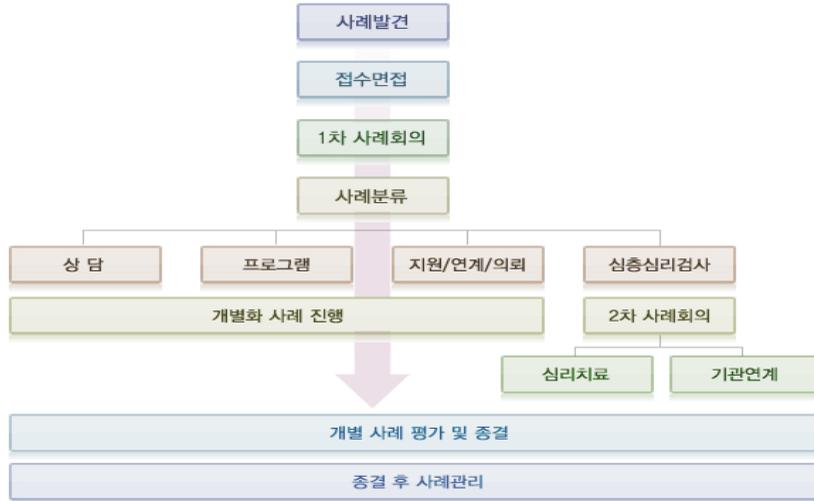
가) 사업목적

빈곤, 이혼, 학업부진,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학업중단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3차원의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구축하는 Wee는 “We(우리들)+Education(교육)”, “We(우리들)+Emotion(감성)”의 이니셜이다.

나) 지원대상

학교부적응, 따돌림, 우울, 불안, 가출, 학습문제, 진로갈등, 이성문제, 교우관계 등 다양한 고민을 갖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

다) 지원체계



[그림 7] 학교안전 통합 시스템 지원체계

라) 지원내용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부적응학생에 대한 상담 등 지도와 예방을 강화하는 "Wee Class"를 설치·운영하고,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는 "Wee Center"를 설립하여 단위학교에서는 선도, 치유가 곤란한 학생에 대해 상담가, 의사 등 전문가들의 진단·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상황이 심각한 학생은 시·도교육청 단위의 위탁교육센터(Wee School)에서 별도의 장기간 치유·교육을 받게 된다.

7) 두드림존

가)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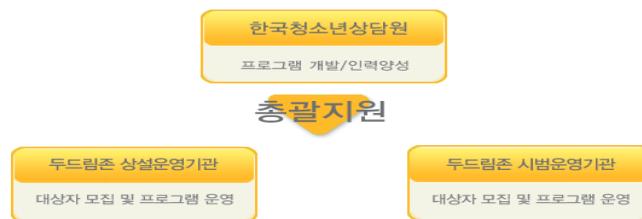
보건복지가족부와 청소년상담원이 주관하고 있는 두드림존 프로젝트는 현재 학교 활동을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중심의 종합자립지원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의 파편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체계화, 종합화하며 청소년의 자립지

원을 돕기 위한 타 기관과의 연계 서비스 활성화, 프로그램운영과 사후 관리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전국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를 통한 청소년자립지원에 있다.

나) 지원대상

두드림존은 만 16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미래의 진로 및 취업 문제를 고민하는 청소년이나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여 경제적, 사회적지지가 필요한 가출 청소년 또는 교정시설 및 보호시설 퇴소 후 경제적,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과 새터민 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및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 지원체계



[그림 8] 두드림존 지원 체계

라) 지원내용

두드림존 프로젝트는 청소년자립 준비에 필요한 체험중심의 종합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원활한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연계 및 지원, 체험 중심적 자립지원 센터 두드림존의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대, 온라인 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총 4단계로 사전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신청과 접수면접, 진로검사 등을 실시하고 1단계에서는 드림빌딩, 경제야 놀자, 직업의 바다로 출항, 신입직원 선발의 날, 독립만세, 이 세상 최고의 밥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자립의 동기화와 직업의 세계를 탐색, 구직이나 적응 기술, 경제 등에 관해서 이해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직업의 체험, 실물경제체험, 캠프 등 실제 체험단계이다. 마지막 3단계는 1,2 단계에서 구체화된 진로에 따라 직업훈련학교나 복교, 진학 준비 등을 지원하거나 취업, 인턴쉽 과정을 통하여 실제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8) 드림스타트

가)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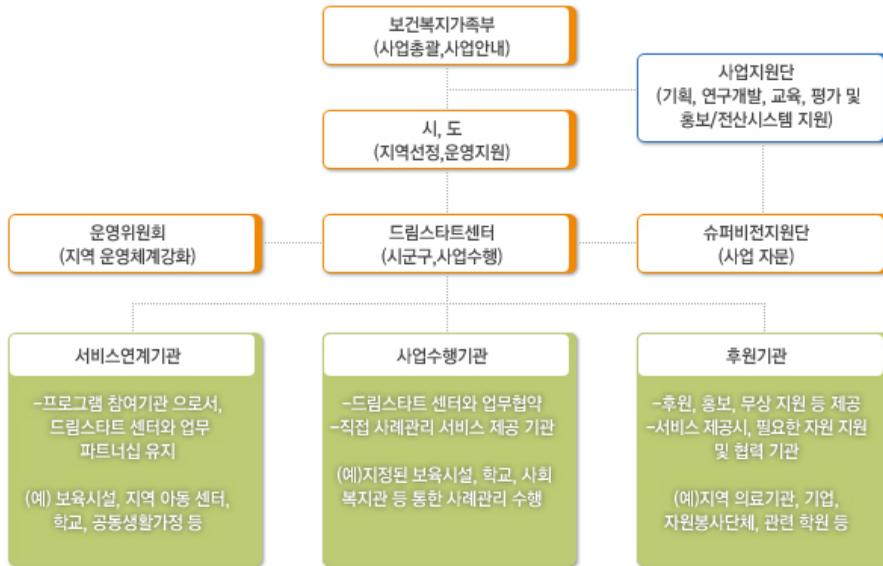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해체, 사회의 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의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건강, 보육, 교육, 복지 등에 대한 파편화된 개별서비스 확대로는 서비스의 사각 지대가 존재하기에 아동과 그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지원체계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빈곤아동의 가난 대물림을 막고, 모든 아동에게 개개인의 능력함양 및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지원한다.

나) 지원대상

전국 74개 센터 지역 내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정의 임산부 및 0~12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 수급가정 및 차상위층, 그리고 해당 지역 내 공동 생활가정, 가정위탁, 대리양육 아동을 우선으로 건강 복지 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다) 지원체계

드림스타트 센터는 팀장 및 건강, 보육, 복지 별 전담 공무원 3인과 전문 민간 인력 3인으로 구성되며, 아동 및 가족 개인에 대한 인테이크, 사정, 사례관리 및 계획, 분야별 통합 서비스 제공 및 이후 종결까지 관리한다.



[그림 9]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라) 지원내용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해 사업이 시작되어 시군구별 1개소씩 설치·운영된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추진 배경에 따라 빈곤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복지·보육의 맞춤형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보건)사업에서는 임신부, 영유아 영양보충, 아동학대(방임) 조기발견, 의료비 지원 및 연계에 대해 지원하며, 보육(교육)사업에서는 보육기관 연계,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부모교육, 방과 후 학습지원, 예비초등학교 학교준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에서는 아동 및 가족 상담, 자녀양육능력강화, 직업훈련, 주거환경 개선 지원, 문화체험 행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빈곤 어린이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해 신체·정서·사회적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정부차원의 복지 서비스다.

9) 해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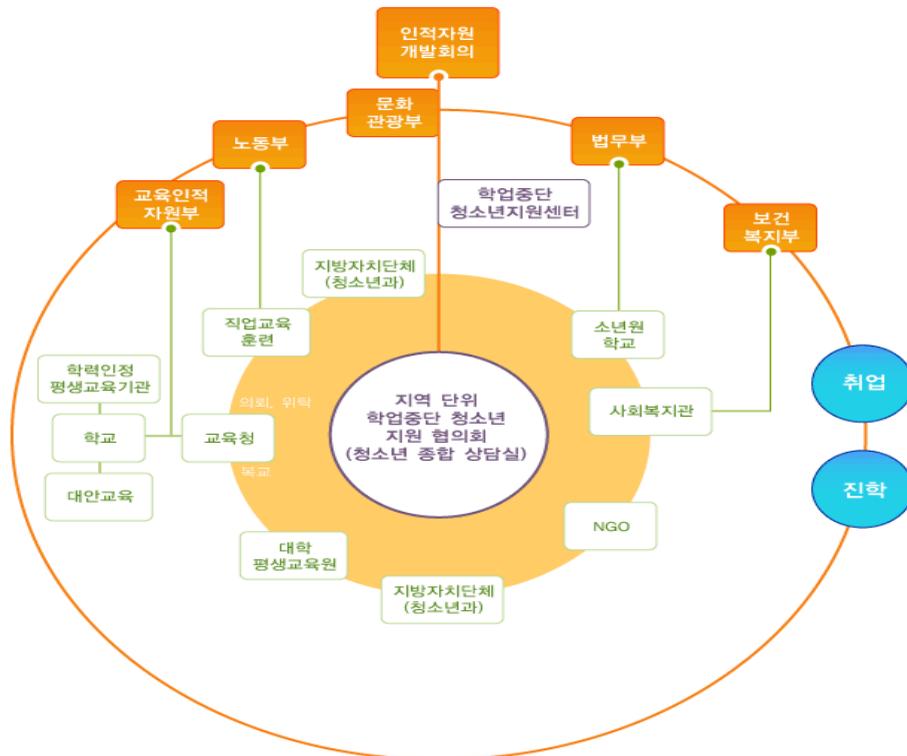
가) 사업목적

학업중단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차원의 지원 사업으로 학업중단청소년을 생산적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시, 도청소년종합상담실이 중심이 되고 지역 내 유관 기관간의 연계, 협력을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원대상

학업이 중단되어 학교 밖으로 나온 학생과 학부모

다) 지원체계



[그림 10]. 해밀 지원체계

라) 지원내용

학교 밖의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나 고민을 즉시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경제, 학업, 심리, 사회적인 통합적인 지원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연계 활동을 하며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4. 외국의 위기청소년 관련법과 지원체계

가. 미국의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1) 미국의 청소년 관련법

가)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

이 법은 주정부가 ‘학대’라는 상황에 대해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민간기관을 법적 의무이행의 원칙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지역 사회협의체는 아동·청소년의 학대와 관련된 위기문제에 대해 개입하여, 학대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그의 관계망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서 아동학대 및 방임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연방정부의 지원이 시작되었다. 이 법에 따라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가 설립되어 연구, 훈련, 자료선택, 기술적인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뿐만 아니라, 주정부 아동보호서비스의 혁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후 지역사회중심 가정자원 및 지지(Community-Based Family Resource and Support: CBFRS)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데 CBFRS 프로그램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나) 청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of 2002: JJDP)

이 법은 불필요한 청소년의 구금을 줄이고,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처우를 위해 주정부가 행하는 각종사업에 연방정부의 보조가 주어지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예방 및 전환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청소년의 권익

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정하며,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청소년들을 성인감옥으로부터 분리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가출 및 노숙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이 법은 해마다 가출청소년과 이들의 재가출이 증가하고, 가출이 범죄와 약물, 성폭력 및 매매 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인식됨에 따라 가출 및 노숙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자립생활 프로젝트(independent living project)'가 16세 이상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을 위해 진행 중이며, 전국긴급전화, 모델프로그램 개발, 연구조사,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현장접근 서비스 프로젝트(street-based service project)'와 '가족서비스 프로젝트(home-based service project)'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2003년 10월에 재 인가되면서 임신부를 위한 그룹홈이 전환생활프로그램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되었고, 18세가 안된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제한을 540일에서 18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Title IV-B, IV-E (2002)

사회보장법은 1935년 미국에서 빈곤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입법화된 최초의 법이다. 이 법의 공적프로그램 3개 중의 하나인 '요보호아동부조(Aid to Dependent Children: ADD)'는 아동과 청소년 최초의 복지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1962년 요보호아동부조(ADC)를 '부양아동을 가진 가족을 위한 부조(Aid to Dependent Children: AFDC)'로 명칭을 바꾸고, 가족을 프로그램 대상의 기본단위로 하였다. AFDC를 통해 결손가정 청소년이나 장애청소년들이 서비스대상에 포함되어 각 주정부가 지방정책으로 대상자나 지원금액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연방정부는 원칙적인 규제만 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21세미만의 요보호청소년을 위한 긴급구호사업, 해체된 가정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아동 및 청소년보호 강화사업, 그리고 가족지원 및 후원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이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사회보장법 Title IV-A(1967)와 많은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연방정부나 주정부와 직접 계약하여 아동 및 청소년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입법한 사회보장법 Title XX(1975)가 입법되었다.

이렇듯 대상자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재정과 개정을 반복하여 온 사회보장법은 2002년 2월 11일, Title IV-B, IV-E가 개정되었다. IV-B는 아동 및 가족서비스, IV-E는 수양부모보호와 입양 지원을 위한 연방정부의 서비스제공 및 지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IV-B는 연방정부가 사회보장을 통해, 아동복지서비스를 제정, 확대, 그리고 강화하는 주정부의 공공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해마다 총 3억2천5백만 달러를 충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정부 공공기관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 McKinney-Vento Act of 2001

이 법은 맥킨리법을 강화, 노숙상태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였다. 노숙상태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교복귀와 관련하여 모든 교육관할구역에는 노숙상태인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담당자-법에서는 Liason이라 부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가 없이도 학생이 즉시 학교에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학생이 예방주사, 예방주사 접종기록, 기타 의료관련 서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족과 청소년이 이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와 청소년에게 교통편 서비스를 알려주고 교통편을 마련토록 도와주고, 학생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학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부모와 보호자에게 학교가 그들의 자녀에게 제공해야할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Liaison은 학교와 가족 또는 청소년과의 갈등을 가능한 빨리 해결해주고, 노숙상태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상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며, 부모와 보호자가 그들의 자녀의 교육에 참여토록 도와준다.

2) 미국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책

미국은 사회구성원 자체가 다양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청소년 자신, 부모와 가족, 사회 등 삼가간의 권리와 책임의 확립을 기반으로 다양성의 인정 속에서 청소년정책도 개인의 바람직한 성장과 사회적 이념 확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주체적인 능력을 개발하여 그들

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에 대한 정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문제 및 일탈방지, 예방 및 치료 등 보호정책 등 문제행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정책도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이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이전에, 부모와 가족 및 사회에서의 개입과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P84~91)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제기된 배경은 1960년대의 가난, 이혼, 가족붕괴, 혼외 출생, 편부모, 가족의 이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터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청소년범죄와 청소년 문제가 가속화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요구에 의해 1970년대에는 청소년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 역할의 재개념화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현대에 들어서 미국따라 사회에서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법을 에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보호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지 사회 따라 사회의 청소년보호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즉, 미국의 주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은 주별로 차이가 있으며, 주정부의 기본운영방침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민간기관의 서비스 분포도를 감안하여 현실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의 구성을 형성하고 있다.(윤경철, 2001)

이를 종합해보면,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모든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지원기관과 지원체계를 위기상황별로 분류하는 등과 같은 주도적 역할을 통해 주정부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 지원 영역과 전문적 서비스 영역에 대한 역할분담을 통해 공공기관과 다양한 민간서비스의 연계를 촉진시킴으로써 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우정자, 2003; P112~115)

3) 미국의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및 관련 기관 네트워크

미국은 다양한 청소년문제를 다루고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청소년옹호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민간단체들 중에는 규모가 거대하고 다양하며 통합적으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이 적지 않은데 이 단체들의 대부분의 운영 예산은 중앙정부, 주정부, 및 카운티에서 지원되고 있다.

가) National Network of Runaway and Youth Services

이 단체는 30년의 역사를 지닌 전국적인 비영리 청소년옹호조직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의 법 입안자들과 함께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 네트워킹, 훈련, 자료 및 정책관련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옹호, 발의,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가출청소년, 노숙청소년, 기타 사회로부터 배제된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학대와 방임, 노숙, 지역사회의 편견, 및 기타 생활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위기에 당면한 청소년들에게 성장과 발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에서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청소년과 가족들의 건강한 발달을 증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제정을 위한 옹호활동을 전개시 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 입안자들과 함께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본 단체의 구성원, 청소년, 실무자들과 함께 의회의 의원들에게 교육과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정부관련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기도 하며, 주정부와 지방정부 미 전국 법 입안자들에게 정부를 배포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청소년과 노숙에 관련된 조직들과 연계활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공청회, 워크숍, 기타 자료발간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정책을 위한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ACF)

1991년에 설치된 아동 및 가족 당국은 아동, 가족, 및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60개의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다. 주정부·연방정부 복지프로그램인 TANF를 담당하여 4백만 명의 아동을 포함하여 대략 5백만 명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인 아동지지강화체계, Head Start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가족을 돕고자 재원을 지급하고, 위탁보호의 지원과 입양원조를 제공하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아동 학대와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재정 지원하고 있다.

다) National Clearinghouse on Families and Youth

미국의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국립 정보 및 자원지원센터(National Clearinghouse on Families and Youth: NCFY)는 청소년과 그 가족을 지원할 효과적이고 새로운 전략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료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청

소년서비스 전문가, 정책입안자, 일반 공무원들에게 가족과 청소년문제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가출청소년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법, 관련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상담전문가인 소속실무자에게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론장(Issue Forums)의 마련, 관련주체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작성 등 자료개발(Materials Development),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종합적,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연방정부 기관이나 주 또는 지방정부, 지역공동체들과의 연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이처럼 미국의 경우 위기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가 거의 대부분이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위기의 청소년은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약물남용인 청소년만 하더라도 약물치료 하나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호시설 제공, 인격형성 프로그램, 학습 및 취업훈련 프로그램, 가족문제 치료 등 그 욕구가 다양한 것이 보통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대 규모의 민간단체는 건강검진 서비스 및 인격형성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독립적인 생활유지까지 필요로 되는 서비스의 지속성과 연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거대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이영숙, 2003; P62~81)

4) 미국의 위기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가) 약속의 집(Covenant House) 프로그램

미국의 위기청소년 지원시스템은 지금까지 제시한 바와 같이 민간영역과의 네트워크는 다양한 지역자원을 종합해 동시적이고 집중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라 유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예로 '약속의 집(Covenant House)'을 들 수 있다. 약속의 집은 노숙 및 가출청소년에게 거주시설 및 쉼터와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민간기관이다.(윤철경, 2005)

약속의 집은 현재 미국전역에 22곳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외국에 체류중인 자
국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캐나다, 멕시코 등 다른 나라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
어 위기청소년이 매우 심각한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다거나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위기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다는 개방적 접
근성을 가지고 있다.

약속의 집에서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위해 음식, 쉼터, 의복 및 응급조치 이
외에도 가출 및 그들이 제시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문제성향별 지원기
관에 의뢰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일시보호시설제공, 거
리 아웃리치프로그램, 상담전화, 건강 및 의료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취업준비 교
육, 건전한 생활습관 들이기 프로그램, 문화활동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
록 구비하고 있다.

나) 미국의 랩어라운드/사례 관리 (Wraparound/Case Management)

랩어라운드는 비행 청소년을 가능한 교정 기관이 아닌, 집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중다 측면 개입 전략 프로그램이다. 이 명칭에서부터 나타나듯이 청
소년을, 개인의 욕구를 반영할 수 없는 미리 정해진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 및 지지망의 종합적인 체계로 감싸는 것
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개인 사례 관리는, 전통적인
개념의 사례 관리와는 달리 고도로 구조화되고, 통합된 서비스 환경 내에서 이루어
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랩어라운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기본 요소들을 특징으로 한다. 첫째, 청소
년 교정 영역, 공공 교육 영역, 지역 정신 건강 및 사회 복지 서비스 영역의 전문
가로 팀을 구성하고, 이 팀이 랩어라운드 프로그램의 구성, 실행, 감독을 책임진다.
둘째, 랩어라운드 팀의 구성과 역할, 프로그램의 대상과 가용 자원을 명시한 공식
적인 기관 협정을 맺는다. 셋째, 대상 청소년에게 적절한 개인화된 치료 프로그램
을 만들어내고 보호 체계를 통하여 청소년과 그 가족을 지도하는 책임을 지는 인
력인 Care coordinator를 둔다. 넷째, 대상 청소년과 그 청소년의 변화하는 욕구를
잘 아는, 가족, 각종 서비스 제공자, 교사와 멘토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구성된
'아동과 가족팀(Child and family team)'을 구성해서 Care coordinator가 이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영역, 즉 가족, 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고 있는지 협동하여 작업한다. 다섯째, ‘아동과 가족팀(Child and family team)’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통합된 보호 계획’을 구성하고 계속 보완한다. 이 계획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대상 청소년의 강점과 약점 확인, 대상 청소년에게 적절한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각 단계 기술이 포함되며,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 구성원들의 역할도 규정된다. 여섯째, 랩어라운드 프로그램의 진척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된 수행 평가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결과에 근거한 서비스가 되도록 한다.

다) 미국의 다중체계치료 (Multisystemic Therapy)

다중체계치료는 1970년대 후반부터 개발되어온 치료 모형으로, 비행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개발된 가족 및 지역 사회 중심 치료 개입이다(Henggeler, Schoenwald, Rowland, & Cunningham, 2002). 다중체계치료의 특징으로는 대상 청소년 및 가족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청소년의 문제에 개별적으로 개입하는 것과 가족의 기술 및 능력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으로, 여기서 전문 인력인 다중체계치료 프로그램의 치료자가 대상 청소년의 개인적 문제 개입, 가족 개입, 지역 사회와의 연계 등의 역할을 맡아 활동한다.

또한 다중체계치료는 <그림 1>과 같은 기본 원리들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러한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중체계치료는 전통적인 개입방법에 비해 우수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다중체계치료를 받은 심각한 비행 청소년의 경우, 다시 체포되는 비율은 25~70%가, 가출은 47~64%가 감소했으며, 더불어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가 경감되었고, 가족 기능이 강화되었다(Henggeler, Schoenwald, Borduin, Rowland & Cunningham, 1998).

MST 치료 원리	
원리 1	평가의 주요 목적은 발견된 문제와 그것이 나타난 환경간의 적합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원리 2	치료적 접촉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체계의 강점을 이용한다.
원리 3	개입은 가족 구성원간에 책임있는 행동의 증진과 무책임한 행동의 감소를 위해 고안되어야 한다.
원리 4	개입은 집중적인 목표가 되고, 행동 지향적이고, 특정적이며, 잘 정의된 문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원리 5	개입은 확인된 문제를 지속하게 하는 다중체계 내 혹은 다중체계 간 요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원리 6	개입은 청소년과 양육자의 발달적 욕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원리 7	개입은 가족 구성원이 매일 혹은 매주 단위로 일정한 과업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원리 8	개입의 효율성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책임이 있는 서비스 제공자가 다양한 조망에서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원리 9	개입은 다양한 체계의 맥락에서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다룰 수 있도록 보호자의 힘을 키워줌으로서 치료의 일반화와 치료적 변화가 장기간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림 11] 다중체계치료의 원리

라) 기타 관련 프로그램

(1) 가출 및 노숙청소년법 프로그램

가출 및 노숙청소년법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노숙청소년의 희생을 예방하고 교육, 고용훈련, 건강보호, 약물치료, 기타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 위기/단기 개입 서비스 프로그램(Basic Center Program)

이 프로그램은 가출 및 노숙청소년들에게 위기개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출시 즉각적이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이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문제의 심각성을 약화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동 및 가족담당부서로부터 재정지원 받아 가출 및 노숙청소년과 그

의 가족들이 원하는 아웃리치, 임시쉼터, 음식, 옷, 상담, 추후보호 등의 즉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지역사회내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기보호란 쉼터 환경에서의 거주가 15일을 넘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임시거주기간의 제한은 위기개입에 초점을 두기 위함이다. 쉼터에서의 제한된 임시거주기간에도 불구하고 쉼터실무자들은 청소년들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고 가족과 재결합하며, 미래의 위기를 예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노숙청소년자립지원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가출청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1975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응급쉼터를 마련하여 가출청소년들을 귀가시키고자 재정지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돌아갈 집이 없이 길거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특히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응급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성인으로서의 법적·제도적 처우를 받게 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조차 없어지게 되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에 덧붙여 돌아갈 집이 없어서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이라도 18세가 되면 이러한 시설을 떠나야 하는데 교육적 배경도 없고 직업을 구할 만한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미래의 삶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채 다시 길거리로 나가게 되면서 각종 범죄에 개입되거나 착취당하고 윤락행위에 연루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응급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적이고 귀가목적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원조프로그램이다. 특히 귀가가 불가능한 16-21세의 청소년에게 기관실무자가 지도, 감독하는 안전한 거주지인 생활공간에서 최대한 18개월까지 머물면서 기본적인 생활기술은 물론 독립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케 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여 정부의 보조금이나 사회서비스기관에 장기적으로 의존하는 것 또는 범죄로 인한 사법체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다) 노숙청소년을 찾아가 지원하는 프로그램(Street Outreach Program)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서비스기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알지만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로부터 방치된 채 보호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어서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돌아갈 집이 없이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생존하고 있는 장소로 실무자가 직접 찾아가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의료, 정신건강, 복지, 주거지 등의 서비스와 연결시켜주는 이 프로그램은 1994년의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의 일부로 제정되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기관내의 서비스가 아닌 길거리에서의 서비스에 기초하여 마련된 아웃리치와 교육서비스를 통해 성적으로 학대, 착취당했거나 착취당할 위험에 놓여있는 가출 및 노숙청소년들에게 치료, 상담,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의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향초, 2005)

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표는 이들에게 안전함, 위기개입, 즉각적인 의료보호, 옷, 음식, 쉼터 등과 같은 당장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이들이 더 이상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주류 속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다. 특히 길거리에서 청소년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여 길거리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영양실조나 영양결핍으로 인한 신체적 건강문제는 물론이고 에이즈를 유발하는 에이즈 바이러스감염, 약물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 등에 관한 치료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라) 브릿지 오버 트러블 워터(Bridge Over Troubled Water, Inc.)

『브릿지 오버 트러블 워터』는 보스턴 지역의 위기 청소년들을 찾아 거리로 나서며 그들에게 상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로서 위기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위기센터에서는 가족개입, 조정, 긴급 일시보호소 운영, 상담,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을 한다. 그리고 가출청소년의 가출원인과 욕구를 집중 조사하여 가족과 재결합을 시도한다. 만일 가족과 재결합이 어려운 경우 대안서비스로 주거시설을 연결하기 위해 모색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과 책임성을 증진시키고 능력을 강화시킨다. 가족, 부모를 위한 서비스로는 상담 서비스로서 자

녀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교육하여 자녀가 길거리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돌아온 자녀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또한 이전을 위한 거주 프로그램으로서 편부모 하우스, 협력아파트 등의 거주시설을 연결, 지원한다. 특히 '편부모 하우스'는 젊은 싱글마더 아동에게 거주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특정프로그램(안전한 아동 관리, '부모되기' 워크숍 등)을 제공한다.

(마) 쓰리 리버즈 유스(Three Rivers Youth)

『쓰리 리버즈 유스』(Three Rivers Youth)는 2개의 독립된 기관, 즉 1880년에 아프리카-미국 아동을 위한 고아원으로 설립된 『터몬 예비뉴 홈』(Termon Avenue Home)과 피스버그 청소년연맹에 의해 1924년 “불안정한 소녀들”을 위한 거주시설로 설립된 『소녀 서비스 클럽』(Girl's Service Club)이 1970년에 통합됨으로 탄생하였다. 『쓰리 리버즈 유스』는 신체적/성적학대, 방임, 유기, 학교 부적응, 10대 임신 그리고 약물/알코올남용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 취업, 거주, 외래의료서비스와 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쓰리 리버즈 유스』는 오늘날 5개의 거주 그룹홈과 2개의 쉼터 프로그램, 가출 및 노숙청소년을 위한 아웃리치센터, 야간통행금지와 무단결석 관리센터, 생활변화프로그램과 재가가정상담으로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출 및 노숙청소년을 위한 다락방프로그램(Loft Program)은 12-17세 가출 및 노숙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가출 및 노숙청소년을 위한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며, 위기상담, 건강 돌보기, 쉼터, 음식과 옷 등이 제공된다. 가족 상담과 사후관리도 제공된다. 다락방 쉼터는 4개의 침실이 제공된다.

생활변화프로그램은 16-17세 노숙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24시간 노숙청소년 핫라인, 쉼터, 상담과 지원서비스, 직업준비 그리고 취업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고, 특히 청소년과 가족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움이 요구되는 가정에 한해서 가족 상담을 한다. 가정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아동이 집밖으로 내몰리는 위기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계획된 집중적인 12주 동안의 집안(in-home) 위기개입 프로그램이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가정 안에서 아동의 안전을 언급하고 획득된 서비스 안에서 가정을 돕기 위해 계획되었다.

(2) 비행청소년대상 프로그램

(가) JUMP(Juvenile Mentoring Program)

미국의 경우 구조화되고 형식화된 개입으로서의 멘터링은 미국사회가 도시화되고 산업화됨에 따라 특히 1980년대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청소년발전프로그램 전략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92년 청소년사범 및 비행예방법의 재인준시 추가된 Mentoring 법조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사범 및 비행예방실에서는 연방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비행과 갱집단에의 참여를 줄일 뿐만 아니라 학습 성취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중퇴를 줄이기 위해 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비행청소년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사회가 갖고 있는 목표는 건강한 멘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좀 더 긍정적인 기회를 창출하게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건강하면서도 긍정적인 성인역할모형을 발견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학습 성취와 비행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JUMP는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을 위한 일대일 멘터링 프로젝트로 주 대상은 학업실패, 중퇴, 갱집단에 속하거나 불법약물사용 등의 비행행동에의 연루된 청소년들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회는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멘터링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서는 지역 내의 교육기관들과 지역사회에 기초한 기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멘터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으로부터 모집되었는데 예를 들면 종교관련 기관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기관들, 학교, 경찰서와 소방서, 병원, 은행과 지역 내의 사업체 등이었다.(청소년위원회, 2005)

이러한 JUMP의 주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이 소년비행과 갱집단에의 참여를 줄이는 것;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를 증대시키는 것;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의 학업중도탈락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에게 일반적인 지도와 지지를 제공하고 개인적·사회적 책임을 증진시키며, 이들이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의 참여를 늘리고 이러한 교육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한 능력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불법약물의 사용, 폭력에의 개입 및 기타 비행행동, 특히 갱집단에의 참여를 줄이며, 지역사회활동과 서비스에의 참여를 격려하였다.

(나) Title V Community Prevention Grants program

1992년에 청소년사범 및 비행예방법의 Title V가 수정되면서 Community Prevention Grants program으로 알려진 The Incentive Grants for Local Delinquency Prevention Program이 마련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중심의 비행예방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비행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3개년의 예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청소년이 비행에 개입될 위험요소를 줄이고 청소년사범체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적인 요소들을 강화하는 것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해당지역사회에서 독특한 자원들의 다각적인 사정을 주관하고 비행을 예방할 종합적이고 협력적인 계획을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는 멘터링과 방과 후 활동, 가정교사, 무단결석과 학교중퇴 감소 프로그램, 약물남용예방활동, 갱예방아웃리치, 경찰/보호관찰팀에 이르는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현재 이 프로그램의 모델 프로그램은 166여 개가 있다.(청소년위원회, 2005)

나. 영국의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1) 영국의 청소년 관련법

가) 아동법(Children Act, 1989)

이 법은 빈곤에 처한 아동과 다른 아동을 위한 지방정부의 서비스 준비, 아동의 가정·지역사회가 운영하는 시설 홈·자발적인 시설 홈·자원봉사조직 관련법 개정, 양육아동돌보기·어린아동 탁아입양과 관련된 조항설치 등 관련조항을 담고 있는 1989년 제정된 개혁 법안이다. 아동법은 아동보호에 관하여도 내용을 담고 있다. 고통 받는 아동조사 및 긴급명령 발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아동의 거주이동명령 및 경찰보호권 발동, 고통 받는 아동가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통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시설 자원봉사시설 홈과 관련민간단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아동 긴급보호명령’ 제5장 44조 1항은 아동과 청소년이 현재의 가정이나 거주지에서 고통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심각한 해를 받는 경우는 국가가 법적으로

아동의 거주지 이전에 관한 긴급한 명령을 내리고, 국가가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한을 친부모로부터 박탈해서 지방정부나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부모의 권한을 줌으로써 아동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로서 제5장 46조 1항은 아동과 청소년이 심각한 해와 고통 하에 있을 때는 경찰의 보호 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위협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강한 공권력까지도 이용하고 있다. 국가가 고통받는 아동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는 위기에 처한 아동을 위해 숙소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아동법은 아동보호서비스의 실행과 정책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첫째, 부모와 지역당국 간의 파트너십을 확립했으며, 둘째, 일반적으로 필요가 있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당국의 의무 및 아동의 희망이나 감정을 고려하도록 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고려 등이다. 아울러 이법은 아동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부모의 역할을 더 중심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법의 실행 후 법원 전 단계에 있는 보호 사례수가 감소하고 아동보호 사례회의에서 부모참여의 증가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나) 아동위탁보호법(Children Leaving Care Act 2000)

2000년 아동법의 일부가 개정된 아동위탁보호법은 지방정부에게 아동보호에 있어서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16세에서 17세 청소년뿐만 아니라 18세에서 21세까지의 청소년을 포함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접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교육, 훈련, 경력계획, 지원 등을 포함하는 진로계획(Pathway Plan)을 수립해야 하고 청소년 상담가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지방정부라면 18세 이상 21세 이하의 청소년의 취업을 위하여 지원해야하고 21세가 넘는다 할지라도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하여 영국은 아동보호에 있어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적극적인 의무를 나타내고 있다. 위기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방정부의 숙소제공과 교육훈련 상담제공의 규정은 실제로 숙소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민간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가 배치 및 진로계획 수립은 지방정부가 공무원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위기청소년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다) 범죄 및 무질서법(Crime & Disorder Act 1998)

이 법은 영국정부가 청소년범죄 사법체계에 있어서 범죄예방을 기본원칙으로 수립하고, 그 목적을 고려해서 청소년 사법체계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법적인 의무를 규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은 지역사회와 청소년사법 관련기관들의 청소년 범죄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처를 돕기 위해서 새로운 개입과 처벌을 제공하고 있으며, 초기에 반사회적인 행동에 개입하고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새로운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라) 학교표준과 체제법

이 법은 지방정부가 학교 정책에 지침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제61조는 학교장의 정책이 학교폭력과 따돌림을 예방하는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해서 1999년 이래로 모든 학교는 인종폭력을 포함해서 학교폭력 예방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게 되었다.

2) 영국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책

영국의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는 불평등한 모든 형태를 바로잡고, 모든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자라는 동안 개인 혹은 집단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가능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두고 있다.(이혜연, 2002; P81)

이러한 영국의 지원정책을 알기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접근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1970년대 이전까지 청소년을 인적자원으로 보는 접근방식과 문제아로 보는 접근방식이 공존했다. 그러나 1970년대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위기청소년들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문제, 개인적 위기, 갈등의 문제들을 적극적인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즉 모든 청소년은 문제 성향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서 위기청소년과 청소년의 지원정책을 단일한 행정 및 정책 루트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영국의 위기청소년 정책은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위기청소년을 포함한 전체청소년의 정책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반영

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파트너십을 형성해 지역 내 속해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5; P22~27)

영국의 지방자치정부는 위기청소년들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군의 해소를 위해 파트너십을 통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서비스 전문 기관들이 위기청소년에게 중복적이고 동시적인 지원을 함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에 따른 집중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위기청소년 통합서비스는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모두 다루어 지원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문제에 중심을 두어 지역단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 팀을 두어 문제의 특징에 보다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제 중심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은 사실상 모든 연령의 청소년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1990년 청소년보호 정책 회의에서 11~25세까지의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정의하는데 국가적으로 합의되었고, 그중 13세~19세까지 다양한 부분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그룹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다.(윤철경, 2005; P132)

3) 영국의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및 관련 기관 네트워크

영국은 아동법에 규정된 보건부가 주부이며, 지방자치정부는 지역아동보호위원회(ACPC)와 군단위 아동보호위원회(CCPC)를 두어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의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경찰청, 지방법원,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관(NGO)의 연계구축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보호위원회와 군단위 아동보호위원회는 모든 참여기관들이 네트워크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단위 사회복지 서비스가 위기청소년과 가족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정 지원하는 HUB 역할을 수행한다.

가) 지역아동보호위원회(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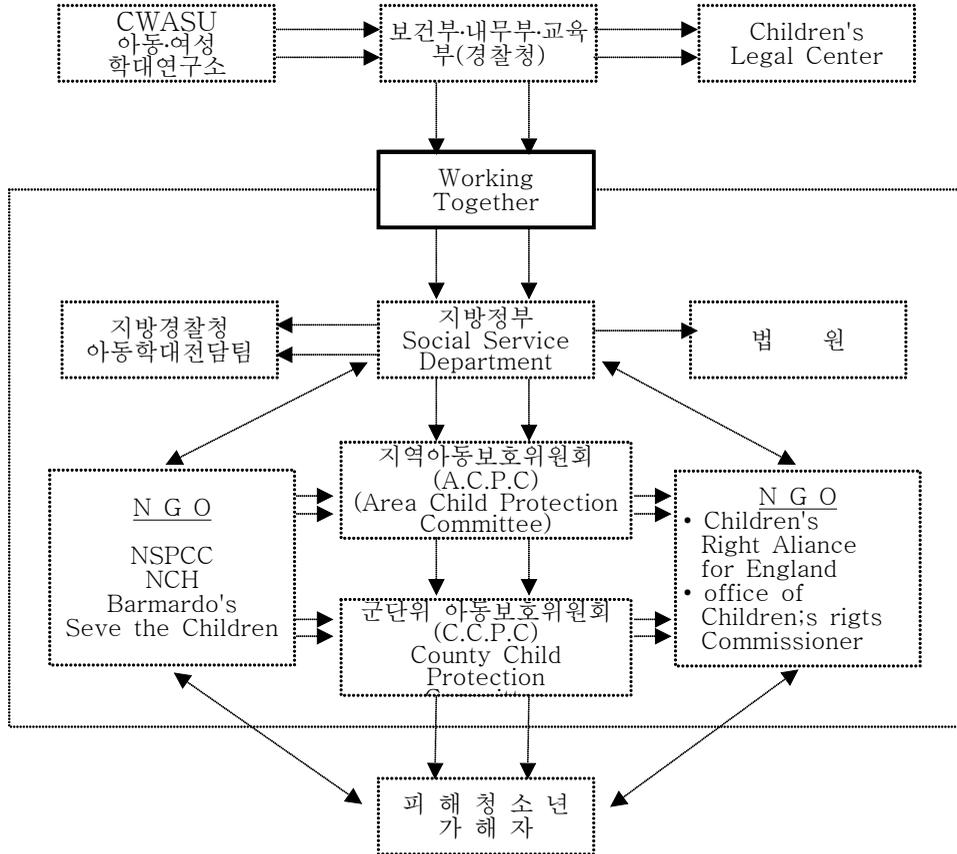
지역아동보호위원회는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의 주도하에 각 지역 정부마다 위원회구성 및 수행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는 구청담당공무원, 경찰, 교육계, 의료계, 보호감찰담당자, NGO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회의, 서비스지

원 평가, 정보공유, 네트워크 기관의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이남국, 2001; P135~157)

나) 지역사회서비스국

지역사회 서비스국은 아동가족서비스(Social Services for Children and Families), 일반서비스(General Services), 입양과 양육(Adoption and Fostering), 장애아동(Children with Disabilities), 병원 서비스(St Mary's Hospital), 청소년보호 서비스(Young People Leaving Care), 청소년 사범서비스(Youth Offending Team)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가족 서비스팀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상담과 정보와 지원 제공, 장애 아동의 정상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지원, 부모와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 돕기, 쉼터를 찾는 가족 지원연결, 학대와 유기 아동보호, 자신의 가정에서 살 수 없는 아동양육과 입양, 거주지 제공, 요보호 청소년의 독립적 생활을 위한 지원제공, 청소년 법적 문제 상담 업무를 하고 있다. 이 부서는 아동과 가족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주로 가족에 중점을 두어 활동하고 있다.

다) 청소년사법팀(Youth Offending Tea)



[그림 12] 영국 런던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흐름도

범죄와 무질서법(the Crime and Disorder Act)으로 인하여 청소년범죄예방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1998년에 조직되었고, 2001년까지 범죄율 10%를 감소시켰다. 이 팀은 사회복지서비스·경찰·보호관찰소·교육·보건의 대표로 이루어졌고, 성인자원봉사자가 청소년범죄예방 멘토링 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범죄와 관련하여, 학교 및 법원과의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가 청소년사법팀에 서비스 제공을 의뢰하고 있으며, 범죄의 혐의가 있는 청소년에 대한 법적 선고를 내리기 전에 법원은 청소년사법팀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지역단위에서는 길거리

범죄와 학교에서의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길거리 범죄가 많은 지역의 선택된 학교에 100여명의 경찰이 상주하고 있다. 경찰은 폭넓은 자원을 공급하고 학교 교사 및 지역사회 다른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업무를 담당한다.

경찰은 희생자범죄자반 학교행동 최소화, 피해와 가해의 위협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 발견, 청소년범죄자의 완전교육 보장, 취약한 청소년 보호, 안전한 환경 보장을 확실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교와 경찰사이의 협조가 길거리와 학교 범죄 예방에 결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의 제도적 장치인 보호체계 흐름도는 [그림 12]와 같다.

4) 영국의 위기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가) 커넥션스(Connexions) 프로그램

영국은 미국과 달리 주단위로 완전히 독립적인 지방중심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기본 틀과 방침, 제도적 장치의 지원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정책운영과 관리는 지방자치정부가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지역단위 청소년 정책의 수립 등과 같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이중적으로 실시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중앙정부의 정책은 지방자치정부가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국가주요 정책 사업으로서 모든 지방정부가 실시하고 있다.(이창호 외, 2005; P183)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예로 보건국의 아동 및 청소년 수당지급 제도, 커넥션스 프로그램, 교육기술부가 주관하는 이웃지원기금, 아동기금,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에서 힌트를 얻어 실시하고 있는 슈어 스타트(Sure Start) 프로그램, 이웃갱생프로그램, 가출 청소년 정책회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우리나라 CYS-net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커넥션스 프로그램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커넥션스 프로그램은 2001년에 13세에서 19세의 위기청소년에게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부주도의 사업으로 정부의 유관 부처 및 민간자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부에 소속된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4; P216)

이 프로그램은 교육을 받지도 않으면서 취업할 의사가 없는 청소년이나 사회

적으로 소외된 청소년들을 중심에 두면서 모든 청소년들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망이다.

(1) 커넥션스 프로그램의 목적

커넥션스 프로그램은 모든 청소년에게 확대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위기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이 학습기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성인기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돕기 위해 공공, 민간, 비영리 영역의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이 함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연계하고 있다. 또한 위기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지원들은 개인의 요구와 욕구에 따라 개별화되어 다양한 지원이 가능케 하고 있다.(우정자, 2003)

이러한 커넥션스 프로그램은 47개 지방학습 및 기술위원회(Leading and Skills Council)에서 주관하며 각종 서비스의 전달은 해당지역의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12개 지역별로 센터를 두고 교육, 일, 훈련, 경력, 혜택, 약물, 평등한 기회, 주택, 여가, 경제문제, 대인관계, 성, 건강, 법 문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윤철경, 2005; P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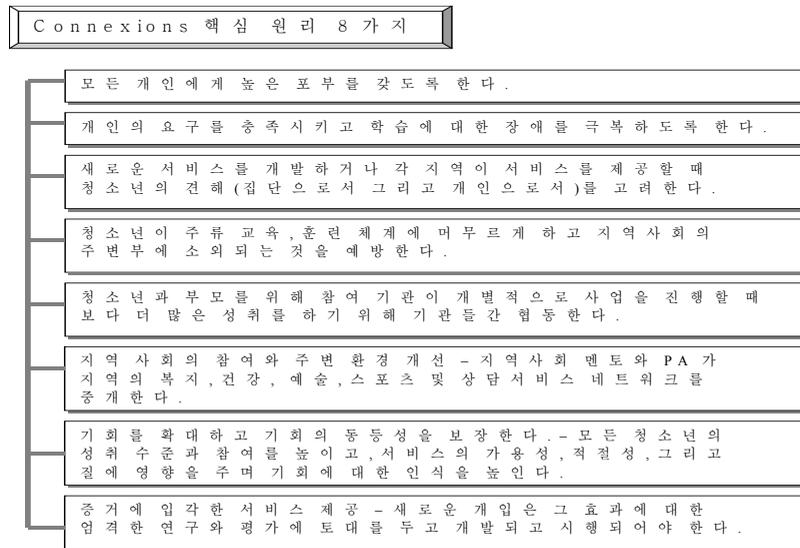
커넥션스 프로그램은 모든 청소년의 지원을 포괄하고 있지만 특히, 위기청소년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의 기회보장, 학습, 보호, 고용 등의 주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P134~135)

- i. 모든 청소년, 특히 위기청소년과 보호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개인의 발전과 그에 필요한 정보와 조언과 실질적인 지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도록 지원하는 것.
- ii.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 iii.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배움과 고용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iv.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 v. 커넥션스의 사업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파트너십을 늘리고 역량을 확대하는 것.

(2) 커넥션스 프로그램의 핵심원리

커넥션스는 아래의 [그림 13]과 같은 8개의 핵심원리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학교, 직업 교육, 직업 훈련소, 지역사회 기관들, 종교 단체, 다양한 청소년 관련기관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에 대한 지원, 자원 봉사 혹은 지역 사회 기관 등을 연계하여 청소년이 밀접하게 관련된 시스템에 가입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이 학습과 취업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셋째는 Personal Adviser(PA)라는 커넥션스의 전담 인력이 청소년에게 정보 제공, 조언과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림 13] 커넥션스의 핵심 원리 8가지

(3) 주요 사업 대상

영국의 의무교육은 16세까지로 그 이후, 청소년들이 진로를 적절히 선택하지 못하여 방황하게 되는 청년실업, 탈선, 범죄, 가출, 위기상황 등에 노출된 16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들과 가정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기회의 가치가 불평등한 13세에서 16세까지의 청소년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윤철경, 2005; P168~171)

(4) 커넥션스 운영구성

커넥션스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전담공무원을 두고 지역의 협력 단체와 함께 특정한 지역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정은 중앙정부에서 조달받고 있으며 지역적 특색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마다 운영과 서비스에 있어 특화된 차이를 가지고 있다.(구본용 외, 2005; P53~59)

(가) 지역별 지부(Partnership)

영국의 'Partnership'은 우리나라 CYS-net의 지역단위 HUB기관과 유사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데, 커넥션스 프로그램은 전국에 47개의 지역단위 HUB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커넥션스의 지역별 지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Partnership은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획과 기금 조달을 담당하며 지역의 기관들이 고립적으로 일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여 청소년들, 부모들, 지역사회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Partnership'의 구성원은 지역관리위원회 의장, 지역 학습기술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 의장이나 사무국장, 민간 부문 대표, 그리고 자원 봉사 단체 대표와 지역사회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관리위원회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협력단체를 모으고 지원활동을 조직하는 일을 담당한다. 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자원봉사단체, 지역사회 단체, 인력회사, 고용주, 법률서비스 단체, 청소년 자신들로 구성된다.

(나) 커넥션스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담당자

커넥션스 프로그램의 서비스는 지역의 다양한 전문기관을 통해 양성되어 배치된 개인밀착상담사(Personal Adviser)를 통하여 위기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밀착상담사는 커넥션스 프로그램의 지역별 지부를 통해 네트워크적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지역단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게 한다. 이는 다양한 배경의 개인밀착상담사를 통해 단편화된 서비스를 지양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과 위기청소년의 개별적인 위험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동시적이며, 복합적인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개인밀착상담사

는 지역별 지부나 학교, 청소년 단체, NGO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에게 상담이나 조건 등의 활동과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개인밀착상담사는 위기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분명하고 명확한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 중심적 개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 개인밀착상담사의 활동영역

개인밀착상담사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제시된 문제를 파악하여 즉각적이고 긴급한 문제를 도움이 필요한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위기청소년들의 위기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여러 전문 인력, 즉 청소년 복지담당교사, 특수교육담당교사, 학년주임, 양호교사 등의 도움을 얻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위기청소년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된 정보는 전산화되어 기록되고 있다.

(라) 커넥션스 서비스

커넥션스 서비스는 지방자치정부별로 특성화된 차이가 있으며,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커넥션스 프로그램의 서비스는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와 청소년 지원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커넥션스 프로그램을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i. 위기청소년의 교육, 훈련, 극기, 문화 활동, 자기개발 및 부모들이 청소년을 양육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
- ii. 위기청소년에 대한 교육·진로상담, 지도, 개인밀착상담사의 개별적 지도
- iii. 또래 멘토링, 재정지원 등과 같은 개별적 지원
- iv. 학습과 성취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전문화된 조언과 서비스
- v. 법률, 행정, 양육에 대한 부모지원
- vi.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과 같은 실업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마) 커넥션스 다이렉트(Direct)

커넥션스 다이렉트는 13세에서 19세까지의 전화, 인터넷 채팅, 이메일, 문자정

보 등을 통한 지원서비스이다. 다이렉트 사업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다이렉트상담사들은 일주일에 7일, 오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진로, 교육, 일, 건강, 인간관계, 가족문제, 주거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문제들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평균적으로 연간 약 40,000명의 청소년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으며, 6,000명 정도는 전화, 온라인 채팅을 통하여 도움을 얻고 있다.(우정자 외, 2003; P194~211)

나) 기타 프로그램들(Connexions Partnership 참여 기관 및 프로그램들)

(1) 청소년서비스(Youth Service)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청소년 클럽 또는 청소년센터 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청소년클럽은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은 음악 감상, 간단한 식사, 게임 등을 할 수 있고, 문화여행, 스포츠여행, 실외에서 하는 모험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청소년그룹과 교환 모임을 가질 기회도 제공받는다.

청소년서비스는 지역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국의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직된다. 보통, 청소년서비스는 지방 정부 기관과 자원봉사단체나 독립적인 단체 사이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마련된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교육담당 부서 내에 독립적인 청소년 봉사 단체, 또는 청소년 및 지역 사회 봉사단체를 마련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보다 폭넓은 지역사회 교육 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서비스를 지원하며, 레크리에이션 담당 부서나 레저활동담당 부서가 청소년서비스 주무부서가 되는 지방 정부도 몇몇 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청소년서비스 파트너십은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클럽과 프로젝트, 그리고 보조금, 파견 직원 및 그 외의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계속교육대학, 훈련 및 기업위원회(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s), 민간 부분들과 파트너십을 마련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청소년사업을 마련하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2) 이웃갱생프로그램(Neighbourhood Renewal)

이웃갱생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가난한 이웃과 나머지 지역사회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번영, 안전, 높은 수준의 학교, 양호한 주택과 건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문제와 극복전략 중에서 교육이 가장 큰 중요성을 갖는다. 즉 이 사업의 주요핵심목표는 청소년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유지하고, 학습효과의 차를 좁히고, 청소년과 성인의 학습을 지원하고, 평등의 기회를 달성하는 것이다.

(3) 확실한 출발 프로그램(Sure Start)

이 프로그램은 임신한 여성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둬으로써 아동이 학교취학 이후 성장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역단위의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웃리치, 가정방문, 멘토링, 양육정보 제공, 일차보건 서비스 제공, 아동 보건과 발달에 관한 조언제공, 양질의 놀이, 학습, 보호서비스등 양육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확실한 출발 프로그램은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프로그램에 힌트를 얻어 만들어진 영국정부 프로그램으로,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충분한 양육과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의 초기교육, 아동케어, 보건과 가족지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임신한 여성과 가족이 양육 기술과 유아 및 학령전 아동의 발달, 영양 상태에 대해 교육받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는 아웃리치, 가정방문, 멘토링서비스, 양육정보제공, 일차보건보호서비스 제공, 아동보건과 발달에 관한 조언제공, 양질의 놀이, 학습, 보호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4) 커넥션카드(Connexions Card)의 도입

이 제도는 2001년 가을에 도입되어 16~19세에 해당되는 약 200만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다양한 비용할인서비스를 통해 학습비용을 경감시켜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호한 출석상태와 성실성, 합리적인 기준의 성취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종의 보상적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5) 청소년위탁관리서비스(Young People Leaving Care)

웨스트민스터시 청소년의 위탁보호를 위해 1992년 설립된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130~15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이다. 16세에서 21세의 청소년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위탁보호법(Leaving Care Act)에 따라, 청소년들이 교육 희망 시 24세까지 서비스 제공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기능은 청소년의 독립적인 생활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은 숙소에 입소하거나 정착하기까지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관리된다. 청소년위탁관리서비스의 주요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거지원
- 교육, 훈련, 취업
- 교육과 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
- 프로젝트 및 활동(문맹극복 계획, 또래상담 프로젝트 등)
- 또래상담

(6) 차일드 프로텍션(Child Protection; 런던 Coventry시)

Coventry시가 보호를 요하는 가출청소년의 비율을 줄이는데 크게 성공한 케이스로서 청소년들의 가족을 위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건강 및 교육에 관한 서비스가 포함되며, 그 내용으로는 행동 조절 프로그램, 조언, 지지, 상담 등이 포함된다.

다. 독일의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1) 독일의 청소년 관련법

가) 청소년 근로보호법(Jugendarbeitsschutzgesetz)

이 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와 관련하여 효력을 가지며 직업교육과정의 청소년, 취업청소년 또는 자영업 청소년, 취업이나 자영업과 근로상황이 유사한 기타 근로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 그리고 직업교육과 유사한 교육내용을 갖는 교육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주 내용으로 주 5일 4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15세 미만 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며 농업이나 신문배달에 있어서는 예

외적으로 인정된다.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6시부터 20시 사이로 제한되어 있으며 제빵점, 음식점, 문화공연 등과 관련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청소년 근로보호법은 최저 연 휴가와 직업학교(Berufsschule)에 다니는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근로보호법의 조항을 벗어난 어떤 근로계약도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 근로보호법의 위반은 불법적 행위가 된다. 또한 14살의 청소년은 법적으로 하루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가 허락되며, 이것 또한 학교 등교시간 이전에는 금지된다.

나) 청소년 보호법(Jugendschutzgesetz)

독일의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2002년 7월 23일에 개정된 것으로서 청소년을 둘러싼 풍속영업 등 모든 환경을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의 4조 1항은 청소년들의 음식점 체류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원칙적으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음식점에 출입·체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담배, 술, 필름, 컴퓨터 게임 등의 청소년에게 판매나 제공 그리고 청소년의 디스코텍이나 술, 음식점 등의 출입, 체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청소년 성 보호; 형법(Strafgesetzbuch)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은 우리나라와 같이 하나의 독립된 법률(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직 없으며 형법에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들에 따라 청소년이 성인들의 성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호권자의 미성년자(18세미만자) 성적학대 금지 규정(174조), 아동(14세미만자)에 대한 성적학대 금지(176조), 16세 미만 소녀와의 성행위 금지(182조), 미성년자에게 포르노 문서·도화를 제공하거나 보고 듣게 하는 행위금지(184조1항), 아동의 성적 학대 등을 내용으로 한 포르노 문서·도화를 배포하는 행위의 금지(184조3항) 등과 같이 상당히 구체적인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유형(自由形:행위의 양태에 따라 법정형은 각각 다르지만, 176조에서 성적학대 행위에 대해 최고 10년의 자유형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처벌된다.

라) 아동청소년 지원법(KinderJugend Hilfe Gesetz: KJHG)

이 법에서 아동(Kind)은 14세미만 자를 말하며, 청소년은 14세 이상 18세미만 자를 말한다. 이 법의 제42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일시적 보호에 관한 규정인데, 일시보호의 대상자는 아동청소년이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가족위기, 방임, 학대, 자살위험, 성적 학대, 가출, 중독 등이다.

보호 기간 동안은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생계와 의료보호(Krankenhilfe)가 보장되어야 한다. 보호의 시작과 함께 보호아동이나 청소년에게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자(친구, 형제, 이웃, 교사 등)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청소년청은 감독, 교육(양육), 체류결정권한을 갖는다. 이 경우 양육권자나 보호권자의 의지를 적절히 고려한다. 이러한 조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안녕(Wohl)을 위해 취해져야하며 아동청소년에게 그들이 처한 현재 상황을 상담해 주고 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도움과 지원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어야 한다.

이 법의 제42조 제2항은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은 청소년 상담소, 아동보호전화, 청소년위기 서비스, 응급보호소(Bereitsschaftspflegestellen), 청소년보호소 또는 직접 해당 지역의 청소년청(Jugendamt)을 통해 위기보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소년청은 해당 아동청소년을 보호조치 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이 보호를 요청하면 그들에게 보호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진다. 청소년청은 보호권자나 양육권자에게 지체 없이 보호조치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 만일 보호권자나 양육권자가 보호조치에 반대할 시는 청소년청은 지체없이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권자나 양육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거나

② 미성년재판소(Vormundschaftsgerichts)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조치임에 합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내어야 한다.

만일 보호권자나 양육권자에게 소식을 전할 수 없을 시에는 ②의 조치를 적용한다.

동법의 제42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이 위급한 위협으로부터 안녕을 지키기 위해 보호기관에의 수용이 필요할 때는 해당 아동청소년을 보호조치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2) 독일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책

독일에서는 1901년에서 14년간 지속된 프로이센제국의 권위주의적인 강력한 국가집권 권력구조에서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청소년정책이 시작되어 1914년에 최초로 청소년 사업에 필요한 재정기금을 창출하는 등 국가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전국 청소년복지체계가 확립되었다. 당시 청소년복지체계는 노동계급으로 새로이 부각되었던 청소년들의 정신적, 윤리적, 신체적 위협에 따른 보호와 국가체제를 유지, 사회주의적 사고나 노동자당을 지향하는 정치적 과격성으로부터 국가의 기본질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이었다.(이상오, 2003)

이후 제국청소년복지법(Reichsjugendwohlfahrtgesetz)을 1920년에 제정하여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지원 정책이 본격화 되었고, 민간의 참여를 법제화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화된 청소년사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73년에 청소년 문제행동에 따른 범죄행위의 전처분 이후 사회적 보호와 자활의 필요성이 사회적 요구가 되었고, 이에 따라 1998년에 기본 청소년 사회복지와 위기청소년의 지원책이 이원화 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위기청소년만을 위한 행정기구구가 국가적 체제가 마련된 것은 아니며 청소년 업무를 주관하는 모든 국가기관의 청소년정책이 사회적 형평성과 평등성의 이념을 통해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따로 각각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현재 독일의 위기청소년 지원 시스템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 und Jugend), 청소년청(Das Jugendamt-Traeger der oeffentlichen Jugendhilfe), 청소년정책의 국가 최고자문기구인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청소년정책 및 법률제정에 앞장서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을 위해 모든 민간기구가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가지고 통일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우정자, 2004; P94~102)

3) 독일의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및 관련 기관 네트워크

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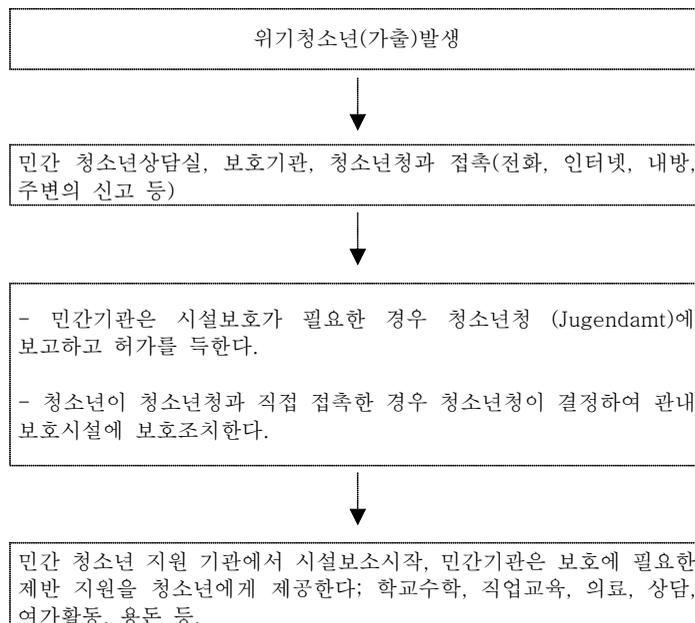
이 부서의 주요 활동으로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지방과 연방의 기구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치, 문화, 스포츠 교육과 외국과의 청소년 교류를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청소년복지, 교육, 국제교류, 청소년

년단체 등을 감독 및 지원하며 청소년육성지원, 청소년범죄예방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서에는 장관, 정무차관 그리고 행정차관을 두고 있으며 여성국, 가정국, 노인국, 아동청소년국 그리고 사회봉사구제국이 편성되어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청소년청

청소년청은 연방정부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하의 각 주(州)정부와 기초단체의 청소년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청소년청을 지역청소년청과 주 청소년청으로 나누며 청소년지원법에 따른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각 지역의 청소년정책 및 제반 청소년복지, 상담, 보호 등의 과제는 지역청소년청이 담당하며 각 주의 청소년정책과 과제는 주청소년청이 담당한다. 지역청소년청과 주청소년청의 아동청소년의 지원법에 따른 지원업무는 아래와 같다.(이혜연, 2004)

- 각 지역지원기관은 지역청소년청이 담당하고 광역지원기관은 광역청소년청이 담당한다.
- 복수의 지역 지원기관과 복수의 광역 지원기관은 각기 다른 광역에 속해 있을 지라도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관이나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다.



[그림 14] 독일 위기청소년 처리 흐름도

※ 위기청소년 발생 시 지역 내 청소년청 업무처리 흐름

- 위기청소년발생(가출, 폭력, 성적 학대, 약물, 부모와의 갈등 등)
- 보호기관(민간상담기관, 청소년청)과의 접촉
접촉의 시작은 본인의 전화, 내방, 주위의 신고 등을 통해 민간보호기관이나 청소년청이 투입되면서 진행된다.
- 민간 보호기관에 접수된 사례는 숙식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청소년청에 전달되며 청소년청으로부터 적절한 시설보호에 대한 결정을 받는다.
- 청소년청의 결정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는다.
- 학생인 경우 보호시설에서 의무교육기간(13년) 계속 학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으로 보장된다.
- 학생이 아닌 경우 적절한 직업을 준비하는 교육 혜택을 받는다(직업학교). 이 경우 법으로 보장된다.

다) 청소년지원위원회(Jugendhilfeausschuss)

청소년지원위원회는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의해 청소년청의 행정기구와 함께 청소년청을 구성한다. 청소년지원위원회는 청소년청의 행정기구에 대해 상위의결기구이며 청소년지원 및 복지의“기본적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책임과 담당을 진다. 여기서 기본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청소년지원계획(Jugendhilfeplanung)이나 민간 청소년복지 지원단체(Freie Traeger)의 재정적 문제를 의미한다.

청소년지원위원회로부터 결정된 정책은 청소년청의 행정기구에 의해 실천되어 진다(KJHG제 70조). 아동청소년지원법 제 71조에는 청소년지원위원회의 책임, 과제, 구성 등에 관하여 연방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주법은 청소년 업무 담당 관리자의 청소년지원위원회에서의 투표권이라든지 또는 타 부처와의 협조사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4) 베를린 아동청소년보호센터 프로그램

우리나라 CYS-net은 1975년에 독일 베를린에 국가제원으로 설치된 ‘베를린 아동청소년보호센터(Das Kinderschutz-Zentrum Berlin)’의 프로그램인 ‘청소년위기서비스(Jugendnotdienst)’,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익협회(Gemeinnuetzige Gesellschaft fuer Kinder und Jugendliche)’, ‘위기청소년 응급전화 540388’의 혼합

모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 단락에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발간한 ‘외국의 소외청소년 정책연구(이혜연, 2002)’에서 제시한 독일의 위기청소년 지원시스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베를린 아동청소년보호센터는 9세에서 24세까지 아동 및 청소년중 가정방임, 아동추행, 성, 교육, 중독, 폭력, 나태 등의 문제를 가진 위기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있다. 이 기관은 전 베를린 지역을 대상으로 위기청소년의 발굴과 서비스의 연계, 상담, 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내각(청소년스포츠 성)’으로부터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각 지역의 지역청소년청을 통해 아동보호시설, 가족치료,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재정을 받고 있다.

또한 위기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위기전화상담, 메일상담, 온라인상담 등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이메일 상담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응답을 주도록 제도화 되어있다. 이러한 위기상담 시스템은 우리나라 청소년전화 1388과 같이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베를린 아동청소년보호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상 청소년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위기청소년과 동반하여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가) 청소년위기서비스(Jugendnotdienst)

청소년위기서비스는 위기청소년과 부모들을 위해 24시간 개방되어 운영되는 곳으로 9세에서 19세까지 모든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가출청소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후 가정 복귀 및 귀가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가출청소년 중 법적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기청소년의 대변인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한다. 청소년위기서비스는 최장 15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15일 이내에 가출청소년의 개별적 사례에 부합하는 보호기관에 의뢰한다.

또한 청소년위기서비스는 가출청소년 발견, 보호, 지원에 대한 각각의 민간 운영위원단을 두고 있으며, 법조인, 의료인, 사회사업가, 공무원, 지방청소년청, 제정 운영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나) 독일의 위기청소년 응급전화 540388

베를린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 지원에 따른 모든 서비스를 숙지한 전문전화 상담사를 통해 위기청소년과 그의 관계망에 있는 가족, 가정이 도움을 요청시 즉각적이고 동시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24시간 이용 가능한 위기청소년 응급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기청소년 응급전화의 경우 위기 상황의 접근도를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 경찰서, 관공서 등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응급전화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해 각개 번호가 존재하고 있다.(여성: 6800066 또는 55690)

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익협회(Gemeinnutzige Gesellschaft fuer Kinder und Jugendliche)

로스톡(Rostok)시에 소재하며 이 협회에서는 14-18세 사이의 위기청소년의 상담 및 제반 지원을 위해 24시간 개방형의 상담실을 운영한다. 그 외에 로스톡시의 아동청소년지원센터에서 아동청소년 돌봄의 집 운영, 가족지원, 아동-어린이 사업, 엄마-아동 만남, 집단 사회사업 등의 사업을 운영한다.

라. 일본의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1) 일본의 청소년 관련법

가) 청소년 유해사회환경 대책 기본법안

이 법안의 목적은 청소년 유해사회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보호자 및 국민의 책임을 명백히 한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유해사회환경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가정, 학교, 직장 및 지역사회 등 각각에 있어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에 양호한 사회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국가는 종합적인 청소년 유해사회환경 대책을 책정하고 이것을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사회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가 국민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홍보, 그 밖의 계몽 활동을 통해 기본이념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지방공공단체는 해당구역의 사회적 상황에 맞는 자주적 시책을 책정하여 그것을 실시할 책무가 있다. 그리고 기본이념에 관한 지역주민이해를 높이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사업자의 책무로서 청소년건전육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자주적으로 실시하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청소년 유해사회환경 대책에 협력하는 책무가 있다. 보호자는 청소년의 친권을 행하는 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청소년을 현재 보호(監護)하는 자는 그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할 제일의적 책임을 갖고 있음을 자각하고 그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나)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의 책정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은 소자고령화, 정보화, 국제화 등의 사회변화와 사회적 자립의 지연이나 비행 등 청소년을 둘러싼 현재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정부의 기본이념과 대략 5년을 목적으로 한 중장기적인 시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대강은 0세부터 대개 30세 미만까지의 연령층에 있는 자의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강은 청소년육성시책의 기본이념과 4개의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유소아기, 초등학생기, 사춘기, 청년기라고 하는 연령기마다의 시책의 기본방향, 다양한 사정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청소년 등에 관한 시책의 기본적 방향, 효과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환경 정비와 관련된 시책의 기본적 방향, 시책의 추진체제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다) 요보호 청소년 정책지원

첫째, 요보호 청소년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지원 단위의 소규모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요보호청소년이 보호받고 있는 시설인'아동양호시설'등의 시설 개선 그리고 처우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가정적인 환경 하에서 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양부모제도에 대해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양부모제도의 보급 활용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등 요보호청소년을 위한 지원활동에 힘쓰고 있다.

2) 일본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책

일본의 청소년관련 지원정책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심각한 현상에 대응하여 청소년 행정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위기청소년의 국가차원이나 도도부현(都道府縣) 차원의 통합지원 정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복지사업법의 전반에 청소년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중심의 청소년 정책은 우리나라의 광역시, 도, 구, 군과 같은 도도부현(都道府縣), 시정촌(市町村) 및 소속 행정 자치구가 중앙정책에 따른 유기성을 통해 일관적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소속 행정자치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중앙정책의 보완책으로 자체적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일본의 지원시스템은 독일과 같은 청소년 정책의 독립부서가 설치되어 자체적인 운영체계의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주요정책을 입안하여 제정하는 내각부를 중심으로 행정자치구가 유기적이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정책도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따로 정하여 각 지역설정에 맞게 실행되고 있다.(윤철경, 2005)

가) 청소년육성추진요강

청소년육성추진요강의 기본방침은 정부는 청소년 육성을 국정상 최고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교육, 복지, 보호, 교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청소년행정의 기본적인 방침은 전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에 관한 방침 및 중점 추진사항에 관하여 본 요강을 책정하는 것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서 흉악·조폭(粗暴)한 비행 및 폭력행위에 대응추진, 집단따돌림·폭력행위 문제의 대응추진, 약물남용 대책추진 청소년 사회 참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촉진, 아동학대문제 등에의 대응추진, 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에의 대응 등이다. 실천사항으로서는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비행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추진을 꾀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이해와 협력을 얻으면서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관련단체 및 행정이 일체가 되는 폭넓은 대응과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으로 「전국 청소년 건전육성 강조월간」, 「청소년 비행문제에 대처하는 전국 강조월간」, 「사회를 밝게 하는 운동」, 「아이들과 이야기해요」 전국캠페인 등 의제활동을 집중적·중점적으로 전개 한다.

나)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은 지역에서 아동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부모와 아동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체제정비를 위한 「전국아동플랜(긴급3개년전략)」 책정, 2000년을 「국제독서의 해」로 하는 국회결의로 아동의 독서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보급·계발 등 사업 전개, 자원봉사활동 참가 촉진, 단체·집단 활동 촉진, 문화 활동 원조, 스포츠 활동 보급·진흥 등을 꾀하기 위한 지원 청년의 집·소년 자연의 집·공민관(公民館)·도서관·박물관 등의 사회교육시설, 근로청소년복지시설, 이동관 등의 아동후생시설, 공원, 유스호스텔, 스포츠시설 등 정비, 사회교육담당직원이나 각종 시설지도원 등 청소년관계 지도자 양성 및 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청소년 정책 종합적 추진지역

청소년 정책 종합적 추진지역에서 청소년을 육성하는 환경 만들기 추진은 현재 청소년에게는 타인 입장 이해, 사회 일원으로서의 인식부족, 자기억제력 저하 등의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의 하나로서 청소년이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 타자와의 공동체임을 행할 기회가 점차 적어지게 되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나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풍부히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의 성인이 적극적으로 참가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청소년 육성 환경 만들기로서 일정지역 안에 존재하는 가정, 학교, 지역주민, 기업,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이 연대감 있는 유기적인 체제지역 커뮤니티를 지역주도로 형성해 가는 것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청소년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지역커뮤니티에 관해서는 구성원 개성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갖는 공생의 장으로 발전하도록 배려 할 필요가 있다.

3) 일본의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및 관련 기관 네트워크

가) 정부기관의 청소년 비행 대책

일본 정부는 최근에 청소년 비행이 심각해지면서 청소년 비행 대책의 추진에

관하여 긴밀한 연락, 정보교환, 협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청소년육성추진본부에 '청소년 비행 대책 과장회의'를 설치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연계 아래 청소년 비행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법무성은 「청소년육성시책대강」 등에 입각하여 심각한 청소년 비행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제162회 국회에 「소년법 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은 첫째, 이른바 촉법 소년 및 우범 청소년에 관계된 사건에 관하여 경찰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정비한다. 둘째,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셋째, 보호 관찰에 부착된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던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처분 중의 소년의 보호자에 대하여 지도, 조언 등을 할 수 있는 취지를 명확히 한다. 넷째,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국선 참석자를 붙인 제도를 신설한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날로 심각해져가며 범죄연령의 하향에 따른 법무성의 역할 강화를 의도한 것으로 청소년비행에 대하여 법무성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적인 방안 외에 관계기관에서는 지역사회까지 포함한 활동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첫째, 지역의 실정에 따른 비행 방지를 위한 활동·행사의 전개. 둘째, 학교에 있어서 비행방지교실이나 약물남용방지교실의 개최. 셋째, 지역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 기회나 장소 만들기. 넷째, 가두 선도 활동의 강화, 서포트 팀 형성의 추진 등이 있다. 이는 가정, 학교, 지역 사회가 한층 더 긴밀한 연계를 맺으면서 비행방지 대책을 더욱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책의 기본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각각 안고 있는 문제가 복잡하게 뒤얽혀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민운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관계행정기관에서는 청소년비행 대책에 대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을 얻어 선진적인 사례 등에 대해 조사 연구나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다. 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의 적정하면서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검찰청, 소년감별소, 지방갱생보호위원회, 보호관찰소 및 가정법원의 협력을 얻어 처우 실적에 근거한 사례 연구회를 실시하고 있다.

나) 민간 볼런티어 단체 등과의 연계

비행청소년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에 의한 지도·원조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의 이해와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아래 갱생보호 시책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역의 볼런티어가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무성의 주창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회를 밝게 하는 운동” 등의 기회에서 비행 방지와 갱생의 원조에 관하여 국민 1인 1인의 이해와 협력을 폭넓게 구하고 있다. 갱생보호를 지지하고 있는 볼런티어로서는 보호사, 갱생보호시설, 갱생보호여성회, BBS (Big Brothers and Sisters Movement) 모임, 협력 고용주 등이 있다. 법무성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민간 볼런티어의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그 연수의 충실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소년전용갱생보호시설은 입소 중에 있는 소년의 자립 갱생을 촉진하기 위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등 처우 기능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4) 일본의 위기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가) 사회를 밝게 하는 운동

법무성이 주축이 되어 범죄예방활동의 일환으로서 “사회를 밝게 하는 운동”이 실시되고 있다. 이 운동은 모든 국민이 범죄나 비행의 방지와 죄를 범한 사람들의 갱생에 관하여 이해를 깊게 하고, 각각의 위치에서 협력하여 범죄나 비행이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다. 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다양한 기관·단체는 각 지역 실정에 따른 방법에 의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각지에서 직접적인 비행방지활동, 예의범절까지 포함한 육아상담 활동, 지역에서 비행문제 등을 함께 이야기하는 작은 집회활동, 퍼레이드 등의 캠페인 활동 외에 스포츠 대회, 연구발표회, 친자 상호이해 행사 등 청소년의 주체적 참가를 통한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나) 상담 활동

경찰에서는 청소년의 비행, 가출, 자살 등의 미연 방지와 그 징후의 조기 발견이나 범죄, 집단 괴롭힘, 아동 학대 등에 관계된 피해 청소년 등의 보호를 위해 청

소년 상담의 창구를 설치하고, 심리학 등의 지식을 갖는 청소년상담 전문 직원,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선도 직원이나 경찰관이 청소년이나 보호자 등으로부터 상담을 받아 필요한 지도나 조언을 행하고 있다.

또한 영·전화·코너 등의 명칭으로 전화에 의한 상담을 받고 있는 외에 프리 다이얼을 도입하거나, FAX나 전자 메일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 상담을 이용하기 쉬운 환경의 정비에 노력하고 있다

법무성의 인권 옹호 기관에서는 각 법무국·지방 법무국 및 그 지국에 평상시 개설하고 있는 상설 인권상담소 외에 시읍면 사무소나 백화점, 공민관 등 임시로 개설한 특설 인권상담소에서 인권상담을 접수하고 있다.

인권옹호위원 중에서 청소년의 인권 문제에 조예가 깊은 위원을 지명하고, 전국의 법무국·지방 법무국에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청소년인권 전문위원」을 배치함과 동시에 전용상담전화 「청소년의 인권 110번」을 개설하고, 「집단 괴롭힘」등의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소년감별소는 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관호의 조치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함과 동시에 그 자질의 감별을 행한 시설이지만 아이의 비행 등의 문제에 변민한 학교 관계자나 일반 시민으로부터의 상담 등에 따른 일반 청소년 감별도 행하고 있다. 일반 청소년 감별은 임상심리학의 전문가인 심리기관이 조언이나 지도를 맡고 있다. 이 외에 보호관찰소도 범죄예방활동의 일환으로서 보호관찰관이나 보호사가 청소년의 비행이나 문제행동으로 고민하는 부모 등으로부터의 상담에 응하고 있다.

소년선도센터는 지역 주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읍면을 중심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그리고 가두 선도, 청소년 상담, 유해환경정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소년선도센터가 처리한 청소년상담의 내용은 비행에 관한 것 외에 집단 괴롭힘, 학교거부, 학대 문제 등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서포트(support) 팀의 활동

서포트 팀은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다양하고 심각해지면서 개별적인 청소년의 문제 상황에 착안하여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 학교, 경찰, 아동상담소, 보호관찰소 등의 관계 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적절한 역할 분담 아래 경계하고 대처하기 위

한 것이다. 서포트 팀은 원활한 조직화를 위해 관계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필요에 따라 서포트 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단체 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지속적으로 청소년 개개인의 문제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학교, 교육위원회,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서포트 팀」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문제행동에 대한 지역의 행동 연계 추진사업」은 「서포트 팀」과 함께 비행등으로 학교를 거부하거나 학교 내에서 심각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복귀하거나 선도하기 위한 「자립지원 교실」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비행청소년 등의 징후 파악 그리고 심각해지기 전 단계에서 대응을 하기 위한 청소년 서포트(support)체제의 위상을 「관계기관 등의 연계에 의한 청소년 서포트(support)체제의 구축에 관하여」를 통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2004년 9월에 청소년비행 대책 과장회의에서 합의하여 지방공공단체에 주지시키고 보급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라) 피해 청소년의 보호 활동

일본정부는 범죄 청소년의 미연의 방지와 단속 외에도 피해를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인격 형성의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범죄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후가 건전 육성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피해 청소년의 재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선도 직원, 청소년상담 전문직원 등에 의한 지도 조언 외에 피해 청소년에 대한 카운슬링 등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 청소년의 지원에 관해서는 임상심리학, 정신의학 등의 고도의 지식·기능이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피해 소년 카운슬링 조연자」로서 위촉하고, 그 적절한 지도·조언을 받으면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지역에서 보호자 등과의 긴밀한 연계 아래 일상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나 생활 상황을 파악하면서 치밀한 방문활동 등을 하였던 볼런티어를 「피해 소년 서포터」로서 위촉하고 이들과 연계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마) 적응지원교실(교육지원 센터)

문부과학성은 2003년 3월에 '최근의 학교거부예의 대응의 방향에 관해서(학교거부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 회의 최종 보고)'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적응지도교실 정비 지침(시안)을 함께 발표했다. 이 지침에는 적응지도교실의 설치 목적, 자기 평가정보의 적극적인 제공 등, 대상자, 지도내용·방법, 지도체제, 시설·설비 등, 학교와의 연계, 타 기관·민간시설·NPO법인 등과의 연계, 교육위원회의 책무에 관해서 구체적인 시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 적응지원교실의 목적과 지도내용·방법, 지도체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적응지원교실의 목적은 학교거부 청소년의 집단생활에의 적응, 정서의 안정, 기초학력의 보충, 기본적 생활습관의 개선 등을 위해 상담·적응지도(학습지도를 포함한다)를 함으로써 학교복귀를 지원하고 나아가 학교거부 학생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지도내용이나 방법은 첫째, 청소년의 입장에 서서 생명이나 인격을 존중하는 인간미가 있는 따뜻한 상담·적응지도를 한다. 둘째, 상담에 관해서는 공감적인 입장에서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셋째, 각 교과 등의 학습지도에 관해서는 재적하였던 학교와 연락을 취하여 시설 및 청소년의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넷째, 지도내용은 청소년의 실태에 맞게 적절하게 정하여, 개별지도와 병행하여 시설 및 청소년의 실정에 맞는 집단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에 청소년의 실정에 맞게 체험활동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다섯째, 가정방문에 의한 상담·적응지도는 시설, 지역, 청소년의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실에 다니는 것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와 타 기관과의 연계 아래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시설은 학교거부 청소년의 보호자에 대해서 학교거부의 원인이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언·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다.

지도체제로는 첫째, 시설에는 상담·적응지도 등에 종사하는 지도원을 두는 것으로 한다. 둘째, 지도원은 적응지원교실의 청소년의 실제정원 10명마다 적어도 2명 정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도원은 상담·적응지도, 학습지도 등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 또는 기능을 갖고 있고, 동시에 그 직무를 행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열의나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넷째, 교육위원회는 지도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적절한 연수의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다섯째,

카운슬러 등의 전문가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배치하고, 청소년의 지도방침 등에 관해 협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이때에 연령, 직종 등 다양한 인재의 협력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종합 논의 및 시사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의 청소년들은 가정환경과 개인적 상태가 매우 상이한 환경에서 자라난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자라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위기를 겪게 된다. 청소년 중 누군가는 위기를 지혜롭게 잘 다루어 이겨내는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반면 제대로 된 길을 잡아주지 못해 곤란을 겪는 청소년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곤란을 겪는 청소년들이 위기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청소년들을 위하여 각 국가들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들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모든 국가의 청소년 정책이 같지는 않다. 각 국가의 청소년 지원 정책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미국의 주정부는 청소년 지원 정책을 수립하며 제도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민간기관은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위기 청소년 정책의 특징은 주 정부의 행정 기구와 지역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 특성의 확보와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영국

영국은 중앙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커넥션스 프로그램과 같이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의 획일화 된 정책과 이에 따른 서비스는 각 지역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통합적 정책을 바탕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각 기관과 연계하여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의 청소년정책

에 있어 특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실시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3) 독일

독일은 국가가 청소년 관련 행정기구를 일원화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정책수립과 지원, 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신속하고 일관되게 전달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체계이다. 이와 같이 독일은 각 지역의 특성보다는 위기 청소년의 문제를 명확히 하여 국가가 직접적으로 위기 청소년에 지원을 함으로 일관되고 신속한 서비스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 일본

일본은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계획에 있어 단일 부서의 업무에 있지 않고 복지 사업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입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포괄적인 정책에 보완하여 지역의 행정 자치 기구에서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역의 행정자치기구가 긴밀한 연계를 가지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각 나라들이 가지는 특징이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과 그 체계에 있어 시사 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청소년의 명확한 범주 기준

통합 지원체계 내에서 위기 청소년과 위기 가능청소년, 일반청소년의 범주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것은 각각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성향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각의 청소년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만 청소년 지원에 있

어서 더욱 실속 있는 서비스와 관련 구축체제를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지원체계를 좀 더 직접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좀 더 시스템에 접근하기 쉬워질 것이다. 셋째, 청소년을 구제하는데 필요한 인력의 낭비나 재정의 낭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청소년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에 앞서 기본적으로 어떤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이며 그들을 위기청소년이라고 명명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매뉴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이는 국가의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특성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유형별 분포도 다르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관의 현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각 지역에 청소년 지원 센터나 수련원의 역량을 확대하고 지역의 청소년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위기청소년의 통합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설정과 관련 제도 및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간 접근성

지역 청소년 시설의 역량 확대와 더불어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 시설간의 접근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마다 마련되어 있는 시설이 청소년과의 접근성에 용이 하지 않다면 역량확대와 통합 시스템 구축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시설과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려야 할 것이다. 이는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그 접근성이 용이하여 이용 청소년들이 원하는 때 어디서든 자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민간전문단체의 참여와 연계

민간의 전문 단체들에 대한 청소년 정책의 참여와 실시 및 정부의 활용방안과 연결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청소년의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청소년 정책의 발전과 좀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전문단체와의 긴밀한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각적으로 각 지역과 청소년 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통합지원의 효율성 또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평가 및 지원방안에 대한 규정마련이 요구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측정도구 선택 및 실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유형별 수준별 위기의 빈도와 요인을 알아보고 가정으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의 정도 및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본용 등(2005)이 개발하고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구조화한 위기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위험요소 및 위기결과 질문지를 수정한 것으로 청소년이 직접 검사에 반응하는 자기보고형식 검사이다. 이 설문은 2006년 이후 보건복지 가족부의 지침에 의해 매년 전국 16개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청소년 생활의 실태를 이해하고 위기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미 검증된 설문으로 측정도구 선택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또한 2006년 이후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에 의해 과거와 현재의 청소년의 생활 및 위기상황을 비교하여 변화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위기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위기평정척도를 통해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위기영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고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험요인 영역을 수준별로 나누어서 청소년에게 어떤 영역의 서비스가 먼저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 1차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가정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내용은 학비는기타 준비물비는 용돈, 학원 등의 교육비는 의료, 안정적 주거 및 식사는 방과 후 학습, 여가활동, 고민상담 및 부모님의 시간 할애와 청소년전화 헬프콜에 대한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5>와 <표6>과 같이 위험요인은 개인, 가정, 학교, 또래 및 지역사회의 5개 영역 8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는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요소별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른 환산점수를 이용하여 60점 미만은 보통, 60점 이상 70점미만인 경우는 잠재적 위험군, 70점 이상인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화 하였다. 위기결과는 청소년들이 겪는 실제 위기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가정문제, 가출문제, 학업중단, 학교폭력, 약물, 인터넷 중독, 성폭력, 절도 및 자살의 9개 영역 18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표 5〉 설문지 구성

구 분		문 항 수
응답자 특성		8
1388청소년 전화 인지 및 이용경험		2
부모로부터의 지원		2
위험요인	정서적/심리적 요인	22
	개인요소	15
	가정요소	20
	학교요소	15
	또래요소	5
	지역사회요소	4
	소계	81
위기결과	가정문제	2
	가출	2
	학업중단	2
	학교폭력	2
	약	2
	인터넷중독	2
	성폭력	2
	절도	2
	자살	2
	소계	18
총문항		111

〈표 6〉 설문지 결과

구 분		결 과(page)
1. 응답자 특성		96-98
2. 위험 요소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정서적/심리적 요인	101
	개인요소	101
	가정요소	102
	학교요소	103
	또래요소	103
3. 위험 수준 빈도	지역사회요소	104
	고위험군(70점 이상)	100
	잠재적 위험군 (70점 미만 60점 이상)	100
	보통(60점 미만)	100
	고위험군(70점 이상)	99
5. 위험 수준별 위험요소 평균 및 표준편차	잠재적 위험군 (70점 미만 60점 이상)	100
	보통(60점 이상)	100
4. 위험결과 빈도	각 문항의 빈도	100
6. 위험 수준별 위험결과 빈도	고위험군(70점 이상)	152-176
	잠재적 위험군 (70점 미만 6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7.8.9 각 위험 수준별 분석	성(빈도)	216-255
	학교(빈도)	
	학년(빈도)	
10~16/18~30. 각 위험수준별 분석	부모님 상황	158
	동거인	161
	경제수준	160
	1388 인지여부	354
	1388 이용여부	355
	물질지원	321
	정서지원	322
	자퇴경고/퇴학	311
	폭력 피해	312
	폭력 가해	312
	약물	313
	음주/흡연	314
	인터넷 사용 갈등	315
	계획 차질	315
	흠칫	315
	강제로 물건 뺏음	316
	성/성폭력 위협	317
	성/성매매 유혹	317
	성/자살 생각	318
	성/자살 시도	319

2.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16개 시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정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업중단청소년, 시설에 수용중인 청소년, 병이나 장애 등으로 치료중인 청소년, 유학 중인 청소년 등을 제외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전국에 남녀 중·고교생으로 한정하여 연령보다는 청소년의 신분(중·고교생)을 중점으로 정의하였다. 그 이유는 청소년의 위기상황의 경우 시기적으로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전체 청소년의 3.46%만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중·고교 재학생으로 한정을 하였다. 본 연구는 16개 시·도에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일부지역에서는 쉼터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청소년관련시설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부실 기재된 1,400부를 제외하고 69,754부이다.

〈표 7〉 16개 시도 청소년 생활실태조사 인원

센터명	조사대상	조사인원 (설문지수거인원)
서울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중·고등학생, 일시보호소, 긴급구조, 가출청소년 등	3,467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중·고등학생	1,364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중·고등학생, 보호시설의가출청소년, 대안학교	5,888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중·고등학생, CYS-Net 유관기관	1,444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중·고등학생, 청소년관련기관	4,134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중·고등학생, 쉼터, 일시보호소	5,172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중·고등학생	2,826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중·고등학생 예정	5,328
충청남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중·고등학생	3,098
전라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중·고등학생	1,365
전라남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중·고등학생	3,042
경상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중·고등학생	9,248
경상남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중·고등학생	9,107
강원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중·고등학생, 일시보호소, 긴급구조, 가출청소년 등	3,090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중·고등학생	9,52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중·고등학생, 일시보호소, 긴급구조, 가출청소년 등	1,658
총 조사대상		69,754

3. 자료수집방법

가. 조사기간

본 연구에서 실시된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는 2008년 6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으로 실시된 설문결과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대전직할시의 경우 행정 및 예산의 문제로 2009년에 설문을 하게 되어 조사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실시 되었다.

나. 자료수집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표 7>과 같이 부실 기재된 1,400부를 제외하고 69,754부이다. 서울특별시, 강원도, 광주광역시, 대전직할시, 충청남도의 경우 예산 및 행정문제로 설문지 배포 및 수거만 담당하고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자료처리 및 설문결과 분석을 하였다.

IV.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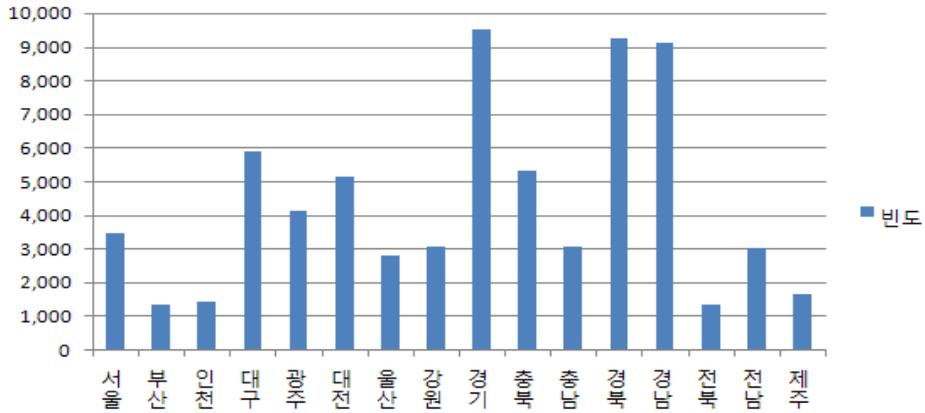
1. 연구대상

〈표 8〉 시도별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시	도	서울	3,467	5.0		
		부산	1,364	2.0		
		인천	1,444	2.1		
		대구	5,888	8.4		
		광주	4,134	5.9		
		대전	5,172	7.4		
		울산	2,826	4.1		
		강원	3,090	4.4		
		경기	9,523	13.7		
		충북	5,328	7.6		
		충남	3,098	4.4		
		경북	9,248	13.3		
		경남	9,107	13.1		
		전북	1,365	2.0		
		전남	3,042	4.4		
		제주	1,658	2.4		
		합계	69,754	100.0		

본 연구는 서울(3,467명), 부산(1,364명), 인천(1,444명), 대구(5,888명), 광주(4,134명), 대전(5,172명), 울산(2,826명), 강원(3,090명), 경기(9,523명), 충북(5,328명), 충남(3,098명), 경북(9,248명), 경남(9,107명), 전북(1,365명), 전남(3,042명), 제주(1,658명) 등 16개 시도, 총 69,7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도별 분포는 〈표 8〉과 같다.

시도별 분포



<표 9> 성별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성별	남	36,915
	여	32,742
	무응답	77
	합계	97
합계	69,754	100.0

응답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36,915명(52.9%), 여학생이 32,742(46.9%)로 남학생이 다소 많았다.

<표 10> 학교별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학교	중학교	30,787
	인문계고	22,662
	전문계고	15,437
	학교에다나지않음	677
	합계	191
합계	69,754	100.0

응답자의 학교급별 분포는 중학교 30,787명(44.1%), 인문계고 22,662명(32.5%), 전문계고 15,437명(22.1%),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 677명(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학년별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학년	중1	9,418	13.5
	중2	12,211	17.5
	중3	9,581	13.7
	고1	18,798	26.9
	고2	12,964	18.6
	고3	6,014	8.6
	해당없음	395	0.6
	합계	373	0.5
합계		69,754	100.0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26.9%인 18,798명이 고1 학생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고2(12,964명, 18.6%), 중2(12,211명, 17.5%), 중3(9,581명, 13.7%), 중1(9,418명, 13.5%), 고3(6,014명, 8.6%), 해당없음(395명, 0.6%) 순이었다.

〈표 12〉 가족형태별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가족 형태	두 분 모두 친부모	60,005	86.0	
	아버지만 계심	2,916	4.2	
	어머니만 계심	3,299	4.7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1,517	2.2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851	1.2	
	두 분 모두 양부모	343	0.5	
	두 분 모두 안 계심	551	0.8	
	무응답	272	0.4	
	합계		69,754	100.0

가족구성 형태는 ‘두 분 모두 친부모’인 경우가 60,005명(86.0%)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만 계심 경우가 3,299명(4.7%), ‘아버지만 계심 경우가 2,916명(4.2%),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인 경우가 1,517(2.2%), ‘친어머니와 새아버지인 경우가 851명(1.2%), ‘두 분 모두 안 계심 경우가 551명(0.8%), ‘두 분 모두 양부모인 경우가 343명(0.5%) 순 이었다.

〈표 13〉 현재 거주 형태 분포 (울산, 제주는 문항형식 상이하여 분석에서 제외함.)

구 분		빈 도	퍼 센 트
거주 형태	부모님	58,204	83.4
	조부모님	2,164	3.1
	결혼한 형제가족	199	0.3
	친척집	403	0.6
	형제들과 자취	300	0.4
	친구 또는 선후배	79	0.1
	혼자 거주	189	0.3
	하숙	96	0.1
	기숙사	1,744	2.5
	아르바이트하는 곳	43	0.1
	청소년보호시설	373	0.5
	기타	571	0.8
	무응답	5,389	7.7
	합계	69,754	100.0

현재 거주 형태에 대한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면¹⁾,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가 58,204명(83.4%)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조부모님과 거주하는 학생이 2,164명(3.1%),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1,744명(2.5%)이었다. 청소년보호시설에 있는 응답자는 373명(0.5%), 혼자 거주하는 응답자는 189명(0.3%)이었다.

〈표 14〉 가정경제수준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가정 경제 수준	매우 어려운 편	1,935	2.8
	어려운 편	12,043	17.3
	보통	48,603	69.7
	잘사는 편	5,948	8.5
	매우 잘사는 편	967	1.4
	무응답	258	0.4
합계	69,754	100.0	

가정 경제수준에 대하여 응답자의 48,603명(69.7%)이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12,043명(17.3%), 잘사는 편이라는 응답이 5,948명(8.5%), 매우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1,935명(2.8%)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

1) 거주형태 분석시, 울산/제주지역의 거주형태 관련 문항이 타 지역 문항과 상이하여 울산/제주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울산/제주지역의 거주형태 빈도표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음.

정경제수준이 잘사는 편이라는 응답보다는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2. 척도

〈표 15〉 위험요소 척도의 문항구성과 내적합치도

구 분	문 항 수	내적합치도
심리요소	22	.94
개인요소	15	.84
가정요소	20	.89
학교요소	15	.87
또래요소	5	.82
지역사회요소	4	.75
전체요소	81	.96

위험요소 문항은 총 81문항,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에 대한 내적합치도를 산출한 결과, 심리요소는 .94, 개인요소는 .84, 가정요소는 .89, 학교요소는 .87, 또래요소는 .82, 지역사회요소는 .75, 전체위기요소는 .96이었다.

〈표 16〉 위기결과 척도의 문항구성과 내적합치도

구 분	문 항 수	내적합치도
가정	2	.72
가출	2	.58
학업중단	2	.39
학교폭력	2	.61
약물	2	.17
인터넷	2	.63
절도	2	.64
성폭력피해	2	.76
자살	2	.59
전체	18	.71

위기결과 문항은 총 18 문항,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에 대한 내적합치도를 산출한 결과, 전체위기결과의 내적합치도는 .71이었다.

3. 위기요소

가. 위기요소별 수준 분포

위험요소의 설문 결과는 6개의 영역으로 분류되고, 각 영역별 점수의 합을 표준화한 후, 표준점수를 이용하여 1, 2, 3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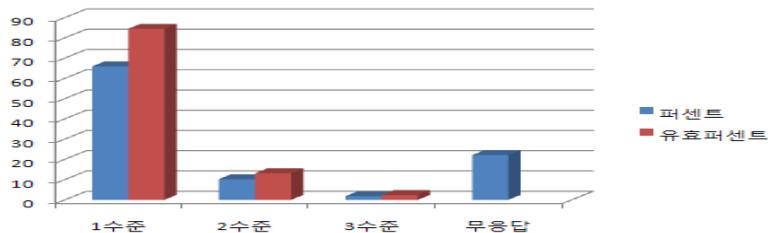
〈표 17〉 전체 위기요소 구분 기준

구분	환산점수	설명
1수준	60미만	보통
2수준	60이상-70미만	잠재적위험군
3수준	70이상	고위험군

〈표 18〉 전체 위기요소 분포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수준	45,936	65.9	84.5
2수준	7,121	10.2	13.1
3수준	1,281	1.8	2.4
무응답	15,416	22.1	
합계	69,754	100.0	

전체 위기요소 수준을 살펴보면²⁾, ‘보통’에 해당하는 1수준이 45,936명(65.9%)으로 가장 많았고 ‘잠재적 위험군’인 2수준이 10.2%, ‘고위험군’인 3수준이 1.8%였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1수준은 유효응답자의 84.5%, 2수준은 13.1%, 3수준은 2.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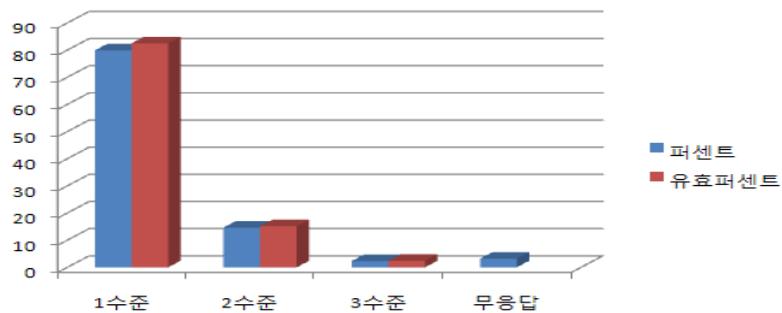


2) 전체 위기요소 분석시, 충북과 대전의 가정적 위기 관련 일부 조사문항이 타 지역과 상이하여 충북과 대전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표 19〉 심리적 위기요소 수준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유효 퍼센트
1수준	55,706	79.9	82.5
2수준	10,218	14.6	15.1
3수준	1,595	2.3	2.4
무응답	2,235	3.2	
합 계	69,7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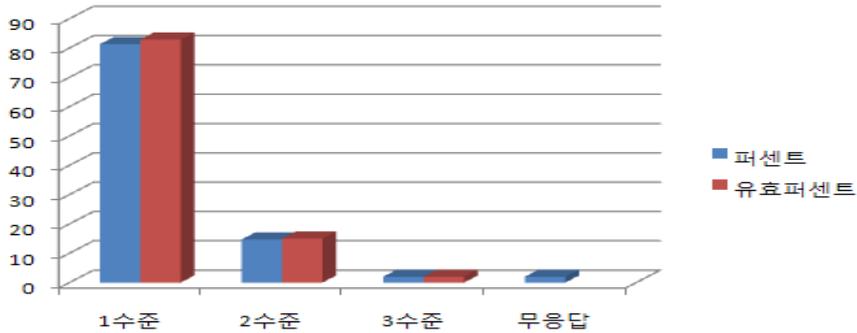
심리적 위기요소 수준을 살펴보면, ‘보통’에 해당하는 1수준이 55,706명 (79.9%)으로 가장 많았고 ‘잠재적 위험군’인 2수준이 14.6%, ‘고위험군’인 3수준이 2.3%였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1수준은 유효응답자의 82.5%, 2수준은 15.1%, 3수준은 2.4%였다.



〈표 20〉 개인적 위기요소 수준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유효 퍼센트
1수준	56,703	81.3	82.9
2수준	10,266	14.7	15.0
3수준	1,399	2.0	2.0
무응답	1,386	2.0	
합 계	69,7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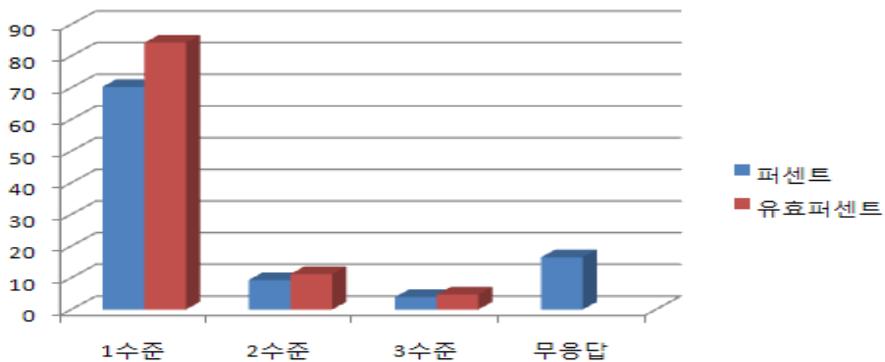
개인적 위기요소 수준을 살펴보면, ‘보통’에 해당하는 1수준이 56,703명 (81.3%)으로 가장 많았고 ‘잠재적 위험군’인 2수준이 14.7%, ‘고위험군’인 3수준이 2.0%였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1수준은 유효응답자의 82.9%, 2수준은 15.0%, 3수준은 2.0%였다.



〈표 21〉 가정적 위기요소 수준(대전, 충북 문항 상이하여 분석에서 제외됨)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유효 퍼센트
1수준	49,012	70.3	84.2
2수준	6,506	9.3	11.2
3수준	2,708	3.9	4.7
무응답	11,528	16.5	
합 계	69,754	100.0	

가정적 위기요소 수준을 살펴보면³⁾, ‘보통’에 해당하는 1수준이 49,012명 (70.3%)으로 가장 많았고 ‘잠재적 위험군’인 2수준이 9.3%, ‘고위험군’인 3수준이 3.9%였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1수준은 유효응답자의 84.2%, 2수준은 11.2%, 3수준은 4.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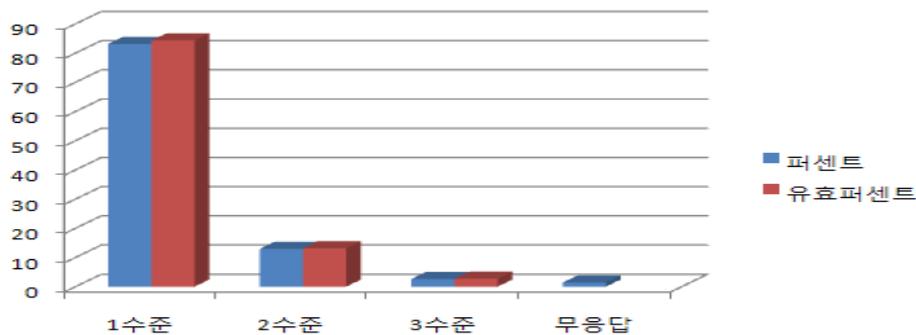


3) 가정적 위기요소 분석시, 충북과 대전의 가정적 위기 관련 일부 조사문항이 타 지역과 상이하여 충북과 대전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표 22〉 학교 위기요소 수준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유효 퍼센트
1수준	57,962	83.1	84.3
2수준	8,998	12.9	13.1
3수준	1,837	2.6	2.7
무응답	957	1.4	
합 계	69,7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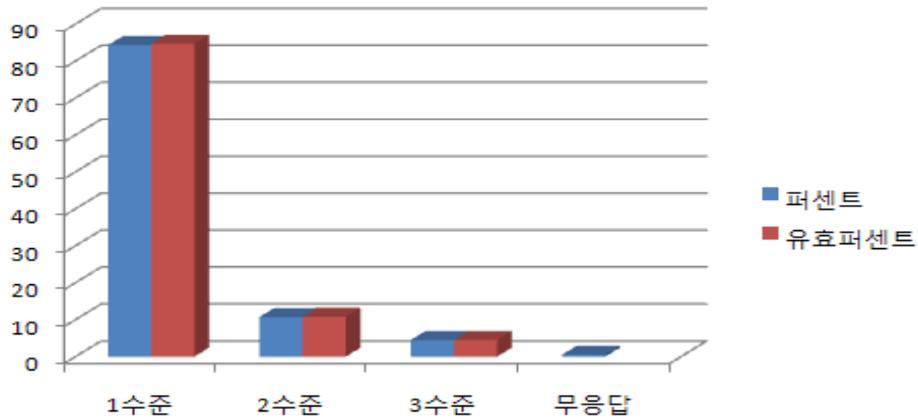
학교 위기요소 수준을 살펴보면, ‘보통’에 해당하는 1수준이 57,962명(83.1%)으로 가장 많았고 ‘잠재적 위험군’인 2수준이 12.9%, ‘고위험군’인 3수준이 2.6%였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1수준은 유효응답자의 84.3%, 2수준은 13.1%, 3수준은 2.7%였다.



〈표 23〉 또래 위기요소 수준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유효 퍼센트
1수준	58,793	84.3	84.7
2수준	7,465	10.7	10.8
3수준	3,139	4.5	4.5
무응답	357	0.5	
합 계	69,7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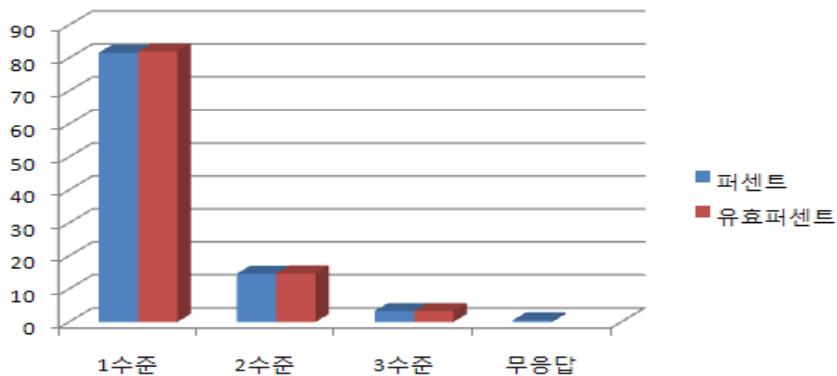
또래 위기요소 수준을 살펴보면, ‘보통’에 해당하는 1수준이 58,793명(84.3%)으로 가장 많았고 ‘잠재적 위험군’인 2수준이 10.7%, ‘고위험군’인 3수준이 4.5%였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1수준은 유효응답자의 84.7%, 2수준은 10.8%, 3수준은 4.5%였다.



〈표 24〉 지역사회 위기요소 수준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유효 퍼센트
1수준	56,901	81.6	82.0
2수준	10,193	14.6	14.7
3수준	2,278	3.3	3.3
무응답	382	0.5	
합 계	69,754	100.0	

지역사회 위기요소 수준을 살펴보면, ‘보통’에 해당하는 1수준이 56,901명 (81.6%)으로 가장 많았고 ‘잠재적 위험군’인 2수준이 14.6%, ‘고위험군’인 3수준이 3.3%였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1수준은 유효응답자의 82.0%, 2수준은 14.7%, 3수준은 3.3%였다.



나. 배경변인별 위기수준

1) 시도별

〈표 25〉 시도별 전체위기요소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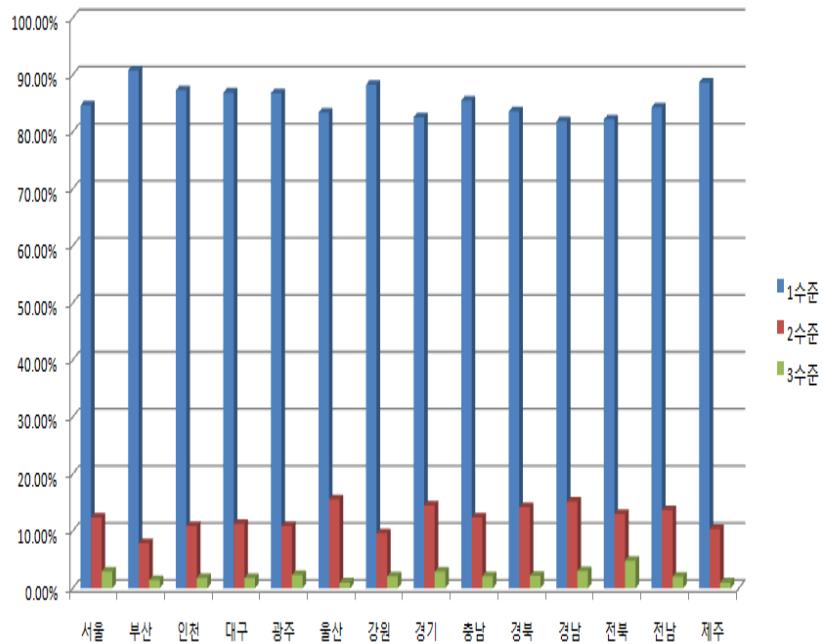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	전체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시도	서울	빈도	2,575	377	88	3,040
		%	84.7%	12.4%	2.9%	100.0%
	부산	빈도	1,109	96	17	1,222
		%	90.8%	7.9%	1.4%	100.0%
	인천	빈도	1,152	144	24	1,320
		%	87.3%	10.9%	1.8%	100.0%
	대구	빈도	4,883	633	102	5,618
		%	86.9%	11.3%	1.8%	100.0%
	광주	빈도	3,220	405	84	3,709
		%	86.8%	10.9%	2.3%	100.0%
	울산	빈도	2,083	390	26	2,499
		%	83.4%	15.6%	1.0%	100.0%
	강원	빈도	2,463	267	59	2,789
		%	88.3%	9.6%	2.1%	100.0%
	경기	빈도	7,239	1,266	254	8,759
		%	82.6%	14.5%	2.9%	100.0%
	충남	빈도	2,363	344	58	2,765
		%	85.5%	12.4%	2.1%	100.0%
	경북	빈도	7,158	1,213	189	8,560
		%	83.6%	14.2%	2.2%	100.0%
	경남	빈도	6,816	1,261	246	8,323
		%	81.9%	15.2%	3.0%	100.0%
	전북	빈도	1,025	162	60	1,247
		%	82.2%	13.0%	4.8%	100.0%
	전남	빈도	2,471	402	59	2,932
		%	84.3%	13.7%	2.0%	100.0%
	제주	빈도	1,379	161	15	1,555
		%	88.7%	10.4%	1.0%	100.0%
전체	빈도	45,936	7,121	1,281	54,338%	
	%	84.5%	13.1%	2.4%	100.0%	

$\chi^2=296.396^{***}$

$p<.05^*$, $p<.01^{**}$, $p<.001^{***}$

시도별 전체요소수준을 살펴보면, 전 시도에서 1수준(보통)이 90.8%에서 81.9%의 분포를 보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2수준, 3수준 순이었다. 학교요소의 2수준(잠재적 위험군)이 가장 많은 시도는 울산으로 응답자의 15.6%,

가장 적은 시도는 부산으로 응답자의 7.9%였다. 3수준(고위험군)이 가장 많은 시도는 전북으로 응답자의 4.8%, 가장 적은 시도는 울산, 제주로 1.0%였다. 전체 위기 수준 분석에서 가정요소 문항 상이함으로 인해 대전과 충남자료는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시도별 전체 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표 26〉 시도별 심리위기요소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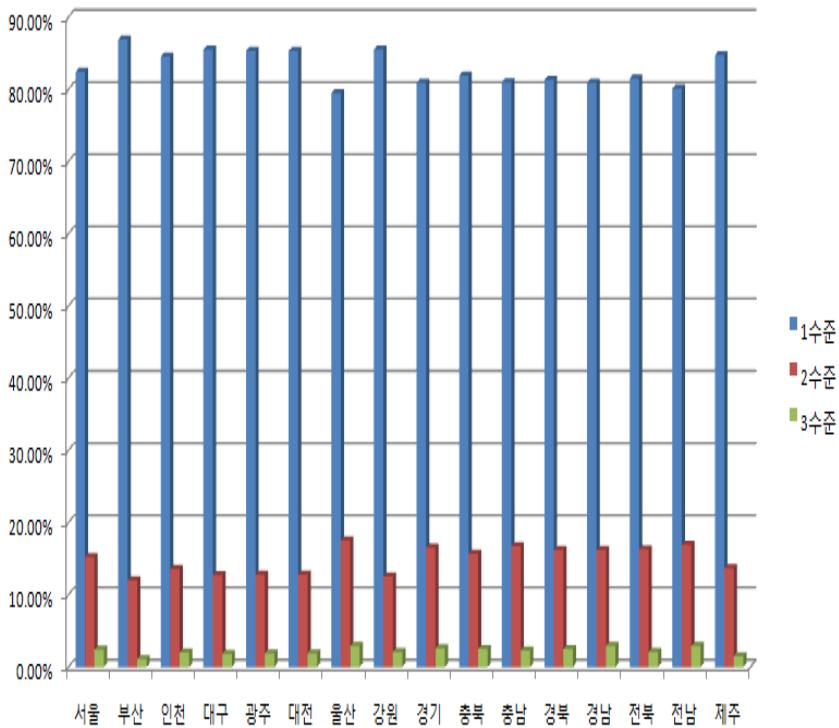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	심리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시도	서울	빈도	2,710	501	79	3,290
		%	82.4%	15.2%	2.4%	100.0%
	부산	빈도	1,136	157	15	1,308
		%	86.9%	12.0%	1.1%	100.0%
	인천	빈도	1,184	190	28	1,402
		%	84.5%	13.6%	2.0%	100.0%
	대구	빈도	4,944	732	105	5,781
		%	85.5%	12.7%	1.8%	100.0%
	광주	빈도	3,352	504	74	3,930
		%	85.3%	12.8%	1.9%	100.0%
	대전	빈도	4,368	656	98	5,122
		%	85.3%	12.8%	1.9%	100.0%
	울산	빈도	2,158	476	79	2,713
		%	79.5%	17.5%	2.9%	100.0%
	강원	빈도	2,533	369	61	2,963
		%	85.5%	12.5%	2.1%	100.0%
	경기	빈도	7,428	1,514	235	9,177
		%	80.9%	16.5%	2.6%	100.0%
	충북	빈도	4,239	811	127	5,177
		%	81.9%	15.7%	2.5%	100.0%
	충남	빈도	2,388	491	68	2,947
		%	81.0%	16.7%	2.3%	100.0%
	경북	빈도	7,300	1,451	228	8,979
		%	81.3%	16.2%	2.5%	100.0%
	경남	빈도	7,107	1,420	257	8,784
		%	80.9%	16.2%	2.9%	100.0%
	전북	빈도	1,069	214	28	1,311
		%	81.5%	16.3%	2.1%	100.0%
	전남	빈도	2,402	507	88	2,997
		%	80.1%	16.9%	2.9%	100.0%
	제주	빈도	1,388	225	25	1,638
		%	84.7%	13.7%	1.5%	100.0%
전체	빈도	55,706	10,218	1,595	67,519	
	%	82.5%	15.1%	2.4%	100.0%	

$\chi^2=218.585^{***}$

$p<.05^*$, $p<.01^{**}$, $p<.001^{***}$

시도별 심리요소수준을 살펴보면, 전 시도에서 1수준(보통)이 79.5%에서 86.9%의 분포를 보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2수준, 3수준 순이었다. 심리요소의 2수준(잠재적 위험군)이 가장 많은 시도는 전남으로 응답자의 16.9%,

가장 적은 시도는 부산으로 응답자의 12.0%였다. 3수준(고위험군)이 가장 많은 시도는 울산, 경남, 전남으로 응답자의 2.9%, 가장 적은 시도는 부산으로 1.1%였다. 이와 같은 시도별 심리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표 27〉 시도별 개인위기요소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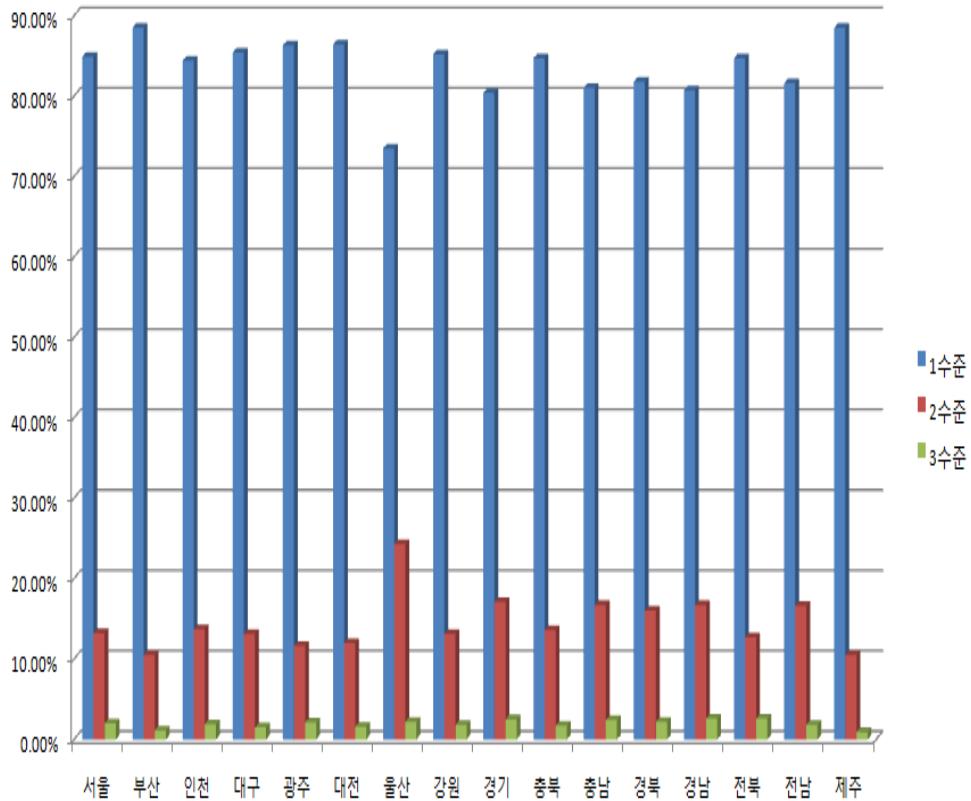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	개인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시도	서울	빈도	2,863	444	66	3,373
		%	84.9%	13.2%	2.0%	100.0%
	부산	빈도	1,177	139	14	1,330
		%	88.5%	10.5%	1.1%	100.0%
	인천	빈도	1,183	192	27	1,402
		%	84.4%	13.7%	1.9%	100.0%
	대구	빈도	4,965	763	86	5,814
		%	85.4%	13.1%	1.5%	100.0%
	광주	빈도	3,485	468	84	4,037
		%	86.3%	11.6%	2.1%	100.0%
	대전	빈도	4,443	618	80	5,141
		%	86.4%	12.0%	1.6%	100.0%
	울산	빈도	2,016	667	61	2,744
		%	73.5%	24.3%	2.2%	100.0%
	강원	빈도	2,570	395	53	3,018
		%	85.2%	13.1%	1.8%	100.0%
	경기	빈도	7,474	1,588	233	9,295
		%	80.4%	17.1%	2.5%	100.0%
	충북	빈도	4,429	709	90	5,228
		%	84.7%	13.6%	1.7%	100.0%
	충남	빈도	2,437	501	71	3,009
		%	81.0%	16.7%	2.4%	100.0%
	경북	빈도	7,404	1,451	199	9,054
		%	81.8%	16.0%	2.2%	100.0%
	경남	빈도	7,215	1,489	231	8,935
		%	80.7%	16.7%	2.6%	100.0%
	전북	빈도	1,138	171	35	1,344
		%	84.7%	12.7%	2.6%	100.0%
	전남	빈도	2,458	499	54	3,011
		%	81.6%	16.6%	1.8%	100.0%
	제주	빈도	1,446	172	15	1,633
		%	88.5%	10.5%	0.9%	100.0%
전체	빈도	56,703	10,266	1,399	68,368	
	%	82.9%	15.0%	2.0%	100.0%	

$\chi^2=506.305^{***}$

$p<.05^*$, $p<.01^{**}$, $p<.001^{***}$

시도별 개인요소수준을 살펴보면, 전 시도에서 1수준(보통)이 73.5%에서 88.5%의 분포를 보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2수준, 3수준 순이었다. 개인요소의 2수준(잠재적 위험군)이 가장 많은 시도는 울산으로 응답자의 24.3%,

가장 적은 시도는 부산, 제주로 응답자의 10.5%였다. 3수준(고위험군)이 가장 많은 시도는 경남, 전북으로 응답자의 2.6%, 가장 적은 시도는 제주로 0.9%였다. 이와 같은 시도별 개인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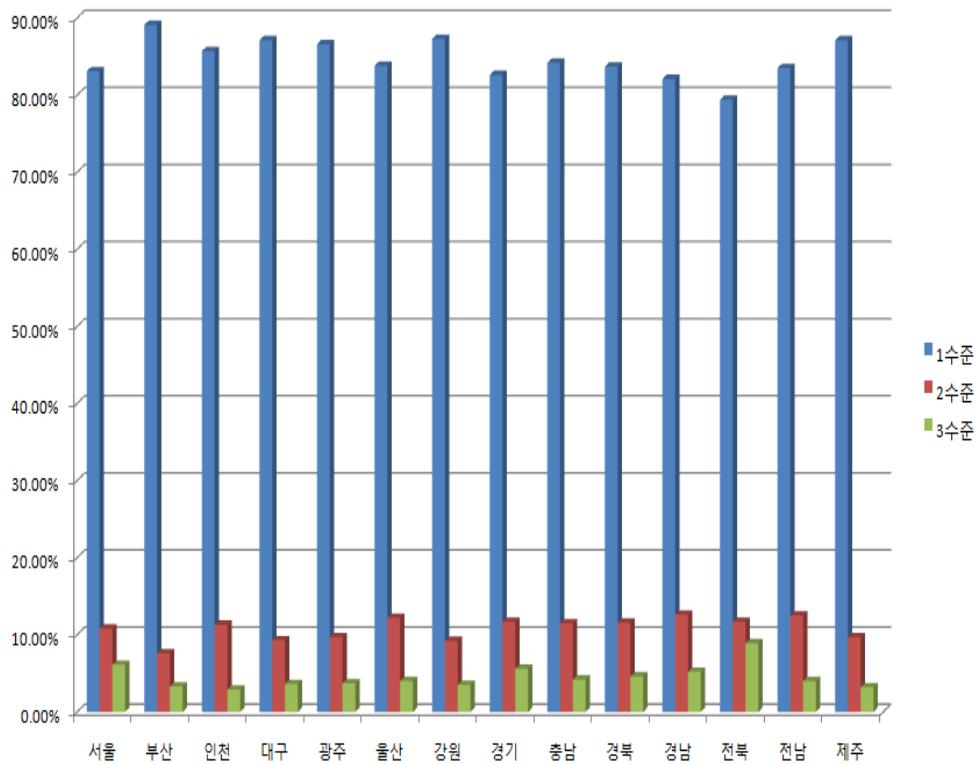
〈표 28〉 시도별 가정위기요소 수준

구 분	사례수 %	가정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시도 서울	빈도	2,799	363	205	3,367
	%	83.1%	10.8%	6.1%	100.0%
부산	빈도	1,186	101	44	1,331
	%	89.1%	7.6%	3.3%	100.0%
인천	빈도	1,221	161	42	1,424
	%	85.7%	11.3%	2.9%	100.0%
대구	빈도	5,076	544	209	5,829
	%	87.1%	9.3%	3.6%	100.0%
광주	빈도	3,504	393	148	4,045
	%	86.6%	9.7%	3.7%	100.0%
울산	빈도	2,302	334	111	2,747
	%	83.8%	12.2%	4.0%	100.0%
강원	빈도	2,643	280	106	3,029
	%	87.3%	9.2%	3.5%	100.0%
경기	빈도	7,738	1,096	529	9,363
	%	82.6%	11.7%	5.6%	100.0%
충남	빈도	2,560	351	128	3,039
	%	84.2%	11.5%	4.2%	100.0%
경북	빈도	7,623	1,059	422	9,104
	%	83.7%	11.6%	4.6%	100.0%
경남	빈도	7,357	1,131	470	8,958
	%	82.1%	12.6%	5.2%	100.0%
전북	빈도	1,061	157	119	1,337
	%	79.4%	11.7%	8.9%	100.0%
전남	빈도	2,522	378	122	3,022
	%	83.5%	12.5%	4.0%	100.0%
제주	빈도	1,420	158	53	1,631
	%	87.1%	9.7%	3.2%	100.0%
전체	빈도	56,703	10,266	1,399	68,368
	%	82.9%	15.0%	2.0%	100.0%

$\chi^2=265.189^{***}$

$p<.05^*$, $p<.01^{**}$, $p<.001^{***}$

시도별 가정요소수준을 살펴보면, 전 시도에서 1수준(보통)이 89.1%에서 79.4%의 분포를 보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2수준, 3수준 순이었다. 가정요소의 2수준(잠재적 위험군)이 가장 많은 시도는 경남으로 응답자의 12.6%, 가장 적은 시도는 부산으로 응답자의 7.6%였다. 3수준(고위험군)이 가장 많은 시도는 전북으로 응답자의 8.9%, 가장 적은 시도는 제주로 3.2%였다. 가정요소수준에서 대전과 충북은 질문문항이 상이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시도별 가정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29〉 시도별 학교위기요소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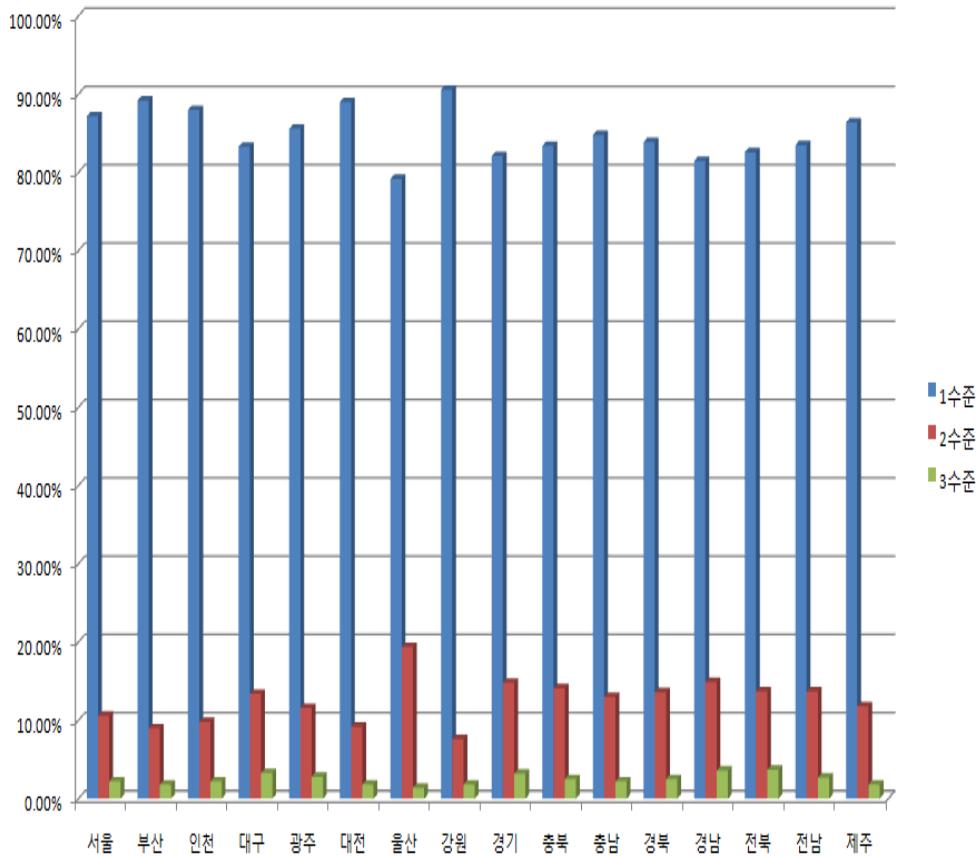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	학교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시도	서울	빈도	2,963	360	74	3,397
		%	87.2%	10.6%	2.2%	100.0%
	부산	빈도	1,196	121	24	1,341
		%	89.2%	9.0%	1.8%	100.0%
	인천	빈도	1,245	138	31	1,414
		%	88.0%	9.8%	2.2%	100.0%
	대구	빈도	4,870	784	195	5,849
		%	83.3%	13.4%	3.3%	100.0%
	광주	빈도	3,483	471	114	4,068
		%	85.6%	11.6%	2.8%	100.0%
	대전	빈도	4,588	472	94	5,154
		%	89.0%	9.2%	1.8%	100.0%
	울산	빈도	2,174	531	39	2,744
		%	79.2%	19.4%	1.4%	100.0%
	강원	빈도	2,760	232	55	3,047
		%	90.6%	7.6%	1.8%	100.0%
	경기	빈도	7,702	1,385	296	9,383
		%	82.1%	14.8%	3.2%	100.0%
	충북	빈도	4,407	746	131	5,284
		%	83.4%	14.1%	2.5%	100.0%
	충남	빈도	2,583	397	66	3,046
		%	84.8%	13.0%	2.2%	100.0%
	경북	빈도	7,669	1,241	231	9,141
		%	83.9%	13.6%	2.5%	100.0%
	경남	빈도	7,269	1,329	324	8,922
		%	81.5%	14.9%	3.6%	100.0%
	전북	빈도	1,106	183	50	1,339
		%	82.6%	13.7%	3.7%	100.0%
	전남	빈도	2,528	415	83	3,026
		%	83.5%	13.7%	2.7%	100.0%
	제주	빈도	1,419	193	30	1,642
		%	86.4%	11.8%	1.8%	100.0%
전체	빈도	57,962	8,998	1,837	68,797	
	%	84.3%	13.1%	2.7%	100.0%	

$\chi^2=491.068^{***}$

$p<.05^*$, $p<.01^{**}$, $p<.001^{***}$

시도별 학교요소수준을 살펴보면, 전 시도에서 1수준(보통)이 89.2%에서 79.2%의 분포를 보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2수준, 3수준 순이었다. 학교요소의 2수준(잠재적 위험군)이 가장 많은 시도는 울산으로 응답자의 19.4%, 가

장 적은 시도는 강원으로 응답자의 7.6%였다. 3수준(고위험군)이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로 응답자의 3.2%, 가장 적은 시도는 울산으로 1.4%였다. 이와 같은 시도별 학교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30〉 시도별 또래위키요소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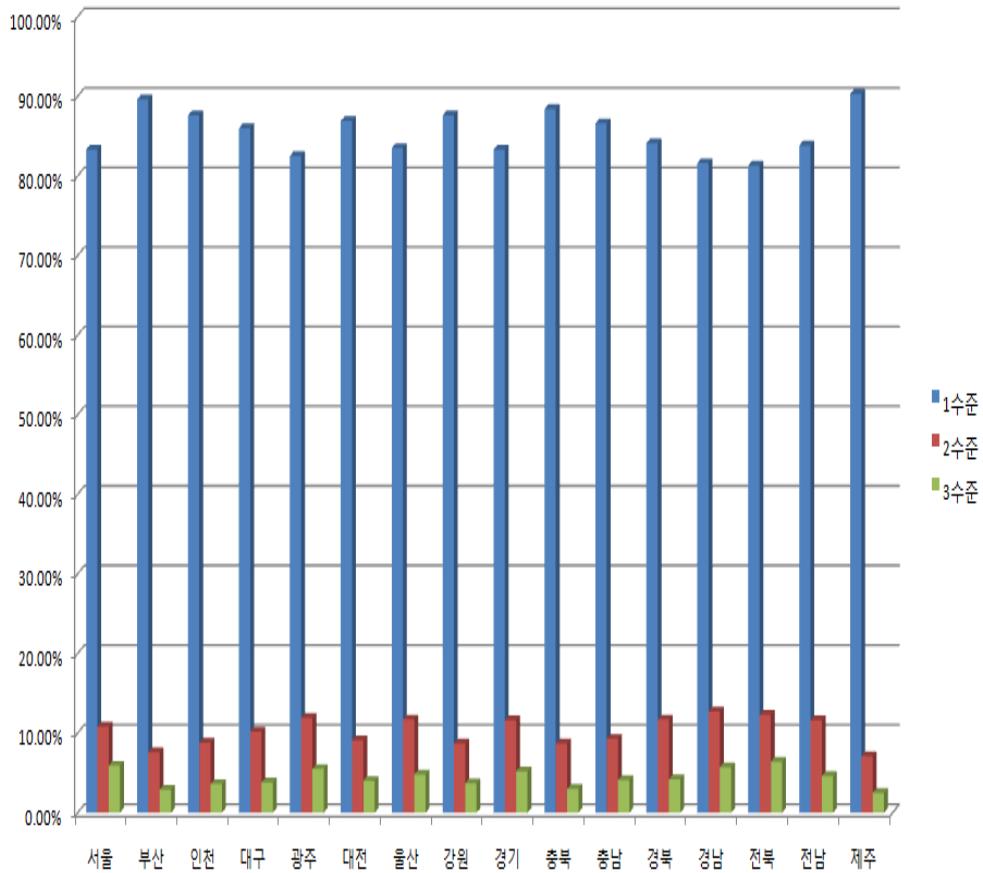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	또래위키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시도	서울	빈도	2,873	372	203	3,448
		%	83.3%	10.8%	5.9%	100.0%
	부산	빈도	1,218	103	39	1,360
		%	89.6%	7.6%	2.9%	100.0%
	인천	빈도	1,259	127	52	1,438
		%	87.6%	8.8%	3.6%	100.0%
	대구	빈도	5,046	600	223	5,869
		%	86.0%	10.2%	3.8%	100.0%
	광주	빈도	3,400	492	228	4,120
		%	82.5%	11.9%	5.5%	100.0%
	대전	빈도	4,488	468	207	5,163
		%	86.9%	9.1%	4.0%	100.0%
	울산	빈도	2,338	327	134	2,799
		%	83.5%	11.7%	4.8%	100.0%
	강원	빈도	2,688	268	114	3,070
		%	87.6%	8.7%	3.7%	100.0%
	경기	빈도	7,883	1,096	488	9,467
		%	83.3%	11.6%	5.2%	100.0%
	충북	빈도	4,682	459	157	5,298
		%	88.4%	8.7%	3.0%	100.0%
	충남	빈도	2,667	288	126	3,081
		%	86.6%	9.3%	4.1%	100.0%
	경북	빈도	7,742	1,081	383	9,206
		%	84.1%	11.7%	4.2%	100.0%
	경남	빈도	7,373	1,148	517	9,038
		%	81.6%	12.7%	5.7%	100.0%
	전북	빈도	1,099	166	87	1,352
		%	81.3%	12.3%	6.4%	100.0%
	전남	빈도	2,546	352	139	3,037
		%	83.8%	11.6%	4.6%	100.0%
	제주	빈도	1,491	118	42	1,651
		%	90.3%	7.1%	2.5%	100.0%
전체	빈도	58,793	7,465	3,139	69,397	
	%	84.7%	10.8%	4.5%	100.0%	

$\chi^2=341.130^{***}$

$p<.05^*$, $p<.01^{**}$, $p<.001^{***}$

시도별 또래요소수준을 살펴보면, 전 시도에서 1수준(보통)이 81.3%에서 90.3%의 분포를 보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2수준, 3수준 순이었다. 또래요소의 2수준(잠재적 위험군)이 가장 많은 시도는 경남으로 응답자의 12.7%, 가

장 적은 시도는 제주로 응답자의 7.1%였다. 3수준(고위험군)이 가장 많은 시도는 전북으로 응답자의 6.4%, 가장 적은 시도는 제주로 2.5%였다. 이와 같은 시도별 또래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31〉 시도별 지역사회위키요소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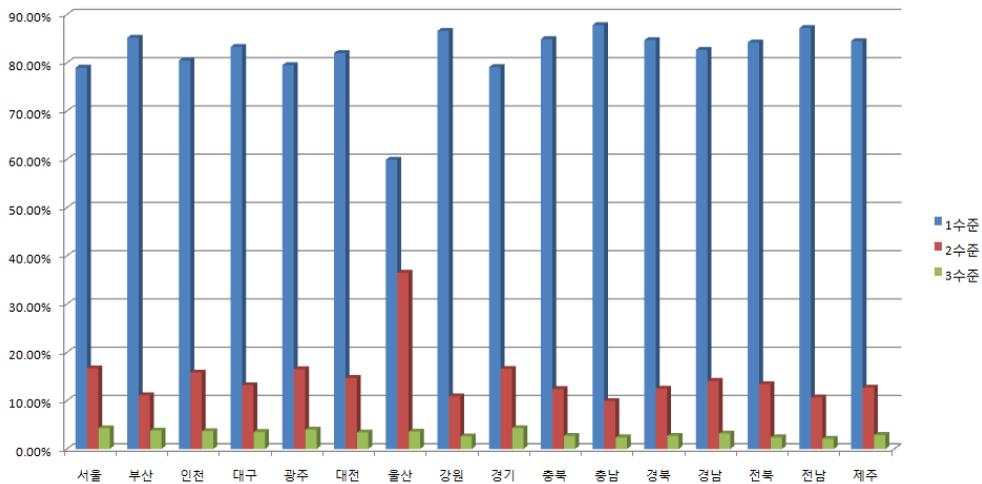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	지역사회위키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시도	서울	빈도	2,716	575	147	3,438
		%	79.0%	16.7%	4.3%	100.0%
	부산	빈도	1,154	150	51	1,355
		%	85.2%	11.1%	3.8%	100.0%
	인천	빈도	1,155	226	53	1,434
		%	80.5%	15.8%	3.7%	100.0%
	대구	빈도	4,891	776	204	5,871
		%	83.3%	13.2%	3.5%	100.0%
	광주	빈도	3,277	679	165	4,121
		%	79.5%	16.5%	4.0%	100.0%
	대전	빈도	4,232	757	173	5,162
		%	82.0%	14.7%	3.4%	100.0%
	울산	빈도	1,670	1,019	99	2,788
		%	59.9%	36.5%	3.6%	100.0%
	강원	빈도	2,659	334	79	3,072
		%	86.6%	10.9%	2.6%	100.0%
	경기	빈도	7,493	1,576	405	9,474
		%	79.1%	16.6%	4.3%	100.0%
	충북	빈도	4,504	657	141	5,302
		%	84.9%	12.4%	2.7%	100.0%
	충남	빈도	2,702	304	73	3,079
		%	87.8%	9.9%	2.4%	100.0%
	경북	빈도	7,796	1,154	253	9,203
		%	84.7%	12.5%	2.7%	100.0%
	경남	빈도	7,481	1,271	292	9,044
		%	82.7%	14.1%	3.2%	100.0%
	전북	빈도	1,138	181	33	1,352
		%	84.2%	13.4%	2.4%	100.0%
	전남	빈도	2,648	326	63	3,037
		%	87.2%	10.7%	2.1%	100.0%
	제주	빈도	1,385	208	47	1,640
		%	84.5%	12.7%	2.9%	100.0%
전체	빈도	56,901	10,193	2,278	69,372	
	%	82.0%	14.7%	3.3%	100.0%	

$\chi^2=1,464.558^{***}$

$p<.05^*$, $p<.01^{**}$, $p<.001^{***}$

시도별 지역사회위키요소수준을 살펴보면, 전 시도에서 1수준(보통)이 59.9%에서 87.2%의 분포를 보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2수준, 3수준 순이었다. 학교요소의 2수준(잠재적 위험군)이 가장 많은 시도는 울산으로 응답자의

36.5%, 가장 적은 시도는 충남으로 응답자의 9.9%였다. 3수준(고위험군)이 가장 많은 시도는 서울, 경기로 응답자의 4.3%, 가장 적은 시도는 전남으로 2.1%였다. 이와 같은 시도별 지역사회 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2) 성별

〈표 32〉 성별 전체위기요소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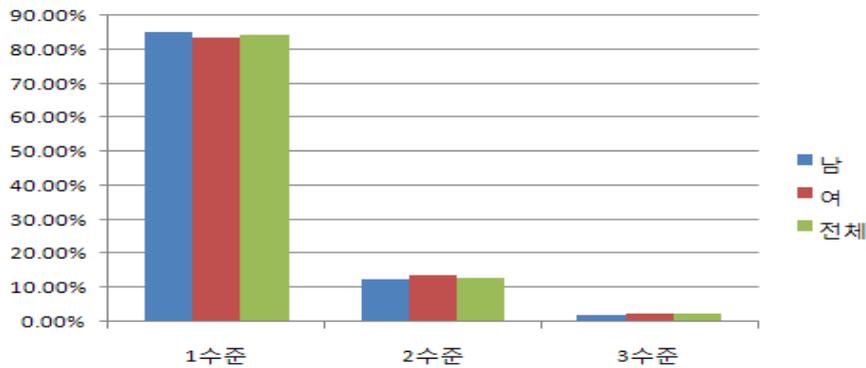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	전체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성 남	빈도	24,733	3,637	648	29,018
	%	85.2%	12.5%	2.2%	100.0%
성 여	빈도	21,143	3,475	631	25,249
	%	83.7%	13.8%	2.5%	100.0%
전체	빈도	45,876	7,112	1,279	54,267
	%	84.5%	13.1%	2.4%	100.0%

$\chi^2=23.193^{***}$

$p < .05^*$, $p < .01^{**}$, $p < .001^{***}$

성별 전체위기수준을 살펴보면, 여학생 응답자 중 3,475명(13.8%)이 전체위기 2

수준(잠재적 위험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학생(12.5%)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이다.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역시 여학생(2.5%)이 남학생(2.2%)보다 더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성별 전체 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33〉 성별 심리위험요소 수준

구 분	사례수 %	심리위험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성 별	남	빈도 30,317	4,676	741	35,734
	%	84.8%	13.1%	2.1%	100.0%
여	빈도	25,325	5,526	853	31,704
	%	79.9%	17.4%	2.7%	100.0%
전체	빈도	55,642	10,202	1,594	67,438
	%	82.5%	15.1%	2.4%	100.0%

$\chi^2=286.750^{***}$

$p < .05^*$, $p < .01^{**}$, $p < .001^{***}$

성별 심리요소수준을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수준에 해당하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학생 응답자 중 5,526명(17.4%)이 심리적 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학생(13.1%)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이다.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역시 여학생(2.7%)이 남학생(2.1%)보다 더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성별 심리 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34〉 성별 개인위기로소수준

구 분	사례수 %	개인위기로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성 남	빈도	30,419	5,036	691	36,146
	%	84.2%	13.9%	1.9%	100.0%
별 여	빈도	26,211	5,216	707	32,134
	%	81.6%	16.2%	2.2%	100.0%
전체	빈도	56,630	10,252	1,398	68,280
	%	82.9%	15.0%	2.0%	100.0%

$\chi^2=80.568^{***}$

$p<.05^*$, $p<.01^{**}$, $p<.001^{***}$

성별 개인요소수준을 살펴보면, 여학생 응답자 중 5,216명(16.2%)이 개인적 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학생(13.9%)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이다.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역시 여학생(2.2%)이 남학생(1.9%)보다 더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성별 개인 위기로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35〉 성별 가정위기로소수준

구 분	사례수 %	가정위기로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성 남	빈도	26,130	3,465	1,540	31,135
	%	83.9%	11.1%	4.9%	100.0%
별 여	빈도	22,817	3,029	1,162	27,008
	%	84.5%	11.2%	4.3%	100.0%
전체	빈도	48,947	6,494	2,702	58,143
	%	84.2%	11.2%	4.6%	100.0%

$\chi^2=13.528^{***}$

$p<.05^*$, $p<.01^{**}$, $p<.001^{***}$

성별 가정요소수준을 살펴보면, 여학생 응답자 중 3,029명(11.2%)이 가정적 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학생(11.1%)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이다.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는 남학생(4.9%)이 여학생(4.3%)보다 더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성별 가정 위기로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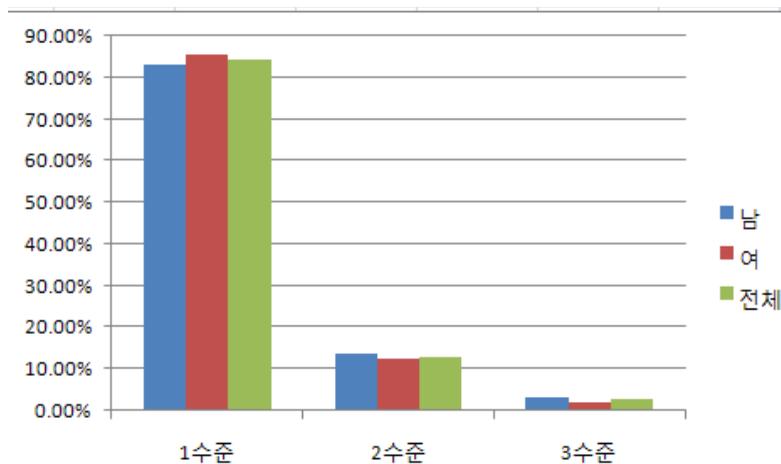
〈표 36〉 성별 학교위기요소수준

구 분	사례수 %	학교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성 남	빈도	30,300	4,969	1,142	36,411
	%	83.2%	13.6%	3.1%	100.0%
별 여	빈도	27,598	4,013	691	32,302
	%	85.4%	12.4%	2.1%	100.0%
전체	빈도	57,898	8,982	1,833	68,713
	%	84.3%	13.1%	2.7%	100.0%

$\chi^2=93.434^{***}$

$p<.05^*$, $p<.01^{**}$, $p<.001^{***}$

성별 학교요소수준을 살펴보면, 남학생 응답자 중 4,969명(13.6%)이 학교 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학생(12.4%)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이다.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역시 남학생(3.1%)이 여학생(2.1%)보다 더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성별 학교 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37〉 성별 또래위기로소수준

구 분	사례수 %	또래위기로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성 남	빈도	30,163	4,544	1,997	36,704
	%	82.2%	12.4%	5.4%	100.0%
별 여	빈도	28,558	2,906	1,140	32,604
	%	87.6%	8.9%	3.5%	100.0%
전체	빈도	58,721	7,450	3,137	69,308
	%	84.7%	10.7%	4.5%	100.0%

$\chi^2=369.982^{***}$

$p<.05^*$, $p<.01^{**}$, $p<.001^{***}$

성별 또래요소수준을 살펴보면, 남학생 응답자 중 4,544명(12.4%)이 또래 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학생(8.9%)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이다.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역시 남학생(5.4%)이 여학생(3.5%)보다 더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성별 또래 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38〉 성별 지역사회위기로소수준

구 분	사례수 %	지역사회위기로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성 남	빈도	30,684	4,841	1,169	36,694
	%	83.6%	13.2%	3.2%	100.0%
별 여	빈도	26,143	5,340	1,106	32,589
	%	80.2%	16.4%	3.4%	100.0%
전체	빈도	56,827	10,181	2,275	69,283
	%	82.0%	14.7%	3.3%	100.0%

$\chi^2=146.363^{***}$

$p<.05^*$, $p<.01^{**}$, $p<.001^{***}$

성별 지역사회요소수준을 살펴보면, 여학생 응답자 중 5,340명(16.4%)이 지역사회 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학생(13.2%)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이다.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역시 여학생(3.4%)이 남학생(3.2%)보다 더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성별 지역사회 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3) 학교급별

〈표 39〉 학교급별 전체위기요소수준

구 분	사례수 %	전체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중학교	빈도	20,103	2,043	364	22,510
	%	89.3%	9.1%	1.6%	100.0%
인문계고	빈도	15,420	2,248	358	18,026
	%	85.5%	12.5%	2.0%	100.0%
전문계고	빈도	9,954	2,661	468	13,083
	%	76.1%	20.3%	3.6%	100.0%
학교에 다니지않음	빈도	338	145	86	569
	%	59.4%	25.5%	15.1%	100.0%
전체	빈도	45,815	7,097	1,276	54,188
	%	84.5%	13.1%	2.4%	100.0%

$\chi^2=1,628.580^{***}$

$p<.05^*$, $p<.01^{**}$, $p<.001^{***}$

학교급별 전체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15.1%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문계고(3.6%), 인문계고(2.0%), 중학교(1.6%)였다. 전체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역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25.5%)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계고(20.3%), 인문계고(12.5%), 중학교(9.1%) 순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위기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전체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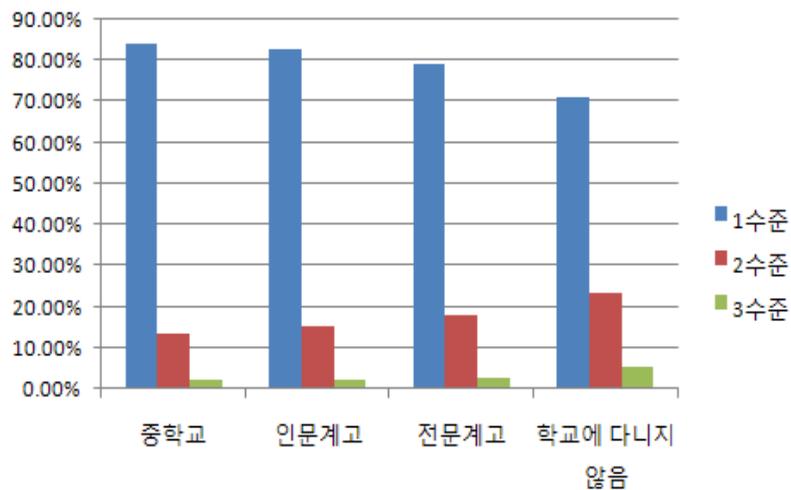
〈표 40〉 학교급별 심리위기요소수준

구 분	사례수 %	심리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중학교	빈도	24,984	4,016	648	29,648
	%	84.3%	13.5%	2.2%	100.0%
인문계고	빈도	18,270	3,329	480	22,079
	%	82.7%	15.1%	2.2%	100.0%
전문계고	빈도	11,858	2,697	427	14,982
	%	79.1%	18.0%	2.9%	100.0%
학교에	빈도	456	152	35	643
다니지않음	%	70.9%	23.6%	5.4%	100.0%
전체	빈도	55,568	10,194	1,590	67,352
	%	82.5%	15.1%	2.4%	100.0%

$\chi^2=296.396^{***}$

$p<.05^*$, $p<.01^{**}$, $p<.001^{***}$

학교급별 심리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5.4%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전문계고(2.9%), 인문계고와 중학교(2.2%) 순 이었다. 심리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23.6%)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계고(18.0%), 인문계고(15.1%), 중학교(13.5%) 순이었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심리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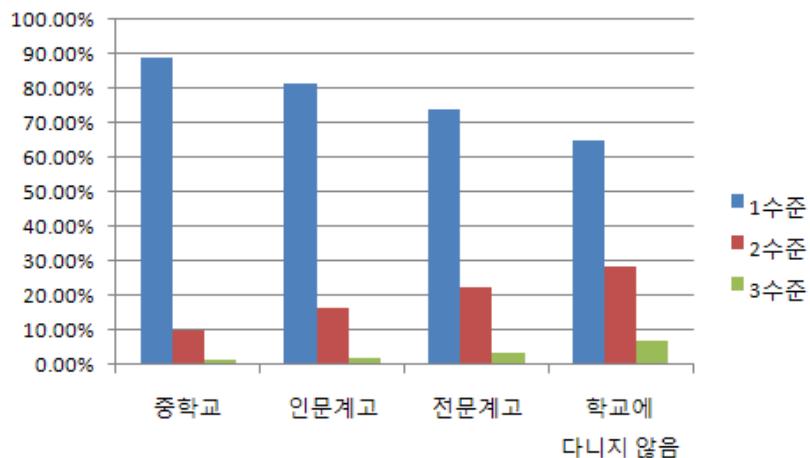
〈표 41〉 학교급별 개인위기로소수준

구 분	사례수 %	개인위기로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중학교	빈도	26,736	2,955	410	30,101
	%	88.8%	9.8%	1.4%	100.0%
인문계고	빈도	18,200	3,646	423	22,269
	%	81.7%	16.4%	1.9%	100.0%
전문계고	빈도	11,195	3,446	515	15,156
	%	73.9%	22.7%	3.4%	100.0%
학교에 다니지않음	빈도	431	188	45	664
	%	64.9%	28.3%	6.8%	100.0%
전체	빈도	56,562	10,235	1,393	68,190
	%	82.9%	15.0%	2.0%	100.0%

$\chi^2=1,835.112^{***}$

$p<.05^*$, $p<.01^{**}$, $p<.001^{***}$

학교급별 개인위기로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6.8%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문계고(3.4%), 인문계고(1.9%), 중학교(1.4%)였다. 개인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역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28.3%)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계고(22.7%), 인문계고(16.4%), 중학교(9.8%) 순이었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개인위기로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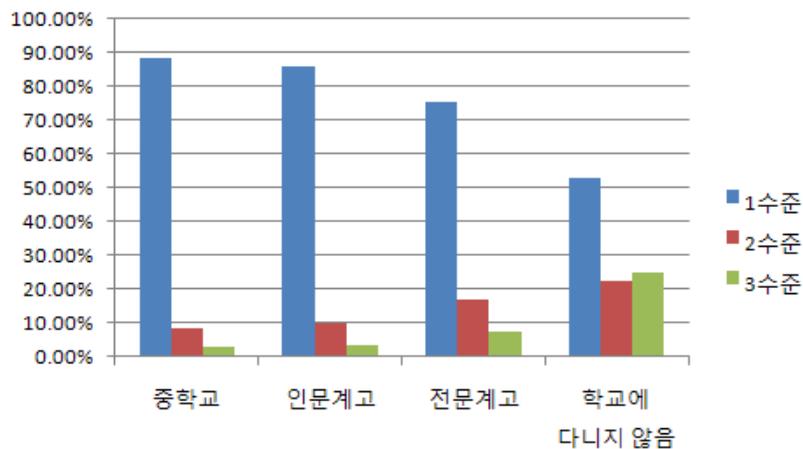
〈표 42〉 학교급별 가정위기로소수준

구 분	사례수 %	가정위기로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중학교	빈도	21,588	2,072	758	24,418
	%	88.4%	8.5%	3.1%	100.0%
인문계고	빈도	16,497	1,927	712	19,136
	%	86.2%	10.1%	3.7%	100.0%
전문계고	빈도	10,458	2,349	1,061	13,868
	%	75.4%	16.9%	7.7%	100.0%
학교에 다니지않음	빈도	335	142	157	634
	%	52.8%	22.4%	24.8%	100.0%
전체	빈도	48,878	6,490	2,688	58,056
	%	84.2%	11.2%	4.6%	100.0%

$\chi^2=296.396^{***}$

$p<.05^*$, $p<.01^{**}$, $p<.001^{***}$

학교급별 가정위기로소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24.8%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문계고(7.7%), 인문계고(3.7%), 중학교(3.1%)였다. 가정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역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22.4%)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계고(16.9%), 인문계고(10.1%), 중학교(8.5%) 순이었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가정위기로소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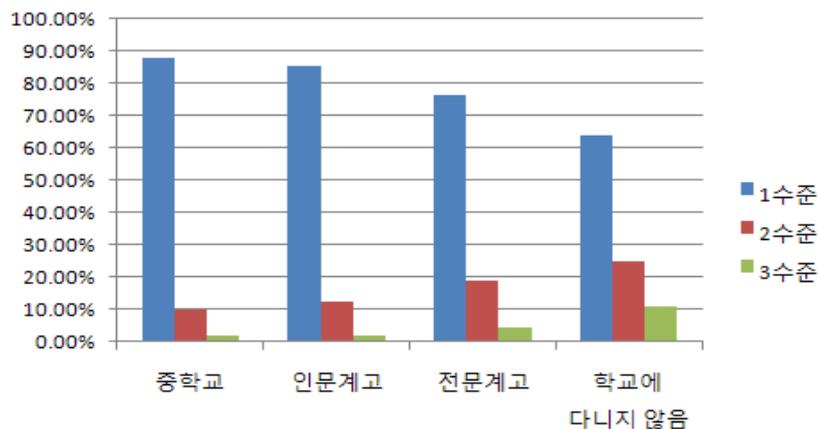
〈표 43〉 학교급별 학교위기요소수준

구 분	사례수 %	학교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중학교	빈도	26,656	3,045	629	30,330
	%	87.9%	10.0%	2.1%	100.0%
인문계고	빈도	19,101	2,823	477	22,401
	%	85.3%	12.6%	2.1%	100.0%
전문계고	빈도	11,653	2,931	650	15,234
	%	76.5%	19.2%	4.3%	100.0%
학교에 다니지않음	빈도	415	162	73	650
	%	63.8%	24.9%	11.2%	100.0%
전체	빈도	57,825	8,961	1,829	68,615
	%	84.3%	13.1%	2.7%	100.0%

$\chi^2=1,311.632^{***}$

$p<.05^*$, $p<.01^{**}$, $p<.001^{***}$

학교급별 학교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11.2%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문계고(4.3%), 인문계고와 중학교(2.1%)였다. 학교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역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24.9%)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계고(19.2%), 인문계고(12.6%), 중학교(10.0%) 순이었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학교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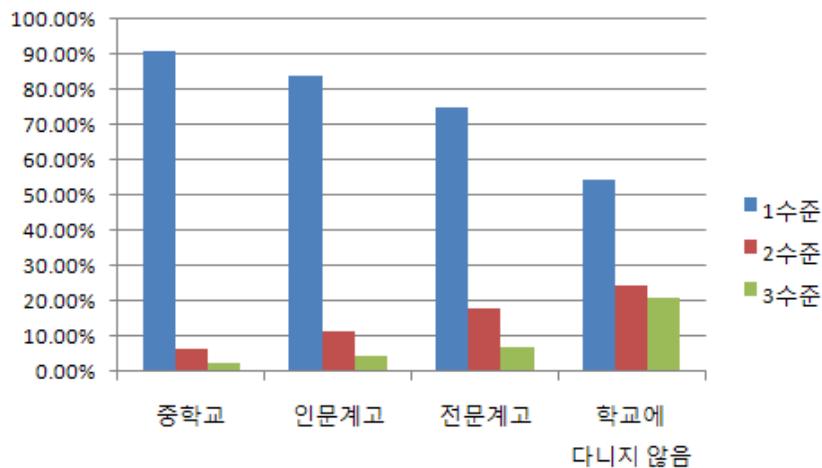
〈표 44〉 학교급별 또래위기요소수준

구 분	사례수 %	또래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중학교	빈도	27,846	1,964	827	30,637
	%	90.9%	6.4%	2.7%	100.0%
인문계고	빈도	18,938	2,560	1,057	22,555
	%	84.0%	11.4%	4.7%	100.0%
전문계고	빈도	11,505	2,752	1,096	15,353
	%	74.9%	17.9%	7.1%	100.0%
학교에 다니지않음	빈도	365	163	142	670
	%	54.5%	24.3%	21.2%	100.0%
전체	빈도	58,654	7,439	3,122	69,215
	%	84.7%	10.7%	4.5%	100.0%

$\chi^2=2,652.426^{***}$

$p<.05^*$, $p<.01^{**}$, $p<.001^{***}$

학교급별 또래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21.2%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문계고(7.1%), 인문계고(4.7%), 중학교(2.7%)였다. 또래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역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24.3%)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계고(17.9%), 인문계고(11.4%), 중학교(6.4%) 순이었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또래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45〉 학교급별 지역사회위기로소수준

구 분	사례수 %	지역사회위기로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중학교	빈도	26,488	3,404	713	30,605
	%	86.5%	11.1%	2.3%	100.0%
인문계고	빈도	17,831	3,895	829	22,555
	%	79.1%	17.3%	3.7%	100.0%
전문계고	빈도	12,008	2,701	650	15,359
	%	78.2%	17.6%	4.2%	100.0%
학교에 다니지않음	빈도	436	162	73	671
	%	65.0%	24.1%	10.9%	100.0%
전체	빈도	56,763	10,162	2,265	69,190
	%	82.0%	14.7%	3.3%	100.0%

$\chi^2=903.943^{***}$

$p<.05^*$, $p<.01^{**}$, $p<.001^{***}$

학교급별 지역사회 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10.9%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문계고(4.2%), 인문계고(3.7%), 중학교(2.3%)였다. 지역사회 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역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24.1%)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계고(17.6%), 인문계고(17.3%), 중학교(11.1%) 순이었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지역사회 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4) 학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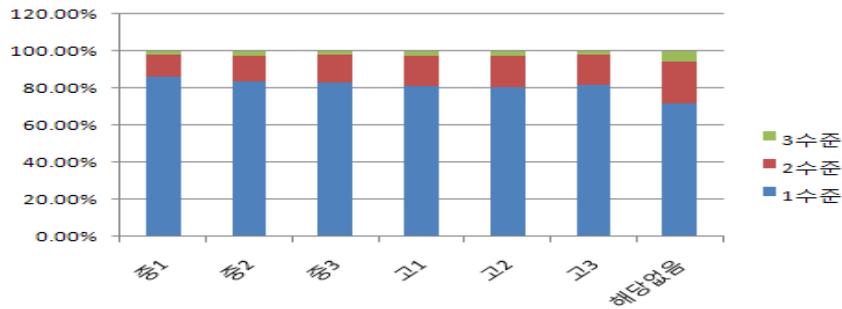
〈표 46〉 학년별 전체위기요소수준

구 분	사례수 %	전체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중1	빈도	7,806	1,041	178	9,025
	%	86.5%	11.5%	2.0%	100.0%
중2	빈도	9,819	1,653	275	11,747
	%	83.6%	14.1%	2.3%	100.0%
중3	빈도	7,689	1,389	202	9,280
	%	82.9%	15.0%	2.2%	100.0%
학년 고1	빈도	14,867	2,947	471	18,285
	%	81.3%	16.1%	2.6%	100.0%
고2	빈도	10,176	2,123	322	12,621
	%	80.6%	16.8%	2.6%	100.0%
고3	빈도	4,785	939	118	5,842
	%	81.9%	16.1%	2.0%	100.0%
해당없음	빈도	270	84	22	376
	%	71.8%	22.3%	5.9%	100.0%
전체	빈도	55,412	10,176	1,588	67,176
	%	82.5%	15.1%	2.4%	100.0%

$\chi^2=1628.580^{***}$

$p<.05^*$, $p<.01^{**}$, $p<.001^{***}$

학년별 전체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타 학년과 비교하여 학년해당없음 응답자의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1과 고2(2.6%), 중2(2.3%), 중3(2.2%), 중1(2.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학년해당없음 응답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2(16.8%), 고3과 고1(16.1%), 중3(15.0%), 중2(14.1%), 중1(11.5%)순이었다. 이와 같은 학년별 전체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47〉 학년별 심리위험요소수준

구 분	사례수 %	심리위험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중1	빈도	7,806	1,041	178	9,025
	%	86.5%	11.5%	2.0%	100.0%
중2	빈도	9,819	1,653	275	11,747
	%	83.6%	14.1%	2.3%	100.0%
중3	빈도	7,689	1,389	202	9,280
	%	82.9%	15.0%	2.2%	100.0%
학년 고1	빈도	14,867	2,947	471	18,285
	%	81.3%	16.1%	2.6%	100.0%
고2	빈도	10,176	2,123	322	12,621
	%	80.6%	16.8%	2.6%	100.0%
고3	빈도	4,785	939	118	5,842
	%	81.9%	16.1%	2.0%	100.0%
해당없음	빈도	270	84	22	376
	%	71.8%	22.3%	5.9%	100.0%
전체	빈도	55,412	10,176	1,588	67,176
	%	82.5%	15.1%	2.4%	100.0%

$\chi^2=205.894^{***}$

$p<.05^*$, $p<.01^{**}$, $p<.001^{***}$

학년별 심리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타 학년과 비교하여 학년해당없음 응답자의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2와 고1(2.6%), 중2(2.3%), 중3(2.2%)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학년 해당없음 응답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2(16.8%), 고1과 고3(16.1%), 중3(15.0%)순이었다. 이와 같은 학년별 심리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48〉 학년별 개인위기요소수준

구 분	사례수 %	개인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중1	빈도	8,534	596	86	9,216
	%	92.6%	6.5%	0.9%	100.0%
중2	빈도	10,593	1,188	168	11,949
	%	88.7%	9.9%	1.4%	100.0%
중3	빈도	7,955	1,218	168	9,341
	%	85.2%	13.0%	1.8%	100.0%
학년 고1	빈도	14,781	3,237	432	18,450
	%	80.1%	17.5%	2.3%	100.0%
고2	빈도	9,806	2,603	347	12,756
	%	76.9%	20.4%	2.7%	100.0%
고3	빈도	4,493	1,257	161	5,911
	%	76.0%	21.3%	2.7%	100.0%
해당없음	빈도	266	93	30	389
	%	68.4%	23.9%	7.7%	100.0%
전체	빈도	56,428	10,192	1,392	68,012
	%	83.0%	15.0%	2.0%	100.0%

$\chi^2=1,647.293^{***}$

$p<.05^{\circ}$, $p<.01^{**}$, $p<.001^{***}$

학년별 개인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타 학년과 비교하여 학년해당없음 응답자의 비율이 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2와 고3(2.7%), 고1(2.3%), 중3(1.8%)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학년 해당없음 응답자의 비율이 2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3(21.3%), 고2(20.4%), 고1(17.5%)순이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3수준과 2수준 응답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년별 개인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49〉 학년별 가정위기요소수준

구 분	사례수 %	가정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중1	빈도	6,657	514	169	7,340
	%	90.7%	7.0%	2.3%	100.0%
중2	빈도	8,872	830	307	10,009
	%	88.6%	8.3%	3.1%	100.0%
중3	빈도	6,385	761	309	7,455
	%	85.6%	10.2%	4.1%	100.0%
학년 고1	빈도	13,642	2,033	827	16,502
	%	82.7%	12.3%	5.0%	100.0%
고2	빈도	8,789	1,479	681	10,949
	%	80.3%	13.5%	6.2%	100.0%
고3	빈도	4,180	755	309	5,244
	%	79.7%	14.4%	5.9%	100.0%
해당없음	빈도	214	75	87	376
	%	56.9%	19.9%	23.1%	100.0%
전체	빈도	48,739	6,447	2,689	57,875
	%	84.2%	11.1%	4.6%	100.0%

$\chi^2=977.685^{***}$

$p<.05^*$, $p<.01^{**}$, $p<.001^{***}$

학년별 가정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타 학년과 비교하여 학년해당없음 응답자의 비율이 2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2(6.2%), 고3(5.9%), 고1(5.0%), 중3(4.1%)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학년해당없음 응답자의 비율이 1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3(14.4%), 고2(13.5%), 고1(12.3%), 중3(10.2%)순이었다. 이와 같은 학년별 가정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50〉 학년별 학교위기요소 수준

구 분	사례수 %	학교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중1	빈도	8,483	654	146	9,283
	%	91.4%	7.0%	1.6%	100.0%
중2	빈도	10,443	1,307	271	12,021
	%	86.9%	10.9%	2.3%	100.0%
중3	빈도	8,064	1,142	232	9,438
	%	85.4%	12.1%	2.5%	100.0%
학년 고1	빈도	15,248	2,766	554	18,568
	%	82.1%	14.9%	3.0%	100.0%
고2	빈도	10,282	2,116	421	12,819
	%	80.2%	16.5%	3.3%	100.0%
고3	빈도	4,904	862	162	5,928
	%	82.7%	14.5%	2.7%	100.0%
해당없음	빈도	250	94	39	383
	%	65.3%	24.5%	10.2%	100.0%
전체	빈도	57,674	8,941	1,825	68,440
	%	84.3%	13.1%	2.7%	100.0%

$\chi^2=798.584^{***}$

$p<.05^*$, $p<.01^{**}$, $p<.001^{***}$

학년별 학교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타 학년과 비교하여 학년해당없음 응답자의 비율이 1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2(3.3%), 고1(3.0%), 고3(2.7%), 중3(2.5%)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학년해당없음 응답자의 비율이 2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2(16.5%), 고1(14.9%), 고3(14.5%), 중3(12.1%)순이었다. 이와 같은 학년별 학교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51〉 학년별 또래위기로소수준

구 분	사례수 %	또래위기로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중1	빈도	8,846	395	133	9,374
	%	94.4%	4.2%	1.4%	100.0%
중2	빈도	11,008	781	365	12,154
	%	90.6%	6.4%	3.0%	100.0%
중3	빈도	8,337	837	356	9,530
	%	87.5%	8.8%	3.7%	100.0%
학년 고1	빈도	15,112	2,526	1,069	18,707
	%	80.8%	13.5%	5.7%	100.0%
고2	빈도	10,197	1,922	786	12,905
	%	79.0%	14.9%	6.1%	100.0%
고3	빈도	4,775	873	326	5,974
	%	79.9%	14.6%	5.5%	100.0%
해당없음	빈도	226	77	87	390
	%	57.9%	19.7%	22.3%	100.0%
전체	빈도	58,501	7,411	3,122	69,034
	%	84.7%	10.7%	4.5%	100.0%

$\chi^2=2,051.543^{***}$

$p<.05^{\circ}$, $p<.01^{**}$, $p<.001^{***}$

학년별 또래위기로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타 학년과 비교하여 학년해당없음 응답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2(6.1%), 고1(5.7%), 고3(5.5%), 중3(3.7%) 순으로 나타났다. 또래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학년해당없음 응답자의 비율이 1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2(14.9%), 고3(14.6%), 고1(13.5%), 중3(8.8%)순이었다. 이와 같은 학년별 또래위기로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52〉 학년별 지역사회위기요소수준

구 분	사례수 %	지역사회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중1	빈도	8,438	760	175	9,373
	%	90.0%	8.1%	1.9%	100.0%
중2	빈도	10,443	1,381	305	12,129
	%	86.1%	11.4%	2.5%	100.0%
중3	빈도	7,944	1,318	258	9,520
	%	83.4%	13.8%	2.7%	100.0%
학년 고1	빈도	14,957	3,089	660	18,706
	%	80.0%	16.5%	3.5%	100.0%
고2	빈도	10,035	2,364	508	12,907
	%	77.7%	18.3%	3.9%	100.0%
고3	빈도	4,553	1,125	303	5,981
	%	76.1%	18.8%	5.1%	100.0%
해당없음	빈도	254	89	49	392
	%	64.8%	22.7%	12.5%	100.0%
전체	빈도	56,624	10,126	2,258	69,008
	%	82.1%	14.7%	3.3%	100.0%

$\chi^2=1,062.914^{***}$

$p<.05^*$, $p<.01^{**}$, $p<.001^{***}$

학년별 지역사회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타 학년과 비교하여 학년해당없음 응답자의 비율이 1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3(5.1%), 고2(3.9%), 고1(3.5%), 중3(2.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학년해당없음 응답자의 비율이 2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3(18.8%), 고2(18.3%), 고1(16.5%), 중3(13.8%)순이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3수준, 2수준의 응답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년별 지역사회 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5) 가족형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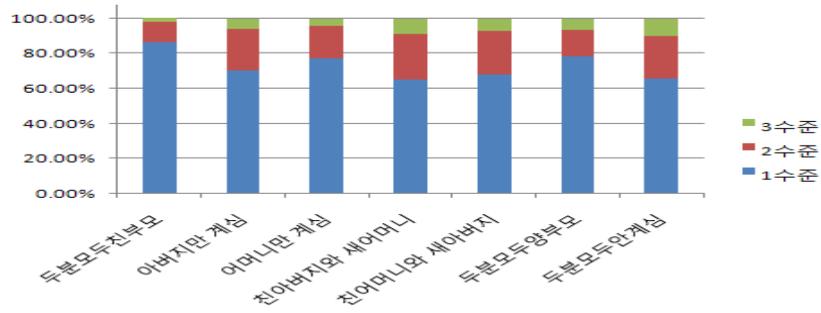
〈표 53〉 가족형태별 전체위기요소수준

구 분	사례수 %	전체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가족 형태	두분모두	빈도	40,505	5,452	835	46,792
	친부모	%	86.6%	11.7%	1.8%	100.0%
	아버지만	빈도	1,575	544	128	2,247
	계심	%	70.1%	24.2%	5.7%	100.0%
	어머니만	빈도	2,000	476	103	2,579
	계심	%	77.5%	18.5%	4.0%	100.0%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빈도	769	305	102	1,176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	65.4%	25.9%	8.7%	100.0%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빈도	454	164	49	667
	새아버지	%	68.1%	24.6%	7.3%	100.0%
	두 분 모두	빈도	201	38	17	256
	양부모	%	78.5%	14.8%	6.6%	100.0%
	두 분 모두	빈도	281	103	43	427
	안계심	%	65.8%	24.1%	10.1%	100.0%
	전체	빈도	45,785	7,082	1,277	54,144
		%	84.6%	13.1%	2.4%	100.0%

$\chi^2=1381.108^{***}$

$p<.05^*$, $p<.01^{**}$, $p<.001^{***}$

가족형태별 전체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두 분 모두 안계심’ 응답자의 비율이 1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8.7%), ‘친어머니와 새아버지’(7.3%), ‘두 분 모두 양부모’(6.6%), ‘아버지만 계심’(5.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응답자의 비율이 2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어머니와 새아버지’(24.6%), ‘아버지만 계심’(24.2%), ‘두 분 모두 안계심’(24.1%), ‘어머니만 계심’(18.5%) 순이었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별 전체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54〉 가족형태별 심리위기로소수수준

구 분	사례수 %	심리위기로소수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두분모두 친부모	빈도 %	48,690 83.7%	8,311 14.3%	1,168 2.0%	58,169 100.0%	
아버지만 계심	빈도 %	2,094 74.9%	587 21.0%	114 4.1%	2,795 100.0%	
어머니만 계심	빈도 %	2,498 78.7%	554 17.5%	121 3.8%	3,173 100.0%	
가족 형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빈도 %	1,044 71.7%	341 23.4%	72 4.9%	1,457 100.0%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빈도 %	596 72.2%	188 22.8%	42 5.1%	826 100.0%
	두 분 모두 양부모	빈도 %	244 75.1%	56 17.2%	25 7.7%	325 100.0%
두 분 모두 안계심	빈도 %	349 65.6%	135 25.4%	48 9.0%	532 100.0%	
전체	빈도	55,515	10,172	1,590	67,277	
	%	82.5%	15.1%	2.4%	100.0%	

$\chi^2=625.172^{***}$

$p<.05^*$, $p<.01^{**}$, $p<.001^{***}$

가족형태별 심리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두 분 모두 안 계심’ 응답자의 비율이 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두 분 모두 양부모’(7.7%), ‘친어머니와 새아버지’(5.1%), ‘친아버지와 새어머니’(4.9%)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두 분 모두 안계심’ 응답자의 비율이 2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23.4%), ‘친어머니와 새아버지’(22.8%), ‘두 분 모두 양부모’(17.2%)순이었다. 이와 같은 가족 형태별 심리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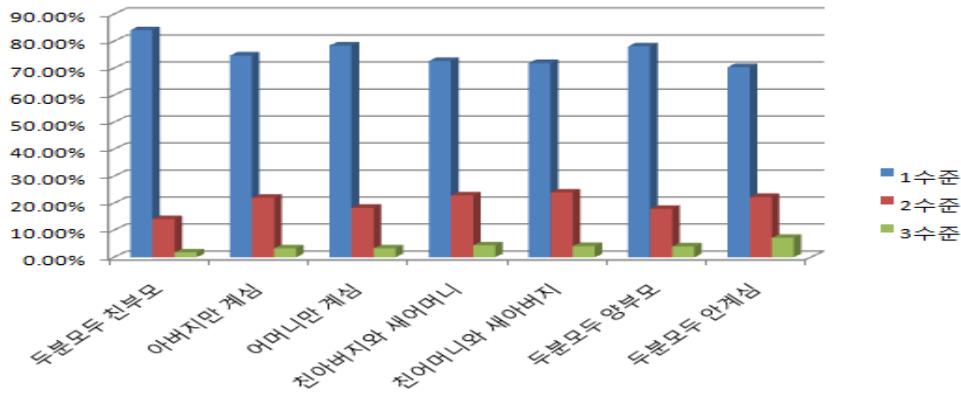
〈표 55〉 가족형태별 개인위기로소수준

구분	사례수	%	개인위기로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가족 형태	두분모두	빈도	49,528	8,288	1,043	58,859
	친부모	%	84.1%	14.1%	1.8%	100.0%
	아버지만	빈도	2,125	627	94	2,846
	계심	%	74.7%	22.0%	3.3%	100.0%
	어머니만	빈도	2,534	591	108	3,233
	계심	%	78.4%	18.3%	3.3%	100.0%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빈도	1,080	340	65	1,485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	72.7%	22.9%	4.4%	100.0%
	두 분 모두 양부모	빈도	596	199	34	829
	두 분 모두 안계심	%	71.9%	24.0%	4.1%	100.0%
	양부모	빈도	257	59	13	329
	두 분 모두 안계심	%	78.1%	17.9%	4.0%	100.0%
	안계심	빈도	379	120	39	538
	안계심	%	70.4%	22.3%	7.2%	100.0%
전체	빈도		56,499	10,224	1,396	68,119
	%		82.9%	15.0%	2.0%	100.0%

$$\chi^2 = 564.646^{***}$$

$$p < .05^*, p < .01^{**}, p < .001^{***}$$

가족형태별 개인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두 분 모두 안계심’ 응답자의 비율이 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4.4%), ‘친어머니와 새아버지’(4.1%), ‘두 분 모두 양부모’(4.0%)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응답자의 비율이 2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22.9%), ‘두 분 모두 안계심’(22.3%), ‘아버지만 계심’(22.0%)순이었다. 이와 같은 가족 형태별 개인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56〉 가족형태별 가정위키요소수준

구 분	사례수 %	가정위키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두분모두 친부모	빈도	43,745	4,660	1,643	50,048	
	%	87.4%	9.3%	3.3%	100.0%	
아버지만계심	빈도	1,493	599	354	2,446	
	%	61.0%	24.5%	14.5%	100.0%	
어머니만계심	빈도	2,058	519	200	2,777	
	%	74.1%	18.7%	7.2%	100.0%	
가족 형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빈도	661	355	255	1,271
	%	52.0%	27.9%	20.1%	100.0%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빈도	421	191	102	714	
	%	59.0%	26.8%	14.3%	100.0%	
두 분 모두 양부모	빈도	211	45	32	288	
	%	73.3%	15.6%	11.1%	100.0%	
두 분 모두 안계심	빈도	257	101	100	458	
	%	56.1%	22.1%	21.8%	100.0%	
전체	빈도	48,846	6,470	2,686	58,002	
	%	84.2%	11.2%	4.6%	100.0%	

$\chi^2=3585.696^{***}$

$p<.05^*$, $p<.01^{**}$, $p<.001^{***}$

가족형태별 가정위기사수를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두 분 모두 안계심' 응답자의 비율이 2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20.1%), '아버지만 계심(14.5%), '친어머니와 새아버지'(14.3%), '두 분 모두 양부모'(11.1%)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응답자의 비율이 2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어머니와 새아버지'(26.8%), '아버지만 계심'(24.5%), '두 분 모두 안계심'(22.1%) 순이었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별 가정위기사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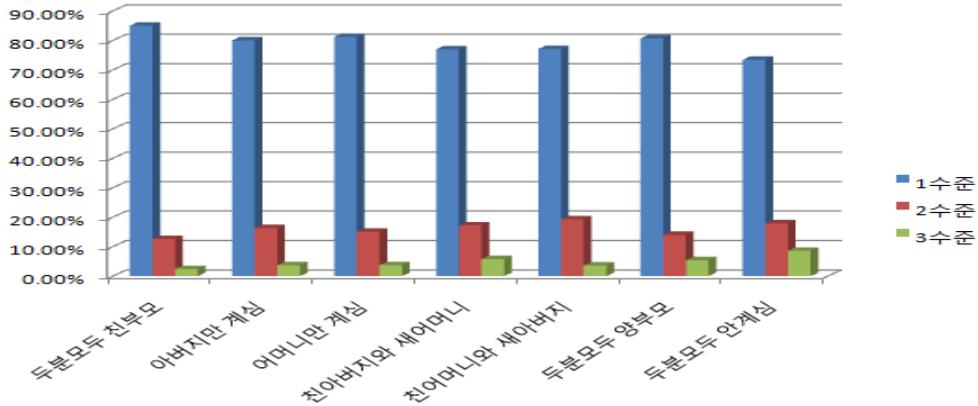
〈표 57〉 가족형태별 학교위기사수

구 분	사례수 %	학교위기사수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두분모두	빈도	50,367	7,436	1,423	59,226	
친부모	%	85.0%	12.6%	2.4%	100.0%	
아버지만계심	빈도	2,290	468	106	2,864	
	%	80.0%	16.3%	3.7%	100.0%	
어머니만계심	빈도	2,636	491	119	3,246	
	%	81.2%	15.1%	3.7%	100.0%	
가족 형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빈도	1,145	256	86	1,487
	%	77.0%	17.2%	5.8%	100.0%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빈도	647	162	30	839
	%	77.1%	19.3%	3.6%	100.0%	
	두 분 모두 양부모	빈도	271	47	18	336
	%	80.7%	14.0%	5.4%	100.0%	
	두 분 모두 안계심	빈도	401	98	47	546
	%	73.4%	17.9%	8.6%	100.0%	
전체	빈도	57,757	8,958	1,829	68,544	
	%	84.3%	13.1%	2.7%	100.0%	

$\chi^2=314.500^{***}$

$p < .05^*$, $p < .01^{**}$, $p < .001^{***}$

가족형태별 학교위기사수를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두 분 모두 안계심' 응답자의 비율이 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5.8%), '두 분 모두 양부모'(5.4%), '아버지만 계심'과 '어머니만 계심'(3.7%)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응답자의 비율이 1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두 분 모두 안계심'(17.9%), '친아버지와 새어머니'(17.2%), '아버지만 계심'(16.3%) 순이었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별 학교위기사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58〉 가족형태별 또래위기요소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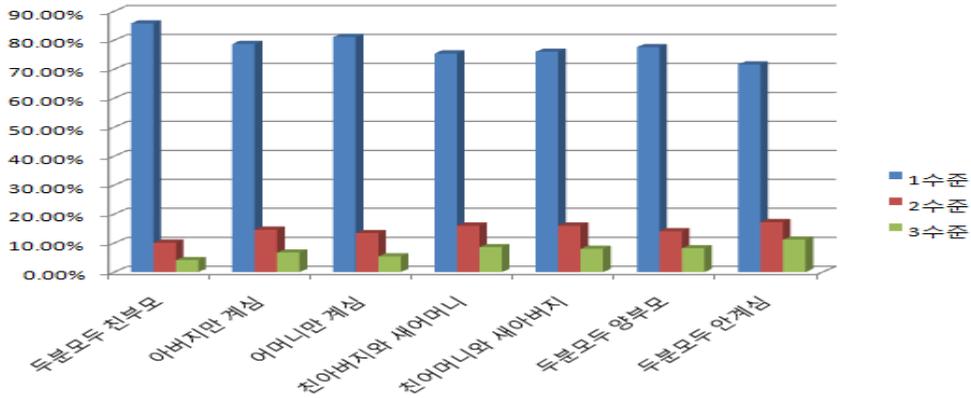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또래위기요소수준			전체	
		%	1수준	2수준		3수준
두분모두 친부모	빈도		51,228	6,042	2,459	59,729
	%		85.8%	10.1%	4.1%	100.0%
아버지만계심	빈도		2,274	423	193	2,890
	%		78.7%	14.6%	6.7%	100.0%
어머니만계심	빈도		2,662	441	178	3,281
	%		81.1%	13.4%	5.4%	100.0%
가족 형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빈도	1,138	241	130	1,509
	%		75.4%	16.0%	8.6%	100.0%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빈도		642	135	68	845
	%		76.0%	16.0%	8.0%	100.0%
두 분 모두 양부모	빈도		264	48	28	340
	%		77.6%	14.1%	8.2%	100.0%
두 분 모두 안계심	빈도		391	94	61	546
	%		71.6%	17.2%	11.2%	100.0%
전체	빈도		58,599	7,424	3,117	69,140
	%		84.8%	10.7%	4.5%	100.0%

$\chi^2=431.823^{***}$

$p<.05^*$, $p<.01^{**}$, $p<.001^{***}$

가족형태별 또래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두 분 모두 안계심’ 응답자의 비율이 1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8.6%), ‘두 분 모두 양부모’(8.2%), ‘친어머니와 새아버지’(8.0%) 순으로 나타났다. 또래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두 분 모두 안계심’ 응답자의 비율이 1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와 ‘친어머니와

새아버지’(16.0%), ‘아버지만 계심’(14.6%) 순이었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별 또래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59〉 가족형태별 지역사회위기요소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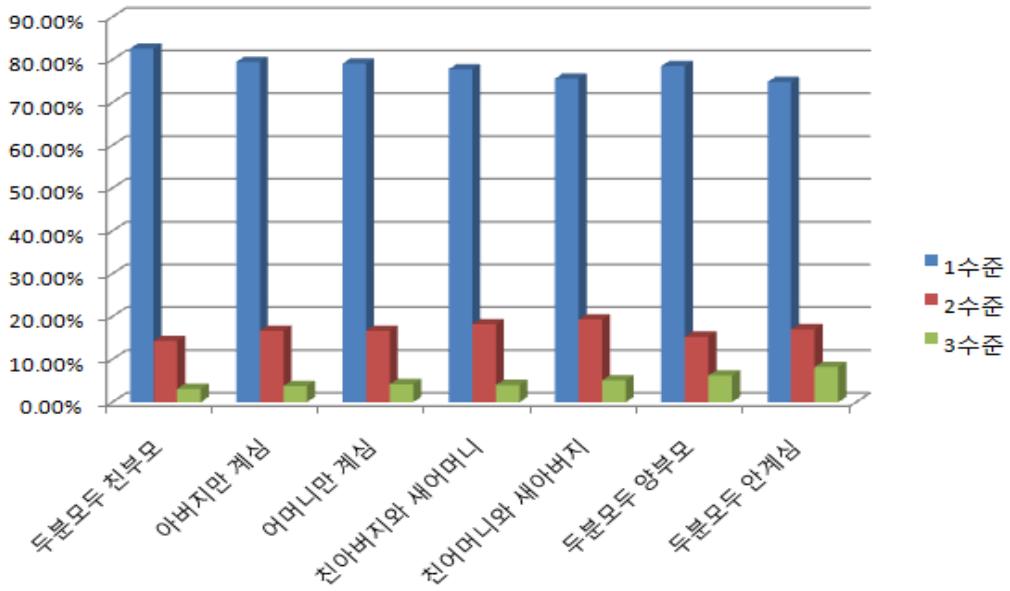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지역사회위기요소수준			전체	
		%	1수준	2수준		3수준
두분모두	빈도		49,314	8,533	1,851	59,698
친부모	%		82.6%	14.3%	3.1%	100.0%
아버지만계심	빈도		2,302	484	110	2,896
아버지만계심	%		79.5%	16.7%	3.8%	100.0%
어머니만계심	빈도		2,595	547	137	3,279
어머니만계심	%		79.1%	16.7%	4.2%	100.0%
가족 형태	친아버지와	빈도	1,175	275	61	1,511
	새어머니	%	77.8%	18.2%	4.0%	100.0%
	친어머니와	빈도	639	163	43	845
	새아버지	%	75.6%	19.3%	5.1%	100.0%
	두 분 모두	빈도	266	52	21	339
	양부모	%	78.5%	15.3%	6.2%	100.0%
	두 분 모두	빈도	410	93	45	548
	안계심	%	74.8%	17.0%	8.2%	100.0%
전체	빈도		56,701	10,147	2,268	69,116
	%		82.0%	14.7%	3.3%	100.0%

$\chi^2=146.571^{***}$

$p < .05^*$, $p < .01^{**}$, $p < .001^{***}$

가족형태별 지역사회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두 분 모두 안계심’ 응답자의 비율이 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두 분 모두 양부모’(6.2%), ‘친어머니와 새아버지’(5.1%), ‘어머니만 계심’(4.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응답자

의 비율이 1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18.2%), '두 분 모두 안계심'(17.0%), '아버지만 계심'과 '어머니만 계심'(16.7%) 순이었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별 지역사회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6) 거주형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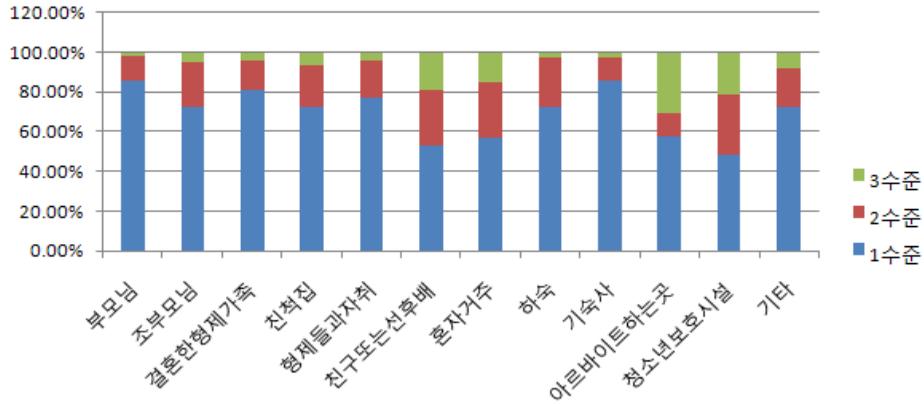
〈표 60〉 거주형태별 전체위기로소수준

구 분	사례수 %	전체위기로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부모님	빈도	38,012	5,507	913	44,432
	%	85.6%	12.4%	2.1%	100.0%
조부모님	빈도	1,217	378	84	1,679
	%	72.5%	22.5%	5.0%	100.0%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130	23	7	160
	%	81.3%	14.4%	4.4%	100.0%
친척집	빈도	231	68	20	319
	%	72.4%	21.3%	6.3%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178	42	10	230
	%	77.4%	18.3%	4.3%	100.0%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34	18	12	64
	%	53.1%	28.1%	18.8%	100.0%
거주 형태 혼자 거주	빈도	87	43	23	153
	%	56.9%	28.1%	15.0%	100.0%
하숙	빈도	55	19	2	76
	%	72.4%	25.0%	2.6%	100.0%
기숙사	빈도	1,341	190	40	1,571
	%	85.4%	12.1%	2.5%	100.0%
아르바이트 하는 곳	빈도	19	4	10	33
	%	57.6%	12.1%	30.3%	100.0%
청소년보호 시설	빈도	140	86	62	288
	%	48.6%	29.9%	21.5%	100.0%
기타	빈도	369	98	41	508
	%	72.6%	19.3%	8.1%	100.0%
전체	빈도	41,813	6,476	1,224	49,513
	%	84.4%	13.1%	2.5%	100.0%

$$\chi^2=1251.347^{***}$$

$$p<.05^*, p<.01^{**}, p<.001^{***}$$

거주형태별 전체위기로소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아르바이트하는 곳’ 응답자의 비율이 3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청소년보호 시설’(21.5%), ‘친구 또는 선후배’(18.8%)였다. 전체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청소년보호 시설’ 응답자의 비율이 2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혼자 거주’와 ‘친구 또는 선후배’(28.1%)였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전체위기로소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61〉 거주형태별 심리위기로소수수준

구분	사례수	심리위기로소수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부모님	빈도	46,999	8,216	1,186	56,401
	%	83.3%	14.6%	2.1%	100.0%
조부모님	빈도	1,531	443	97	2,071
	%	73.9%	21.4%	4.7%	100.0%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149	40	6	195
	%	76.4%	20.5%	3.1%	100.0%
친척집	빈도	294	80	17	391
	%	75.2%	20.5%	4.3%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230	44	12	286
	%	80.4%	15.4%	4.2%	100.0%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49	14	9	72
	%	68.1%	19.4%	12.5%	100.0%
혼자 거주	빈도	109	53	19	181
	%	60.2%	29.3%	10.5%	100.0%
하숙	빈도	72	17	4	93
	%	77.4%	18.3%	4.3%	100.0%
기숙사	빈도	1,401	263	46	1,710
	%	81.9%	15.4%	2.7%	100.0%
아르바이트 하는 곳	빈도	20	7	13	40
	%	50.0%	17.5%	32.5%	100.0%
청소년보호 시설	빈도	226	96	34	356
	%	63.5%	27.0%	9.6%	100.0%
기타	빈도	405	116	27	548
	%	73.9%	21.2%	4.9%	100.0%
전체	빈도	51,485	9,389	1,470	62,344
	%	82.6%	15.1%	2.4%	100.0%

$\chi^2=620.494^{***}$

$p<.05^*$, $p<.01^{**}$, $p<.001^{***}$

거주형태별 심리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아르바이트하는 곳’ 응답자의 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친구 또는 선후배’(12.5%)였다. 심리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혼자 거주’ 응답자의 비율이 2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청소년보호시설’(27.0%)이었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심리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62〉 거주형태별 개인위기로소수준

구 분	사례수 %	개인위기로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부모님	빈도	47,992	8,044	1,071	57,107	
	%	84.0%	14.1%	1.9%	100.0%	
조부모님	빈도	1,588	451	71	2,110	
	%	75.3%	21.4%	3.4%	100.0%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153	39	4	196	
	%	78.1%	19.9%	2.0%	100.0%	
친척집	빈도	298	89	11	398	
	%	74.9%	22.4%	2.8%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224	56	11	291	
	%	77.0%	19.2%	3.8%	100.0%	
거주 형태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46	22	9	77
	%	59.7%	28.6%	11.7%	100.0%	
혼자 거주	빈도	111	54	21	186	
	%	59.7%	29.0%	11.3%	100.0%	
하숙	빈도	61	25	7	93	
	%	65.6%	26.9%	7.5%	100.0%	
기숙사	빈도	1,376	306	31	1,713	
	%	80.3%	17.9%	1.8%	100.0%	
아르바이트 하는 곳	빈도	23	6	11	40	
	%	57.5%	15.0%	27.5%	100.0%	
청소년보호 시설	빈도	223	110	32	365	
	%	61.1%	30.1%	8.8%	100.0%	
기타	빈도	428	100	29	557	
	%	76.8%	18.0%	5.2%	100.0%	
전체	빈도	52,523	9,302	1,308	63,133	
	%	83.2%	14.7%	2.1%	100.0%	

$\chi^2=685.472^{***}$

$p < .05^*$, $p < .01^{**}$, $p < .001^{***}$

거주형태별 개인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아르바이트하는 곳’ 응답자의 비율이 2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친구 또는 선후

배'(11.7%), '혼자 거주'(11.3%)였다. 개인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청소년보호 시설' 응답자의 비율이 3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혼자 거주'(29.0%), '친구 또는 선후배'(28.6%)였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개인위기사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63〉 거주형태별 가정위기사준

구 분	사례수 %	가정위기사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부모님	빈도	40,746	4,956	1,842	47,544
	%	85.7%	10.4%	3.9%	100.0%
조부모님	빈도	1,216	385	220	1,821
	%	66.8%	21.1%	12.1%	100.0%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124	29	16	169
	%	73.4%	17.2%	9.5%	100.0%
친척집	빈도	224	72	43	339
	%	66.1%	21.2%	12.7%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162	57	31	250
	%	64.8%	22.8%	12.4%	100.0%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32	17	22	71
	%	45.1%	23.9%	31.0%	100.0%
거주 형태	빈도	89	36	39	164
	%	54.3%	22.0%	23.8%	100.0%
하숙	빈도	62	11	11	84
	%	73.8%	13.1%	13.1%	100.0%
기숙사	빈도	1,410	171	67	1,648
	%	85.6%	10.4%	4.1%	100.0%
아르바이트 하는 곳	빈도	22	3	15	40
	%	55.0%	7.5%	37.5%	100.0%
청소년보호 시설	빈도	108	83	127	318
	%	34.0%	26.1%	39.9%	100.0%
기타	빈도	375	98	73	546
	%	68.7%	17.9%	13.4%	100.0%
전체	빈도	44,570	5,918	2,506	52,994
	%	84.1%	11.2%	4.7%	100.0%

$\chi^2=2239.692^{***}$

$p < .05^*$, $p < .01^{**}$, $p < .001^{***}$

거주형태별 가정위기사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청소년보호 시설' 응답자의 비율이 3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아르바이트하는 곳'(37.5%), '친구 또는 선후배'(31.0%)였다. 가정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청소년보호 시설' 응답자의 비율이 2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친구

또는 선후배'(23.9%), '형제들과 자취'(22.8%)였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가정 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64〉 거주형태별 학교위기요소수준

구 분	사례수 %	학교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부모님	빈도	48,732	7,273	1,470	57,475
	%	84.8%	12.7%	2.6%	100.0%
조부모님	빈도	1,720	348	66	2,134
	%	80.6%	16.3%	3.1%	100.0%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153	32	8	193
	%	79.3%	16.6%	4.1%	100.0%
친척집	빈도	310	71	20	401
	%	77.3%	17.7%	5.0%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241	41	11	293
	%	82.3%	14.0%	3.8%	100.0%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50	15	14	79
	%	63.3%	19.0%	17.7%	100.0%
거주 형태	빈도	127	38	22	187
	%	67.9%	20.3%	11.8%	100.0%
하숙	빈도	75	14	5	94
	%	79.8%	14.9%	5.3%	100.0%
기숙사	빈도	1,528	165	32	1,725
	%	88.6%	9.6%	1.9%	100.0%
아르바이트 하는 곳	빈도	20	11	11	42
	%	47.6%	26.2%	26.2%	100.0%
청소년보호 시설	빈도	237	81	48	366
	%	64.8%	22.1%	13.1%	100.0%
기타	빈도	431	100	34	565
	%	76.3%	17.7%	6.0%	100.0%
전체	빈도	53,624	8,189	1,741	63,554
	%	84.4%	12.9%	2.7%	100.0%

$\chi^2=542.272^{***}$

$p < .05^*$, $p < .01^{**}$, $p < .001^{***}$

거주형태별 학교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아르바이트하는 곳' 응답자의 비율이 2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친구 또는 선후배'(17.7%), '청소년보호 시설'(13.1%)이었다. 학교위기 2수준(중재적 위험군)의 경우 '아르바이트하는 곳' 응답자의 비율이 2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청소년보호 시설'(22.1%), '혼자거주'(20.3%)였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학교위기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65〉 거주형태별 또래위험요소수준

구 분	사례수 %	또래위험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부모님	빈도	49,490	6,051	2,408	57,949
	%	85.4%	10.4%	4.2%	100.0%
조부모님	빈도	1,735	286	132	2,153
	%	80.6%	13.3%	6.1%	100.0%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141	40	17	198
	%	71.2%	20.2%	8.6%	100.0%
친척집	빈도	307	60	32	399
	%	76.9%	15.0%	8.0%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244	41	15	300
	%	81.3%	13.7%	5.0%	100.0%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36	23	20	79
	%	45.6%	29.1%	25.3%	100.0%
거주 형태 혼자 거주	빈도	108	46	35	189
	%	57.1%	24.3%	18.5%	100.0%
하숙	빈도	69	15	11	95
	%	72.6%	15.8%	11.6%	100.0%
기숙사	빈도	1,413	211	113	1,737
	%	81.3%	12.1%	6.5%	100.0%
아르바이트 하는 곳	빈도	23	9	11	43
	%	53.5%	20.9%	25.6%	100.0%
청소년보호 시설	빈도	182	88	98	368
	%	49.5%	23.9%	26.6%	100.0%
기타	빈도	458	67	44	569
	%	80.5%	11.8%	7.7%	100.0%
전체	빈도	54,206	6,937	2,936	64,079
	%	84.6%	10.8%	4.6%	100.0%

$\chi^2=953.460^{***}$

$p<.05^*$, $p<.01^{**}$, $p<.001^{***}$

거주형태별 또래위험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청소년보호 시설’ 응답자의 비율이 2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아르바이트하는 곳’(25.6%), ‘친구 또는 선후배’(25.3%)였다. 또래위험 2수준(중재적 위험군)의 경우 ‘친구 또는 선후배’ 응답자의 비율이 2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혼자 거주’(24.3%), ‘청소년보호 시설’(23.9%)이었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또래위험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66〉 거주형태별 지역사회위기로소수준

구 분	사례수 %	지역사회위기로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부모님	빈도	48,242	7,895	1,805	57,942
	%	83.3%	13.6%	3.1%	100.0%
조부모님	빈도	1,773	308	72	2,153
	%	82.4%	14.3%	3.3%	100.0%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154	36	7	197
	%	78.2%	18.3%	3.6%	100.0%
친척집	빈도	324	65	14	403
	%	80.4%	16.1%	3.5%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220	55	23	298
	%	73.8%	18.5%	7.7%	100.0%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50	18	10	78
	%	64.1%	23.1%	12.8%	100.0%
거주 형태 혼자 거주	빈도	114	51	24	189
	%	60.3%	27.0%	12.7%	100.0%
하숙	빈도	66	20	10	96
	%	68.8%	20.8%	10.4%	100.0%
기숙사	빈도	1,478	213	49	1,740
	%	84.9%	12.2%	2.8%	100.0%
아르바이트 하는 곳	빈도	26	5	12	43
	%	60.5%	11.6%	27.9%	100.0%
청소년보호 시설	빈도	230	97	43	370
	%	62.2%	26.2%	11.6%	100.0%
기타	빈도	442	90	34	566
	%	78.1%	15.9%	6.0%	100.0%
전체	빈도	53,119	8,853	2,103	64,075
	%	82.9%	13.8%	3.3%	100.0%

$\chi^2=417.722^{***}$

$p<.05^*$, $p<.01^{**}$, $p<.001^{***}$

거주형태별 지역사회위기로소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아르바이트 하는 곳’ 응답자의 비율이 2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친구 또는 선후배’(12.8%), ‘혼자거주’(12.7%)였다. 지역사회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혼자 거주’ 응답자의 비율이 27.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청소년보호 시설’(26.2%), ‘친구 또는 선후배’(23.1%)였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지역사회위기로소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7) 가정경제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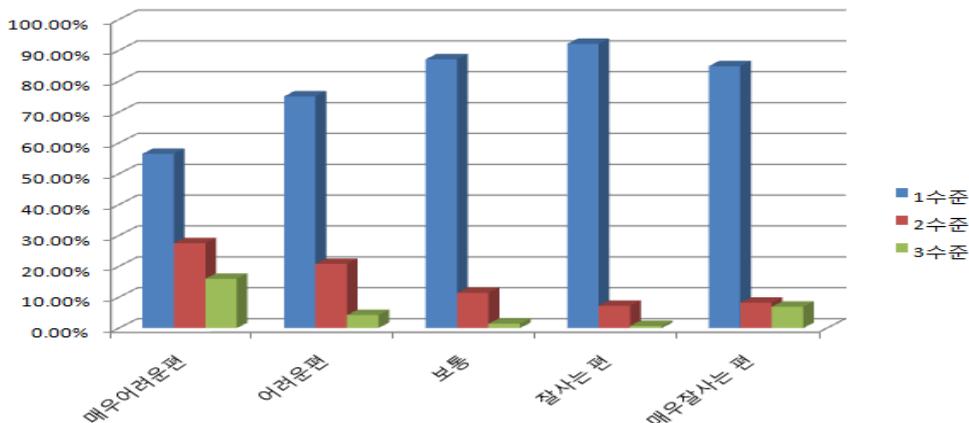
〈표 67〉 가정경제수준별 전체위기요소수준

구 분	사례수 %	전체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가정 경제 수준	매우 빈도	860	418	243	1,521
	어려운 편 %	56.5%	27.5%	16.0%	100.0%
	어려운 편 빈도	7,125	1,973	395	9,493
	어려운 편 %	75.1%	20.8%	4.2%	100.0%
	보통 빈도	32,958	4,315	548	37,821
	보통 %	87.1%	11.4%	1.4%	100.0%
	잘사는 편 빈도	4,178	326	33	4,537
	잘사는 편 %	92.1%	7.2%	0.7%	100.0%
	매우 잘사는 편 빈도	663	64	54	781
	매우 잘사는 편 %	84.9%	8.2%	6.9%	100.0%
전 체 빈도	45,784	7,096	1,273	54,153	
전 체 %		84.5%	13.1%	2.4%	100.0%

$$\chi^2=2773.187^{***}$$

$$p<.05^*,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 전체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매우 어려운 편’ 응답자의 비율이 1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매우 잘사는 편’(6.9%), ‘어려운 편’(4.2%)이었다. 전체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매우 어려운 편’ 응답자의 비율이 2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어려운 편’(20.8%), ‘보통’(11.4%) 순이었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전체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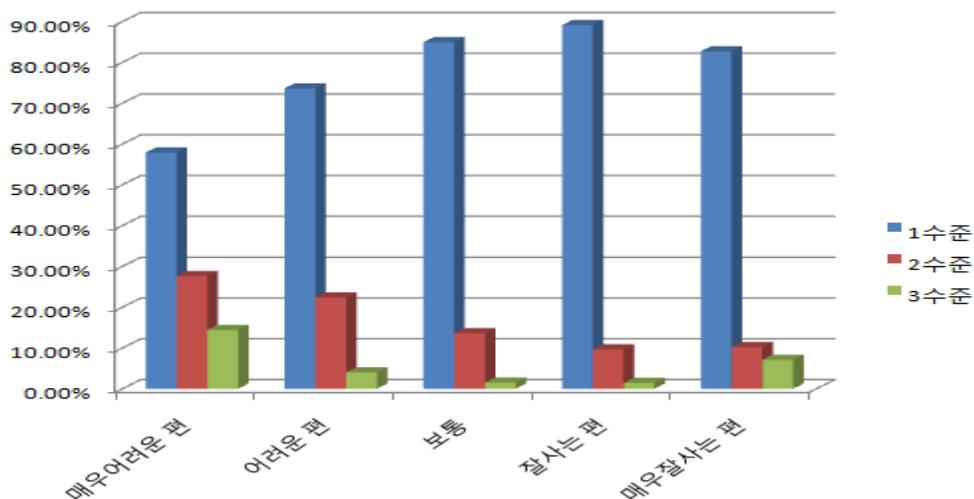
〈표 68〉 가정경제수준별 심리위기로소수준

구 분	사례수 %	심리위기로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매우 어려운 편	빈도	1,065	508	265	1,838
	%	57.9%	27.6%	14.4%	100.0%
어려운 편	빈도	8,559	2,606	463	11,628
	%	73.6%	22.4%	4.0%	100.0%
가정 경제 수준 보통	빈도	40,032	6,420	717	47,169
	%	84.9%	13.6%	1.5%	100.0%
잘사는 편	빈도	5,100	548	79	5,727
	%	89.1%	9.6%	1.4%	100.0%
매우 잘사는 편	빈도	767	95	66	928
	%	82.7%	10.2%	7.1%	100.0%
전체	빈도	55,523	10,177	1,590	67,290
	%	82.5%	15.1%	2.4%	100.0%

$\chi^2=2622.439^{***}$

$p<.05^*$,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 심리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매우 어려운 편’ 응답자의 비율이 1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매우 잘사는 편’(7.1%), ‘어려운 편’(4.0%)이었다. 심리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매우 어려운 편’ 응답자의 비율이 2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어려운 편’(22.4%), ‘보통’(13.6%) 순이었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심리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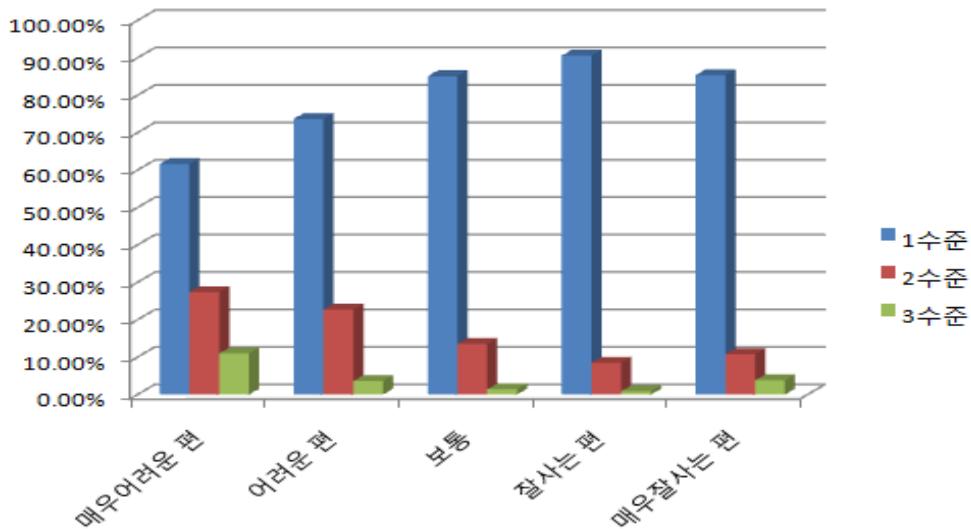
〈표 69〉 가정경제수준별 개인위기요소수준

구 분	사례수 %	개인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가정 경제 수준	매우 어려운 편	빈도	1,157	515	206	1,878
		%	61.6%	27.4%	11.0%	100.0%
	어려운 편	빈도	8,706	2,680	421	11,807
		%	73.7%	22.7%	3.6%	100.0%
	보통	빈도	40,547	6,440	678	47,665
		%	85.1%	13.5%	1.4%	100.0%
	잘사는 편	빈도	5,293	495	51	5,839
		%	90.6%	8.5%	0.9%	100.0%
	매우 잘사는 편	빈도	804	102	36	942
		%	85.4%	10.8%	3.8%	100.0%
전 체	빈도	56,507	10,232	1,392	68,131	
	%	82.9%	15.0%	2.0%	100.0%	

$\chi^2=2207.597^{***}$

$p<.05^*$,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 개인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매우 어려운 편’ 응답자의 비율이 1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매우 잘사는 편’(3.8%), ‘어려운 편’(3.6%)이었다. 개인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매우 어려운 편’ 응답자의 비율이 2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어려운 편’(22.7%), ‘보통’(13.5%) 순이었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개인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70〉 가정경제수준별 가정위키요소수준

구 분	사례수 %	가정위키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가정 경제 수준	매우 어려운 편	빈도 %	933 55.7%	356 21.3%	385 23.0%	1,674 100.0%
	어려운 편	빈도 %	7,320 72.0%	2,045 20.1%	808 7.9%	10,173 100.0%
	보통	빈도 %	35,338 87.4%	3,740 9.3%	1,336 3.3%	40,414 100.0%
	잘사는 편	빈도 %	4,521 92.3%	280 5.7%	99 2.0%	4,900 100.0%
	매우 잘사는 편	빈도 %	731 86.0%	56 6.6%	63 7.4%	850 100.0%
	전 체	빈도 %	48,843 84.2%	6,477 11.2%	2,691 4.6%	58,011 100.0%

$$\chi^2=3287.228^{***}$$

$$p<.05^{\circ},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 가정위키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매우 어려운 편’ 응답자의 비율이 2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어려운 편’(7.9%), ‘매우 잘사는 편’(7.4%)이었다. 가정위키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매우 어려운 편’ 응답자의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어려운편’(20.1%), ‘보통’(9.3%) 순이었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가정위키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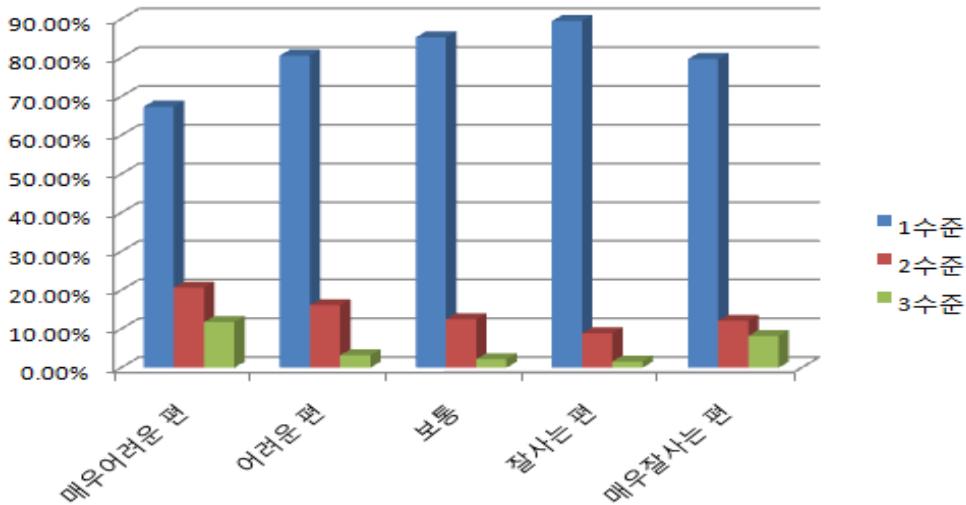
〈표 71〉 가정경제수준별 학교위키요소수준

구 분	사례수 %	학교위키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가정 경제 수준	매우 어려운 편	빈도 %	1,282 67.4%	394 20.7%	225 11.8%	1,901 100.0%
	어려운 편	빈도 %	9,557 80.6%	1,911 16.1%	385 3.2%	11,853 100.0%
	보통	빈도 %	40,936 85.3%	6,020 12.5%	1,045 2.2%	48,001 100.0%
	잘사는 편	빈도 %	5,245 89.5%	522 8.9%	95 1.6%	5,862 100.0%
	매우 잘사는 편	빈도 %	757 79.7%	115 12.1%	78 8.2%	950 100.0%
	전 체	빈도 %	57,777 84.3%	8,962 13.1%	1,828 2.7%	68,567 100.0%

$$\chi^2=1159.364^{***}$$

$$p<.05^{\circ},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 학교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매우 어려운 편’ 응답자의 비율이 1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매우 잘사는 편’(8.2%), ‘어려운 편’(3.2%)이었다. 학교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매우 어려운 편’ 응답자의 비율이 2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어려운 편’(16.1%), ‘보통’(12.5%), ‘매우 잘사는 편’(12.1%) 순이었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학교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72〉 가정경제수준별 또래위기로소수수준

구 분	사례수	또래위기로소수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가정 경제 수준	매우	빈도	1,299	332	284	1,915
	어려운 편	%	67.8%	17.3%	14.8%	100.0%
	어려운 편	빈도	9,652	1,659	644	11,955
		%	80.7%	13.9%	5.4%	100.0%
	보통	빈도	41,779	4,820	1,811	48,410
		%	86.3%	10.0%	3.7%	100.0%
	잘사는 편	빈도	5,143	505	268	5,916
		%	86.9%	8.5%	4.5%	100.0%
	매우	빈도	718	120	124	962
	잘사는 편	%	74.6%	12.5%	12.9%	100.0%
전 체	빈도	58,591	7,436	3,131	69,158	
	%	84.7%	10.8%	4.5%	100.0%	

$\chi^2=1043.325^{***}$

$p<.05^{\circ},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 또래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매우 어려운 편’ 응답자의 비율이 1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매우 잘사는 편’(12.9%), ‘어려운 편’(5.4%)이었다. 또래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매우 어려운 편’ 응답자의 비율이 1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어려운 편’(13.9%), ‘매우 잘사는 편’(12.5%) 순이었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또래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73〉 가정경제수준별 지역사회위기요소수준

구 분	사례수 %	지역사회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가정 경제 수준	매우 어려운 편	빈도 %	1,297 67.6%	410 21.4%	212 11.0%	1,919 100.0%
	어려운 편	빈도 %	9,223 77.1%	2,211 18.5%	526 4.4%	11,960 100.0%
	보통	빈도 %	40,386 83.5%	6,699 13.8%	1,291 2.7%	48,376 100.0%
	잘사는 편	빈도 %	5,070 85.7%	688 11.6%	160 2.7%	5,918 100.0%
	매우 잘사는 편	빈도 %	734 76.5%	143 14.9%	82 8.6%	959 100.0%
	전 체	빈도 %	56,710 82.0%	10,151 14.7%	2,271 3.3%	69,132 100.0%

$\chi^2=886.520^{***}$

$p<.05^{\circ},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 지역사회위기수준을 살펴보면,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 ‘매우 어려운 편’ 응답자의 비율이 1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매우 잘사는 편’(8.6%), ‘어려운 편’(4.4%)이었다. 지역사회위기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매우 어려운 편’ 응답자의 비율이 2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어려운 편’(18.5%), ‘매우 잘사는 편’(14.9%) 순이었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지역사회위기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다. 위기수준별 응답자 특성(가족형태, 거주형태, 가정경제수준)

1) 전체 위기수준별 응답자 특성

〈표 74〉 전체 위기수준별 가족형태

구분	가족형태							전체	
	두 분 모두 친부모	아버지만 계심	어머니 만계심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두 분 모두 양부모	두 분 모두 안계심		
전체	빈도	40,505	1,575	2,000	769	454	201	281	45,785
	%	88.5%	3.4%	4.4%	1.7%	1.0%	0.4%	0.6%	100.0%
1수준	빈도	5,452	544	476	305	164	38	103	7,082
	%	77.0%	7.7%	6.7%	4.3%	2.3%	0.5%	1.5%	100.0%
2수준	빈도	835	128	103	102	49	17	43	1,277
	%	65.4%	10.0%	8.1%	8.0%	3.8%	1.3%	3.4%	100.0%
전체	빈도	46,792	2,247	2,579	1,176	667	256	427	54,144
	%	86.4%	4.2%	4.8%	2.2%	1.2%	0.5%	0.8%	100.0%

$\chi^2=41381.109^{***}$

$p<.05^*$, $p<.01^{**}$, $p<.001^{***}$

전체 위기수준별로 가족형태를 살펴본 결과, 위기수준이 1수준(보통)인 경우 ‘두 분 모두 친부모’인 비율이 88.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어머니만 계심’(4.4%)과 ‘아버지만 계심’(3.4%) 순이었다.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두 분 모두 친부모가 아닌 비율이 23%로 1수준보다 비교적 높았다. 3수준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34.6%가 두 분 모두 친부모가 아닌 가족형태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부모 가족형태의 응답자가 18.1%로 나타났고,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와 함께 사는 응답자가 11.8%로 나타나 타 위기수준집단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75〉 전체 위기수준별 거주형태

구 분	거주형태												전체	
	부모님	조부모 님	결혼한 형제가족	친척집	형제들 과 자취	친구 또는 선후배	혼자 거주	하숙	기숙사	아르바 이트하 는 곳	청소년 보호시 설	기타		
1 수준	빈도	38,012	1,217	130	231	178	34	87	55	1,341	19	140	369	41,813
	%	90.9%	2.9%	0.3%	0.6%	0.4%	0.1%	0.2%	0.1%	3.2%	0.0%	0.3%	0.9%	100.0%
전체 위기 수준	빈도	5,507	378	23	68	42	18	43	19	190	4	86	98	6,476
	%	85.0%	5.8%	0.4%	1.1%	0.6%	0.3%	0.7%	0.3%	2.9%	0.1%	1.3%	1.5%	100.0%
3 수준	빈도	913	84	7	20	10	12	23	2	40	10	62	41	1,224
	%	74.6%	6.9%	0.6%	1.6%	0.8%	1.0%	1.9%	0.2%	3.3%	0.8%	5.1%	3.3%	100.0%
전체	빈도	44,432	1,679	160	319	230	64	153	76	1,571	33	288	508	49,513
	%	89.7%	3.4%	0.3%	0.6%	0.5%	0.1%	0.3%	0.2%	3.2%	0.1%	0.6%	1.0%	100.0%

$\chi^2=1251.347^{***}$

$p<.05^*$, $p<.01^{**}$, $p<.001^{***}$

전체 위기수준별로 거주형태를 살펴본 결과, 1수준 응답자의 90.9%, 2수준 응답자의 85.0%, 3수준 응답자의 74.6%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기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과 거주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조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가 6.9%였으며, 청소년보호시설에서 거주하는 응답자가 5.1%, 기타장소에서 거주하는 응답자가 3.3%나 되었다.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에는 조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가 5.8%, 기숙사가 2.9%였다.

〈표 76〉 전체 위기수준별 가정경제수준

		가정경제수준					전체
		매우 어려운 편	어려운 편	보통	잘사는 편	매우 잘사는 편	
전 체	빈도	860	7,125	32,958	4,178	663	45,784
	%	1.9%	15.6%	72.0%	9.1%	1.4%	100.0%
위 기	빈도	418	1,973	4,315	326	64	7,096
	%	5.9%	27.8%	60.8%	4.6%	0.9%	100.0%
수 준	빈도	243	395	548	33	54	1,273
	%	19.1%	31.0%	43.0%	2.6%	4.2%	100.0%
전 체	빈도	1,521	9,493	37,821	4,537	781	54,153
	%	2.8%	17.5%	69.8%	8.4%	1.4%	100.0%

$\chi^2=2773.187^{***}$

$p<.05^{\circ}$, $p<.01^{**}$, $p<.001^{***}$

전체 위기수준별로 가정경제수준을 살펴본 결과, 1, 2, 3수준 모두 가정경제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위험수준이 높아질수록 '매우 어려운 편'과 '어려운 편'인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수준의 경우에는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31.0%, '매우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19.1%, '매우 잘사는 편'이라는 응답이 4.2%로 나타났다. 2수준의 경우에는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27.8%, '매우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5.9%, '잘사는 편'이라는 응답이 4.6%로 나타났다.

2) 심리위기수준별 응답자 특성

〈표 77〉 심리위기수준별 가족형태

구 분	가족형태								전체	
	두분 모두 친부모	아버지만계 심	어머니만계 심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두 분 모두 양부모	두 분 모두 안계심			
심리 위기 수준	1	빈도	48,690	2,094	2,498	1,044	596	244	349	55,515
	수준	%	87.7%	3.8%	4.5%	1.9%	1.1%	0.4%	0.6%	100.0%
	2	빈도	8,311	587	554	341	188	56	135	10,172
	수준	%	81.7%	5.8%	5.4%	3.4%	1.8%	0.6%	1.3%	100.0%
	3	빈도	1,168	114	121	72	42	25	48	1,590
	수준	%	73.5%	7.2%	7.6%	4.5%	2.6%	1.6%	3.0%	100.0%
전체	빈도	58,169	2,795	3,173	1,457	826	325	532	67,277	
	%	86.5%	4.2%	4.7%	2.2%	1.2%	0.5%	0.8%	100.0%	

$$\chi^2=625.172^{***}$$

$$p<.05^*, p<.01^{**}, p<.001^{***}$$

심리위기수준별로 가족형태를 살펴본 결과, 위기수준이 1수준(보통)인 경우 ‘두 분 모두 친부모’인 비율이 87.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어머니만 계심’(4.5%)과 ‘아버지만 계심’(3.8%) 순이었다.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두 분 모두 친부모가 아닌 비율이 18.3%로 1수준보다 비교적 높았다. 3수준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26.5%가 두 분 모두 친부모가 아닌 가족형태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부모 가족형태의 응답자가 14.8%로 나타났고,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와 함께 사는 응답자가 7.1%로 나타나 타 위기수준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78〉 심리위기수준별 거주형태

구분	거주형태													전체
	부모님	조부모님	결혼한 형제가족	친척집	형제들과 자취	친구 또는 선후배	혼자 거주	하숙	기숙사	아르바 이트하 는 곳	청소년 보호시 설	기타		
1 수 준	빈도	46,999	1,531	149	294	230	49	109	72	1,401	20	226	405	51,485
	%	91.3%	3.0%	0.3%	0.6%	0.4%	0.1%	0.2%	0.1%	2.7%	0.0%	0.4%	0.8%	100.0%
심리 위기 수준 2 수 준	빈도	8,216	443	40	80	44	14	53	17	263	7	96	116	9,389
	%	87.5%	4.7%	0.4%	0.9%	0.5%	0.1%	0.6%	0.2%	2.8%	0.1%	1.0%	1.2%	100.0%
3 수 준	빈도	1,186	97	6	17	12	9	19	4	46	13	34	27	1,470
	%	80.7%	6.6%	0.4%	1.2%	0.8%	0.6%	1.3%	0.3%	3.1%	0.9%	2.3%	1.8%	100.0%
전체	빈도	56,401	2,071	195	391	286	72	181	93	1,710	40	356	548	62,344
	%	90.5%	3.3%	0.3%	0.6%	0.5%	0.1%	0.3%	0.1%	2.7%	0.1%	0.6%	0.9%	100.0%

$\chi^2=620.494^{***}$

$p<.05^*$, $p<.01^{**}$, $p<.001^{***}$

심리위기수준별로 거주형태를 살펴본 결과, 1수준 응답자의 91.3%, 2수준 응답자의 87.5%, 3수준 응답자의 80.7%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기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과 거주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조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가 6.6%였으며, 기숙사 거주 응답자가 3.1%, 청소년보호시설에서 거주하는 응답자가 2.3%, 기타장소에서 거주하는 응답자가 1.8%나 되었다.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에는 조부모님과의 거주가 4.7%, 기숙사가 2.8%였다.

〈표 79〉 심리위기수준별 가정경제수준

		가정경제수준					전체
		매우 어려운 편	어려운 편	보통	잘사는 편	매우 잘사는 편	
1	빈도	1,065	8,559	40,032	5,100	767	55,523
	수준 %	1.9%	15.4%	72.1%	9.2%	1.4%	100.0%
심리 위기 수준 2	빈도	508	2,606	6,420	548	95	10,177
	수준 %	5.0%	25.6%	63.1%	5.4%	0.9%	100.0%
3	빈도	265	463	717	79	66	1,590
	수준 %	16.7%	29.1%	45.1%	5.0%	4.2%	100.0%
전체	빈도	1,838	11,628	47,169	5,727	928	67,290
	%	2.7%	17.3%	70.1%	8.5%	1.4%	100.0%

$$\chi^2=2622.439^{***}$$

$$p<.05^*, p<.01^{**}, p<.001^{***}$$

심리위기수준별로 가정경제수준을 살펴본 결과, 1, 2, 3수준 모두 가정경제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위험수준이 높아질수록 '매우 어려운 편'과 '어려운 편'인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수준의 경우에는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29.1%, '매우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16.7%, '잘사는 편'이라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2수준의 경우에는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25.6%, '잘사는 편'이라는 응답이 5.4%, '매우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3) 개인위기수준별 응답자 특성

〈표 80〉 개인위기수준별 가족형태

구분	빈도	가족형태							전체
		두분 모두 친부모	아버지만계 심	어머니만계 심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두 분 모두 양부모	두 분 모두 안계심	
1 수준	빈도	49,528	2,125	2,534	1,080	596	257	379	56,499
	%	87.7%	3.8%	4.5%	1.9%	1.1%	0.5%	0.7%	100.0%
개인 위기 수준	2 빈도	8,288	627	591	340	199	59	120	10,224
	%	81.1%	6.1%	5.8%	3.3%	1.9%	0.6%	1.2%	100.0%
3 수준	빈도	1,043	94	108	65	34	13	39	1,396
	%	74.7%	6.7%	7.7%	4.7%	2.4%	0.9%	2.8%	100.0%
전체	빈도	58,859	2,846	3,233	1,485	829	329	538	68,119
	%	86.4%	4.2%	4.7%	2.2%	1.2%	0.5%	0.8%	100.0%

$\chi^2=564.646^{**}$

$p<.05^*$, $p<.01^{**}$, $p<.001^{***}$

개인위기수준별로 가족형태를 살펴본 결과, 위기수준이 1수준(보통)인 경우 ‘두 분 모두 친부모’인 비율이 87.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어머니만 계심’(4.5%)과 ‘아버지만 계심’(3.8%) 순이었다.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두 분 모두 친부모가 아닌 비율이 18.9%로 1수준보다 비교적 높았다. 3수준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25.3%가 두 분 모두 친부모가 아닌 가족형태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부모 가족형태의 응답자가 14.5%로 나타났고,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와 함께 사는 응답자가 7.1%로 나타나, 타 위기수준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81〉 개인위기수준별 거주형태

구분	거주형태												전체
	부모님	조부모님	결혼한 형제 가족	친척집	형제 들과 자취	친구 또는 선후배	혼자 거주	하숙	기숙사	아르바이트 하는 곳	청소년 보호 시설	기타	
1 수준	빈도 47,992	1,588	153	298	224	46	111	61	1,376	23	223	428	52,523
	% 91.4%	3.0%	0.3%	0.6%	0.4%	0.1%	0.2%	0.1%	2.6%	0.0%	0.4%	0.8%	100.0%
개인 위기 수준 2 수준	빈도 8,044	451	39	89	56	22	54	25	306	6	110	100	9,302
	% 86.5%	4.8%	0.4%	1.0%	0.6%	0.2%	0.6%	0.3%	3.3%	0.1%	1.2%	1.1%	100.0%
3 수준	빈도 1,071	71	4	11	11	9	21	7	31	11	32	29	1,308
	% 81.9%	5.4%	0.3%	0.8%	0.8%	0.7%	1.6%	0.5%	2.4%	0.8%	2.4%	2.2%	100.0%
전체	빈도 57,107	2,110	196	398	291	77	186	93	1,713	40	365	557	63,133
	% 90.5%	3.3%	0.3%	0.6%	0.5%	0.1%	0.3%	0.1%	2.7%	0.1%	0.6%	0.9%	100.0%

$\chi^2=2207.597^{***}$

$p<.05^*$, $p<.01^{**}$, $p<.001^{***}$

개인위기수준별로 거주형태를 살펴본 결과, 1수준 응답자의 91.4%, 2수준 응답자의 86.5%, 3수준 응답자의 81.9%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기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과 거주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조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가 5.4%였으며, 기숙사 거주 응답자와 청소년보호시설에서 거주하는 응답자가 각각 2.4%, 기타장소에서 거주하는 응답자가 2.2%나 되었다.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에는 조부모님과의 거주가 4.8%, 기숙사가 3.3%였다.

〈표 82〉 개인위기수준별 가정경제수준

		가정경제수준					전체
		매우 어려운 편	어려운 편	보통	잘사는 편	매우 잘사는 편	
개인 위기 수준	1 수준	빈도 1,157	8,706	40,547	5,293	804	56,507
		% 2.0%	15.4%	71.8%	9.4%	1.4%	100.0%
2 수준	빈도	515	2,680	6,440	495	102	10,232
	%	5.0%	26.2%	62.9%	4.8%	1.0%	100.0%
3 수준	빈도	206	421	678	51	36	1,392
	%	14.8%	30.2%	48.7%	3.7%	2.6%	100.0%
전체	빈도	1,878	11,807	47,665	5,839	942	68,131
	%	2.8%	17.3%	70.0%	8.6%	1.4%	100.0%

$\chi^2=2622.439^{***}$

$p<.05^{\circ}, p<.01^{**}, p<.001^{***}$

개인위기수준별로 가정경제수준을 살펴본 결과, 1, 2, 3수준 모두 가정경제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위험수준이 높아질수록 '매우 어려운 편'과 '어려운 편'인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수준의 경우에는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30.2%, '매우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14.8%, '잘사는 편'이라는 응답이 3.7%로 나타났다. 2수준의 경우에는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26.2%, '매우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5.0%, '잘사는 편'이라는 응답이 4.8%로 나타났다.

4) 가정위기수준별 응답자 특성

〈표 83〉 가정위기수준별 가족형태

구분		가족형태						전체	
		두분 모두 친부모	아버지만 계심	어머니만 계심	친아버지 와 새어머니	친어머니 와 새아버지	두 분 모두 양부모		두 분 모두 안계심
1수준	빈도	43,745	1,493	2,058	661	421	211	257	48,846
	%	89.6%	3.1%	4.2%	1.4%	0.9%	0.4%	0.5%	100.0%
2수준	빈도	4,660	599	519	355	191	45	101	6,470
	%	72.0%	9.3%	8.0%	5.5%	3.0%	0.7%	1.6%	100.0%
3수준	빈도	1,643	354	200	255	102	32	100	2,686
	%	61.2%	13.2%	7.4%	9.5%	3.8%	1.2%	3.7%	100.0%
전체	빈도	50,048	2,446	2,777	1,271	714	288	458	58,002
	%	86.3%	4.2%	4.8%	2.2%	1.2%	0.5%	0.8%	100.0%

$\chi^2=3585.696^{**}$

$p<.05^{\circ}, p<.01^{**}, p<.001^{***}$

가정위기수준별로 가족형태를 살펴본 결과, 위기수준이 1수준(보통)인 경우 ‘두 분 모두 친부모’인 비율이 89.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어머니만 계심’(4.2%)과 ‘아버지만 계심’(3.1%) 순이었다.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두 분 모두 친부모가 아닌 비율이 28.0%로 1수준보다 비교적 높았다. 3수준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38.8%가 두 분 모두 친부모가 아닌 가족형태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부모 가족형태의 응답자가 20.6%로 나타났고,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와 함께 사는 응답자가 13.3%로 나타나 타 위기수준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84〉 가정위기수준별 거주형태

구분	거주형태													전체	
	부모님	조부모님	결혼한 형제가족	친척집	형제들과 자취	친구 또는 선후배	혼자 거주	하숙	기숙사	아르바이트하는 곳	청소년보호시설	기타			
가정 위기 수준	1	빈도	40,746	1,216	124	224	162	32	89	62	1,410	22	108	375	44,570
	수준	%	91.4%	2.7%	0.3%	0.5%	0.4%	0.1%	0.2%	0.1%	3.2%	0.0%	0.2%	0.8%	100.0%
	2	빈도	4,956	385	29	72	57	17	36	11	171	3	83	98	5,918
	수준	%	83.7%	6.5%	0.5%	1.2%	1.0%	0.3%	0.6%	0.2%	2.9%	0.1%	1.4%	1.7%	100.0%
	3	빈도	1,842	220	16	43	31	22	39	11	67	15	127	73	2,506
	수준	%	73.5%	8.8%	0.6%	1.7%	1.2%	0.9%	1.6%	0.4%	2.7%	0.6%	5.1%	2.9%	100.0%
전체	빈도	47,544	1,821	169	339	250	71	164	84	1,648	40	318	546	52,994	
	%	89.7%	3.4%	0.3%	0.6%	0.5%	0.1%	0.3%	0.2%	3.1%	0.1%	0.6%	1.0%	100.0%	

$$\chi^2=2239.692^{***}$$

$$p<.05^{\circ}, p<.01^{**}, p<.001^{***}$$

가정위기수준별로 거주형태를 살펴본 결과, 1수준 응답자의 91.4%, 2수준 응답자의 83.7%, 3수준 응답자의 73.5%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기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과 거주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조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가 8.8%였으며, 청소년보호시설에서 거주하는 응답자가 5.1%, 기타장소에서 거주하는 응답자가 2.9%나 되었다.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에는 조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6.5%, 기숙사가 2.9%였다.

〈표 85〉 가정위기수준별 가정경제수준

		가정경제수준					전체	
		매우 어려운 편	어려운 편	보통	잘사는 편	매우 잘사는 편		
가정 위기 수준	1수준	빈도	933	7,320	35,338	4,521	731	48,843
		%	1.9%	15.0%	72.4%	9.3%	1.5%	100.0%
2수준	빈도	356	2,045	3,740	280	56	6,477	
	%	5.5%	31.6%	57.7%	4.3%	0.9%	100.0%	
3수준	빈도	385	808	1,336	99	63	2,691	
	%	14.3%	30.0%	49.6%	3.7%	2.3%	100.0%	
전체	빈도	1,674	10,173	40,414	4,900	850	58,011	
	%	2.9%	17.5%	69.7%	8.4%	1.5%	100.0%	

$\chi^2=3287.228^{***}$

$p<.05^{\circ}, p<.01^{**}, p<.001^{***}$

가정위기수준별로 가정경제수준을 살펴본 결과, 1, 2, 3수준 모두 가정경제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위험수준이 높아질수록 ‘매우 어려운 편’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수준의 경우에는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30.0%, ‘매우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14.3%, ‘매우 잘사는 편’이라는 응답이 4.2%로 나타났다. 2수준의 경우에는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31.6%, ‘매우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5.5%, ‘잘사는 편’이라는 응답이 4.3%로 나타났다.

5) 학교위기수준별 응답자 특성

〈표 86〉 학교위기수준별 가족형태

구 분		가족형태							전체	
		두분 모두 친부모	아버지만 계심	어머니만 계심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두분 모두 양부모	두 분 모두 안계심		
학교 위기 수준	1수준	빈도	50,367	2,290	2,636	1,145	647	271	401	57,757
		%	87.2%	4.0%	4.6%	2.0%	1.1%	0.5%	0.7%	100.0%
2수준	빈도	7,436	468	491	256	162	47	98	8,958	
	%	83.0%	5.2%	5.5%	2.9%	1.8%	0.5%	1.1%	100.0%	
3수준	빈도	1,423	106	119	86	30	18	47	1,829	
	%	77.8%	5.8%	6.5%	4.7%	1.6%	1.0%	2.6%	100.0%	
전체	빈도	59,226	2,864	3,246	1,487	839	336	546	68,544	
	%	86.4%	4.2%	4.7%	2.2%	1.2%	0.5%	0.8%	100.0%	

$\chi^2=314.500^{**}$

$p<.05^{\circ}, p<.01^{**}, p<.001^{***}$

학교위기수준별로 가족형태를 살펴본 결과, 위기수준이 1수준(보통)인 경우 ‘두 분 모두 친부모’인 비율이 87.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어머니만 계심’(4.6%)과 ‘아버지만 계심’(4.0%) 순이었다.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두 분 모두 친부모가 아닌 비율이 17.0%로 1수준보다 비교적 높았다. 3수준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22.2%가 두 분 모두 친부모가 아닌 가족형태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부모 가족형태의 응답자가 12.3%로 나타났고,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와 함께 사는 응답자가 6.3%로 나타나 타 위기수준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87〉 학교위기수준별 거주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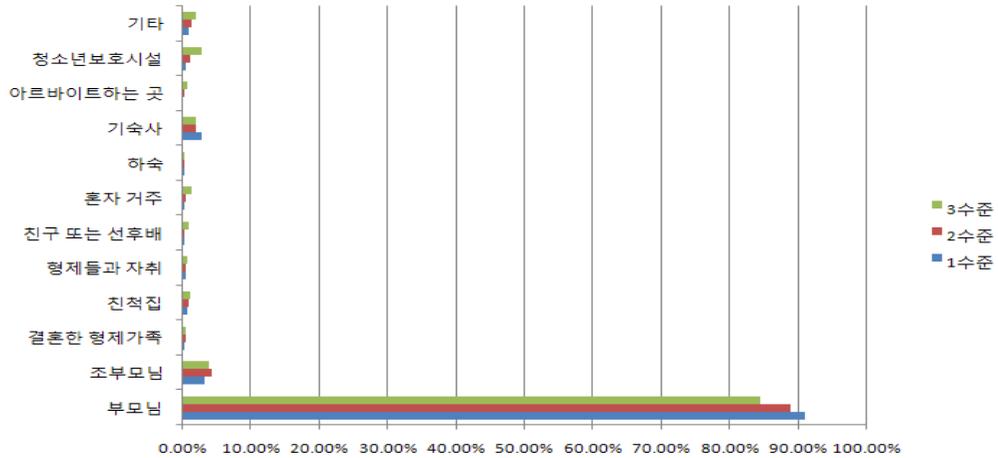
구분	거주형태												전체	
	부모님 함께	조부모님 함께	결혼한 형제가족	친척집 거주	형제들 과 지취	친구 또는 선호배	혼자 거주	하숙	기숙사	아르바이 트 하는 곳	청소년보 호시설	기타		
1 수준	빈도	48,732	1,720	153	310	241	50	127	75	1,528	20	237	431	53,624
	%	90.9%	3.2%	0.3%	0.6%	0.4%	0.1%	0.2%	0.1%	2.8%	0.0%	0.4%	0.8%	100.0%
학교 위기 2 수준	빈도	7,273	348	32	71	41	15	38	14	165	11	81	100	8,189
	%	88.8%	4.2%	0.4%	0.9%	0.5%	0.2%	0.5%	0.2%	2.0%	0.1%	1.0%	1.2%	100.0%
3 수준	빈도	1,470	66	8	20	11	14	22	5	32	11	48	34	1,741
	%	84.4%	3.8%	0.5%	1.1%	0.6%	0.8%	1.3%	0.3%	1.8%	0.6%	2.8%	2.0%	100.0%
전체	빈도	57,475	2,134	193	401	293	79	187	94	1,725	42	366	565	63,554
	%	90.4%	3.4%	0.3%	0.6%	0.5%	0.1%	0.3%	0.1%	2.7%	0.1%	0.6%	0.9%	100.0%

$$\chi^2=542.272^{***}$$

$$p<.05^{\circ}, p<.01^{**}, p<.001^{***}$$

학교위기수준별로 거주형태를 살펴본 결과, 1수준 응답자의 90.9%, 2수준 응답자의 88.8%, 3수준 응답자의 84.4%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기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과 거주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조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가 3.8%였으며, 청소년보호시설

에서 거주하는 응답자가 2.8%, 기타장소에서 거주하는 응답자가 2.0%나 되었다. 2 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에는 조부모님과 거주가 4.2%, 기숙사가 2.0%였다



〈표 88〉 학교위기수준별 가정경제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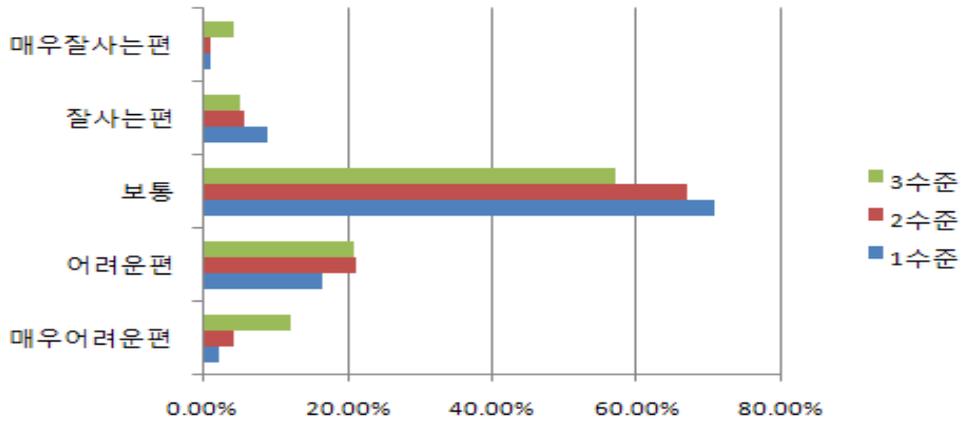
구 분		가정경제수준					전체
		매우 어려운 편	어려운 편	보통	잘사는 편	매우 잘사는 편	
1수준	빈도	1,282	9,557	40,936	5,245	757	57,777
	%	2.2%	16.5%	70.9%	9.1%	1.3%	100.0%
학교 위기 수준	빈도	394	1,911	6,020	522	115	8,962
	%	4.4%	21.3%	67.2%	5.8%	1.3%	100.0%
3수준	빈도	225	385	1,045	95	78	1,828
	%	12.3%	21.1%	57.2%	5.2%	4.3%	100.0%
전체	빈도	1,901	11,853	48,001	5,862	950	68,567
	%	2.8%	17.3%	70.0%	8.5%	1.4%	100.0%

$\chi^2=1159.365^{***}$

$p<.05^*$, $p<.01^{**}$, $p<.001^{***}$

학교위기수준별로 가정경제수준을 살펴본 결과, 1, 2, 3수준 모두 가정경제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위험수준이 높아질수록 ‘매우 어려운 편’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수준의 경우에는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21.1%, ‘매우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12.3%, ‘잘사는 편’이라는 응답이 5.2%로 나타났다.

2수준의 경우에는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21.3%, ‘잘사는 편’이라는 응답이 5.8%, ‘매우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4.4%로 나타났다.



6) 또래위기수준별 응답자 특성

〈표 89〉 또래위기수준별 가족형태

구 분		가족형태						전체		
		두분 모두 친부모	아버지만 계심	어머니만 계심	친아버지 와 새어머니	친어머니 와 새아버지	두 분 모두 양부모		두 분 모두 안계심	
1수준	빈도	51,228	2,274	2,662	1,138	642	264	391	58,599	
	%	87.4%	3.9%	4.5%	1.9%	1.1%	0.5%	0.7%	100.0%	
또래 위기 수준	2수준	빈도	6,042	423	441	241	135	48	94	7,424
	%	81.4%	5.7%	5.9%	3.2%	1.8%	0.6%	1.3%	100.0%	
3수준	빈도	2,459	193	178	130	68	28	61	3,117	
	%	78.9%	6.2%	5.7%	4.2%	2.2%	0.9%	2.0%	100.0%	
전체	빈도	59,729	2,890	3,281	1,509	845	340	546	69,140	
	%	86.4%	4.2%	4.7%	2.2%	1.2%	0.5%	0.8%	100.0%	

$$\chi^2=431.823^{**}$$

$$p<.05^*, p<.01^{**}, p<.001^{***}$$

또래위기수준별로 가족형태를 살펴본 결과, 위기수준이 1수준(보통)인 경우 ‘두 분 모두 친부모’인 비율이 87.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어머니만 계심’(4.5%)과 ‘아버지만 계심’(3.9%) 순이었다.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두

분 모두 친부모가 아닌 비율이 18.6%로 1수준보다 비교적 높았다. 3수준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21.1%가 두 분 모두 친부모가 아닌 가족형태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부모 가족형태의 응답자가 11.9%로 나타났고,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와 함께 사는 응답자가 6.4%로 나타나 타 위기수준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90〉 또래위기수준별 거주형태

구분	거주형태												전체
	부모님	결혼 조부 모님	한 형제 가족	친척 집	형제 들과 자취	친구 또는 혼자 선후 배	혼자 거주	하숙	기숙 사	아르 바이트 하는 곳	청소 년보 호시 설	기타	
1 수준	빈도 49,490 % 91.3%	1,735 3.2%	141 0.3%	307 0.6%	244 0.5%	36 0.1%	108 0.2%	69 0.1%	1,413 2.6%	23 0.0%	182 0.3%	458 0.8%	54,206 100.0%
또래 위기 수준 2	빈도 6,051 % 87.2%	286 4.1%	40 0.6%	60 0.9%	41 0.6%	23 0.3%	46 0.7%	15 0.2%	211 3.0%	9 0.1%	88 1.3%	67 1.0%	6,937 100.0%
3 수준	빈도 2,408 % 82.0%	132 4.5%	17 0.6%	32 1.1%	15 0.5%	20 0.7%	35 1.2%	11 0.4%	113 3.8%	11 0.4%	98 3.3%	44 1.5%	2,936 100.0%
전체	빈도 57,949 % 90.4%	2,153 3.4%	198 0.3%	399 0.6%	300 0.5%	79 0.1%	189 0.3%	95 0.1%	1,737 2.7%	43 0.1%	368 0.6%	569 0.9%	64,079 100.0%

$$\chi^2=953.460^{***}$$

$$p<.05^*, p<.01^{**}, p<.001^{***}$$

또래위기수준별로 거주형태를 살펴본 결과, 1수준 응답자의 91.3%, 2수준 응답자의 87.2%, 3수준 응답자의 82.0%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기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과 거주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조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가 4.5%였으며, 청소년보호시설에서 거주하는 응답자가 3.3%, 기타장소에서 거주하는 응답자가 1.5%나 되었다.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에는 조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4.1%, 기숙사가 3.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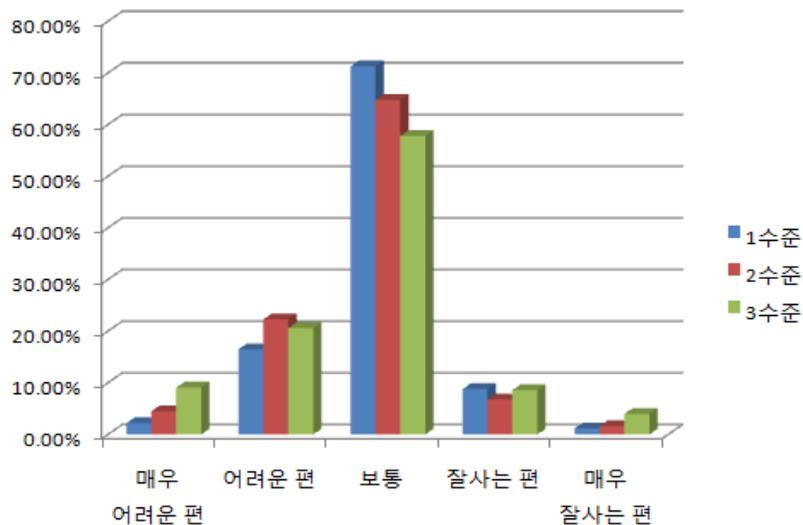
〈표 91〉 또래위기수준별 가정경제수준

		가정경제수준					전체	
		매우 어려운 편	어려운 편	보통	잘사는 편	매우 잘사는 편		
1수준	빈도	1,299	9,652	41,779	5,143	718	58,591	
	%	2.2%	16.5%	71.3%	8.8%	1.2%	100.0%	
또래 위기 수준	2수준	빈도	332	1,659	4,820	505	120	7,436
	%	4.5%	22.3%	64.8%	6.8%	1.6%	100.0%	
3수준	빈도	284	644	1,811	268	124	3,131	
	%	9.1%	20.6%	57.8%	8.6%	4.0%	100.0%	
전체	빈도	1,915	11,955	48,410	5,916	962	69,158	
	%	2.8%	17.3%	70.0%	8.6%	1.4%	100.0%	

$\chi^2=1043.325^{***}$

$p<.05^*$, $p<.01^{**}$, $p<.001^{***}$

또래위기수준별로 가정경제수준을 살펴본 결과, 1, 2, 3수준 모두 가정경제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위험수준이 높아질수록 ‘매우 어려운 편’과 ‘매우 잘사는 편’인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수준의 경우에는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20.6%, ‘매우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9.1%, ‘잘사는 편’이라는 응답이 8.6%로 나타났다. 2수준의 경우에는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22.3%, ‘잘사는 편’이라는 응답이 6.8%, ‘매우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4.5%로 나타났다.



7) 지역사회위기수준별 응답자 특성

〈표 92〉 지역사회위기수준별 가족형태

구분	가족형태								전체
	두 분 모두 친부모	아버지만 계심	어머니만 계심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두 분 모두 양부모	두 분 모두 안계심		
1수준	빈도	49,314	2,302	2,595	1,175	639	266	410	56,701
	%	87.0%	4.1%	4.6%	2.1%	1.1%	0.5%	0.7%	100.0%
지역 위기 수준	빈도	8,533	484	547	275	163	52	93	10,147
	%	84.1%	4.8%	5.4%	2.7%	1.6%	0.5%	0.9%	100.0%
3수준	빈도	1,851	110	137	61	43	21	45	2,268
	%	81.6%	4.9%	6.0%	2.7%	1.9%	0.9%	2.0%	100.0%
전체	빈도	59,698	2,896	3,279	1,511	845	339	548	69,116
	%	86.4%	4.2%	4.7%	2.2%	1.2%	0.5%	0.8%	100.0%

$$\chi^2=1469.571^{***}$$

$$p<.05^*, p<.01^{**}, p<.001^{***}$$

지역사회 위기수준별로 가족형태를 살펴본 결과, 위기수준이 1수준(보통)인 경우 ‘두 분 모두 친부모’인 비율이 87.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어머니만 계심’(4.6%)과 ‘아버지만 계심’(4.1%) 순이었다.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두 분 모두 친부모가 아닌 비율이 15.9%로 1수준보다 비교적 높았다. 3수준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18.4%가 두 분 모두 친부모가 아닌 가족형태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부모 가족형태의 응답자가 10.9%로 나타났고,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와 함께 사는 응답자가 4.6%로 나타나 타 위기수준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93〉 지역사회위기수준별 거주형태

구 분	거주형태												전체	
	부모님	조부모님	결혼한 형제 가족	친척 집	형제들과 자취	친구 또는 선후 배	혼자 거주	하숙	기숙사	아르바이트하는 곳	청소년 보호시설	기타		
1 수준	빈도	48,242	1,773	154	324	220	50	114	66	1,478	26	230	442	53,119
	%	90.8%	3.3%	0.3%	0.6%	0.4%	0.1%	0.2%	0.1%	2.8%	0.0%	0.4%	0.8%	100.0%
지역 위기 수준 2	빈도	7,895	308	36	65	55	18	51	20	213	5	97	90	8,853
	%	89.2%	3.5%	0.4%	0.7%	0.6%	0.2%	0.6%	0.2%	2.4%	0.1%	1.1%	1.0%	100.0%
3 수준	빈도	1,805	72	7	14	23	10	24	10	49	12	43	34	2,103
	%	85.8%	3.4%	0.3%	0.7%	1.1%	0.5%	1.1%	0.5%	2.3%	0.6%	2.0%	1.6%	100.0%
전체	빈도	57,942	2,153	197	403	298	78	189	96	1,740	43	370	566	64,075
	%	90.4%	3.4%	0.3%	0.6%	0.5%	0.1%	0.3%	0.1%	2.7%	0.1%	0.6%	0.9%	100.0%

$\chi^2=417.722^{***}$

$p<.05^*$, $p<.01^{**}$, $p<.001^{***}$

지역사회 위기수준별로 거주형태를 살펴본 결과, 1수준 응답자의 90.8%, 2수준 응답자의 89.2%, 3수준 응답자의 85.8%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기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과 거주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조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가 3.4%였으며, 기숙사 거주 응답자가 2.3%, 청소년보호시설에서 거주하는 응답자가 2.0%, 기타장소에서 거주하는 응답자가 1.6%나 되었다.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경우에는 조부모님과의 거주가 3.5%, 기숙사가 2.4%였다.

〈표 94〉 지역사회위기수준별 가정경제수준

구 분	가정경제수준						전체
	매우 어려운 편	어려운 편	보통	잘사는 편	매우 잘사는 편		
1수준	빈도	1,297	9,223	40,386	5,070	734	56,710
	%	2.3%	16.3%	71.2%	8.9%	1.3%	100.0%
지역 위기 수준	2수준 빈도	410	2,211	6,699	688	143	10,151
	%	4.0%	21.8%	66.0%	6.8%	1.4%	100.0%
3수준	빈도	212	526	1,291	160	82	2,271
	%	9.3%	23.2%	56.8%	7.0%	3.6%	100.0%
전체	빈도	1,919	11,960	48,376	5,918	959	69,132
	%	2.8%	17.3%	70.0%	8.6%	1.4%	100.0%

$\chi^2=886.512^{***}$

$p<.05^*$, $p<.01^{**}$, $p<.001^{***}$

지역사회 위기수준별로 가정경제수준을 살펴본 결과, 1, 2, 3수준 모두 가정경제 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위험수준이 높아질수록 '매우 어려운 편', '어려운 편'과 '매우 잘사는 편'인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수준의 경우에는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23.2%, '매우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9.3%, '잘사는 편'이라는 응답이 7.0%로 나타났다. 2수준의 경우에는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21.8%, '잘사는 편'이라는 응답이 6.8%, '매우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4.0%로 나타났다.

4. 위기결과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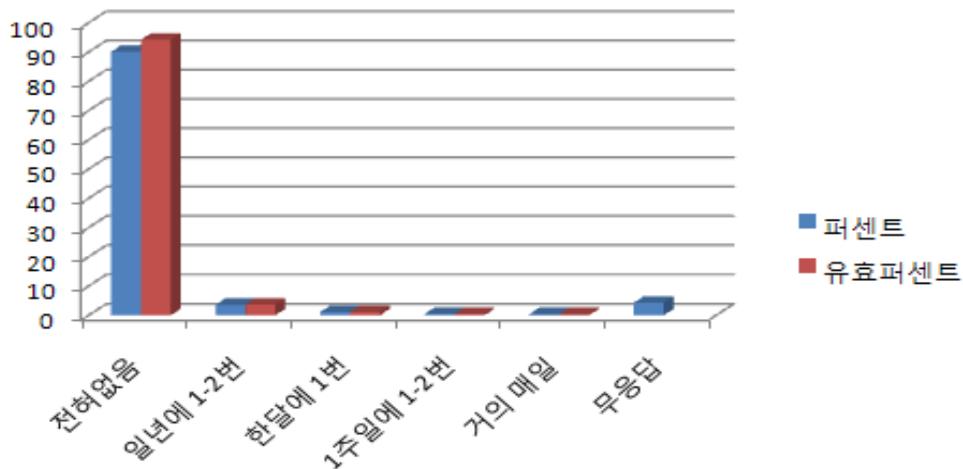
가. 위기결과 개요

1)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표 95〉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유효퍼센트
전혀없음	62,882	90.1	94.2
일년에 1-2번	2,500	3.6	3.7
한달에 1번	761	1.1	1.1
1주일에 1-2번	328	0.5	0.5
거의 매일	288	0.4	0.4
무응답	2,995	4.3	
합계	69,754	100.0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경험을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62,882명(90.1%)으로 가장 많았고 ‘일년에 1-2번’이 3.6%, ‘한달에 1번’이 1.1%, ‘1주일에 1-2번’이 0.5%, ‘거의 매일’이 0.4% 순이었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유효응답자의 94.2%, ‘일년에 1-2번’이 3.7%, ‘한달에 1번’이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위기결과 분석시, 울산지역의 위기결과 관련 문항이 타 지역 문항과 상이하여 울산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울산지역의 위기결과 빈도표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음.

2)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표 96〉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유효퍼센트
전혀없음	59,537	85.4	89.2
일년에 1-2번	3,741	5.4	5.6
한달에 1번	1,488	2.1	2.2
1주일에 1-2번	1,172	1.7	1.8
거의 매일	822	1.2	1.2
무응답	2,994	4.3	
합계	69,754	100.0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59,537명(85.4%)으로 가장 많았고 ‘일년에 1-2번’이 5.4%, ‘한달에 1번’이 2.1%, ‘1주일에 1-2번’이 1.7%, ‘거의 매일’이 1.2% 순이었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유효응답자의 89.2%, ‘일년에 1-2번’이 5.6%, ‘한달에 1번’이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3)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표 97〉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유효퍼센트
전혀없음	62,181	89.1	93.1
일년에 1-2번	3,051	4.4	4.6
한달에 1번	754	1.1	1.1
1주일에 1-2번	297	0.4	0.4
지속적	475	0.7	0.7
무응답	2,996	4.3	
합계	69,7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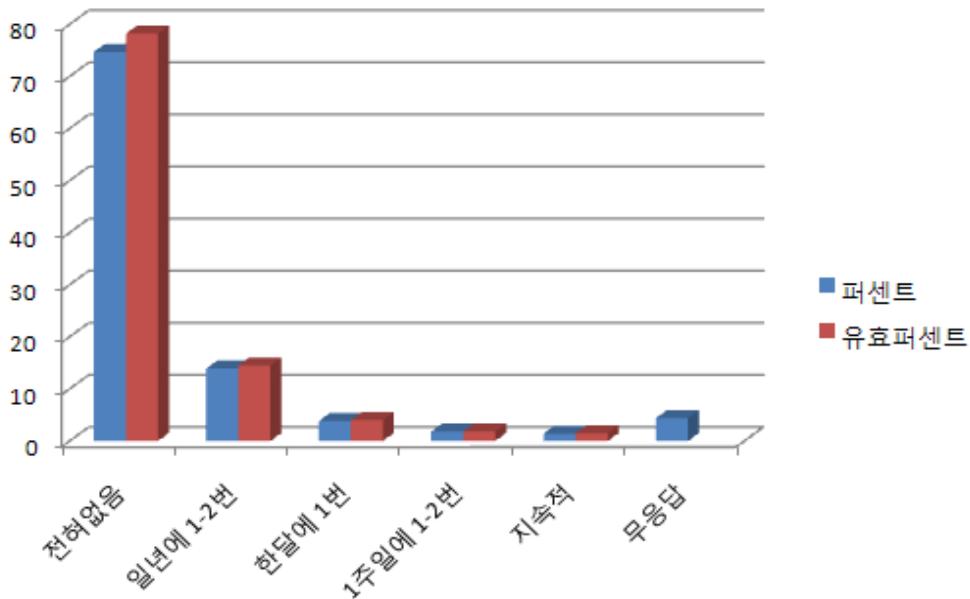
최근 1년 동안 3일 이상 가출을 시도한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62,181명(89.1%)으로 가장 많았고 ‘일년에 1-2번’이 4.4%, ‘한달에 1번’이 1.1%, ‘지속적’은 0.7%, ‘1주일에 1-2번’이 0.4% 순이었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유효응답자의 93.1%, ‘일년에 1-2번’이 4.6%, ‘한달에 1번’이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심각한 가출 고려 경험

〈표 98〉 심각한 가출 고려 경험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유효퍼센트
전혀없음	52,139	74.7	78.2
일년에 1-2번	9,668	13.9	14.5
한달에 1번	2,654	3.8	4.0
1주일에 1-2번	1,226	1.8	1.8
지속적	995	1.4	1.5
무응답	3,072	4.4	
합계	69,754	100.0	

최근 1년 동안 가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 본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52,139명(74.7%)으로 가장 많았고 ‘일년에 1-2번’이 13.9%, ‘한달에 1번’이 3.8%, ‘1주일에 1-2번’이 1.8%, ‘지속적’은 1.4% 순이었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유효응답자의 78.2%, ‘일년에 1-2번’이 14.5%, ‘한달에 1번’이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심각한 학업중단 고려 경험

〈표 99〉 심각한 학업중단 고려 경험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유효퍼센트
전혀없음	56,408	80.9	84.6
일년에 1-2번	6,108	8.8	9.2
한달에 1번	1,917	2.7	2.9
1주일에 1-2번	1,002	1.4	1.5
지속적	1,249	1.8	1.9
무응답	3,070	4.4	
합계	69,7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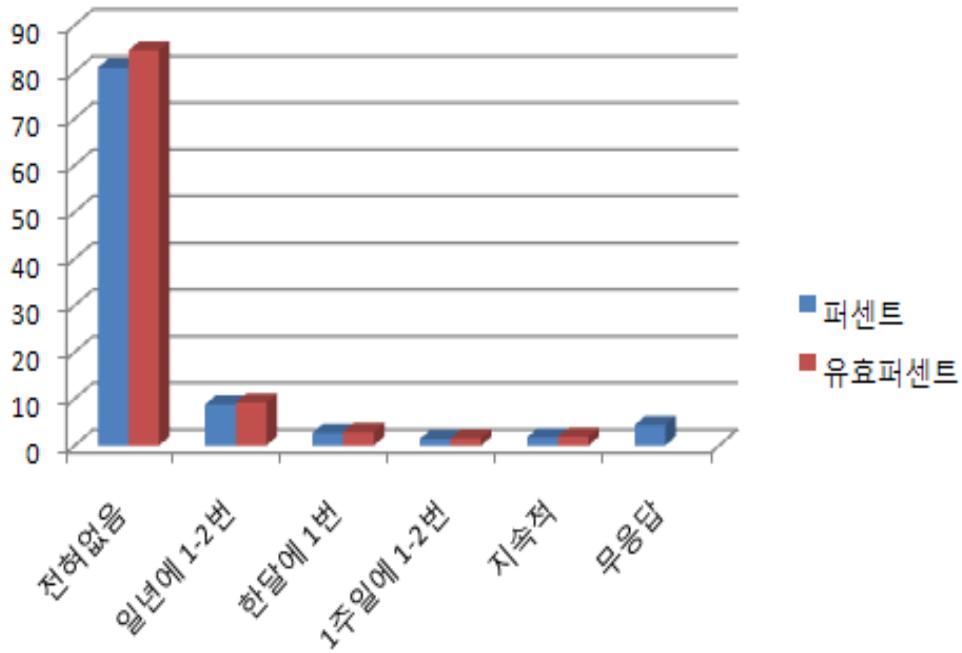
최근 1년 동안 학업중단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 본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56,408명(80.9%)으로 가장 많았고 ‘일년에 1-2번’이 8.8%, ‘한달에 1번’이 2.7%, ‘지속적’은 1.8%, ‘1주일에 1-2번’이 1.4% 순이었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유효응답자의 84.6%, ‘일년에 1-2번’이 9.2%, ‘한달에 1번’이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표 100〉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유효퍼센트
전혀없음	64,885	93.0	97.3
일년에 1-2번	1,151	1.7	1.7
한달에 1번	293	0.4	0.4
1주일에 1-2번	157	0.2	0.2
지속적	219	0.3	0.3
무응답	3,049	4.4	
합계	69,754	100.0	

최근 1년 동안 자퇴경고나 퇴학통보를 경험한 바를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64,885명(93.0%)으로 가장 많았고 ‘일년에 1-2번’이 1.7%, ‘한달에 1번’이 0.4%, ‘지속적’은 0.3%, ‘1주일에 1-2번’이 0.2% 순이었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유효응답자의 97.3%, ‘일년에 1-2번’이 1.7%, ‘한달에 1번’이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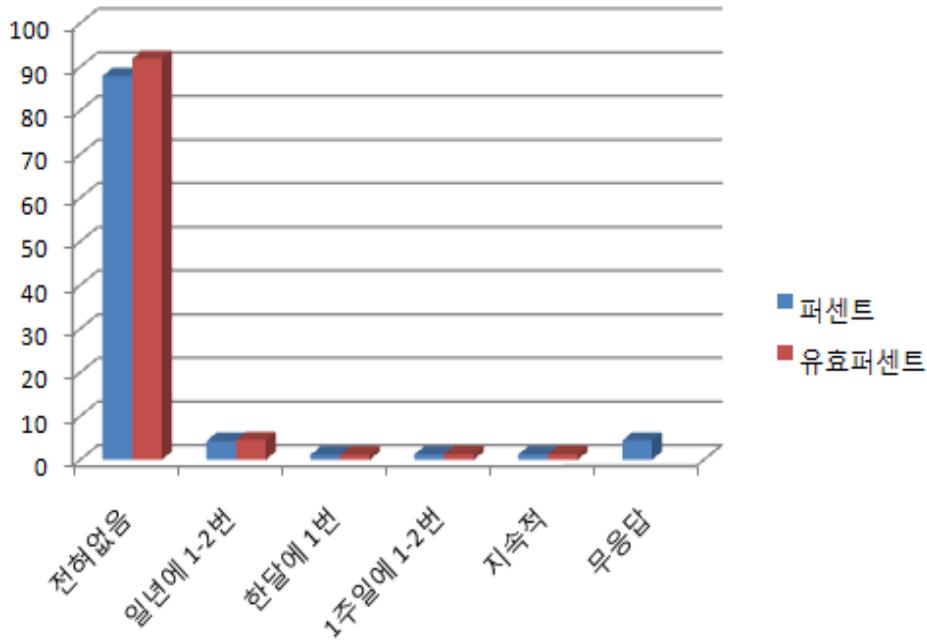


7) 학교폭력 피해 경험

〈표 101〉 학교폭력 피해 경험 분포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없음	61,307	87.9	91.9
일년에 1-2번	2,975	4.3	4.5
한달에 1번	762	1.1	1.1
1주일에 1-2번	836	1.2	1.3
지속적	837	1.2	1.3
무응답	3,037	4.4	-
합계	69,754	100.0	-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신체폭행, 따돌림, 괴롭힘, 언어폭력)를 당한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61,307명(87.9%)으로 가장 많았고 ‘일년에 1-2번’이 4.3%, ‘1주일에 1-2번’이 1.2%, ‘지속적’은 1.2%, ‘한달에 1번’이 1.1% 순이었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유효응답자의 91.9%, ‘일년에 1-2번’이 4.5%, ‘한달에 1번’이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8) 학교폭력 가해 경험

〈표 102〉 학교폭력 가해 경험 분포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전혀없음	61,276	87.8	92.0
일년에 1-2번	3,255	4.7	4.9
한달에 1번	800	1.1	1.2
1주일에 1-2번	634	0.9	1.0
지속적	674	1.0	1.0
무응답	3,115	4.5	-
합계	69,754	100.0	-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신체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괴롭힘, 언어폭력)를 한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61,276명(87.8%)으로 가장 많았고 '일년에 1-2번'이 4.7%, '한달에 1번'이 1.1%, '지속적'이 1.0%, '1주일에 1-2번'이 0.9% 순이었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유효응답자의 92.0%, '일년에 1-2번'이 4.9%, '한달에 1번'이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9)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표 103〉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유효퍼센트
전혀없음	65,898	94.5	98.8
일년에 1-2번	258	0.4	0.4
한달에 1번	163	0.2	0.2
1주일에 1-2번	101	0.1	0.2
지속적	262	0.4	0.4
무응답	3,072	4.4	
합계	69,754	100.0	

최근 3개월 내에 가스, 본드, 마약류를 흡입한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65,898명(95.4%)으로 가장 많았고 ‘일년에 1-2번’과 ‘지속적’이 0.4%, ‘한달에 1번’이 0.2%, ‘1주일에 1-2번’이 0.1% 순이었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유효응답자의 98.8%, ‘일년에 1-2번’이 0.4%, ‘한달에 1번’이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10) 음주, 흡연 경험

〈표 104〉 음주, 흡연 경험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유효퍼센트
전혀없음	50,423	72.3	75.7
일년에 1-2번	5,818	8.3	8.7
한달에 1번	4,235	6.1	6.4
1주일에 1-2번	2,135	3.1	3.2
지속적	4,031	5.8	6.0
무응답	3,112	4.5	
합계	69,754	100.0	

최근 3개월 내에 음주 및 흡연을 한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50,423명(72.3%)으로 가장 많았고 ‘일년에 1-2번’이 8.3%, ‘한달에 1번’이 6.1%, ‘지속적’이 5.8%, ‘1주일에 1-2번’이 3.1% 순이었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유효응답자의 75.7%, ‘일년에 1-2번’이 8.7%, ‘한달에 1번’이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11)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표 105〉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유효퍼센트
전혀없음	50,990	73.1	76.5
일년에 1-2번	7,391	10.6	11.1
한달에 1번	4,111	5.9	6.2
1주일에 1-2번	2,795	4.0	4.2
지속적	1,377	2.0	2.1
무응답	3,090	4.4	
합계	69,754	100.0	

최근 3개월 내에 인터넷(게임 등) 사용으로 인해 타인(부모, 교사 등)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50,990명(73.1%)으로 가장 많았고 '일년에 1-2번'이 10.6%, '한달에 1번'이 5.9%, '1주일에 1-2번'이 4.0%, '지속적'이 2.0% 순이었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유효응답자의 76.5%, '일년에 1-2번'이 11.1%, '한달에 1번'이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12)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표 106〉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유효퍼센트
전혀없음	37,808	54.2	56.7
일년에 1-2번	10,436	15.0	15.6
한달에 1번	8,322	11.9	12.5
1주일에 1-2번	7,040	10.1	10.6
지속적	3,110	4.5	4.7
무응답	3,038	4.4	
합계	69,754	100.0	

최근 3개월 내에 인터넷(게임 등)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37,808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일년에 1-2번'이 15.0%, '한달에 1번'이 11.9%, '1주일에 1-2번'이 10.1%, '지속적'이 4.5% 순이었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유효응답자의 56.7%, '일년에 1-2번'이 15.6%, '한달에 1번'이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13)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표 107〉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유효퍼센트
전혀없음	59,785	85.7	89.7
일년에 1-2번	5,037	7.2	7.6
한달에 1번	1,066	1.5	1.6
1주일에 1-2번	383	0.5	0.6
지속적	398	0.6	0.6
무응답	3,085	4.4	
합계	69,754	100.0	

최근 1년 동안 타인의 물건을 훔쳐본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59,785명(85.7%)으로 가장 많았고 ‘일년에 1-2번’이 7.2%, ‘한달에 1번’이 1.5%, ‘지속적’이 0.6%, ‘1주일에 1-2번’이 0.5% 순이었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유효응답자의 89.7%, ‘일년에 1-2번’이 7.6%, ‘한달에 1번’이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14)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표 108〉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유효퍼센트
전혀없음	62,397	89.5	93.8
일년에 1-2번	2,860	4.1	4.3
한달에 1번	649	0.9	1.0
1주일에 1-2번	284	0.4	0.4
지속적	336	0.5	0.5
무응답	3,228	4.6	
합계	69,754	100.0	

최근 1년 동안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뺏은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62,397명(89.5%)으로 가장 많았고 ‘일년에 1-2번’이 4.1%, ‘한달에 1번’이 0.9%, ‘지속적’이 0.5%, ‘1주일에 1-2번’이 0.4% 순이었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전혀없음’이 유효응답자의 93.8%, ‘일년에 1-2번’이 4.3%, ‘한달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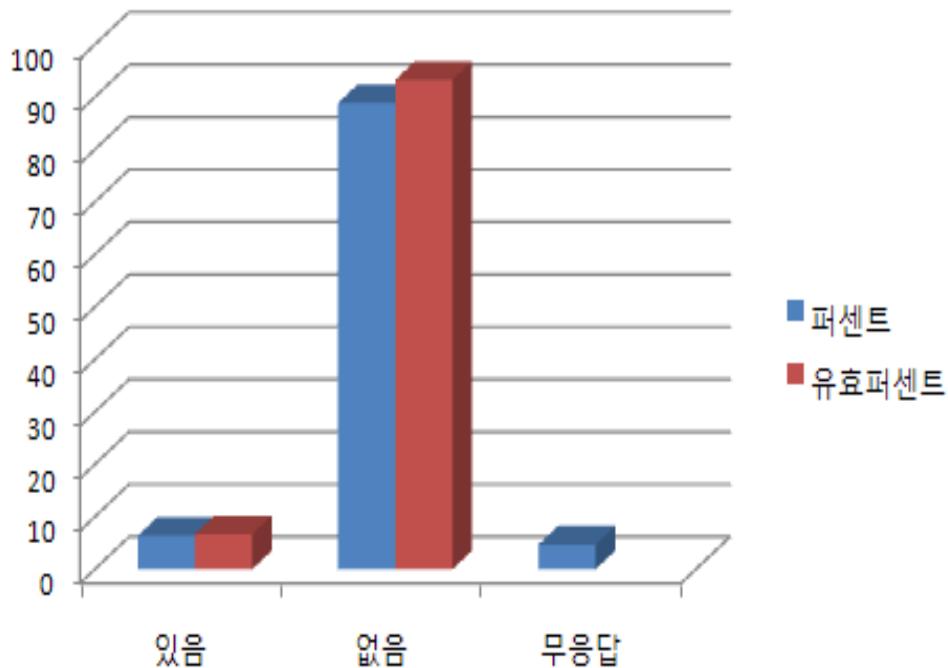
번'이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15)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표 109〉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유효퍼센트
있음	4,455	6.4	6.7
없음	62,046	88.9	93.3
무응답	3,253	4.7	
합계	69,754	100.0	

최근 1년 동안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을 살펴보면, '있음'이 4,455명(6.4%)이고 '없음'이 88.9%였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있음'이 6.7%이고 '없음'이 93.3%로 나타났다.



16)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표 110〉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유효퍼센트
있음	3,736	5.4	5.6
없음	62,778	90.0	94.4
무응답	3,240	4.6	
합계	69,754	100.0	

최근 1년 동안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을 살펴보면, '있음'이 3,736명(5.4%)이고 '없음'이 90.0%였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있음'이 5.6%이고 '없음'이 94.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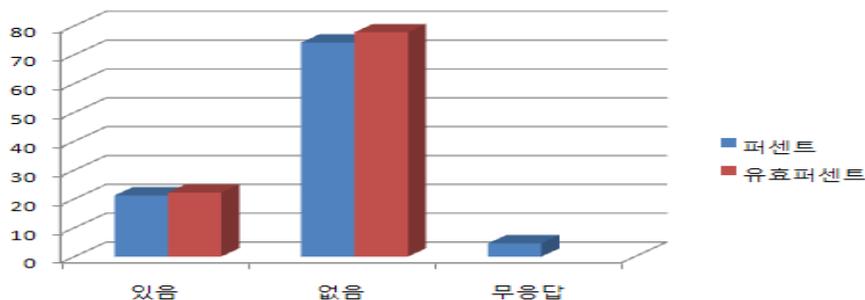
17) 자살 생각 경험

〈표 111〉 자살 생각 경험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유효퍼센트
있음	14,798	21.2	22.2
없음	51,725	74.2	77.8
무응답	3,231	4.6	
합계	69,754	100.0	

최근 1년 동안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을 살펴보면, '있음'이 14,798명(21.2%)이고 '없음'이 74.2%였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있음'이 22.2%이고 '없음'이 77.8%로 나타났다.

18) 자살 시도 경험



〈표 112〉 자살 시도 경험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유효퍼센트
있음	4,455	6.4	6.7
없음	62,046	88.9	93.3
무응답	3,253	4.7	
합계	69,754	100.0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을 살펴보면, ‘있음’이 4,455명(6.4%)이고 ‘없음’이 88.9%였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있음이 ‘6.7%’이고 ‘없음’이 93.3%로 나타났다.

나. 배경변인별 위기결과

1) 시도별

(1)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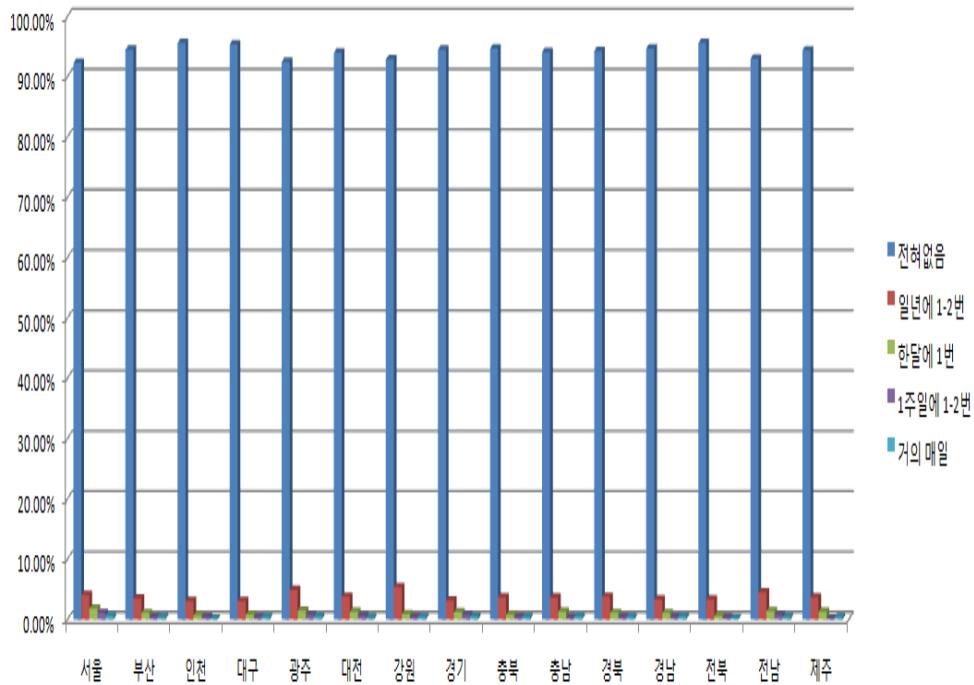
〈표 113〉 시도별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정신체학대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서울	빈도	3,196	143	63	37	22	3,461
	%	92.3%	4.1%	1.8%	1.1%	0.6%	100.0%
부산	빈도	1,289	48	15	6	6	1,364
	%	94.5%	3.5%	1.1%	0.4%	0.4%	100.0%
인천	빈도	1,377	45	10	6	2	1,440
	%	95.6%	3.1%	0.7%	0.4%	0.1%	100.0%
대구	빈도	5,601	182	45	21	25	5,874
	%	95.4%	3.1%	0.8%	0.4%	0.4%	100.0%
광주	빈도	3,823	201	61	28	19	4,132
	%	92.5%	4.9%	1.5%	0.7%	0.5%	100.0%
대전	빈도	4,861	199	69	29	14	5,172
	%	94.0%	3.8%	1.3%	0.6%	0.3%	100.0%
강원	빈도	2,866	167	27	13	13	3,086
	%	92.9%	5.4%	0.9%	0.4%	0.4%	100.0%
경기	빈도	8,960	303	114	63	44	9,484

	%	94.5%	3.2%	1.2%	0.7%	0.5%	100.0%
충북	빈도	5,030	196	43	19	23	5,311
	%	94.7%	3.7%	0.8%	0.4%	0.4%	100.0%
충남	빈도	2,909	115	41	10	17	3,092
	%	94.1%	3.7%	1.3%	0.3%	0.5%	100.0%
경북	빈도	8,703	354	103	37	34	9,231
	%	94.3%	3.8%	1.1%	0.4%	0.4%	100.0%
경남	빈도	8,581	303	96	32	49	9,061
	%	94.7%	3.3%	1.1%	0.4%	0.5%	100.0%
전북	빈도	1,296	45	8	4	3	1,356
	%	95.6%	3.3%	0.6%	0.3%	0.2%	100.0%
전남	빈도	2,827	137	44	21	11	3,040
	%	93.0%	4.5%	1.4%	0.7%	0.4%	100.0%
제주	빈도	1,563	62	22	2	6	1,655
	%	94.4%	3.7%	1.3%	0.1%	0.4%	100.0%
전체	빈도	62,882	2,500	761	328	288	66,759
	%	94.2%	3.7%	1.1%	0.5%	0.4%	100.0%

$\chi^2=182.373^{***}$ $p<.05$, $p<.01$, $p<.001^{***}$

시도별로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을 살펴보면, 인천과 전북이 응답자의 95.6%가 '전혀 없음'에 답하여 상대적으로 학대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에 1-2번'에는 강원(5.4%)이, 한 달에 한 번'(1.8%), 1주일에 1-2번'(1.1%), '거의 매일'(0.6%)에는 서울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시도별 가정 내 신체적 학대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2)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표 114〉 시도별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정폭언욕설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서울	빈도	3,019	191	103	80	67	3,460
	%	87.3%	5.5%	3.0%	2.3%	1.9%	100.0%
부산	빈도	1,239	73	25	16	10	1,363
	%	90.9%	5.4%	1.8%	1.2%	0.7%	100.0%
인천	빈도	1,295	85	29	25	7	1,441
	%	89.9%	5.9%	2.0%	1.7%	0.5%	100.0%
대구	빈도	5,329	300	109	81	54	5,873
	%	90.7%	5.1%	1.9%	1.4%	0.9%	100.0%
광주	빈도	3,615	267	107	81	59	4,129
	%	87.6%	6.5%	2.6%	2.0%	1.4%	100.0%
대전	빈도	4,586	317	108	96	64	5,171
	%	88.7%	6.1%	2.1%	1.9%	1.2%	100.0%

강원	빈도	2,724	192	77	68	22	3,083
	%	88.4%	6.2%	2.5%	2.2%	0.7%	100.0%
경기	빈도	8,545	428	187	192	155	9,507
	%	89.9%	4.5%	2.0%	2.0%	1.6%	100.0%
충북	빈도	4,772	295	100	75	66	5,308
	%	89.9%	5.6%	1.9%	1.4%	1.2%	100.0%
충남	빈도	2,751	178	70	52	43	3,094
	%	88.9%	5.8%	2.3%	1.7%	1.4%	100.0%
경북	빈도	8,278	497	200	152	98	9,225
	%	89.7%	5.4%	2.2%	1.6%	1.1%	100.0%
경남	빈도	8,071	523	209	141	111	9,055
	%	89.1%	5.8%	2.3%	1.6%	1.2%	100.0%
전북	빈도	1,228	70	29	18	10	1,355
	%	90.6%	5.2%	2.1%	1.3%	0.7%	100.0%
전남	빈도	2,621	225	81	70	42	3,039
	%	86.2%	7.4%	2.7%	2.3%	1.4%	100.0%
제주	빈도	1,464	100	54	25	14	1,657
	%	88.4%	6.0%	3.3%	1.5%	0.8%	100.0%
전체	빈도	59,537	3,741	1,488	1,172	822	66,760
	%	89.2%	5.6%	2.2%	1.8%	1.2%	100.0%

$\chi^2=189.464^{***}$ $p<.05^*$, $p<.01^{**}$, $p<.001^{***}$

시도별로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의 폭언, 욕설에 시달린 경험을 살펴보면, 부산이 응답자의 90.9%가 '전혀 없음'에 답하여 폭언, 욕설에 시달린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에 1-2번'에는 광주(6.5%), '한 달에 한 번'에는 제주(1.8%), 1주일에 1-2번'에는 서울과 전남(2.3%), '거의 매일'에는 경기(1.6%)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시도별 가정에서의 폭언, 욕설에 시달린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3)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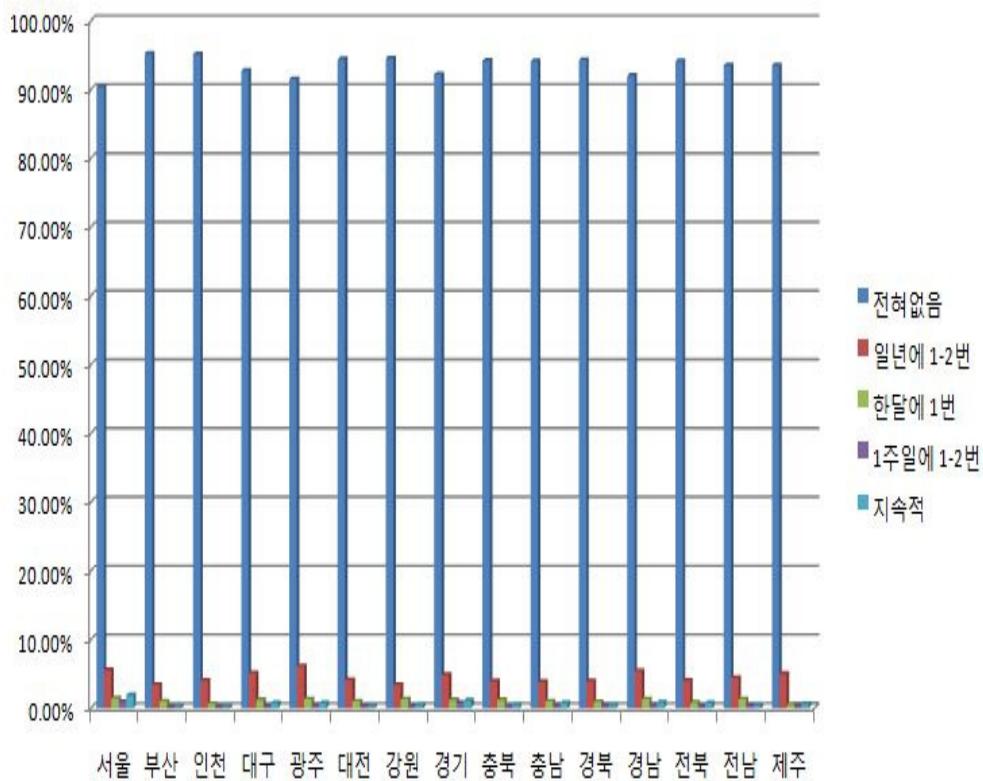
〈표 115〉 시도별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구분	사례수 %	3일이상 가출시도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서울	빈도	3,127	190	47	30	64	3,458
	%	90.4%	5.5%	1.4%	0.9%	1.9%	100.0%
부산	빈도	1,297	46	14	2	3	1,362
	%	95.2%	3.4%	1.0%	0.1%	0.2%	100.0%
인천	빈도	1,371	57	8	2	3	1,441
	%	95.1%	4.0%	0.6%	0.1%	0.2%	100.0%
대구	빈도	5,447	301	68	18	41	5,875
	%	92.7%	5.1%	1.2%	0.3%	0.7%	100.0%
광주	빈도	3,780	251	54	18	29	4,132
	%	91.5%	6.1%	1.3%	0.4%	0.7%	100.0%
대전	빈도	4,877	211	50	14	17	5,169
	%	94.4%	4.1%	1.0%	0.3%	0.3%	100.0%
강원	빈도	2,916	104	40	9	16	3,085
	%	94.5%	3.4%	1.3%	0.3%	0.5%	100.0%
경기	빈도	8,763	452	115	71	103	9,504
	%	92.2%	4.8%	1.2%	0.7%	1.1%	100.0%
충북	빈도	5,000	207	64	13	26	5,310
	%	94.2%	3.9%	1.2%	0.2%	0.5%	100.0%
충남	빈도	2,913	118	30	12	21	3,094
	%	94.1%	3.8%	1.0%	0.4%	0.7%	100.0%
경북	빈도	8,699	359	84	41	46	9,229
	%	94.3%	3.9%	0.9%	0.4%	0.5%	100.0%
경남	빈도	8,326	485	120	45	75	9,051
	%	92.0%	5.4%	1.3%	0.5%	0.8%	100.0%
전북	빈도	1,271	54	11	4	10	1,350
	%	94.1%	4.0%	0.8%	0.3%	0.7%	100.0%
전남	빈도	2,844	133	40	13	11	3,041
	%	93.5%	4.4%	1.3%	0.4%	0.4%	100.0%
제주	빈도	1,550	83	9	5	10	1,657
	%	93.5%	5.0%	0.5%	0.3%	0.6%	100.0%
전체	빈도	62,181	3,051	754	297	475	66,758
	%	93.1%	4.6%	1.1%	0.4%	0.7%	100.0%

$\chi^2=292.562^{***}$

$p<.05^*$, $p<.01^{**}$, $p<.001^{***}$

시도별로 최근 1년 동안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을 살펴보면, 부산이 응답자의 95.2%가 '전혀 없음'에 답하여 상대적으로 가출시도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에 1-2번'에는 광주(6.1%), '한 달에 한 번'(1.4%), '1주일에 1-2번'(0.9%), '지속적'(1.9%)에는 서울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시도별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4)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표 116〉 시도별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구분	사례수 %	심각한 가출고민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서울	빈도	2,591	552	154	87	76	3,460
	%	74.9%	16.0%	4.5%	2.5%	2.2%	100.0%
부산	빈도	1,100	185	45	20	9	1,359
	%	80.9%	13.6%	3.3%	1.5%	0.7%	100.0%
인천	빈도	1,147	212	45	22	14	1,440
	%	79.7%	14.7%	3.1%	1.5%	1.0%	100.0%
대구	빈도	4,655	862	184	76	98	5,875
	%	79.2%	14.7%	3.1%	1.3%	1.7%	100.0%
광주	빈도	3,069	691	209	100	59	4,128
	%	74.3%	16.7%	5.1%	2.4%	1.4%	100.0%
대전	빈도	3,995	815	191	108	63	5,172
	%	77.2%	15.8%	3.7%	2.1%	1.2%	100.0%
강원	빈도	2,393	484	124	47	39	3,087
	%	77.5%	15.7%	4.0%	1.5%	1.3%	100.0%
경기	빈도	7,408	1,317	400	209	175	9,509
	%	77.9%	13.9%	4.2%	2.2%	1.8%	100.0%
충북	빈도	3,990	885	236	117	83	5,311
	%	75.1%	16.7%	4.4%	2.2%	1.6%	100.0%
충남	빈도	2,415	448	99	77	54	3,093
	%	78.1%	14.5%	3.2%	2.5%	1.7%	100.0%
경북	빈도	7,392	1,205	350	141	123	9,211
	%	80.3%	13.1%	3.8%	1.5%	1.3%	100.0%
경남	빈도	7,190	1,192	373	130	106	8,991
	%	80.0%	13.3%	4.1%	1.4%	1.2%	100.0%
전북	빈도	1,146	139	31	19	13	1,348
	%	85.0%	10.3%	2.3%	1.4%	1.0%	100.0%
전남	빈도	2,386	404	145	62	44	3,041
	%	78.5%	13.3%	4.8%	2.0%	1.4%	100.0%
제주	빈도	1,262	277	68	11	39	1,657
	%	76.2%	16.7%	4.1%	0.7%	2.4%	100.0%
전체	빈도	52,139	9,668	2,654	1,226	995	66,682
	%	78.2%	14.5%	4.0%	1.8%	1.5%	100.0%

$\chi^2=318.811^{***}$

$p<.05^*$, $p<.01^{**}$, $p<.001^{***}$

시도별로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가출에 대해 고민한 경험을 살펴보면, 전북이 응답자의 85.0%가 '전혀 없음'에 답하여 상대적으로 가출고민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에 1-2번'에는 제주(16.7%), '한 달에 한 번'에는 광주(5.1%), '1주일에 1-2번'에는 서울과 충남(2.5%), '지속적'에는 제주(2.4%)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시도별 가출고민에 대한 경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5)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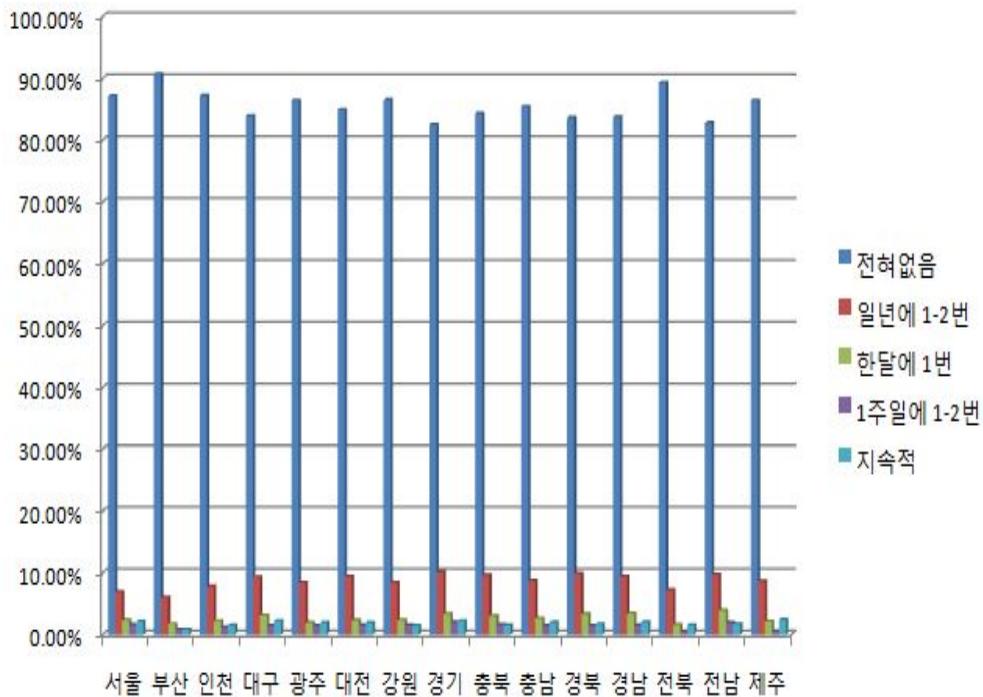
〈표 117〉 시도별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구 분	사례수 %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서울	빈도	3,012	239	80	54	74	3,459
	%	87.1%	6.9%	2.3%	1.6%	2.1%	100.0%
부산	빈도	1,235	81	23	11	11	1,361
	%	90.7%	6.0%	1.7%	0.8%	0.8%	100.0%
인천	빈도	1,257	113	32	18	21	1,441
	%	87.2%	7.8%	2.2%	1.2%	1.5%	100.0%
대구	빈도	4,931	547	183	83	130	5,874
	%	83.9%	9.3%	3.1%	1.4%	2.2%	100.0%
광주	빈도	3,569	347	78	59	77	4,130
	%	86.4%	8.4%	1.9%	1.4%	1.9%	100.0%
대전	빈도	4,388	488	118	75	100	5,169
	%	84.9%	9.4%	2.3%	1.5%	1.9%	100.0%
강원	빈도	2,669	258	71	45	43	3,086
	%	86.5%	8.4%	2.3%	1.5%	1.4%	100.0%
경기	빈도	7,847	960	310	188	206	9,511
	%	82.5%	10.1%	3.3%	2.0%	2.2%	100.0%
충북	빈도	4,475	512	159	85	79	5,310
	%	84.3%	9.6%	3.0%	1.6%	1.5%	100.0%
충남	빈도	2,643	268	81	42	61	3,095
	%	85.4%	8.7%	2.6%	1.4%	2.0%	100.0%
경북	빈도	7,711	916	307	131	157	9,222
	%	83.6%	9.9%	3.3%	1.4%	1.7%	100.0%
경남	빈도	7,519	844	302	137	178	8,980
	%	83.7%	9.4%	3.4%	1.5%	2.0%	100.0%
전북	빈도	1,205	97	21	7	20	1,350

전남	%	89.3%	7.2%	1.6%	0.5%	1.5%	100.0%
	빈도	2,516	296	118	58	52	3,040
제주	%	82.8%	9.7%	3.9%	1.9%	1.7%	100.0%
	빈도	1,431	142	34	9	40	1,656
전체	%	86.4%	8.6%	2.1%	0.5%	2.4%	100.0%
	빈도	56,408	6,108	1,917	1,002	1,249	66,684
	%	84.6%	9.2%	2.9%	1.5%	1.9%	100.0%

$\chi^2=250.049^{***}$ $p<.05^*$, $p<.01^{**}$, $p<.001^{***}$

시도별로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학업중단을 고민한 경험을 살펴보면, 부산이 응답자의 90.7%가 '전혀 없음'에 답하여 상대적으로 학업중단 고민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에 1-2번'에는 경기(10.1%), '한 달에 한 번'에는 전남(3.9%), '1주일에 1-2번'에는 경기(2.0%), '지속적'에는 제주(2.4%)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시도별 학업중단 고민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6)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표 118〉 시도별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구분	사례수 %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서울	빈도	3,348	67	17	13	16	3,461
	%	96.7%	1.9%	0.5%	0.4%	0.5%	100.0%
부산	빈도	1,339	14	2	1	5	1,361
	%	98.4%	1.0%	0.1%	0.1%	0.4%	100.0%
인천	빈도	1,412	20	1	4	4	1,441
	%	98.0%	1.4%	0.1%	0.3%	0.3%	100.0%
대구	빈도	5,716	106	27	7	20	5,876
	%	97.3%	1.8%	0.5%	0.1%	0.3%	100.0%
광주	빈도	4,031	70	13	7	13	4,134
	%	97.5%	1.7%	0.3%	0.2%	0.3%	100.0%
대전	빈도	5,064	75	12	9	8	5,168
	%	98.0%	1.5%	0.2%	0.2%	0.2%	100.0%
강원	빈도	3,015	52	9	4	6	3,086
	%	97.7%	1.7%	0.3%	0.1%	0.2%	100.0%
경기	빈도	9,199	153	65	48	44	9,509
	%	96.7%	1.6%	0.7%	0.5%	0.5%	100.0%
충북	빈도	5,153	117	23	6	11	5,310
	%	97.0%	2.2%	0.4%	0.1%	0.2%	100.0%
충남	빈도	3,010	54	13	6	10	3,093
	%	97.3%	1.7%	0.4%	0.2%	0.3%	100.0%
경북	빈도	8,986	159	37	26	25	9,233
	%	97.3%	1.7%	0.4%	0.3%	0.3%	100.0%
경남	빈도	8,688	184	52	19	41	8,984
	%	96.7%	2.0%	0.6%	0.2%	0.5%	100.0%
전북	빈도	1,327	16	2	0	4	1,349
	%	98.4%	1.2%	0.1%	0.0%	0.3%	100.0%
전남	빈도	2,963	48	16	6	9	3,042
	%	97.4%	1.6%	0.5%	0.2%	0.3%	100.0%
제주	빈도	1,634	16	4	1	3	1,658
	%	98.6%	1.0%	0.2%	0.1%	0.2%	100.0%
전체	빈도	64,885	1,151	293	157	219	66,705
	%	97.3%	1.7%	0.4%	0.2%	0.3%	100.0%

$\chi^2=141.915^{***}$

$p<.05^*$, $p<.01^{**}$, $p<.001^{***}$

시도별로 최근 1년 동안 자퇴경고나 퇴학통보를 받은 경험을 살펴보면, 제주가 응답자의 98.6%가 '전혀 없음'에 답하여 상대적으로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받은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에 1-2번'에는 충북(2.2%)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한 달에 한 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응답에서는 시도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은 시도별 자퇴경고나 퇴학통보를 받은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7) 학교폭력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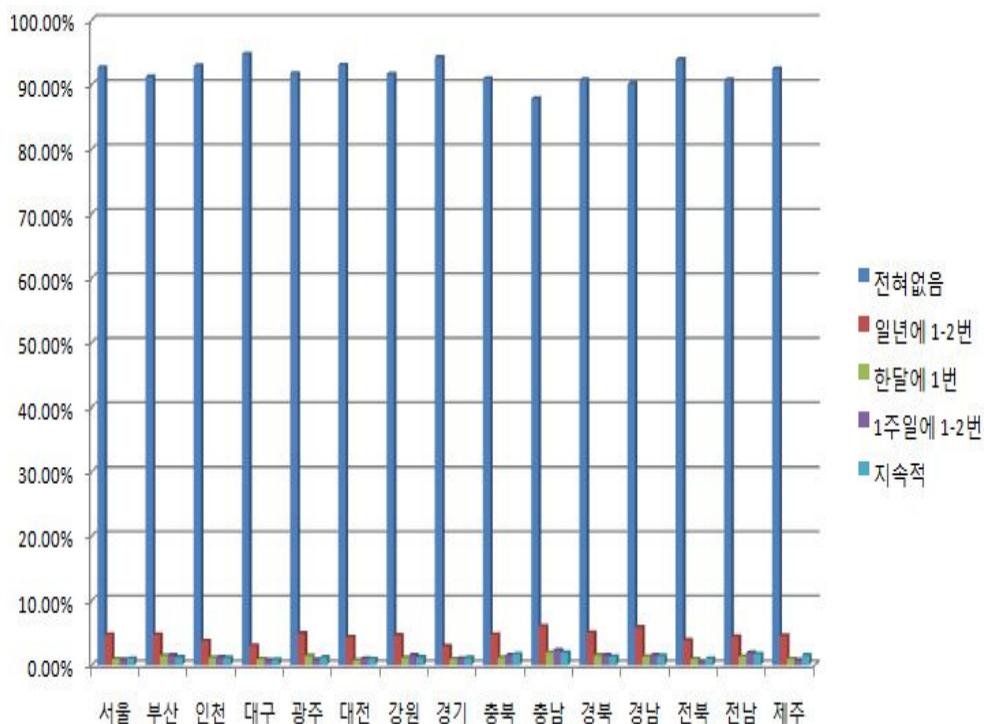
〈표 119〉 시도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구분	사례수 %	학교폭력 피해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서울	빈도	3,204	162	30	29	35	3,460
	%	92.6%	4.7%	0.9%	0.8%	1.0%	100.0%
부산	빈도	1,239	64	19	21	16	1,359
	%	91.2%	4.7%	1.4%	1.5%	1.2%	100.0%
인천	빈도	1,339	54	16	17	16	1,442
	%	92.9%	3.7%	1.1%	1.2%	1.1%	100.0%
대구	빈도	5,558	174	50	43	45	5,870
	%	94.7%	3.0%	0.9%	0.7%	0.8%	100.0%
광주	빈도	3,787	204	56	34	49	4,130
	%	91.7%	4.9%	1.4%	0.8%	1.2%	100.0%
대전	빈도	4,811	222	36	53	49	5,171
	%	93.0%	4.3%	0.7%	1.0%	0.9%	100.0%
강원	빈도	2,824	142	33	45	38	3,082
	%	91.6%	4.6%	1.1%	1.5%	1.2%	100.0%
경기	빈도	8,927	271	81	96	103	9,478
	%	94.2%	2.9%	0.9%	1.0%	1.1%	100.0%
충북	빈도	4,826	248	61	81	91	5,307
	%	90.9%	4.7%	1.1%	1.5%	1.7%	100.0%
충남	빈도	2,715	186	59	71	60	3,091
	%	87.8%	6.0%	1.9%	2.3%	1.9%	100.0%
경북	빈도	8,363	463	140	134	121	9,221
	%	90.7%	5.0%	1.5%	1.5%	1.3%	100.0%
경남	빈도	8,151	525	115	137	123	9,051
	%	90.1%	5.8%	1.3%	1.5%	1.4%	100.0%

전북	빈도	1,273	51	12	7	13	1,356
	%	93.9%	3.8%	0.9%	0.5%	1.0%	100.0%
전남	빈도	2,759	134	39	57	53	3,042
	%	90.7%	4.4%	1.3%	1.9%	1.7%	100.0%
제주	빈도	1,531	75	15	11	25	1,657
	%	92.4%	4.5%	0.9%	0.7%	1.5%	100.0%
전체	빈도	61,307	2,975	762	836	837	66,717
	%	91.9%	4.5%	1.1%	1.3%	1.3%	100.0%

$\chi^2=368.189^{***}$ $p<.05^*$, $p<.01^{**}$, $p<.001^{***}$

시도별로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대구가 응답자의 94.7%가 '전혀 없음'에 답하여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에 1-2번'(6.0%), '한 달에 한 번'(1.9%) '1주일에 1-2번'(2.3%), '지속적'(1.9%) 모두에서 충남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8) 학교폭력 가해 경험

〈표 120〉 시도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구분	사례수 %	학교폭력 가해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서울	빈도	3,152	186	47	31	40	3,456
	%	91.2%	5.4%	1.4%	0.9%	1.2%	100.0%
부산	빈도	1,249	72	13	13	16	1,363
	%	91.6%	5.3%	1.0%	1.0%	1.2%	100.0%
인천	빈도	1,342	58	17	13	11	1,441
	%	93.1%	4.0%	1.2%	0.9%	0.8%	100.0%
대구	빈도	5,541	206	58	29	40	5,874
	%	94.3%	3.5%	1.0%	0.5%	0.7%	100.0%
광주	빈도	3,710	276	54	43	48	4,131
	%	89.8%	6.7%	1.3%	1.0%	1.2%	100.0%
대전	빈도	4,752	258	65	51	41	5,167
	%	92.0%	5.0%	1.3%	1.0%	0.8%	100.0%
강원	빈도	2,824	166	45	24	27	3,086
	%	91.5%	5.4%	1.5%	0.8%	0.9%	100.0%
경기	빈도	8,862	329	98	83	106	9,478
	%	93.5%	3.5%	1.0%	0.9%	1.1%	100.0%
충북	빈도	4,833	306	51	56	61	5,307
	%	91.1%	5.8%	1.0%	1.1%	1.1%	100.0%
충남	빈도	2,732	216	52	48	40	3,088
	%	88.5%	7.0%	1.7%	1.6%	1.3%	100.0%
경북	빈도	8,501	436	114	91	81	9,223
	%	92.2%	4.7%	1.2%	1.0%	0.9%	100.0%
경남	빈도	8,195	476	116	88	106	8,981
	%	91.2%	5.3%	1.3%	1.0%	1.2%	100.0%
전북	빈도	1,280	41	9	9	8	1,347
	%	95.0%	3.0%	0.7%	0.7%	0.6%	100.0%
전남	빈도	2,769	155	43	38	35	3,040
	%	91.1%	5.1%	1.4%	1.3%	1.2%	100.0%
제주	빈도	1,534	74	18	17	14	1,657
	%	92.6%	4.5%	1.1%	1.0%	0.8%	100.0%
전체	빈도	61,276	3,255	800	634	674	66,639
	%	92.0%	4.9%	1.2%	1.0%	1.0%	100.0%

$\chi^2=238.657^{***}$

$p<.05^{\circ}$, $p<.01^{**}$, $p<.001^{***}$

시도별로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살펴보면, 전북이 응답자의 95.0%가 '전혀 없음'에 답하여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에 1-2번'(7.0%), '한 달에 한 번'(1.7%), '1주일에 1-2번'(1.6%), '지속적'(1.3%)에서는 충남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9)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표 121〉 시도별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스,본드,마약류 흡입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서울	빈도	3,410	23	8	6	12	3,459
	%	98.6%	0.7%	0.2%	0.2%	0.3%	100.0%
부산	빈도	1,354	2	2	1	3	1,362
	%	99.4%	0.1%	0.1%	0.1%	0.2%	100.0%
인천	빈도	1,427	5	3	1	6	1,442
	%	99.0%	0.3%	0.2%	0.1%	0.4%	100.0%
대구	빈도	5,803	17	22	3	28	5,873
	%	98.8%	0.3%	0.4%	0.1%	0.5%	100.0%
광주	빈도	4,079	14	8	8	21	4,130
	%	98.8%	0.3%	0.2%	0.2%	0.5%	100.0%
대전	빈도	5,120	24	13	2	12	5,171
	%	99.0%	0.5%	0.3%	0.0%	0.2%	100.0%
강원	빈도	3,061	5	5	7	8	3,086
	%	99.2%	0.2%	0.2%	0.2%	0.3%	100.0%
경기	빈도	9,376	37	28	24	47	9,512
	%	98.6%	0.4%	0.3%	0.3%	0.5%	100.0%
충북	빈도	5,265	16	8	4	14	5,307
	%	99.2%	0.3%	0.2%	0.1%	0.3%	100.0%
충남	빈도	3,056	15	7	6	7	3,091
	%	98.9%	0.5%	0.2%	0.2%	0.2%	100.0%
경북	빈도	9,113	36	30	19	28	9,226
	%	98.8%	0.4%	0.3%	0.2%	0.3%	100.0%
경남	빈도	8,868	34	22	14	50	8,988
	%	98.7%	0.4%	0.2%	0.2%	0.6%	100.0%
전북	빈도	1,317	9	2	1	8	1,337
	%	98.5%	0.7%	0.1%	0.1%	0.6%	100.0%

전남	빈도	3,006	16	3	4	13	3,042
	%	98.8%	0.5%	0.1%	0.1%	0.4%	100.0%
제주	빈도	1,643	5	2	1	5	1,656
	%	99.2%	0.3%	0.1%	0.1%	0.3%	100.0%
전체	빈도	65,898	258	163	101	262	66,682
	%	98.8%	0.4%	0.2%	0.2%	0.4%	100.0%

$\chi^2=86.448^{**}$ $p<.05^*$, $p<.01^{**}$, $p<.001^{***}$

시도별로 최근 3개월 동안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 없음'에 대하여 99.4%(부산)에서 98.5%(전북)의 응답분포를 보여 시도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년에 1-2번'에는 서울(0.7%), '한 달에 한 번'에는 대구(0.4%)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10) 음주, 흡연 경험

〈표 122〉 시도별 음주, 흡연 경험

구분	사례수 %	음주, 흡연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서울	빈도	2,778	241	151	76	213	3,459
	%	80.3%	7.0%	4.4%	2.2%	6.2%	100.0%
부산	빈도	1,130	91	59	31	48	1,359
	%	83.1%	6.7%	4.3%	2.3%	3.5%	100.0%
인천	빈도	1,186	88	58	35	71	1,438
	%	82.5%	6.1%	4.0%	2.4%	4.9%	100.0%
대구	빈도	4,344	484	385	193	465	5,871
	%	74.0%	8.2%	6.6%	3.3%	7.9%	100.0%
광주	빈도	3,185	301	228	135	278	4,127
	%	77.2%	7.3%	5.5%	3.3%	6.7%	100.0%
대전	빈도	4,113	429	266	126	238	5,172
	%	79.5%	8.3%	5.1%	2.4%	4.6%	100.0%
강원	빈도	2,384	235	200	110	158	3,087
	%	77.2%	7.6%	6.5%	3.6%	5.1%	100.0%
경기	빈도	6,910	780	690	383	731	9,494
	%	72.8%	8.2%	7.3%	4.0%	7.7%	100.0%
충북	빈도	4,015	498	344	176	273	5,306

	%	75.7%	9.4%	6.5%	3.3%	5.1%	100.0%
충남	빈도	2,337	273	207	123	150	3,090
	%	75.6%	8.8%	6.7%	4.0%	4.9%	100.0%
경북	빈도	6,786	862	705	356	516	9,225
	%	73.6%	9.3%	7.6%	3.9%	5.6%	100.0%
경남	빈도	6,512	1,048	552	248	622	8,982
	%	72.5%	11.7%	6.1%	2.8%	6.9%	100.0%
전북	빈도	1,157	100	32	7	39	1,335
	%	86.7%	7.5%	2.4%	0.5%	2.9%	100.0%
전남	빈도	2,207	279	286	102	166	3,040
	%	72.6%	9.2%	9.4%	3.4%	5.5%	100.0%
제주	빈도	1,379	109	72	34	63	1,657
	%	83.2%	6.6%	4.3%	2.1%	3.8%	100.0%
전체	빈도	50,423	5,818	4,235	2,135	4,031	66,642
	%	75.7%	8.7%	6.4%	3.2%	6.0%	100.0%

$\chi^2=746.0540^{***}$ $p<.05^*$, $p<.01^{**}$, $p<.001^{***}$

시도별로 최근 3개월 동안의 음주, 흡연 경험을 살펴보면, 전북이 응답자의 86.7%가 '전혀 없음'에 답하여 상대적으로 음주, 흡연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에 1-2번'에는 경남(11.7%), '한 달에 한 번'에는 전남(9.4%), '1주일에 1-2번'에는 경기와 충남(4.0%), '지속적'에는 대구(7.9%)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1)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표 123〉 시도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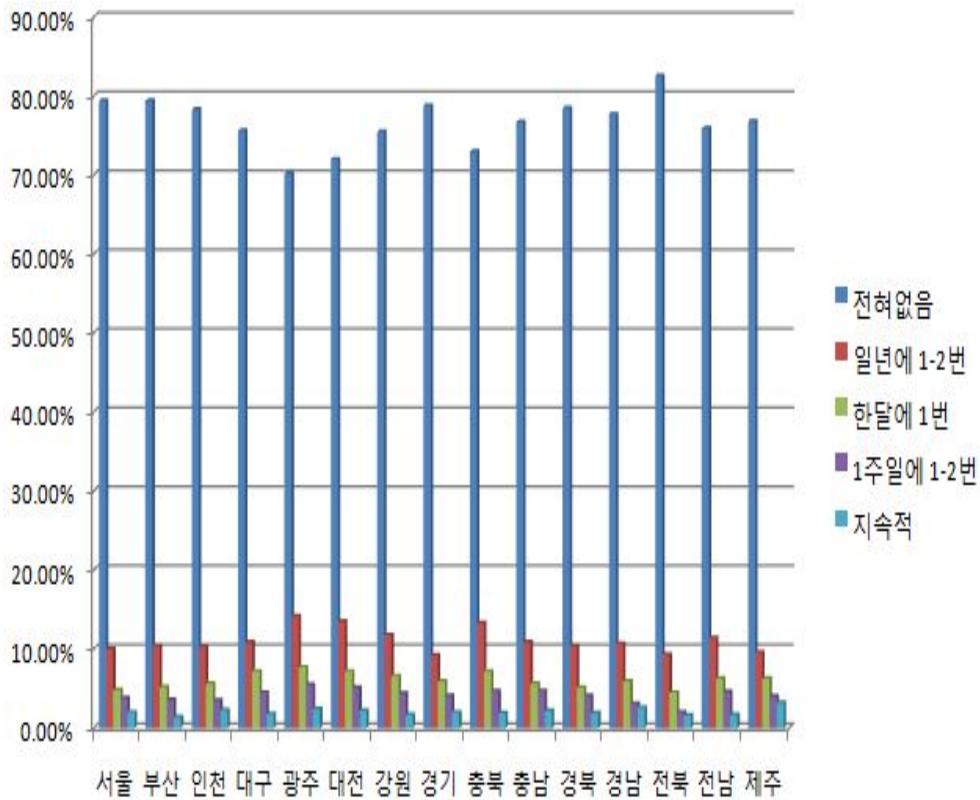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서울	빈도	2,749	345	167	133	68	3,462
	%	79.4%	10.0%	4.8%	3.8%	2.0%	100.0%
부산	빈도	1,081	142	71	49	19	1,362
	%	79.4%	10.4%	5.2%	3.6%	1.4%	100.0%
인천	빈도	1,129	148	80	51	33	1,441
	%	78.3%	10.3%	5.6%	3.5%	2.3%	100.0%

대구	빈도	4,439	640	425	265	104	5,873
	%	75.6%	10.9%	7.2%	4.5%	1.8%	100.0%
광주	빈도	2,898	586	317	226	100	4,127
	%	70.2%	14.2%	7.7%	5.5%	2.4%	100.0%
대전	빈도	3,725	697	370	264	115	5,171
	%	72.0%	13.5%	7.2%	5.1%	2.2%	100.0%
강원	빈도	2,332	363	205	137	51	3,088
	%	75.5%	11.8%	6.6%	4.4%	1.7%	100.0%
경기	빈도	7,480	873	561	392	187	9,493
	%	78.8%	9.2%	5.9%	4.1%	2.0%	100.0%
충북	빈도	3,875	704	383	247	100	5,309
	%	73.0%	13.3%	7.2%	4.7%	1.9%	100.0%
충남	빈도	2,367	336	172	145	67	3,087
	%	76.7%	10.9%	5.6%	4.7%	2.2%	100.0%
경북	빈도	7,247	961	472	375	172	9,227
	%	78.5%	10.4%	5.1%	4.1%	1.9%	100.0%
경남	빈도	6,982	964	530	277	234	8,987
	%	77.7%	10.7%	5.9%	3.1%	2.6%	100.0%
전북	빈도	1,104	125	60	27	21	1,337
	%	82.6%	9.3%	4.5%	2.0%	1.6%	100.0%
전남	빈도	2,308	348	193	140	53	3,042
	%	75.9%	11.4%	6.3%	4.6%	1.7%	100.0%
제주	빈도	1,274	159	105	67	53	1,658
	%	76.8%	9.6%	6.3%	4.0%	3.2%	100.0%
전체	빈도	50,990	7,391	4,111	2,795	1,377	66,664
	%	76.5%	11.1%	6.2%	4.2%	2.1%	100.0%

$\chi^2=410.619^{***}$

$p<.05^*$, $p<.01^{**}$, $p<.001^{***}$

시도별로 최근 3개월 동안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 갈등 경험을 살펴보면, 전북이 응답자의 82.6%가 '전혀 없음'에 답하여 상대적으로 가족 갈등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에 1-2번'에는 광주(14.2%), '한 달에 한 번'에는 광주(7.7%), '1주일에 1-2번'에는 광주(5.5%), '지속적'에는 제주(3.2%)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2)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표 124〉 시도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구분	사례수 %	인터넷 사용으로 일처리 못한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서울	빈도	2,170	492	370	291	133	3,456
	%	62.8%	14.2%	10.7%	8.4%	3.8%	100.0%
부산	빈도	862	210	137	105	47	1,361
	%	63.3%	15.4%	10.1%	7.7%	3.5%	100.0%
인천	빈도	840	213	166	143	78	1,440
	%	58.3%	14.8%	11.5%	9.9%	5.4%	100.0%
대구	빈도	3,445	853	792	584	198	5,872
	%	58.7%	14.5%	13.5%	9.9%	3.4%	100.0%
광주	빈도	2,244	753	511	432	192	4,132
	%	54.3%	18.2%	12.4%	10.5%	4.6%	100.0%
대전	빈도	2,575	950	756	653	237	5,171

	%	49.8%	18.4%	14.6%	12.6%	4.6%	100.0%
강원	빈도	1,761	504	374	321	120	3,080
	%	57.2%	16.4%	12.1%	10.4%	3.9%	100.0%
경기	빈도	6,054	1,267	1,006	831	345	9,503
	%	63.7%	13.3%	10.6%	8.7%	3.6%	100.0%
충북	빈도	2,773	910	713	666	241	5,303
	%	52.3%	17.2%	13.4%	12.6%	4.5%	100.0%
충남	빈도	1,695	494	404	359	134	3,086
	%	54.9%	16.0%	13.1%	11.6%	4.3%	100.0%
경북	빈도	5,624	1,237	948	1,023	390	9,222
	%	61.0%	13.4%	10.3%	11.1%	4.2%	100.0%
경남	빈도	4,357	1,646	1,360	1,033	648	9,044
	%	48.2%	18.2%	15.0%	11.4%	7.2%	100.0%
전북	빈도	760	253	171	103	62	1,349
	%	56.3%	18.8%	12.7%	7.6%	4.6%	100.0%
전남	빈도	1,731	425	407	343	133	3,039
	%	57.0%	14.0%	13.4%	11.3%	4.4%	100.0%
제주	빈도	917	229	207	153	152	1,658
	%	55.3%	13.8%	12.5%	9.2%	9.2%	100.0%
전체	빈도	37,808	10,436	8,322	7,040	3,110	66,716
	%	56.7%	15.6%	12.5%	10.6%	4.7%	100.0%

$\chi^2=1052.607^{***}$ $p<.05$, $p<.01$, $p<.001^{***}$

시도별로 최근 3개월 동안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을 살펴보면, 경기도 응답자의 63.7%가 '전혀 없음'에 답하여 상대적으로 일을 제대로 못한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에 1-2번'에는 전북(18.8%), '한 달에 한 번'에는 경남(15.0%), '1주일에 1-2번'에는 대전과 충북(12.6%), '지속적'에는 제주(9.2%)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3)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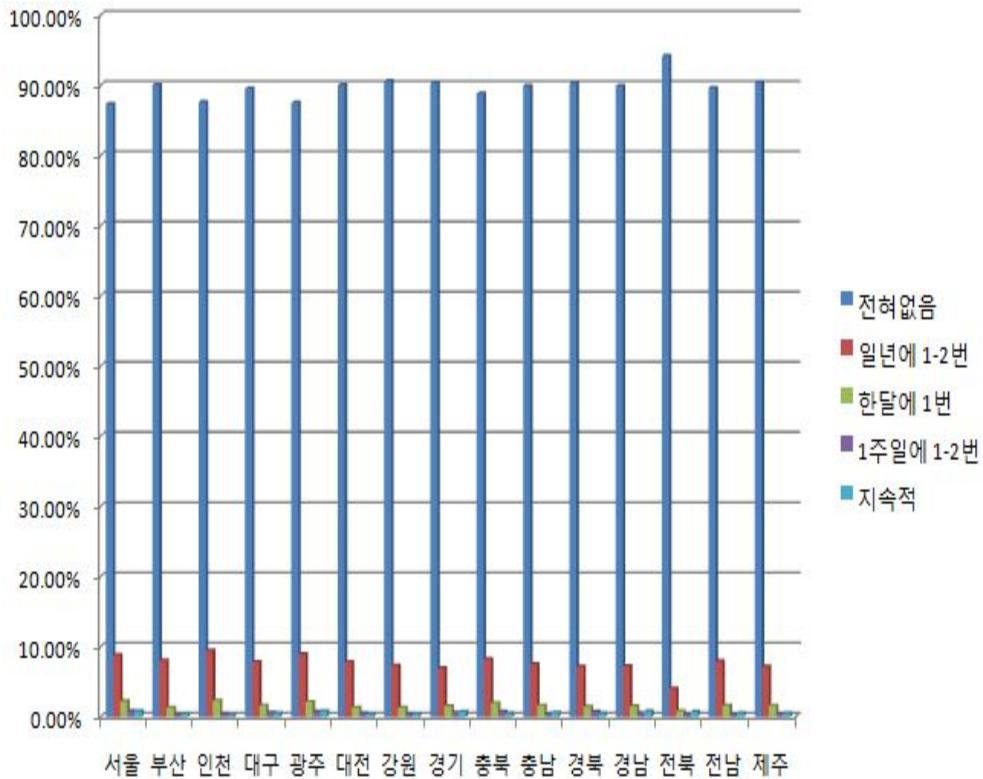
〈표 125〉 시도별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구분	사례수 %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서울	빈도	3,019	306	76	28	29	3,458
	%	87.3%	8.8%	2.2%	0.8%	0.8%	100.0%
부산	빈도	1,226	109	18	4	5	1,362

	%	90.0%	8.0%	1.3%	0.3%	0.4%	100.0%
인천	빈도	1,261	136	33	6	4	1,440
	%	87.6%	9.4%	2.3%	0.4%	0.3%	100.0%
대구	빈도	5,252	459	96	33	29	5,869
	%	89.5%	7.8%	1.6%	0.6%	0.5%	100.0%
광주	빈도	3,617	368	86	31	32	4,134
	%	87.5%	8.9%	2.1%	0.7%	0.8%	100.0%
대전	빈도	4,653	402	68	28	21	5,172
	%	90.0%	7.8%	1.3%	0.5%	0.4%	100.0%
강원	빈도	2,796	225	40	13	12	3,086
	%	90.6%	7.3%	1.3%	0.4%	0.4%	100.0%
경기	빈도	8,575	652	145	61	68	9,501
	%	90.3%	6.9%	1.5%	0.6%	0.7%	100.0%
충북	빈도	4,712	435	99	36	27	5,309
	%	88.8%	8.2%	1.9%	0.7%	0.5%	100.0%
충남	빈도	2,779	231	48	13	19	3,090
	%	89.9%	7.5%	1.6%	0.4%	0.6%	100.0%
경북	빈도	8,336	652	130	62	48	9,228
	%	90.3%	7.1%	1.4%	0.7%	0.5%	100.0%
경남	빈도	8,078	650	139	47	73	8,987
	%	89.9%	7.2%	1.5%	0.5%	0.8%	100.0%
전북	빈도	1,258	54	11	4	9	1,336
	%	94.2%	4.0%	0.8%	0.3%	0.7%	100.0%
전남	빈도	2,725	241	50	10	14	3,040
	%	89.6%	7.9%	1.6%	0.3%	0.5%	100.0%
제주	빈도	1,498	117	27	7	8	1,657
	%	90.4%	7.1%	1.6%	0.4%	0.5%	100.0%
전체	빈도	59,785	5,037	1,066	383	398	66,669
	%	89.7%	7.6%	1.6%	0.6%	0.6%	100.0%

$\chi^2=152.945^{***}$ $p<.05$, $p<.01$, $p<.001^{***}$

시도별로 최근 1년 동안 물건을 훔친 경험을 살펴보면, 서울이 응답자의 87.3%가 ‘전혀 없음’에 답하여 상대적으로 물건을 훔친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에 1-2번’에는 인천(9.4%), ‘한 달에 한 번’에서도 인천(2.3%), ‘1주일에 1-2번’에는 충북과 경북(0.7%), ‘지속적’에는 서울과 경남(0.8%)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4)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표 126〉 시도별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구분	사례수 %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서울	빈도	3,090	232	49	19	22	3,412
	%	90.6%	6.8%	1.4%	0.6%	0.6%	100.0%
부산	빈도	1,293	53	10	2	4	1,362
	%	94.9%	3.9%	0.7%	0.1%	0.3%	100.0%
인천	빈도	1,359	61	10	7	3	1,440
	%	94.4%	4.2%	0.7%	0.5%	0.2%	100.0%
대구	빈도	5,576	211	48	16	24	5,875
	%	94.9%	3.6%	0.8%	0.3%	0.4%	100.0%
광주	빈도	3,803	216	52	25	24	4,120
	%	92.3%	5.2%	1.3%	0.6%	0.6%	100.0%
대전	빈도	4,870	215	51	21	14	5,171
	%	94.2%	4.2%	1.0%	0.4%	0.3%	100.0%

강원	빈도	2,946	95	26	5	6	3,078
	%	95.7%	3.1%	0.8%	0.2%	0.2%	100.0%
경기	빈도	8,978	332	97	50	55	9,512
	%	94.4%	3.5%	1.0%	0.5%	0.6%	100.0%
충북	빈도	4,966	245	56	18	24	5,309
	%	93.5%	4.6%	1.1%	0.3%	0.5%	100.0%
충남	빈도	2,895	149	19	13	16	3,092
	%	93.6%	4.8%	0.6%	0.4%	0.5%	100.0%
경북	빈도	8,582	392	83	35	44	9,136
	%	93.9%	4.3%	0.9%	0.4%	0.5%	100.0%
경남	빈도	8,386	398	86	51	68	8,989
	%	93.3%	4.4%	1.0%	0.6%	0.8%	100.0%
전북	빈도	1,281	34	6	3	8	1,332
	%	96.2%	2.6%	0.5%	0.2%	0.6%	100.0%
전남	빈도	2,789	176	45	16	15	3,041
	%	91.7%	5.8%	1.5%	0.5%	0.5%	100.0%
제주	빈도	1,583	51	11	3	9	1,657
	%	95.5%	3.1%	0.7%	0.2%	0.5%	100.0%
전체	빈도	62,397	2,860	649	284	336	66,526
	%	93.8%	4.3%	1.0%	0.4%	0.5%	100.0%

$\chi^2=227.584^{***}$ $p<.05^*$, $p<.01^{**}$, $p<.001^{***}$

시도별로 최근 1년 동안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뺏은 경험을 살펴보면, 전북이 응답자의 96.2%가 '전혀 없음'에 답하여 상대적으로 강제로 뺏은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에 1-2번'에는 서울(6.8%), '한 달에 한 번'에는 전남(1.5%), '1주일에 1-2번'에는 서울, 광주, 경남(0.6%), '지속적'에는 경남(0.8%)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5)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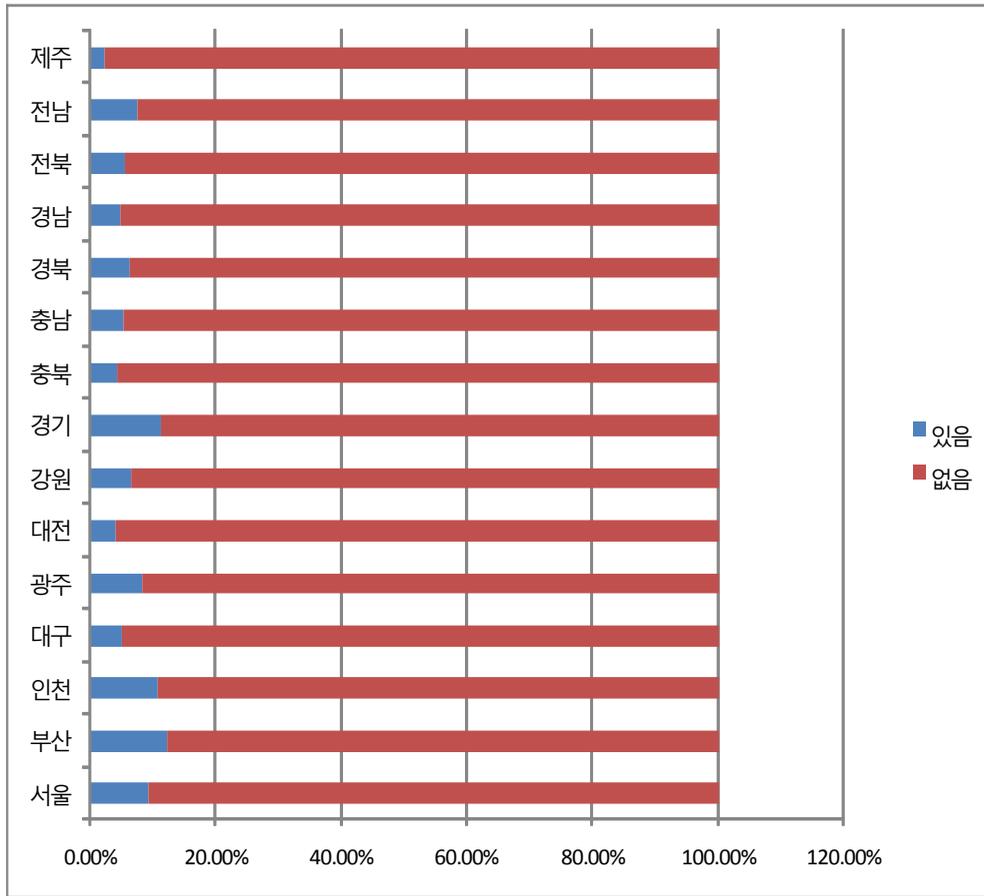
〈표 127〉 시도별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구분	사례수 %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서울	빈도	318	3,091	3,409
	%	9.3%	90.7%	100.0%
부산	빈도	166	1,196	1,362
	%	12.2%	87.8%	100.0%
인천	빈도	155	1,282	1,437
	%	10.8%	89.2%	100.0%

대구	빈도	287	5,547	5,834
	%	4.9%	95.1%	100.0%
광주	빈도	343	3,776	4,119
	%	8.3%	91.7%	100.0%
대전	빈도	206	4,966	5,172
	%	4.0%	96.0%	100.0%
강원	빈도	196	2,886	3,082
	%	6.4%	93.6%	100.0%
경기	빈도	1,067	8,437	9,504
	%	11.2%	88.8%	100.0%
충북	빈도	224	5,052	5,276
	%	4.2%	95.8%	100.0%
충남	빈도	159	2,907	3,066
	%	5.2%	94.8%	100.0%
경북	빈도	575	8,572	9,147
	%	6.3%	93.7%	100.0%
경남	빈도	423	8,625	9,048
	%	4.7%	95.3%	100.0%
전북	빈도	73	1,283	1,356
	%	5.4%	94.6%	100.0%
전남	빈도	227	2,810	3,037
	%	7.5%	92.5%	100.0%
제주	빈도	36	1,616	1,652
	%	2.2%	97.8%	100.0%
전체	빈도	4,455	62,046	66,501
	%	6.7%	93.3%	100.0%

$\chi^2=746.640^{***}$ $p<.05$, $p<.01$, $p<.001^{***}$

시도별로 최근 1년 동안의 성폭력(성희롱)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부산이 응답자의 12.2%가 '있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성폭력(성희롱)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기(11.2%), 인천(10.8%), 서울(9.3%) 순이었다. 이와 같은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6)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표 128〉 시도별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구 분	사례수 %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서울	빈도	251	3,160	3,411
	%	7.4%	92.6%	100.0%
부산	빈도	146	1,216	1,362
	%	10.7%	89.3%	100.0%
인천	빈도	133	1,307	1,440
	%	9.2%	90.8%	100.0%
대구	빈도	347	5,487	5,834
	%	5.9%	94.1%	100.0%
광주	빈도	286	3,830	4,116
	%	6.9%	93.1%	100.0%

대전	빈도	192	4,980	5,172
	%	3.7%	96.3%	100.0%
강원	빈도	164	2,919	3,083
	%	5.3%	94.7%	100.0%
경기	빈도	903	8,606	9,509
	%	9.5%	90.5%	100.0%
충북	빈도	165	5,111	5,276
	%	3.1%	96.9%	100.0%
충남	빈도	129	2,937	3,066
	%	4.2%	95.8%	100.0%
경북	빈도	480	8,669	9,149
	%	5.2%	94.8%	100.0%
경남	빈도	311	8,743	9,054
	%	3.4%	96.6%	100.0%
전북	빈도	31	1,318	1,349
	%	2.3%	97.7%	100.0%
전남	빈도	180	2,860	3,040
	%	5.9%	94.1%	100.0%
제주	빈도	18	1,635	1,653
	%	1.1%	98.9%	100.0%
전체	빈도	3,736	62,778	66,514
	%	5.6%	94.4%	100.0%

$\chi^2=692.143$ m $p<.05$, $p<.01$, $p<.001$

시도별로 최근 1년 동안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을 살펴보면, 부산이 응답자의 10.7%가 '있음'에 답하여 상대적으로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기(9.5%), 인천(9.2%), 서울(7.4%) 순이었다. 이와 같은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7) 자살 생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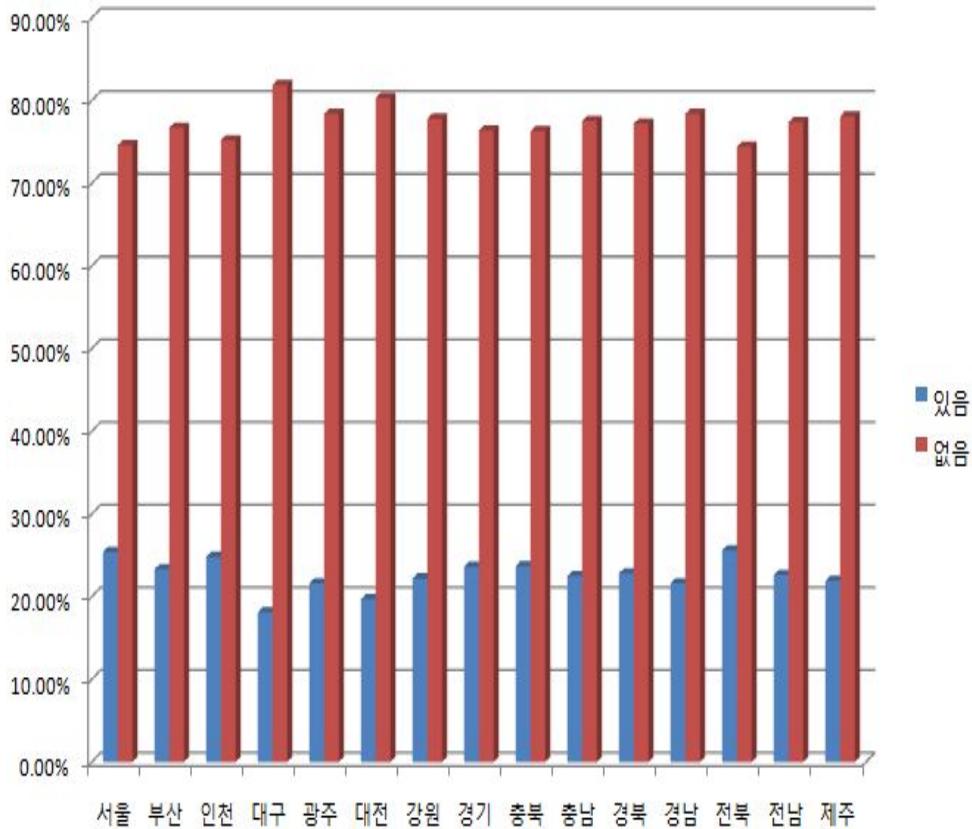
〈표 129〉 시도별 자살 생각 경험

구분	사례수 %	자살 생각을 한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서울	빈도	867	2,543	3,410
	%	25.4%	74.6%	100.0%
부산	빈도	318	1,046	1,364
	%	23.3%	76.7%	100.0%
인천	빈도	357	1,084	1,441

	%	24.8%	75.2%	100.0%
대구	빈도	1,054	4,778	5,832
	%	18.1%	81.9%	100.0%
광주	빈도	889	3,232	4,121
	%	21.6%	78.4%	100.0%
대전	빈도	1,017	4,155	5,172
	%	19.7%	80.3%	100.0%
강원	빈도	683	2,398	3,081
	%	22.2%	77.8%	100.0%
경기	빈도	2,242	7,269	9,511
	%	23.6%	76.4%	100.0%
충북	빈도	1,248	4,028	5,276
	%	23.7%	76.3%	100.0%
충남	빈도	690	2,374	3,064
	%	22.5%	77.5%	100.0%
경북	빈도	2,087	7,067	9,154
	%	22.8%	77.2%	100.0%
경남	빈도	1,954	7,102	9,056
	%	21.6%	78.4%	100.0%
전북	빈도	345	1,002	1,347
	%	25.6%	74.4%	100.0%
전남	빈도	686	2,356	3,042
	%	22.6%	77.4%	100.0%
제주	빈도	361	1,291	1,652
	%	21.9%	78.1%	100.0%
전체	빈도	14,798	51,725	66,523
	%	22.2%	77.8%	100.0%

$\chi^2=134.869^{***}$ $p<.05^*$, $p<.01^{**}$, $p<.001^{***}$

시도별로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을 살펴보면, 전북이 응답자의 25.6%가 '있음'에 답하여 상대적으로 자살 생각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서울(25.4%), 인천(24.8%), 충북(23.7%), 경기(23.6%) 순이었다. 이와 같은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8) 자살 시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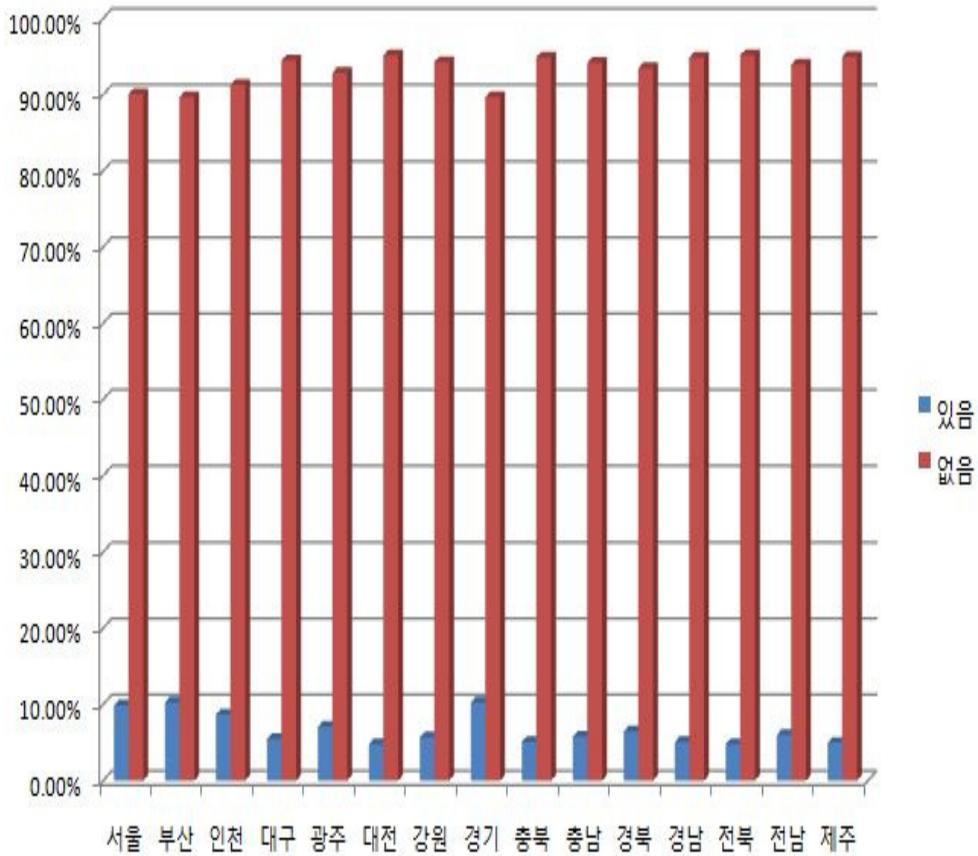
〈표 130〉 시도별 자살 시도 경험

구분	사례수 %	자살 시도를 한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서울	빈도	337	3,072	3,409
	%	9.9%	90.1%	100.0%
부산	빈도	140	1,221	1,361
	%	10.3%	89.7%	100.0%
인천	빈도	125	1,316	1,441
	%	8.7%	91.3%	100.0%
대구	빈도	323	5,509	5,832
	%	5.5%	94.5%	100.0%
광주	빈도	291	3,829	4,120
	%	7.1%	92.9%	100.0%

대전	빈도	246	4,926	5,172
	%	4.8%	95.2%	100.0%
강원	빈도	176	2,907	3,083
	%	5.7%	94.3%	100.0%
경기	빈도	976	8,514	9,490
	%	10.3%	89.7%	100.0%
충북	빈도	271	5,007	5,278
	%	5.1%	94.9%	100.0%
충남	빈도	177	2,891	3,068
	%	5.8%	94.2%	100.0%
경북	빈도	599	8,552	9,151
	%	6.5%	93.5%	100.0%
경남	빈도	465	8,591	9,056
	%	5.1%	94.9%	100.0%
전북	빈도	65	1,282	1,347
	%	4.8%	95.2%	100.0%
전남	빈도	181	2,860	3,041
	%	6.0%	94.0%	100.0%
제주	빈도	83	1,569	1,652
	%	5.0%	95.0%	100.0%
전체	빈도	4,455	62,046	66,501
	%	6.7%	93.3%	100.0%

$\chi^2=415.505^{***}$ $p<.05^*$, $p<.01^{**}$, $p<.001^{***}$

시도별로 최근 1년 동안의 자살 시도 경험을 살펴보면, 부산과 경기도 응답자의 10.3%가 ‘있음’에 답하여 상대적으로 자살 시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서울(9.9%), 인천(8.7%), 광주(7.1%) 순이었다. 이와 같은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2)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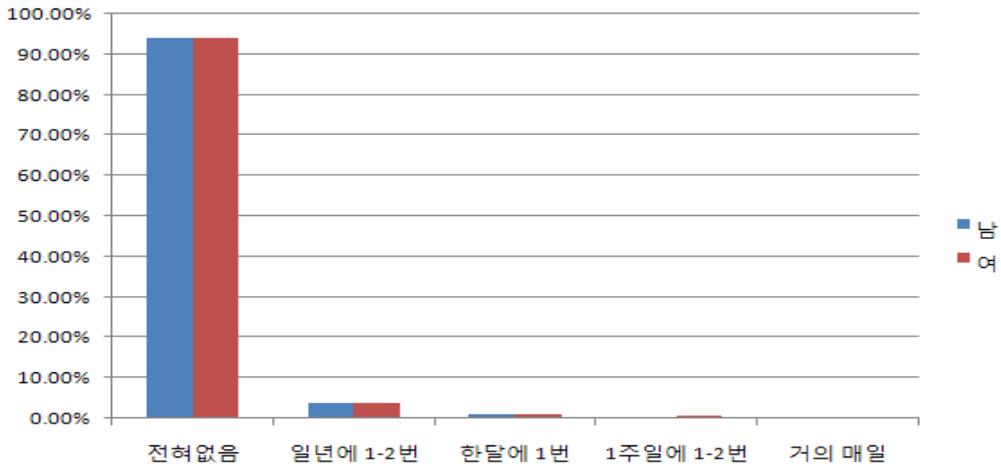
(1)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표 131〉 성별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정신체학대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남	빈도	33,304	1,293	414	164	181	35,356	
성	%	94.2%	3.7%	1.2%	0.5%	0.5%	100.0%	
별	여	빈도	29,500	1,204	344	163	106	31,317
	%	94.2%	3.8%	1.1%	0.5%	0.3%	100.0%	

전	빈도	62,804	2,497	758	327	287	66,673
체	%	94.2%	3.7%	1.1%	0.5%	0.4%	100.0%
		$\chi^2=15.020^{**}$		$p<.05^*$, $p<.01^{**}$, $p<.001^{***}$			

성별로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을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응답자의 94.2%가 '전혀 없음'에 응답하였다. '일년에 1-2번'에는 여학생(3.8%), '한 달에 한 번'에는 남학생(1.2%), '거의 매일'에는 남학생(0.5%)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2)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표 132〉 성별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출고민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성	남	빈도	28,626	4,492	1,156	531	502	35,307
		%	81.1%	12.7%	3.3%	1.5%	1.4%	100.0%
별	여	빈도	23,449	5,158	1,494	694	492	31,287
		%	74.9%	16.5%	4.8%	2.2%	1.6%	100.0%
전	빈도	52,075	9,650	2,650	1,225	994	66,594	
	체	%	78.2%	14.5%	4.0%	1.8%	1.5%	100.0%

$\chi^2=384.262^{***}$

$p<.05^*$, $p<.01^{**}$, $p<.001^{***}$

성별로 최근 1년 동안 가출을 심각하게 고민한 경험을 살펴보면, 고민을 한 적이 없는 비율에 있어 남학생(81.1%)이 여학생(74.9%)보다 더 높았다. ‘일년에 1-2번’(16.5%), ‘한 달에 한 번’(4.8%), ‘1주일에 1-2번’(2.2%), ‘지속적’(1.6%)에서 모두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즉 주기에 상관없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출고민을 더 많이 하였다. 이와 같은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3)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표 133〉 성별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구분	사례수 %	학업중단고민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남	빈도	30,267	2,905	962	495	682	35,311
	%	85.7%	8.2%	2.7%	1.4%	1.9%	100.0%
여	빈도	26,068	3,192	952	507	566	31,285
	%	83.3%	10.2%	3.0%	1.6%	1.8%	100.0%
전 체	빈도	56,335	6,097	1,914	1,002	1,248	66,596
	%	84.6%	9.2%	2.9%	1.5%	1.9%	100.0%

$$\chi^2=94.422^{***}$$

$$p < .05^*, p < .01^{**}, p < .001^{***}$$

성별로 최근 1년 동안 학업중단 고민을 살펴보면, 고민을 한 적이 없는 비율에 있어 남학생(85.7%)이 여학생(83.3%)보다 더 높았다. ‘일년에 1-2번’(10.2%), ‘한 달에 한 번’(3.0%), ‘1주일에 1-2번’(1.6%)에는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지속적’에는 남학생(1.9%)이 더 많이 응답했다. 이와 같은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4)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표 134〉 성별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구분	사례수 %	자퇴경고 퇴학통보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성 남	빈도	34,211	705	166	97	149	35,328
	%	96.8%	2.0%	0.5%	0.3%	0.4%	100.0%

여	빈도	30,592	443	126	60	69	31,290
	%	97.8%	1.4%	0.4%	0.2%	0.2%	100.0%
전	빈도	64,803	1,148	292	157	218	66,618
체	%	97.3%	1.7%	0.4%	0.2%	0.3%	100.0%

$\chi^2=15.020^{***}$ $p<.05^*$, $p<.01^{**}$, $p<.001^{***}$

성별로 최근 1년 동안 자퇴경고나 퇴학통보를 받은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없음’에 대해 남학생(96.8%)보다 여학생(97.8%)이 더 많이 응답하였다. ‘일년에 1-2번’(2.0%), ‘한 달에 한 번’(0.5%), ‘1주일에 1-2번’(0.3%), ‘지속적’(0.4%)에서 모두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경험주기에 상관없이 남학생이 자퇴경고나 퇴학통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5) 학교폭력 피해 경험

〈표 135〉 성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구분	사례수 %	학교폭력 피해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남	빈도	31,831	1,813	504	583	594	35,325
	%	90.1%	5.1%	1.4%	1.7%	1.7%	100.0%
여	빈도	29,399	1,159	256	252	242	31,308
	%	93.9%	3.7%	0.8%	0.8%	0.8%	100.0%
전	빈도	61,230	2,972	760	835	836	66,633
	%	91.9%	4.5%	1.1%	1.3%	1.3%	100.0%

$\chi^2=360.001^{***}$ $p<.05^*$, $p<.01^{**}$, $p<.001^{***}$

성별로 최근 1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일년에 1-2번’(5.1%), ‘한 달에 한 번’(1.4%), ‘1주일에 1-2번’(1.7%), ‘지속적’(1.7%)에서 모두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경험주기에 상관없이 남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6) 학교폭력 가해 경험

〈표 136〉 성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구분	사례수 %	학교폭력 가해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남	빈도	31,797	2,006	535	470	483	35,291
	%	90.1%	5.7%	1.5%	1.3%	1.4%	100.0%
여	빈도	29,402	1,241	264	164	190	31,261
	%	94.1%	4.0%	0.8%	0.5%	0.6%	100.0%
전체	빈도	61,199	3,247	799	634	673	66,552
	%	92.0%	4.9%	1.2%	1.0%	1.0%	100.0%

$\chi^2=398.560^{***}$

$p<.05^*$, $p<.01^{**}$, $p<.001^{***}$

성별로 최근 1년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살펴보면, ‘일년에 1-2번’(5.7%), ‘한 달에 한 번’(1.5%), ‘1주일에 1-2번’(1.3%), ‘지속적’(1.4%)에서 모두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경험주기에 상관없이 남학생이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7)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표 137〉 성별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스,본드,마약류 흡입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남	빈도	34,740	183	111	69	204	35,307
	%	98.4%	0.5%	0.3%	0.2%	0.6%	100.0%
여	빈도	31,074	75	50	32	57	31,288
	%	99.3%	0.2%	0.2%	0.1%	0.2%	100.0%
전체	빈도	65,814	258	161	101	261	66,595
	%	98.8%	0.4%	0.2%	0.2%	0.4%	100.0%

$\chi^2=126.789^{***}$

$p<.05^*$, $p<.01^{**}$, $p<.001^{***}$

성별로 최근 3개월 동안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을 살펴보면, ‘일년에 1-2 번’(0.5%), ‘한 달에 한 번’(0.3%), ‘1주일에 1-2번’(0.2%), ‘지속적’(0.6%)에서 모두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경험주기에 상관없이 남학생이 약물 흡입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별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8) 음주, 흡연 경험

〈표 138〉 성별 음주, 흡연 경험

구분	사례수 %	음주, 흡연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성 별	남	빈도	26,087	2,860	2,051	1,327	2,965	35,290
		%	73.9%	8.1%	5.8%	3.8%	8.4%	100.0%
전 체	여	빈도	24,268	2,952	2,179	805	1,061	31,265
		%	77.6%	9.4%	7.0%	2.6%	3.4%	100.0%
전 체	빈도	50,355	5,812	4,230	2,132	4,026	66,555	
	%	75.7%	8.7%	6.4%	3.2%	6.0%	100.0%	

$\chi^2=859.020^{***}$

$p < .05^*$, $p < .01^{**}$, $p < .001^{***}$

성별로 최근 3개월 동안 음주, 흡연 경험을 살펴보면, ‘일년에 1-2번’(9.4%), ‘한달에 한 번’(7.0%)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음주, 흡연을 더 많이 경험 하였다. ‘1주일에 1-2번’(3.8%), ‘지속적’(8.4%)으로는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음주,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9)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표 139〉 성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구분	사례수 %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성 별	남	빈도	25,225	4,606	2,713	1,829	936	35,309
		%	71.4%	13.0%	7.7%	5.2%	2.7%	100.0%
전 체	여	빈도	25,695	2,776	1,394	963	440	31,268
		%	82.2%	8.9%	4.5%	3.1%	1.4%	100.0%
전 체	빈도	50,920	7,382	4,107	2,792	1,376	66,577	
	%	76.5%	11.1%	6.2%	4.2%	2.1%	100.0%	

$\chi^2=1087.736^{***}$

$p < .05^*$, $p < .01^{**}$, $p < .001^{***}$

성별로 최근 3개월 동안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을 살펴보면,

‘일년에 1-2번’(13.0%), ‘한 달에 한 번’(7.7%), ‘1주일에 1-2번’(5.2%), ‘지속적’(2.7%)에서 모두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경험주기에 상관없이 남학생이 인터넷으로 인한 가족갈등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0)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표 140〉 성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구분	사례수 %	인터넷 사용으로 일을 제대로 못한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남	빈도	19,360	5,699	4,600	3,855	1,819	35,333
	%	54.8%	16.1%	13.0%	10.9%	5.1%	100.0%
여	빈도	18,398	4,729	3,713	3,174	1,284	31,298
	%	58.8%	15.1%	11.9%	10.1%	4.1%	100.0%
전 체	빈도	37,758	10,428	8,313	7,029	3,103	66,631
	%	56.7%	15.7%	12.5%	10.5%	4.7%	100.0%

$$\chi^2=123.705^{***}$$

$$p < .05^*, p < .01^{**}, p < .001^{***}$$

성별로 최근 3개월 동안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일을 제대로 못한 경험을 살펴보면, ‘일년에 1-2번’(16.1%), ‘한 달에 한 번’(13.0%), ‘1주일에 1-2번’(10.9%), ‘지속적’(5.1%)에서 모두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경험주기에 상관없이 남학생이 인터넷으로 인해 일에 방해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1)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표 141〉 성별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구분	사례수 %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남	빈도	30,696	3,406	667	246	292	35,307
	%	86.9%	9.6%	1.9%	0.7%	0.8%	100.0%
여	빈도	29,010	1,625	398	137	105	31,275
	%	92.8%	5.2%	1.3%	0.4%	0.3%	100.0%
전 체	빈도	59,706	5,031	1,065	383	397	66,582
	%	89.7%	7.6%	1.6%	0.6%	0.6%	100.0%

$$\chi^2=623.261^{***}$$

$$p < .05^*, p < .01^{**}, p < .001^{***}$$

성별로 최근 1년 동안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험을 살펴보면, ‘일년에 1-2번’(9.6%), ‘한 달에 한 번’(1.9%), ‘1주일에 1-2번’(0.7%), ‘지속적’(0.8%)에서 모두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경험주기에 상관없이 남학생이 물건을 훔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2)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표 142〉 성별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구분	사례수 %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남	빈도	32,323	1,987	452	199	249	35,210
	%	91.8%	5.6%	1.3%	0.6%	0.7%	100.0%
여	빈도	29,995	869	196	84	87	31,231
	%	96.0%	2.8%	0.6%	0.3%	0.3%	100.0%
전체	빈도	62,318	2,856	648	283	336	66,441
	%	93.8%	4.3%	1.0%	0.4%	0.5%	100.0%

$$\chi^2=514.140^{***}$$

$$p < .05^*, p < .01^{**}, p < .001^{***}$$

성별로 최근 1년 동안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뺏은 경험을 살펴보면, ‘일년에 1-2번’(5.6%), ‘한 달에 한 번’(1.3%), ‘1주일에 1-2번’(0.6%), ‘지속적’(0.7%)에서 모두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경험주기에 상관없이 남학생이 물건을 강제로 뺏은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3)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표 143〉 성별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구분	사례수 %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전체
		있음	없음	
남	빈도	2,102	33,097	35,199
	%	6.0%	94.0%	100.0%
여	빈도	2,345	28,873	31,218
	%	7.5%	92.5%	100.0%
전체	빈도	4,447	61,970	66,417
	%	6.7%	93.3%	100.0%

$$\chi^2=62.801^{***}$$

$$p < .05^*, p < .01^{**}, p < .001^{***}$$

성별로 최근 1년 동안 성폭력(성희롱) 당한 경험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험률(7.5%)이 남학생의 경험률(6.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4)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표 144〉 성별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구분	사례수 %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성 별	남	빈도 2,455	빈도 32,748	35,203
	여	빈도 1,276	빈도 29,951	
전 체	남	빈도 3,731	빈도 62,699	66,430
	여	빈도 3,731	빈도 62,699	
		% 7.0%	% 93.0%	100.0%
		% 4.1%	% 95.9%	100.0%
		% 5.6%	% 94.4%	100.0%

$\chi^2=260.298^{***}$

$p < .05^*$, $p < .01^{**}$, $p < .001^{***}$

성별로 최근 1년 동안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험률(7.0%)이 여학생의 경험률(4.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5) 자살 생각 경험

〈표 145〉 성별 자살 생각 경험

구분	사례수 %	자살 생각을 해 본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성 별	남	빈도 5,764	빈도 29,451	35,215
	여	빈도 9,017	빈도 22,207	
전 체	남	빈도 14,781	빈도 51,658	66,439
	여	빈도 14,781	빈도 51,658	
		% 16.4%	% 83.6%	100.0%
		% 28.9%	% 71.1%	100.0%
		% 22.2%	% 77.8%	100.0%

$\chi^2=1497.408^{***}$

$p < .05^*$, $p < .01^{**}$, $p < .001^{***}$

성별로 최근 1년 동안 자살 생각을 해 본 경험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험률(28.9%)이 남학생의 경험률(16.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6) 자살 시도 경험

〈표 146〉 성별 자살 시도 경험

구분	사례수 %	자살시도를 해 본 경험		전체
		전혀없음	거의 매일	
성 별	남 빈도	1,927	33,271	35,198
	%	5.5%	94.5%	100.0%
전 체	여 빈도	2,522	28,697	31,219
	%	8.1%	91.9%	100.0%
전 체	빈도	4,449	61,968	66,417
	%	6.7%	93.3%	100.0%

$$\chi^2=179.456^{***}$$

$$p < .05^*, p < .01^{**}, p < .001^{***}$$

성별로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시도 해 본 경험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험률(8.1%)이 남학생의 경험률(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3) 학교급별

(1)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표 147〉 학교급별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중 학 교	빈도	27,546	1,196	342	150	109	29,343
	%	93.9%	4.1%	1.2%	0.5%	0.4%	100.0%
인 문 계 고	빈도	20,441	738	190	78	78	21,525
	%	95.0%	3.4%	0.9%	0.4%	0.4%	100.0%
학 교 전 문 계 고	빈도	14,218	530	200	76	82	15,106
	%	94.1%	3.5%	1.3%	0.5%	0.5%	100.0%
학 교 에 다 니 지 않 음	빈도	516	33	25	20	17	611
	%	84.5%	5.4%	4.1%	3.3%	2.8%	100.0%
전 체	빈도	62,721	2,497	757	324	286	66,585
	%	94.2%	3.8%	1.1%	0.5%	0.4%	100.0%

$$\chi^2=285.495^{***}$$

$$p < .05^*, p < .01^{**}, p < .001^{***}$$

학교급별로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을 살펴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84.5%), 중학교(93.9%), 전문계고(94.1%), 인문계고(95.0%) 순으로 학대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주기에 상관없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의 가정내 신체적 학대 경험 비율이 타 학교급 응답자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2)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표 148〉 학교급별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정에서의 폭언 욕설에 시달린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중학교	빈도	26,190	1,723	604	494	331	29,342
	%	89.3%	5.9%	2.1%	1.7%	1.1%	100.0%
인문계고	빈도	19,282	1,222	465	339	207	21,515
	%	89.6%	5.7%	2.2%	1.6%	1.0%	100.0%
전문계고	빈도	13,452	748	386	310	222	15,118
	%	89.0%	4.9%	2.6%	2.1%	1.5%	100.0%
학교에다 나지않음	빈도	466	34	26	26	59	611
	%	76.3%	5.6%	4.3%	4.3%	9.7%	100.0%
전 체	빈도	59,390	3,727	1,481	1,169	819	66,586
	%	89.2%	5.6%	2.2%	1.8%	1.2%	100.0%

$\chi^2=459.090^{***}$ $p < .05^*$, $p < .01^{**}$, $p < .001^{***}$

학교급별로 가정에서의 폭언, 욕설에 시달린 경험을 살펴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76.3%), 전문계고(89.0%), 중학교(89.3%), 인문계고(89.6%) 순으로 폭언, 욕설에 시달린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주기에 상관없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의 가정내 폭언, 욕설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3) 3일 이상 가출 시도 경험

〈표 149〉 학교급별 3일 이상 가출 시도 경험

구분	사례수 %	3일 이상 가출 시도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중학교	빈도	27,543	1,212	312	129	154	29,350
	%	93.8%	4.1%	1.1%	0.4%	0.5%	100.0%
인문계고	빈도	20,381	809	173	50	97	21,510
	%	94.8%	3.8%	0.8%	0.2%	0.5%	100.0%
전문계고	빈도	13,724	937	223	92	137	15,113
	%	90.8%	6.2%	1.5%	0.6%	0.9%	100.0%
학교에다 나지않음	빈도	384	81	39	24	83	611
	%	62.8%	13.3%	6.4%	3.9%	13.6%	100.0%
전 체	빈도	62,032	3,039	747	295	471	66,584
	%	93.2%	4.6%	1.1%	0.4%	0.7%	100.0%

$$\chi^2=2169.629^{***}$$

$$p<.05^*, p<.01^{**}, p<.001^{***}$$

학교급별로 3일 이상 가출 시도 경험을 살펴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62.8%), 전문계고(90.8%), 중학교(93.8%), 인문계고(94.8%) 순으로 가출 시도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주기에 상관없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의 가출 시도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4)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표 150〉 학교급별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구분	사례수 %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중학교	빈도	22,852	4,239	1,174	616	440	29,321
	%	77.9%	14.5%	4.0%	2.1%	1.5%	100.0%
인문계고	빈도	17,118	3,151	746	237	231	21,483
	%	79.7%	14.7%	3.5%	1.1%	1.1%	100.0%
전문계고	빈도	11,650	2,167	687	335	254	15,093
	%	77.2%	14.4%	4.6%	2.2%	1.7%	100.0%
학교에다 나지않음	빈도	391	84	35	35	66	611
	%	64.0%	13.7%	5.7%	5.7%	10.8%	100.0%
전 체	빈도	52,011	9,641	2,642	1,223	991	66,508
	%	78.2%	14.5%	4.0%	1.8%	1.5%	100.0%

$$\chi^2=576.5128^{***}$$

$$p<.05^*, p<.01^{**}, p<.001^{***}$$

학교급별로 가정에서의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을 살펴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64.0%), 전문계고(77.2%), 중학교(77.9%), 인문계고(79.7%) 순으로 가출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에 1-2번’ 고민은 인문계고(14.7%)에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주기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의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5)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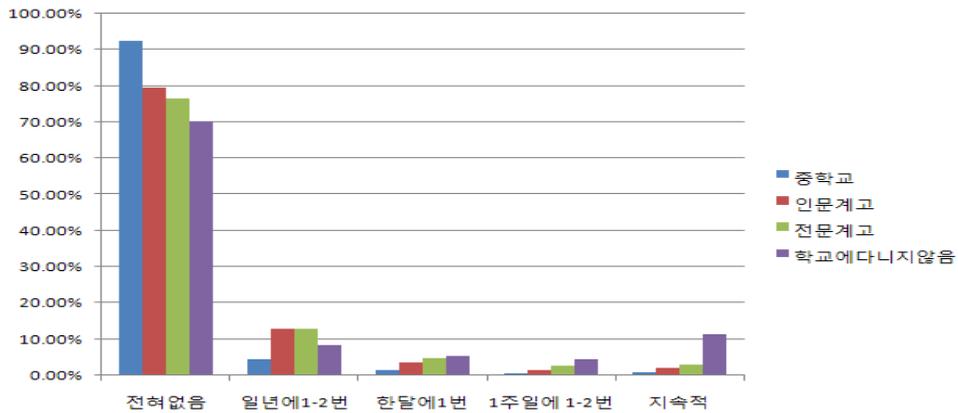
〈표 151〉 학교급별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구분	사례 수 %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중학교	빈도	27,148	1,295	400	212	269	29,324
	%	92.6%	4.4%	1.4%	0.7%	0.9%	100.0%
인문계고	빈도	17,128	2,789	759	351	457	21,484
	%	79.7%	13.0%	3.5%	1.6%	2.1%	100.0%
전문계고	빈도	11,569	1,957	718	407	445	15,096
	%	76.6%	13.0%	4.8%	2.7%	2.9%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빈도	425	51	33	27	69	605
	%	70.2%	8.4%	5.5%	4.5%	11.4%	100.0%
전체	빈도	56,270	6,092	1,910	997	1,240	66,509
	%	84.6%	9.2%	2.9%	1.5%	1.9%	100.0%

$\chi^2=3015.905^{***}$

$p < .05^*$, $p < .01^{**}$, $p < .001^{***}$

학교급별로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을 살펴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70.2%), 전문계고(76.6%), 인문계고(79.7%), 중학교(92.6%) 순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에 1-2번’ 고민은 인문계고(13.0%)에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주기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의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6)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표 152〉 학교급별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구분	사례수 %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중학교	빈도	28,910	267	77	36	43	29,333
	%	98.6%	0.9%	0.3%	0.1%	0.1%	100.0%
인문계고	빈도	20,954	344	79	43	74	21,494
	%	97.5%	1.6%	0.4%	0.2%	0.3%	100.0%
전문계고	빈도	14,374	491	103	56	77	15,101
	%	95.2%	3.3%	0.7%	0.4%	0.5%	100.0%
학교에다 나지않음	빈도	488	44	28	21	23	604
	%	80.8%	7.3%	4.6%	3.5%	3.8%	100.0%
전 체	빈도	64,726	1,146	287	156	217	66,532
	%	97.3%	1.7%	0.4%	0.2%	0.3%	100.0%

$\chi^2=1316.115^{***}$

$p<.05^*$, $p<.01^{**}$, $p<.001^{***}$

학교급별로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받은 경험을 살펴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80.8%), 전문계고(95.2%), 인문계고(97.5%), 중학교(98.6%) 순으로 자퇴경고나 퇴학통보를 받아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주기에 상관없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의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7) 학교폭력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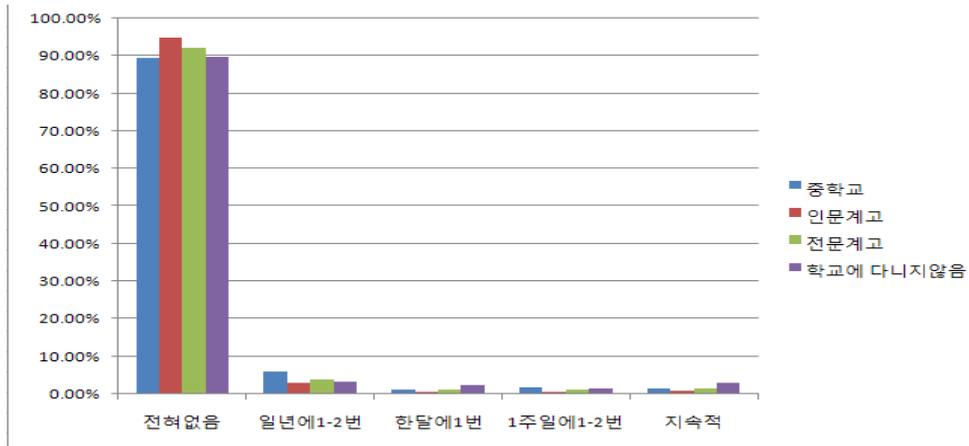
〈표 153〉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구분	사례수 %	학교폭력 피해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중학교	빈도	26,285	1,741	392	496	414	29,328
	%	89.6%	5.9%	1.3%	1.7%	1.4%	100.0%
인문계고	빈도	20,385	631	157	142	193	21,508
	%	94.8%	2.9%	0.7%	0.7%	0.9%	100.0%
전문계고	빈도	13,941	571	194	186	208	15,100
	%	92.3%	3.8%	1.3%	1.2%	1.4%	100.0%
학교에다 나지않음	빈도	547	21	14	9	18	609
	%	89.8%	3.4%	2.3%	1.5%	3.0%	100.0%
전 체	빈도	61,158	2,964	757	833	833	66,545
	%	91.9%	4.5%	1.1%	1.3%	1.3%	100.0%

$\chi^2=510.479^{***}$

$p<.05^*$, $p<.01^{**}$, $p<.001^{***}$

학교급별로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중학교(89.6%),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89.8%), 전문계고(92.3%), 인문계고(94.8%) 순으로 폭력 피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에 1-2번’과 ‘1주일에 1-2번’은 중학교(5.9%, 1.7%)에서, ‘한 달에 한 번’과 ‘지속적’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2.3%, 3.0%)에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8) 학교폭력 가해 경험

〈표 154〉 학교급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구분	사례수 %	학교폭력 가해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중학교	빈도	26,293	1,877	442	376	307	29,295
	%	89.8%	6.4%	1.5%	1.3%	1.0%	100.0%
인문계고	빈도	20,355	712	155	91	172	21,485
	%	94.7%	3.3%	0.7%	0.4%	0.8%	100.0%
전문계고	빈도	13,958	630	176	148	164	15,076
	%	92.6%	4.2%	1.2%	1.0%	1.1%	100.0%
학교에다 나지않음	빈도	517	25	23	18	27	610
	%	84.8%	4.1%	3.8%	3.0%	4.4%	100.0%
전 체	빈도	61,123	3,244	796	633	670	66,466
	%	92.0%	4.9%	1.2%	1.0%	1.0%	100.0%

$$\chi^2=603.603^{***}$$

$$p<.05^*, p<.01^{**}, p<.001^{***}$$

학교급별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살펴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84.8%), 중학교(89.8%), 전문계고(92.6%), 인문계고(94.7%) 순으로 가해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에 1-2번’ 경험은 중학교(6.4%)에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주기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의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9)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표 155〉 학교급별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스,본드,마약류 흡입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중학교	빈도	29,026	125	57	33	73	29,314
	%	99.0%	0.4%	0.2%	0.1%	0.2%	100.0%
인문계고	빈도	21,282	65	36	30	79	21,492
	%	99.0%	0.3%	0.2%	0.1%	0.4%	100.0%
전문계고	빈도	14,854	61	57	32	90	15,094
	%	98.4%	0.4%	0.4%	0.2%	0.6%	100.0%
학교에다 나지않음	빈도	572	7	8	6	17	610
	%	93.8%	1.1%	1.3%	1.0%	2.8%	100.0%
전 체	빈도	65,734	258	158	101	259	66,510
	%	98.8%	0.4%	0.2%	0.2%	0.4%	100.0%

$\chi^2=221.492^{***}$

$p<.05^*$, $p<.01^{**}$, $p<.001^{***}$

학교급별로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을 살펴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93.8%), 전문계고(98.4%), 중학교와 인문계고(99.0%) 순으로 약물 흡입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주기에 상관없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의 가출 시도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0) 음주, 흡연 경험

〈표 156〉 학교급별 음주, 흡연 경험

구분	사례수 %	음주, 흡연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중학교	빈도	25,495	1,832	906	490	577	29,300
	%	87.0%	6.3%	3.1%	1.7%	2.0%	100.0%
인문계고	빈도	15,661	2,443	1,665	579	1,134	21,482
	%	72.9%	11.4%	7.8%	2.7%	5.3%	100.0%
전문계고	빈도	8,870	1,495	1,614	1,014	2,084	15,077
	%	58.8%	9.9%	10.7%	6.7%	13.8%	100.0%
학교에다 나지않음	빈도	269	35	39	48	219	610
	%	44.1%	5.7%	6.4%	7.9%	35.9%	100.0%

전	빈도	50,295	5,805	4,224	2,131	4,014	66,469	
체	%	75.7%	8.7%	6.4%	3.2%	6.0%	100.0%	
		$\chi^2=6672.933^{***}$					$p<.05^*$, $p<.01^{**}$, $p<.001^{***}$	

학교급별로 음주, 흡연 경험을 살펴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44.1%), 전문계고(58.8%), 인문계고(72.9%), 중학교(87.0%) 순으로 음주, 흡연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주기에 상관없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의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1)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표 157〉 학교급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구분	사례 수 %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중학교	빈도	22,256	3,577	1,677	1,202	598	29,310
	%	75.9%	12.2%	5.7%	4.1%	2.0%	100.0%
학	빈도	16,146	2,458	1,570	921	388	21,483
	%	75.2%	11.4%	7.3%	4.3%	1.8%	100.0%
교	빈도	11,984	1,297	825	632	349	15,087
	%	79.4%	8.6%	5.5%	4.2%	2.3%	100.0%
학교에다 나지않음	빈도	466	42	30	38	35	611
	%	76.3%	6.9%	4.9%	6.2%	5.7%	100.0%
전	빈도	50,852	7,374	4,102	2,793	1,370	66,491
	%	76.5%	11.1%	6.2%	4.2%	2.1%	100.0%

$\chi^2=279.470^{***}$ $p<.05^*$, $p<.01^{**}$, $p<.001^{***}$

학교급별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을 살펴보면, 인문계고(75.2%), 중학교(75.9%),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76.3%), 전문계고(79.4%) 순으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에 1-2번’ 경험은 중학교(12.2%)에서, ‘한 달에 한 번’ 경험은 인문계고(7.3%)에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주기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의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2)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표 158〉 학교급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구분	사례수 %	인터넷으로 인해 제대로 일을 못한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중학교	빈도	16,332	5,134	3,576	2,983	1,300	29,325
	%	55.7%	17.5%	12.2%	10.2%	4.4%	100.0%
인문계고	빈도	11,048	3,404	3,249	2,682	1,118	21,501
	%	51.4%	15.8%	15.1%	12.5%	5.2%	100.0%
전문계고	빈도	9,879	1,826	1,442	1,319	641	15,107
	%	65.4%	12.1%	9.5%	8.7%	4.2%	100.0%
학교에다 나지않음	빈도	427	52	45	43	44	611
	%	69.9%	8.5%	7.4%	7.0%	7.2%	100.0%
전 체	빈도	37,686	10,416	8,312	7,027	3,103	66,544
	%	56.6%	15.7%	12.5%	10.6%	4.7%	100.0%

$\chi^2=942.919^{***}$ $p<.05^*$, $p<.01^{**}$, $p<.001^{***}$

학교급별로 인터넷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을 살펴보면, 인문계고(51.4%), 중학교(55.7%), 전문계고(65.4%),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69.9%) 순으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에 1-2번’ 경험은 중학교(17.5%)에서, ‘한 달에 한 번’과 ‘일주일에 1-2번’ 경험은 인문계고(15.1%, 12.5%)에서 가장 많았으며, ‘지속적’ 경험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의 경험 비율(7.2%)이 높았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3)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표 159〉 학교급별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구분	사례수 %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중학교	빈도	26,326	2,183	467	190	144	29,310
	%	89.8%	7.4%	1.6%	0.6%	0.5%	100.0%
인문계고	빈도	19,387	1,567	324	99	113	21,490
	%	90.2%	7.3%	1.5%	0.5%	0.5%	100.0%
전문계고	빈도	13,449	1,204	242	79	114	15,088
	%	89.1%	8.0%	1.6%	0.5%	0.8%	100.0%

	학교에다 니지않음	빈도 %	470 77.3%	71 11.7%	28 4.6%	14 2.3%	25 4.1%	608 100.0%
전 체	빈도 %	59,632 89.7%	5,025 7.6%	1,061 1.6%	382 0.6%	396 0.6%	66,496 100.0%	

$\chi^2=246.620^{***}$ $p<.05^*$, $p<.01^{**}$, $p<.001^{***}$

학교급별로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험을 살펴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77.3%), 전문계고(89.1%), 중학교(89.8%), 인문계고(90.2%) 순으로 훔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주기에 상관없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의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4)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표 160〉 학교급별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구분	사례수 %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뺏은 경험					지속적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중학교	빈도	27,222	1,436	317	138	105	29,218	
	%	93.2%	4.9%	1.1%	0.5%	0.4%	100.0%	
학 교	인문계고	빈도	20,530	673	127	50	91	21,471
	%	95.6%	3.1%	0.6%	0.2%	0.4%	100.0%	
전 문 계 고	빈도	14,006	691	178	76	105	15,056	
	%	93.0%	4.6%	1.2%	0.5%	0.7%	100.0%	
학 교 에 다 니 지 않 음	빈도	486	50	25	19	31	611	
	%	79.5%	8.2%	4.1%	3.1%	5.1%	100.0%	
전 체	빈도	62,244	2,850	647	283	332	66,356	
	%	93.8%	4.3%	1.0%	0.4%	0.5%	100.0%	

$\chi^2=651.358^{***}$ $p<.05^*$, $p<.01^{**}$, $p<.001^{***}$

학교급별로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뺏은 경험을 살펴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79.5%), 전문계고(93.0%), 중학교(93.2%), 인문계고(95.6%) 순으로 뺏은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주기에 상관없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의 경험 비율이 타 학교급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5)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표 161〉 학교급별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구분	사례수 %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중학교	빈도	1,652	27,537	29,189
	%	5.7%	94.3%	100.0%
학 교	인문계고	1,501	19,958	21,459
	%	7.0%	93.0%	100.0%
교	전문계고	1,185	13,890	15,075
	%	7.9%	92.1%	100.0%
학교에다 니지않음	빈도	94	515	609
	%	15.4%	84.6%	100.0%
전 체	빈도	4,432	61,900	66,332
	%	6.7%	93.3%	100.0%

$\chi^2=160.719^{***}$

$p<.05^*$, $p<.01^{**}$, $p<.001^{***}$

학교급별로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을 살펴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15.4%), 전문계고(7.9%), 인문계고(7.0%), 중학교(5.7%) 순으로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6)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표 162〉 학교급별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구분	사례수 %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중학교	빈도	1,263	27,940	29,203
	%	4.3%	95.7%	100.0%
학 교	인문계고	1,275	20,186	21,461
	%	5.9%	94.1%	100.0%
교	전문계고	1,086	13,985	15,071
	%	7.2%	92.8%	100.0%
학교에다 니지않음	빈도	92	518	610
	%	15.1%	84.9%	100.0%
전 체	빈도	3,716	62,629	66,345
	%	5.6%	94.4%	100.0%

$\chi^2=271.7571^{***}$

$p<.05^*$, $p<.01^{**}$, $p<.001^{***}$

학교급별로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을 살펴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15.1%), 전문계고(7.2%), 인문계고(5.9%), 중학교(4.3%) 순으로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7) 자살 생각 경험

〈표 163〉 학교급별 자살 생각 경험

구분	사례수 %	자살 생각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중학교	빈도	6,788	22,416	29,204
	%	23.2%	76.8%	100.0%
학 교	인문계고	4,571	16,892	21,463
	%	21.3%	78.7%	100.0%
전 체	전문계고	3,213	11,864	15,077
	%	21.3%	78.7%	100.0%
학교에다 나지않음	빈도	183	428	611
	%	30.0%	70.0%	100.0%
전 체	빈도	14,755	51,600	66,355
	%	22.2%	77.8%	100.0%

$$\chi^2=56.579^{***}$$

$$p < .05^*, p < .01^{**}, p < .001^{***}$$

학교급별로 자살 생각을 한 경험을 살펴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30.0%), 중학교(23.2%), 전문계고와 인문계고(21.3%) 순으로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8) 자살 시도 경험

〈표 164〉 학교급별 자살 시도 경험

구분	사례수 %	자살 시도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중학교	빈도	1,901	27,299	29,200
	%	6.5%	93.5%	100.0%
학 교	인문계고	1,259	20,199	21,458
	%	5.9%	94.1%	100.0%
전 체	전문계고	1,164	13,899	15,063
	%	7.7%	92.3%	100.0%

	학교에다 나지않음	빈도 %	106 17.3%	505 82.7%	611 100.0%
전 체		빈도 %	4,430 6.7%	61,902 93.3%	66,332 100.0%
			$\chi^2=162.194^{***}$ $p<.05^*$, $p<.01^{**}$, $p<.001^{***}$		

학교급별로 자살 시도 경험을 살펴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17.3%), 전문계고(7.7%), 중학교(6.5%), 인문계고(5.9%) 순으로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4) 학년별

(1)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표 165〉 학년별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중1	빈도	8,765	413	124	45	34	9,381	
	%	93.4%	4.4%	1.3%	0.5%	0.4%	100.0%	
중2	빈도	10,800	460	124	63	49	11,496	
	%	93.9%	4.0%	1.1%	0.5%	0.4%	100.0%	
중3	빈도	8,353	346	107	43	30	8,879	
	%	94.1%	3.9%	1.2%	0.5%	0.3%	100.0%	
학 년	고1	빈도	16,995	673	200	87	78	18,033
		%	94.2%	3.7%	1.1%	0.5%	0.4%	100.0%
	고2	빈도	11,614	414	125	49	57	12,259
		%	94.7%	3.4%	1.0%	0.4%	0.5%	100.0%
	고3	빈도	5,713	163	62	24	29	5,991
		%	95.4%	2.7%	1.0%	0.4%	0.5%	100.0%
	해당없음	빈도	322	21	18	13	9	383
		%	84.1%	5.5%	4.7%	3.4%	2.3%	100.0%
전 체		빈도	62,562	2,490	760	324	286	66,422
		%	94.2%	3.7%	1.1%	0.5%	0.4%	100.0%
			$\chi^2=198.236^{***}$ $p<.05^*$, $p<.01^{**}$, $p<.001^{***}$					

학년별로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을 살펴보면, 학년이 낮을수록 가정에서의 학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와 상관없이 타 학년과 비교하여 '해당없음' 집단의 학대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2)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표 166〉 학년별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중1	빈도	8,359	567	207	151	98	9,382	
	%	89.1%	6.0%	2.2%	1.6%	1.0%	100.0%	
중2	빈도	10,266	656	231	208	136	11,497	
	%	89.3%	5.7%	2.0%	1.8%	1.2%	100.0%	
중3	빈도	7,924	520	180	144	108	8,876	
	%	89.3%	5.9%	2.0%	1.6%	1.2%	100.0%	
학 년	고1	빈도	16,045	1,019	416	320	231	18,031
	%	89.0%	5.7%	2.3%	1.8%	1.3%	100.0%	
	고2	빈도	10,945	657	294	223	141	12,260
	%	89.3%	5.4%	2.4%	1.8%	1.2%	100.0%	
	고3	빈도	5,404	286	133	99	72	5,994
	%	90.2%	4.8%	2.2%	1.7%	1.2%	100.0%	
해당없음	빈도	286	22	22	21	32	383	
	%	74.7%	5.7%	5.7%	5.5%	8.4%	100.0%	
전 체	빈도	59,229	3,727	1,483	1,166	818	66,423	
	%	89.2%	5.6%	2.2%	1.8%	1.2%	100.0%	

$\chi^2=245.448^{***}$

$p < .05^*$, $p < .01^{**}$, $p < .001^{***}$

학년별로 가정에서의 폭언과 욕설에 시달린 경험을 살펴보면, ‘해당없음’ 집단(74.7%)이 타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고 있었다. ‘일년에 1-2번’에서는 중1(6.0%)이, 나머지 주기에서는 ‘해당없음’의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3) 3일 이상 가출 시도 경험

〈표 167〉 학년별 3일 이상 가출 시도 경험

구 분	사례수 %	3일 이상 가출 시도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중1	빈도	8,842	365	100	43	36	9,386	
	%	94.2%	3.9%	1.1%	0.5%	0.4%	100.0%	
중2	빈도	10,790	486	108	51	66	11,501	
	%	93.8%	4.2%	0.9%	0.4%	0.6%	100.0%	
중3	빈도	8,269	382	114	44	67	8,876	
	%	93.2%	4.3%	1.3%	0.5%	0.8%	100.0%	
학 년	고1	빈도	16,680	932	223	77	119	18,031
		%	92.5%	5.2%	1.2%	0.4%	0.7%	100.0%
	고2	빈도	11,377	605	131	49	89	12,251
		%	92.9%	4.9%	1.1%	0.4%	0.7%	100.0%
	고3	빈도	5,665	220	45	23	40	5,993
		%	94.5%	3.7%	0.8%	0.4%	0.7%	100.0%
해 당 없 음	빈도	246	47	29	9	52	383	
		%	64.2%	12.3%	7.6%	2.3%	13.6%	100.0%
전 체	빈도	61,869	3,037	750	296	469	66,421	
		%	93.1%	4.6%	1.1%	0.4%	0.7%	100.0%

$\chi^2=1235.873^{***}$

$p < .05^*$, $p < .01^{**}$, $p < .001^{***}$

학년별로 3일 이상 가출 시도 경험을 살펴보면, '해당없음' 집단(64.2%)이 타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가출 시도 경험을 하고 있었다. 주기와 상관없이 '해당없음'의 경험률이 타 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4)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표 168〉 학년별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구분	사례수 %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중1	빈도	7,444	1,274	330	188	134	9,370
	%	79.4%	13.6%	3.5%	2.0%	1.4%	100.0%
중2	빈도	8,830	1,739	511	229	188	11,497
	%	76.8%	15.1%	4.4%	2.0%	1.6%	100.0%
중3	빈도	6,887	1,280	355	212	134	8,868
	%	77.7%	14.4%	4.0%	2.4%	1.5%	100.0%
학 년 고1	빈도	13,899	2,724	796	327	254	18,000
	%	77.2%	15.1%	4.4%	1.8%	1.4%	100.0%
고2	빈도	9,643	1,798	455	176	167	12,239
	%	78.8%	14.7%	3.7%	1.4%	1.4%	100.0%
고3	빈도	4,914	760	176	66	72	5,988
	%	82.1%	12.7%	2.9%	1.1%	1.2%	100.0%
해당없음	빈도	243	57	20	24	39	383
	%	63.4%	14.9%	5.2%	6.3%	10.2%	100.0%
전 체	빈도	51,860	9,632	2,643	1,222	988	66,345
	%	78.2%	14.5%	4.0%	1.8%	1.5%	100.0%

$\chi^2=385.260^{***}$ $p < .05^*$, $p < .01^{**}$, $p < .001^{***}$

학년별로 심각한 가출 고민경험을 살펴보면, ‘해당없음’ 집단(63.4%)이 타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가출 고민을 경험하고 있었다. ‘일년에 1-2번’에서는 중2와 고2(15.1%)가, 나머지 주기에서는 ‘해당없음’의 고민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5)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표 169〉 학년별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구분	사례수 %	심각한 학업 중단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중1	빈도	8,734	379	116	69	70	9,368	
	%	93.2%	4.0%	1.2%	0.7%	0.7%	100.0%	
중2	빈도	10,632	509	165	73	119	11,498	
	%	92.5%	4.4%	1.4%	0.6%	1.0%	100.0%	
중3	빈도	8,118	440	133	77	103	8,871	
	%	91.5%	5.0%	1.5%	0.9%	1.2%	100.0%	
학 년	고1	빈도	14,272	2,040	798	428	462	18,000
		%	79.3%	11.3%	4.4%	2.4%	2.6%	100.0%
	고2	빈도	9,189	1,920	528	265	337	12,239
		%	75.1%	15.7%	4.3%	2.2%	2.8%	100.0%
	고3	빈도	4,878	774	157	70	111	5,990
		%	81.4%	12.9%	2.6%	1.2%	1.9%	100.0%
	해당없음	빈도	278	31	16	16	39	380
		%	73.2%	8.2%	4.2%	4.2%	10.3%	100.0%
전체	빈도	56,101	6,093	1,913	998	1,241	66,346	
		%	84.6%	9.2%	2.9%	1.5%	1.9%	100.0%

$\chi^2=3001.878^{***}$

$p < .05^*$, $p < .01^{**}$, $p < .001^{***}$

학년별로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을 살펴보면, ‘해당없음’ 집단(73.2%)이 타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학업중단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일년에 1-2번’에서는 고2(15.7%)가, ‘한달에 한번’과 ‘1주일에 1-2번’에서는 고1(4.4%, 2.4%)이, ‘1주일에 1-2번’과 ‘지속적’에서는 해당없음(4.2%, 10.3%)이 높은 고민 경험률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6)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표 170〉 학년별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구분	사례수 %	자퇴경고, 퇴학통보 받은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중1	빈도	9,275	48	29	11	11	9,374
	%	98.9%	0.5%	0.3%	0.1%	0.1%	100.0%
중2	빈도	11,329	117	29	9	16	11,500
	%	98.5%	1.0%	0.3%	0.1%	0.1%	100.0%
중3	빈도	8,696	110	27	20	18	8,871
	%	98.0%	1.2%	0.3%	0.2%	0.2%	100.0%
학 년 고1	빈도	17,455	330	98	60	66	18,009
	%	96.9%	1.8%	0.5%	0.3%	0.4%	100.0%
고2	빈도	11,720	360	71	30	64	12,245
	%	95.7%	2.9%	0.6%	0.2%	0.5%	100.0%
고3	빈도	5,770	157	24	14	26	5,991
	%	96.3%	2.6%	0.4%	0.2%	0.4%	100.0%
해 당 없 음	빈도	317	24	13	13	12	379
	%	83.6%	6.3%	3.4%	3.4%	3.2%	100.0%
전 체	빈도	64,562	1,146	291	157	213	66,369
	%	97.3%	1.7%	0.4%	0.2%	0.3%	100.0%

$\chi^2=756.655^{***}$

$p<.05^*$, $p<.01^{**}$, $p<.001^{***}$

학년별로 자퇴경고, 퇴학통보를 받은 경험을 살펴보면, ‘해당없음’ 집단(83.6%)이 타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자퇴경고, 퇴학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와 상관없이 ‘해당없음’의 경험률이 타 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7) 학교폭력 피해 경험

〈표 171〉 학년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구분	사례수 %	학교폭력 피해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중1	빈도	8,202	651	153	189	176	9,371	
	%	87.5%	6.9%	1.6%	2.0%	1.9%	100.0%	
중2	빈도	10,277	695	161	203	155	11,491	
	%	89.4%	6.0%	1.4%	1.8%	1.3%	100.0%	
중3	빈도	8,170	413	85	114	95	8,877	
	%	92.0%	4.7%	1.0%	1.3%	1.1%	100.0%	
학 년	고1	빈도	16,801	631	197	200	202	18,031
		%	93.2%	3.5%	1.1%	1.1%	1.1%	100.0%
	고2	빈도	11,507	414	107	89	132	12,249
		%	93.9%	3.4%	0.9%	0.7%	1.1%	100.0%
	고3	빈도	5,693	148	45	33	63	5,982
		%	95.2%	2.5%	0.8%	0.6%	1.1%	100.0%
	해당없음	빈도	349	9	9	6	10	383
		%	91.1%	2.3%	2.3%	1.6%	2.6%	100.0%
전 체	빈도	60,999	2,961	757	834	833	66,384	
		%	91.9%	4.5%	1.1%	1.3%	1.3%	100.0%

$\chi^2=581.657^{***}$

$p<.05^*$, $p<.01^{**}$, $p<.001^{***}$

학년별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1의 경우, 응답자의 12.5%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학교폭력을 경험한다는 응답은 중 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응답은 해당없음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8) 학교폭력 가해 경험

〈표 172〉 학년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구분	사례수 %	학교폭력 가해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중1	빈도	8,239	682	172	148	118	9,359	
	%	88.0%	7.3%	1.8%	1.6%	1.3%	100.0%	
중2	빈도	10,304	742	167	153	112	11,478	
	%	89.8%	6.5%	1.5%	1.3%	1.0%	100.0%	
중3	빈도	8,122	472	114	83	80	8,871	
	%	91.6%	5.3%	1.3%	0.9%	0.9%	100.0%	
학 년	고1	빈도	16,762	725	197	141	172	17,997
		%	93.1%	4.0%	1.1%	0.8%	1.0%	100.0%
	고2	빈도	11,516	439	92	70	113	12,230
		%	94.2%	3.6%	0.8%	0.6%	0.9%	100.0%
	고3	빈도	5,694	165	42	27	57	5,985
		%	95.1%	2.8%	0.7%	0.5%	1.0%	100.0%
	해당없음	빈도	328	16	12	9	18	383
		%	85.6%	4.2%	3.1%	2.3%	4.7%	100.0%
전 체	빈도	60,965	3,241	796	631	670	66,303	
		%	91.9%	4.9%	1.2%	1.0%	1.0%	100.0%

$\chi^2=585.647^{***}$

$p<.05^*$, $p<.01^{**}$, $p<.001^{***}$

학년별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살펴보면, 해당없음 집단(85.6%)의 가해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에 1-2번’의 경험은 중 1에서, 나머지 주기의 경험은 해당없음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9)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표 173〉 학년별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중1	빈도	9,283	40	27	5	14	9,369	
	%	99.1%	0.4%	0.3%	0.1%	0.1%	100.0%	
중2	빈도	11,371	47	22	17	31	11,488	
	%	99.0%	0.4%	0.2%	0.1%	0.3%	100.0%	
중3	빈도	8,778	38	15	13	27	8,871	
	%	99.0%	0.4%	0.2%	0.1%	0.3%	100.0%	
학 년	고1	빈도	17,792	62	42	31	74	18,001
	%	98.8%	0.3%	0.2%	0.2%	0.4%	100.0%	
	고2	빈도	12,081	41	35	16	71	12,244
	%	98.7%	0.3%	0.3%	0.1%	0.6%	100.0%	
	고3	빈도	5,905	22	19	16	29	5,991
	%	98.6%	0.4%	0.3%	0.3%	0.5%	100.0%	
해당없음	빈도	360	5	1	3	14	383	
	%	94.0%	1.3%	0.3%	0.8%	3.7%	100.0%	
전 체	빈도	65,570	255	161	101	260	66,347	
	%	98.8%	0.4%	0.2%	0.2%	0.4%	100.0%	

$\chi^2=177.437^{***}$

$p<.05^*$, $p<.01^{**}$, $p<.001^{***}$

학년별로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을 살펴보면, 중1에서 고3까지의 흡입경험률이 각 학년집단의 1.4%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해당없음 집단의 약물 흡입 경험자는 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0) 음주, 흡연 경험

〈표 174〉 학년별 음주, 흡연 경험

구분	사례수 %	음주, 흡연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중1	빈도	8,545	480	190	83	64	9,362	
	%	91.3%	5.1%	2.0%	0.9%	0.7%	100.0%	
중2	빈도	9,995	752	346	192	199	11,484	
	%	87.0%	6.5%	3.0%	1.7%	1.7%	100.0%	
중3	빈도	7,266	633	394	225	350	8,868	
	%	81.9%	7.1%	4.4%	2.5%	3.9%	100.0%	
학 년	고1	빈도	12,818	1,820	1,378	677	1,298	17,991
		%	71.2%	10.1%	7.7%	3.8%	7.2%	100.0%
	고2	빈도	7,813	1,386	1,161	607	1,266	12,233
		%	63.9%	11.3%	9.5%	5.0%	10.3%	100.0%
	고3	빈도	3,574	688	714	315	696	5,987
		%	59.7%	11.5%	11.9%	5.3%	11.6%	100.0%
	해당없음	빈도	186	28	23	18	128	383
		%	48.6%	7.3%	6.0%	4.7%	33.4%	100.0%
전 체	빈도	50,197	5,787	4,206	2,117	4,001	66,308	
		%	75.7%	8.7%	6.3%	3.2%	6.0%	100.0%

$\chi^2=5066.946^{***}$

$p<.05^*$, $p<.01^{**}$, $p<.001^{***}$

학년별로 음주, 흡연 경험을 살펴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주, 흡연 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없음 집단(48.6%)의 음주, 흡연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고3의 경우는 40%가량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중1은 9% 가량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해당없음 집단의 33.4%와 고1의 11.6%는 '지속적'으로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1)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표 175〉 학년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구분	사례수 %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중1	빈도	7,342	1,093	440	332	160	9,367	
	%	78.4%	11.7%	4.7%	3.5%	1.7%	100.0%	
중2	빈도	8,715	1,381	703	456	235	11,490	
	%	75.8%	12.0%	6.1%	4.0%	2.0%	100.0%	
중3	빈도	6,498	1,153	576	432	210	8,869	
	%	73.3%	13.0%	6.5%	4.9%	2.4%	100.0%	
학 년	고1	빈도	13,691	1,924	1,222	787	371	17,995
		%	76.1%	10.7%	6.8%	4.4%	2.1%	100.0%
	고2	빈도	9,409	1,245	802	529	252	12,237
		%	76.9%	10.2%	6.6%	4.3%	2.1%	100.0%
	고3	빈도	4,783	533	335	222	116	5,989
		%	79.9%	8.9%	5.6%	3.7%	1.9%	100.0%
해당없음	빈도	287	28	16	26	26	383	
	%	74.9%	7.3%	4.2%	6.8%	6.8%	100.0%	
전 체	빈도	50,725	7,357	4,094	2,784	1,370	66,330	
	%	76.5%	11.1%	6.2%	4.2%	2.1%	100.0%	

$\chi^2=248.136^{***}$

$p<.05^*$, $p<.01^{**}$, $p<.001^{***}$

학년별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을 살펴보면, 중3(73.3%)이 상대적으로 높은 갈등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해당없음(74.9%), 중2(75.8%), 고1(76.1%) 순으로 갈등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에 1-2번’ 경험은 중3에서, ‘한 달에 1번’ 경험은 고1에서, ‘1주일에 1-2번’과 ‘지속적’ 경험은 해당없음에서 상대적으로 갈등이 많았다. 이와 같은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2)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표 176〉 학년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구분	사례수 %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제대로 일을 못함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중1	빈도	5,485	1,719	1,019	804	347	9,374	
	%	58.5%	18.3%	10.9%	8.6%	3.7%	100.0%	
중2	빈도	6,325	2,070	1,403	1,174	519	11,491	
	%	55.0%	18.0%	12.2%	10.2%	4.5%	100.0%	
중3	빈도	4,769	1,406	1,198	1,053	444	8,870	
	%	53.8%	15.9%	13.5%	11.9%	5.0%	100.0%	
학 년	고1	빈도	10,087	2,749	2,357	1,984	848	18,025
		%	56.0%	15.3%	13.1%	11.0%	4.7%	100.0%
	고2	빈도	7,005	1,658	1,587	1,363	641	12,254
		%	57.2%	13.5%	13.0%	11.1%	5.2%	100.0%
	고3	빈도	3,673	761	697	594	259	5,984
		%	61.4%	12.7%	11.6%	9.9%	4.3%	100.0%
	해당없음	빈도	249	34	32	39	29	383
		%	65.0%	8.9%	8.4%	10.2%	7.6%	100.0%
전 체	빈도	37,593	10,397	8,293	7,011	3,087	66,381	
		%	56.6%	15.7%	12.5%	10.6%	4.7%	100.0%

$\chi^2=361.809^{***}$

$p<.05^*$, $p<.01^{**}$, $p<.001^{***}$

학년별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못한 경험을 살펴보면, 중3(53.8%)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험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중2(55.0%), 고1(56.0%), 고2(57.2%)순으로 인터넷이 일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해당없음(7.6%)이었다. 이와 같은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3)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표 177〉 학년별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구분	사례수 %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중1	빈도	8,551	616	120	49	33	9,369	
	%	91.3%	6.6%	1.3%	0.5%	0.4%	100.0%	
중2	빈도	10,279	890	177	86	54	11,486	
	%	89.5%	7.7%	1.5%	0.7%	0.5%	100.0%	
중3	빈도	7,846	711	187	64	61	8,869	
	%	88.5%	8.0%	2.1%	0.7%	0.7%	100.0%	
학 년	고1	빈도	16,014	1,456	306	109	111	17,996
		%	89.0%	8.1%	1.7%	0.6%	0.6%	100.0%
	고2	빈도	11,001	920	198	44	80	12,243
		%	89.9%	7.5%	1.6%	0.4%	0.7%	100.0%
	고3	빈도	5,503	367	60	19	41	5,990
		%	91.9%	6.1%	1.0%	0.3%	0.7%	100.0%
	해당없음	빈도	292	51	12	12	14	381
		%	76.6%	13.4%	3.1%	3.1%	3.7%	100.0%
전 체	빈도	59,486	5,011	1,060	383	394	66,334	
		%	89.7%	7.6%	1.6%	0.6%	0.6%	100.0%

$\chi^2=258.228^{***}$

$p<.05^*$, $p<.01^{**}$, $p<.001^{***}$

학년별로 타인 물건을 훔친 경험을 살펴보면, 해당없음 집단이 타 학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절도 경험률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중3, 고1, 중2, 고2, 중1, 고3 순이었다. 주기와 상관없이 해당없음 집단의 경험률이 타 학년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4)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표 178〉 학년별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구분	사례수 %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중1	빈도	8,717	440	96	51	25	9,329	
	%	93.4%	4.7%	1.0%	0.5%	0.3%	100.0%	
중2	빈도	10,632	609	125	52	38	11,456	
	%	92.8%	5.3%	1.1%	0.5%	0.3%	100.0%	
중3	빈도	8,245	412	99	42	47	8,845	
	%	93.2%	4.7%	1.1%	0.5%	0.5%	100.0%	
학 년	고1	빈도	16,867	754	181	78	91	17,971
		%	93.9%	4.2%	1.0%	0.4%	0.5%	100.0%
	고2	빈도	11,585	433	100	32	73	12,223
		%	94.8%	3.5%	0.8%	0.3%	0.6%	100.0%
	고3	빈도	5,737	164	31	14	40	5,986
		%	95.8%	2.7%	0.5%	0.2%	0.7%	100.0%
	해당없음	빈도	303	35	13	12	19	382
		%	79.3%	9.2%	3.4%	3.1%	5.0%	100.0%
전 체	빈도	62,086	2,847	645	281	333	66,192	
		%	93.8%	4.3%	1.0%	0.4%	0.5%	100.0%

$\chi^2=420.117^{***}$

$p<.05^*$, $p<.01^{**}$, $p<.001^{***}$

학년별로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뺏은 경험을 살펴보면, 해당없음 집단이 타 학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갈취 경험률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중2, 중3, 중1, 고1, 고2, 고3 순이었다. 주기와 상관없이 해당없음 집단의 경험률이 타 학년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5)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표 179〉 학년별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구분	사례수 %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중1	빈도	518	8,803	9,321
	%	5.6%	94.4%	100.0%
중2	빈도	676	10,767	11,443
	%	5.9%	94.1%	100.0%
중3	빈도	513	8,326	8,839
	%	5.8%	94.2%	100.0%
학 년	고1	1,221	16,754	17,975
	%	6.8%	93.2%	100.0%
고2	빈도	917	11,311	12,228
	%	7.5%	92.5%	100.0%
고3	빈도	507	5,476	5,983
	%	8.5%	91.5%	100.0%
해당없음	빈도	61	319	380
	%	16.1%	83.9%	100.0%
전 체	빈도	4,413	61,756	66,169
	%	6.7%	93.3%	100.0%

$\chi^2=138.848^{***}$

$p<.05^*$, $p<.01^{**}$, $p<.001^{***}$

학년별로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을 살펴보면, 해당없음 집단이 16.1%로 가장 많이 성폭력 위협을 경험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고3(8.5%), 고2(7.5%), 고1(6.8%), 중3(5.8%), 중2(5.9%), 중1(5.6%)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폭력 위협을 느끼는 경험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6)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표 180〉 학년별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구분	사례수 %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중1	빈도	362	8,965	9,327
	%	3.9%	96.1%	100.0%
중2	빈도	532	10,910	11,442
	%	4.6%	95.4%	100.0%
중3	빈도	413	8,431	8,844
	%	4.7%	95.3%	100.0%
학 년	고1	1,024	16,951	17,975
	%	5.7%	94.3%	100.0%
고2	빈도	841	11,385	12,226
	%	6.9%	93.1%	100.0%
고3	빈도	463	5,521	5,984
	%	7.7%	92.3%	100.0%
해당없음	빈도	58	324	382
	%	15.2%	84.8%	100.0%
전 체	빈도	3,693	62,487	66,180
	%	5.6%	94.4%	100.0%

$\chi^2=243.119^{***}$

$p<.05^*$, $p<.01^{**}$, $p<.001^{***}$

학년별로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을 살펴보면, 해당없음 집단이 15.2%로 가장 많은 유혹을 경험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고3(7.7%), 고2(6.9%), 고1(5.7%), 중3(4.7%), 중2(4.6%), 중1(3.9%)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폭력 위협을 느끼는 경험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7) 자살 생각 경험

〈표 181〉 학년별 자살 생각 경험

구분	사례수 %	자살 생각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중1	빈도	2,219	7,107	9,326
	%	23.8%	76.2%	100.0%
중2	빈도	2,752	8,696	11,448
	%	24.0%	76.0%	100.0%
중3	빈도	1,921	6,919	8,840
	%	21.7%	78.3%	100.0%
학 년	고1	3,965	14,013	17,978
	%	22.1%	77.9%	100.0%
고2	빈도	2,560	9,672	12,232
	%	20.9%	79.1%	100.0%
고3	빈도	1,179	4,803	5,982
	%	19.7%	80.3%	100.0%
해당없음	빈도	123	260	383
	%	32.1%	67.9%	100.0%
전 체	빈도	14,719	51,470	66,189
	%	22.2%	77.8%	100.0%

$\chi^2=92.048^{***}$

$p<.05^*$, $p<.01^{**}$, $p<.001^{***}$

학년별로 자살 생각 경험을 살펴보면, 해당없음 집단이 32.1%로 자살 생각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중2(24.0%), 중1(23.8%), 고1(22.1%), 중3(21.7%), 고2(20.9%), 고3(19.7%)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8) 자살 시도 경험

〈표 182〉 학년별 자살 시도 경험

구분	사례수 %	자살 시도 경험		전 체	
		있음	없음		
중1	빈도	654	8,671	9,325	
	%	7.0%	93.0%	100.0%	
중2	빈도	765	10,676	11,441	
	%	6.7%	93.3%	100.0%	
중3	빈도	531	8,313	8,844	
	%	6.0%	94.0%	100.0%	
학 년	고1	빈도	1,217	16,754	17,971
	%	6.8%	93.2%	100.0%	
고2	빈도	804	11,418	12,222	
	%	6.6%	93.4%	100.0%	
고3	빈도	383	5,598	5,981	
	%	6.4%	93.6%	100.0%	
해당없음	빈도	65	318	383	
	%	17.0%	83.0%	100.0%	
전 체	빈도	4,419	61,748	66,167	
	%	6.7%	93.3%	100.0%	

$\chi^2=74.411^{***}$

$p<.05^*$, $p<.01^{**}$, $p<.001^{***}$

학년별로 자살 시도 경험을 살펴보면, 해당없음 집단이 17.0%로 자살 시도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중1(7.0%), 고1(6.8%), 중2(6.7%), 고2(6.6%), 고3(6.4%), 중3(6.0%) 순이었다. 이와 같은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5) 가족형태별

(1)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표 183〉 가족형태별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전 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두분모두	빈도	54,294	2,056	554	227	207	57,338	
친부모	%	94.7%	3.6%	1.0%	0.4%	0.4%	100.0%	
아버지만	빈도	2,551	154	70	28	18	2,821	
계심	%	90.4%	5.5%	2.5%	1.0%	0.6%	100.0%	
어머니만	빈도	3,011	113	49	22	11	3,206	
계심	%	93.9%	3.5%	1.5%	0.7%	0.3%	100.0%	
가 족 형 태	친아버지와	빈도	1,285	102	42	22	14	1,465
	새어머니	%	87.7%	7.0%	2.9%	1.5%	1.0%	100.0%
	친어머니와	빈도	745	37	22	6	6	816
	새아버지	%	91.3%	4.5%	2.7%	0.7%	0.7%	100.0%
	두분모두	빈도	287	10	11	8	9	325
	양부모	%	88.3%	3.1%	3.4%	2.5%	2.8%	100.0%
	두분모두	빈도	481	19	10	12	20	542
	안계심	%	88.7%	3.5%	1.8%	2.2%	3.7%	100.0%
전	빈도	62,654	2,491	758	325	285	66,513	
체	%	94.2%	3.7%	1.1%	0.5%	0.4%	100.0%	

$$\chi^2=536.023^{***}$$

$$p<.05^*, p<.01^{**}, p<.001^{***}$$

가족형태별로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을 살펴보면, 경험주기가 ‘일 년에 1-2번’인 경우에는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인 응답자(7.0%)가, ‘한 달에 1번’과 ‘1주일에 1-2번’인 경우에는 두 분 모두 양부모인 응답자(3.4%, 2.5%)가, ‘거의 매일’인 경우에는 두 분 모두 안 계시는 응답자(3.7%)가 가정내 신체적 학대 경험을 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2)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표 184〉 가족형태별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전 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두분모두	빈도	51,605	3,108	1,181	873	569	57,336	
친부모	%	90.0%	5.4%	2.1%	1.5%	1.0%	100.0%	
아버지만	빈도	2,298	216	115	103	88	2,820	
계심	%	81.5%	7.7%	4.1%	3.7%	3.1%	100.0%	
어머니만	빈도	2,856	170	72	70	42	3,210	
계심	%	89.0%	5.3%	2.2%	2.2%	1.3%	100.0%	
가 족 형 태	친아버지와	빈도	1,182	106	57	59	62	1,466
	새어머니	%	80.6%	7.2%	3.9%	4.0%	4.2%	100.0%
	친어머니와	빈도	681	60	30	26	18	815
	새아버지	%	83.6%	7.4%	3.7%	3.2%	2.2%	100.0%
	두분모두	빈도	274	24	9	6	12	325
	양부모	%	84.3%	7.4%	2.8%	1.8%	3.7%	100.0%
	두분모두	빈도	428	39	19	28	28	542
	안계심	%	79.0%	7.2%	3.5%	5.2%	5.2%	100.0%
전	빈도	59,324	3,723	1,483	1,165	819	66,514	
체	%	89.2%	5.6%	2.2%	1.8%	1.2%	100.0%	

$\chi^2=640.612^{***}$

$p<.05^*$, $p<.01^{**}$, $p<.001^{***}$

가족형태별로 가정에서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을 살펴보면, ‘일년에 1-2번’과 ‘한달에 1번’인 경우에는 아버지만 계신 응답자(7.7%, 4.1%)가, ‘1주일에 1-2번’과 ‘거의 매일’인 경우에는 두 분 모두 안 계신인 응답자(5.2%, 5.2%)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3)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표 185〉 가족형태별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구분	사례수 %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전 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두분모두	빈도	53,944	2,380	553	186	270	57,333	
친부모	%	94.1%	4.2%	1.0%	0.3%	0.5%	100.0%	
아버지만	빈도	2,439	219	66	32	68	2,824	
계심	%	86.4%	7.8%	2.3%	1.1%	2.4%	100.0%	
어머니만	빈도	2,931	172	51	26	29	3,209	
계심	%	91.3%	5.4%	1.6%	0.8%	0.9%	100.0%	
가 족 형 태	친아버지와	빈도	1,219	132	41	24	46	1,462
	새어머니	%	83.4%	9.0%	2.8%	1.6%	3.1%	100.0%
	친어머니와	빈도	704	69	15	16	12	816
	새아버지	%	86.3%	8.5%	1.8%	2.0%	1.5%	100.0%
두분모두	빈도	288	12	8	6	11	325	
양부모	%	88.6%	3.7%	2.5%	1.8%	3.4%	100.0%	
두분모두	빈도	435	50	17	4	37	543	
안계심	%	80.1%	9.2%	3.1%	0.7%	6.8%	100.0%	
전 체	빈도	61,960	3,034	751	294	473	66,512	
	%	93.2%	4.6%	1.1%	0.4%	0.7%	100.0%	

$\chi^2=1149.126^{***}$

$p<.05^*$, $p<.01^{**}$, $p<.001^{***}$

가족형태별로 3일 이상 가출을 시도한 경험을 살펴보면, 가출시도를 ‘일년에 1-2번’과 ‘한달에 1번’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응답은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안 계신 경우(9.2%, 3.1%, 6.8%)가 다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1주일에 1-2번’ 경험한다는 응답은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가족형태를 가진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4)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표 186〉 가족형태별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구분	사례수 %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두분모두	빈도	45,351	8,179	2,144	904	696	57,274	
친부모	%	79.2%	14.3%	3.7%	1.6%	1.2%	100.0%	
아버지만	빈도	2,004	441	177	111	87	2,820	
계심	%	71.1%	15.6%	6.3%	3.9%	3.1%	100.0%	
어머니만	빈도	2,467	480	129	75	50	3,201	
계심	%	77.1%	15.0%	4.0%	2.3%	1.6%	100.0%	
가족 형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빈도	956	257	107	65	76	1,461
	%	65.4%	17.6%	7.3%	4.4%	5.2%	100.0%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빈도	542	159	47	35	29	812
	%	66.7%	19.6%	5.8%	4.3%	3.6%	100.0%	
	두분모두	빈도	259	36	11	6	14	326
	양부모	%	79.4%	11.0%	3.4%	1.8%	4.3%	100.0%
	두분모두 안계심	빈도	372	86	24	23	36	541
	%	68.8%	15.9%	4.4%	4.3%	6.7%	100.0%	
전체	빈도	51,951	9,638	2,639	1,219	988	66,435	
	%	78.2%	14.5%	4.0%	1.8%	1.5%	100.0%	

$$\chi^2=744.967^{***}$$

$$p<.05^*, p<.01^{**}, p<.001^{***}$$

가족형태별로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을 살펴보면, 고민주기가 '일 년에 1-2번'인 경우는 친어머니와 새아버지인 응답자(19.6%)가, '한 달에 1번'인 경우는 아버지만 계신 응답자(6.3%)가, '1주일에 1-2번'인 경우는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인 응답자(4.4%)가, '지속적'인 경우는 두 분 모두 안 계신 응답자(6.7%)가 심각한 가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5)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표 187〉 가족형태별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구분	사례수 %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두분모두	빈도	49,054	5,054	1,492	754	925	57,279	
친부모	%	85.6%	8.8%	2.6%	1.3%	1.6%	100.0%	
아버지만	빈도	2,202	310	146	62	98	2,818	
계심	%	78.1%	11.0%	5.2%	2.2%	3.5%	100.0%	
어머니만	빈도	2,531	379	120	81	91	3,202	
계심	%	79.0%	11.8%	3.7%	2.5%	2.8%	100.0%	
가족 형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빈도	1,121	166	77	41	54	1,459
	%	76.8%	11.4%	5.3%	2.8%	3.7%	100.0%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빈도	609	105	38	32	28	812
	%	75.0%	12.9%	4.7%	3.9%	3.4%	100.0%	
	두분모두	빈도	267	25	12	11	11	326
	양부모	%	81.9%	7.7%	3.7%	3.4%	3.4%	100.0%
	두분모두	빈도	412	52	25	15	37	541
	안계심	%	76.2%	9.6%	4.6%	2.8%	6.8%	100.0%
전체	빈도	56,196	6,091	1,910	996	1,244	66,437	
	%	84.6%	9.2%	2.9%	1.5%	1.9%	100.0%	

$\chi^2=535.332^{***}$ $p<.05^*$, $p<.01^{**}$, $p<.001^{***}$

가족형태별로 심각하게 학업중단을 고민한 경험을 살펴보면, 고민 주기가 ‘일년에 1-2번’과 ‘일주일에 1-2번’인 경우 친어머니와 새아버지인 응답자의 비율(12.9%, 3.9%)이 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달에 한 번’인 경우에는 친아버지와 새어머니를 가진 응답자 비율(5.3%)이 높았으며, ‘지속적’인 경우에는 두 분 모두 안 계시는 응답자의 비율(6.8%)이 높았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6)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표 188〉 가족형태별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구분	사례수 %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가족 형태	두분모두 빈도	56,013	825	202	105	150	57,295	
	친부모 %	97.8%	1.4%	0.4%	0.2%	0.3%	100.0%	
	아버지만 빈도	2,655	102	28	16	17	2,818	
	계심 %	94.2%	3.6%	1.0%	0.6%	0.6%	100.0%	
	어머니만 빈도	3,071	84	29	14	7	3,205	
	계심 %	95.8%	2.6%	0.9%	0.4%	0.2%	100.0%	
	친아버지 와 새어머니 빈도	1,353	70	15	12	13	1,463	
	친어머니 와 새아버지 %	92.5%	4.8%	1.0%	0.8%	0.9%	100.0%	
	친어머니 와 새아버지 빈도	760	34	7	4	6	811	
	새아버지 %	93.7%	4.2%	0.9%	0.5%	0.7%	100.0%	
	두분모두 빈도	303	12	4	1	6	326	
	양부모 %	92.9%	3.7%	1.2%	0.3%	1.8%	100.0%	
	두분모두 빈도	494	17	7	5	18	541	
	안계심 %	91.3%	3.1%	1.3%	0.9%	3.3%	100.0%	
	전 체	빈도	64,649	1,144	292	157	217	66,459
		%	97.3%	1.7%	0.4%	0.2%	0.3%	100.0%

$\chi^2=573.409^{***}$

$p<.05^*$, $p<.01^{**}$, $p<.001^{***}$

가족형태별로 자퇴경고나 퇴학통보를 받은 경험을 살펴보면, ‘일년에 1-2번’의 경우에는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가족형태를 지닌 응답자의 비율이(4.8%) 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달에 한 번과 ’1주일에 1-2번 그리고 ‘지속적’인 경우에는 두 분 모두 안 계신 응답자(1.3%, 0.9%, 3.3%)가 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자퇴경고나 퇴학통보를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7) 학교폭력 피해 경험

〈표 189〉 가족형태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구분	사례수 %	학교폭력 피해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두분모두	빈도	53,014	2,407	588	638	660	57,307	
친부모	%	92.5%	4.2%	1.0%	1.1%	1.2%	100.0%	
아버지만	빈도	2,461	183	51	76	43	2,814	
계심	%	87.5%	6.5%	1.8%	2.7%	1.5%	100.0%	
어머니만	빈도	2,888	175	55	49	38	3,205	
계심	%	90.1%	5.5%	1.7%	1.5%	1.2%	100.0%	
가								
족	친아버지와	빈도	1,271	100	29	30	33	1,463
형	새어머니	%	86.9%	6.8%	2.0%	2.1%	2.3%	100.0%
태	친어머니와	빈도	718	45	18	21	14	816
	새아버지	%	88.0%	5.5%	2.2%	2.6%	1.7%	100.0%
	두분모두	빈도	275	21	3	8	18	325
	양부모	%	84.6%	6.5%	0.9%	2.5%	5.5%	100.0%
	두분모두	빈도	458	36	15	8	25	542
	안계심	%	84.5%	6.6%	2.8%	1.5%	4.6%	100.0%
전	빈도	61,085	2,967	759	830	831	66,472	
체	%	91.9%	4.5%	1.1%	1.2%	1.3%	100.0%	

$\chi^2=345.5986^{***}$

$p<.05^*$, $p<.01^{**}$, $p<.001^{***}$

가족형태별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일 년에 1-2 번’ 경험하는 경우는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가족형태(6.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 달에 1번’의 경우는 두 분 모두 안 계신 응답자(2.8%)가, ‘1주일에 1-2번’의 경우는 아버지만 안 계신 응답자(2.7%), ‘지속적인 경우는 두 분 모두 안 계신 응답자(5.5%)가 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8) 학교폭력 가해 경험

〈표 190〉 가족형태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구분	사례수 %	학교폭력 가해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두분모두	빈도	53,021	2,662	598	461	499	57,241	
친부모	%	92.6%	4.7%	1.0%	0.8%	0.9%	100.0%	
아버지만	빈도	2,467	177	69	56	48	2,817	
계심	%	87.6%	6.3%	2.4%	2.0%	1.7%	100.0%	
어머니만	빈도	2,871	195	40	52	38	3,196	
계심	%	89.8%	6.1%	1.3%	1.6%	1.2%	100.0%	
가족 형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빈도	1,236	114	48	33	30	1,461
	%	84.6%	7.8%	3.3%	2.3%	2.1%	100.0%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빈도	717	53	15	12	14	811
	%	88.4%	6.5%	1.8%	1.5%	1.7%	100.0%	
	두분모두	빈도	282	14	7	6	17	326
	%	86.5%	4.3%	2.1%	1.8%	5.2%	100.0%	
	두분모두	빈도	465	25	17	11	23	541
	%	86.0%	4.6%	3.1%	2.0%	4.3%	100.0%	
	안계심	%	86.0%	4.6%	3.1%	2.0%	4.3%	100.0%
전체	빈도	61,059	3,240	794	631	669	66,393	
	%	92.0%	4.9%	1.2%	1.0%	1.0%	100.0%	

$\chi^2=461.684^{***}$ $p<.05^*$, $p<.01^{**}$, $p<.001^{***}$

가족형태별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가해를 ‘일 년에 1-2번’ 경험하는 경우는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가족형태(7.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 달에 1번’의 경우와 ‘1주일에 1-2번’인 경우도 친아버지와 새어머니(3.3%, 23.%)를 둔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지속적’인 경우는 두 분 모두 양부모라는 응답자(5.2%)가 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9)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표 191〉 가족형태별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두분모두	빈도	56,725	195	117	55	185	57,277	
친부모	%	99.0%	0.3%	0.2%	0.1%	0.3%	100.0%	
아버지만	빈도	2,755	9	19	14	23	2,820	
계심	%	97.7%	0.3%	0.7%	0.5%	0.8%	100.0%	
어머니만	빈도	3,153	22	13	6	8	3,202	
계심	%	98.5%	0.7%	0.4%	0.2%	0.2%	100.0%	
가 족 형 태	친아버지와	빈도	1,423	13	6	5	11	1,458
	새어머니	%	97.6%	0.9%	0.4%	0.3%	0.8%	100.0%
	친어머니와	빈도	791	10	1	5	4	811
	새아버지	%	97.5%	1.2%	0.1%	0.6%	0.5%	100.0%
두분모두	빈도	308	3	2	7	6	326	
양부모	%	94.5%	0.9%	0.6%	2.1%	1.8%	100.0%	
두분모두	빈도	503	4	4	7	23	541	
안계심	%	93.0%	0.7%	0.7%	1.3%	4.3%	100.0%	
전 체	빈도	65,658	256	162	99	260	66,435	
	%	98.8%	0.4%	0.2%	0.1%	0.4%	100.0%	

$\chi^2=515.847^{***}$

$p<.05^*$, $p<.01^{**}$, $p<.001^{***}$

가족형태별로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을 살펴보면, 흡입 경험을 ‘일 년에 1-2번’ 하는 경우는 친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가족형태(1.2%)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 달에 1번’의 경우는 아버지만 계신 응답자와 두 분 모두 안 계신 응답자가 모두 0.7%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1주일에 1-2번’인 경우는 두 분 모두 양부모인 응답자(2.1%)가, ‘지속적’인 경우는 두 분 안 계신 응답자(4.3%)가 타 집단보다 흡입 경험이 많았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0) 음주, 흡연 경험

〈표 192〉 가족형태별 음주, 흡연 경험

구분	사례수 %	음주, 흡연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두분모두 친부모	빈도	44,212	4,961	3,436	1,632	2,997	57,238
	%	77.2%	8.7%	6.0%	2.9%	5.2%	100.0%
아버지만 계심	빈도	1,862	248	239	152	315	2,816
	%	66.1%	8.8%	8.5%	5.4%	11.2%	100.0%
어머니만 계심	빈도	2,206	294	252	162	289	3,203
	%	68.9%	9.2%	7.9%	5.1%	9.0%	100.0%
가 족 형 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빈도	890	145	132	90	205	1,462
	%	60.9%	9.9%	9.0%	6.2%	14.0%	100.0%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빈도	499	80	91	45	96	811
	%	61.5%	9.9%	11.2%	5.5%	11.8%	100.0%
두분모두 양부모	빈도	246	20	20	13	26	325
	%	75.7%	6.2%	6.2%	4.0%	8.0%	100.0%
두분모두 안계심	빈도	334	48	45	26	88	541
	%	61.7%	8.9%	8.3%	4.8%	16.3%	100.0%
전 체	빈도	50,249	5,796	4,215	2,120	4,016	66,396
	%	75.7%	8.7%	6.3%	3.2%	6.0%	100.0%

$\chi^2=933.980^{***}$

$p<.05^*$, $p<.01^{**}$, $p<.001^{***}$

가족형태별로 음주, 흡연 경험을 살펴보면, 음주와 흡연 경험을 ‘일 년에 1-2 번’ 하는 경우는 친어머니와 새아버지(9.9%)나 친아버지와 새어머니(9.9%)의 가족 형태(1.2%)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 달에 1번’의 경우는 친어머니와 새아버지를 둔 응답자(11.2%)가, ‘1주일에 1-2번’인 경우는 친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둔 응답자(6.2%)가, ‘지속적’인 경우는 두 분모두 안 계신 응답자(16.3%)가 타 집단보다 음주와 흡연 경험이 많았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1)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표 193〉 가족형태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구분	사례수 %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두분모두	빈도	53,944	2,380	553	186	270	57,333	
친부모	%	94.1%	4.2%	1.0%	0.3%	0.5%	100.0%	
아버지만	빈도	2,439	219	66	32	68	2,824	
계심	%	86.4%	7.8%	2.3%	1.1%	2.4%	100.0%	
어머니만	빈도	2,931	172	51	26	29	3,209	
계심	%	91.3%	5.4%	1.6%	0.8%	0.9%	100.0%	
가족 형태	친아버지와	빈도	1,219	132	41	24	46	1,462
	새어머니	%	83.4%	9.0%	2.8%	1.6%	3.1%	100.0%
	친어머니와	빈도	704	69	15	16	12	816
	새아버지	%	86.3%	8.5%	1.8%	2.0%	1.5%	100.0%
두분모두	빈도	288	12	8	6	11	325	
양부모	%	88.6%	3.7%	2.5%	1.8%	3.4%	100.0%	
두분모두	빈도	435	50	17	4	37	543	
안계심	%	80.1%	9.2%	3.1%	0.7%	6.8%	100.0%	
전체	빈도	61,960	3,034	751	294	473	66,512	
	%	93.2%	4.6%	1.1%	0.4%	0.7%	100.0%	

$\chi^2=133.418^{***}$

$p<.05^*$, $p<.01^{**}$, $p<.001^{***}$

가족형태별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 갈등 경험을 살펴보면, 가족 갈등을 ‘일년에 1-2번’ 겪는 경우, ‘한 달에 1번’ 겪는 경우, ‘지속적으로 겪는 경우에 있어 두 분 모두 안 계신 응답자의 응답비율이 각각 9.2%, 3.1%, 6.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1주일에 1-2번’인 경우는 친어머니와 새아버지를 둔 응답자(2.0%)가 타 집단보다 인터넷으로 인한 가족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2)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표 194〉 가족형태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구분	사례수 %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제대로 일을 못한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두분모두친	빈도	32,186	9,200	7,301	6,040	2,571	57,298	
부모	%	56.2%	16.1%	12.7%	10.5%	4.5%	100.0%	
아버지만	빈도	1,682	346	338	297	156	2,819	
계심	%	59.7%	12.3%	12.0%	10.5%	5.5%	100.0%	
어머니만	빈도	1,870	462	355	340	176	3,203	
계심	%	58.4%	14.4%	11.1%	10.6%	5.5%	100.0%	
가								
족	친아버지와	빈도	898	191	146	162	71	1,468
형	새어머니	%	61.2%	13.0%	9.9%	11.0%	4.8%	100.0%
태	친어머니와	빈도	477	105	86	100	48	816
	새아버지	%	58.5%	12.9%	10.5%	12.3%	5.9%	100.0%
	두분모두	빈도	211	35	29	24	27	326
	양부모	%	64.7%	10.7%	8.9%	7.4%	8.3%	100.0%
	두분모두	빈도	315	72	48	57	50	542
	안계심	%	58.1%	13.3%	8.9%	10.5%	9.2%	100.0%
전	빈도	37,639	10,411	8,303	7,020	3,099	66,472	
체	%	56.6%	15.7%	12.5%	10.6%	4.7%	100.0%	

$\chi^2=148.072^{***}$

$p<.05^*$, $p<.01^{**}$, $p<.001^{***}$

가족형태별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하는 일에 지장을 초래한 경험을 살펴보면, ‘일 년에 1-2번’ 겪는 경우, ‘한 달에 1번’ 겪는 경우는 두 분 모두 친부모인 경우에 각각 16.1%, 12.7%의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1주일에 1-2번’ 경험하는 경우는 친어머니와 새아버지인 응답자(12.3%)가, ‘지속적’으로 겪는 경우는 두 분 모두 안 계신 응답자(9.2%)가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경험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3)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표 195〉 가족형태별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구분	사례수 %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두분모두	빈도	51,522	4,294	872	291	286	57,265	
친부모	%	90.0%	7.5%	1.5%	0.5%	0.5%	100.0%	
아버지만	빈도	2,469	239	59	28	21	2,816	
계심	%	87.7%	8.5%	2.1%	1.0%	0.7%	100.0%	
어머니만	빈도	2,883	222	52	27	18	3,202	
계심	%	90.0%	6.9%	1.6%	0.8%	0.6%	100.0%	
가족 형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빈도	1,250	142	35	17	18	1,462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빈도	705	67	24	7	8	811
	양부모	%	85.9%	5.8%	3.1%	1.5%	3.7%	100.0%
	안계심	%	84.3%	6.9%	2.0%	0.9%	5.9%	100.0%
전 체	빈도	59,564	5,020	1,063	380	395	66,422	
	%	89.7%	7.6%	1.6%	0.6%	0.6%	100.0%	

$\chi^2=416.365^{***}$

$p<.05^*$, $p<.01^{**}$, $p<.001^{***}$

가족형태별로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험을 살펴보면, ‘일 년에 1-2번’ 훔치는 경우에는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가족형태를 지닌 응답자(9.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 달에 1번’과 ‘1주일에 1-2번’ 훔치는 경우는 두 분 모두 양부모인 응답자가 각각 3.1%, 1.5%로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속적’으로 훔치는 경우는 두 분 모두 안 계신 응답자(5.9%)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4)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표 196〉 가족형태별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구분	사례수 %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두분모두	빈도	53,830	2,375	490	206	244	57,145	
친부모	%	94.2%	4.2%	0.9%	0.4%	0.4%	100.0%	
아버지만	빈도	2,579	147	39	24	20	2,809	
계심	%	91.8%	5.2%	1.4%	0.9%	0.7%	100.0%	
어머니만	빈도	2,963	152	42	23	15	3,195	
계심	%	92.7%	4.8%	1.3%	0.7%	0.5%	100.0%	
가족 형태	친아버지와	빈도	1,310	88	35	14	13	1,460
	새어머니	%	89.7%	6.0%	2.4%	1.0%	0.9%	100.0%
	친어머니와	빈도	735	43	15	7	9	809
	새아버지	%	90.9%	5.3%	1.9%	0.9%	1.1%	100.0%
두분모두	빈도	287	14	10	4	10	325	
양부모	%	88.3%	4.3%	3.1%	1.2%	3.1%	100.0%	
두분모두	빈도	472	24	15	5	23	539	
안계심	%	87.6%	4.5%	2.8%	0.9%	4.3%	100.0%	
전 체	빈도	62,176	2,843	646	283	334	66,282	
	%	93.8%	4.3%	1.0%	0.4%	0.5%	100.0%	

$\chi^2=377.018^{***}$

$p<.05^*$, $p<.01^{**}$, $p<.001^{***}$

가족형태별로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뺏은 경험을 살펴보면, ‘일 년에 1-2번’ 뺏는 경우에는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가족형태를 지닌 응답자(6.0%)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 달에 1번’과 ‘지속적’으로 훔치는 경우는 두 분 안 계신 경우에 각각 2.8%, 4.3%로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1주일에 1-2번’ 훔치는 경우는 친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둔 응답자(1.0%)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5)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표 197〉 가족형태별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구분	사례수 %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전체	
		있음	없음		
두분모두친 부모	빈도	3,700	53,408	57,108	
	%	6.5%	93.5%	100.0%	
아버지만 계심	빈도	199	2,615	2,814	
	%	7.1%	92.9%	100.0%	
어머니만 계심	빈도	241	2,958	3,199	
	%	7.5%	92.5%	100.0%	
가 족 형 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빈도	109	1,355	1,464
	%	7.4%	92.6%	100.0%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빈도	79	732	811
	%	9.7%	90.3%	100.0%	
두분모두 양부모	빈도	38	287	325	
	%	11.7%	88.3%	100.0%	
두분모두 안계심	빈도	69	469	538	
	%	12.8%	87.2%	100.0%	
전 체	빈도	4,435	61,824	66,259	
	%	6.7%	93.3%	100.0%	

$\chi^2=67.247^{***}$ $p<.05^*$, $p<.01^{**}$, $p<.001^{***}$

가족형태별로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경험한 바를 살펴보면, 두 분 모두 안 계신 경우가 12.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두 분 모두 양부모인 경우(11.7%), 친어머니와 새아버지인 경우(9.7%), 어머니만 계신 경우(7.5%),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인 경우(7.4%)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6)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표 198〉 가족형태별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구분	사례수 %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전체	
		있음	없음		
가 족 형 태	두분모두친	빈도	3,098	54,018	57,116
	부모	%	5.4%	94.6%	100.0%
	아버지만	빈도	185	2,631	2,816
	계심	%	6.6%	93.4%	100.0%
	어머니만	빈도	200	2,999	3,199
	계심	%	6.3%	93.7%	100.0%
	친아버지와	빈도	87	1,380	1,467
	새어머니	%	5.9%	94.1%	100.0%
	친어머니와	빈도	53	758	811
	새아버지	%	6.5%	93.5%	100.0%
	두분모두	빈도	33	291	324
	양부모	%	10.2%	89.8%	100.0%
	두분모두	빈도	60	479	539
	안계심	%	11.1%	88.9%	100.0%
	전	빈도	3,716	62,556	66,272
	체	%	5.6%	94.4%	100.0%

$\chi^2=56.580^{***}$ $p<.05^*$, $p<.01^{**}$, $p<.001^{***}$

가족형태별로 성매매 유혹을 느낀 바를 살펴보면, 두 분 모두 안 계신 경우가 11.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두 분 모두 양부모인 경우(10.2%), 아버지만 계신 경우(6.6%), 친어머니와 새아버지인 경우(6.5%), 어머니만 계신 경우(6.3%),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인 경우(5.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7) 자살 생각 경험

〈표 199〉 가족형태별 자살 생각 경험

구분	사례수 %	자살 생각 경험		전체
		있음	없음	
두분모두친	빈도	12,181	44,941	57,122
	부모	%	21.3%	78.7%
아버지만	빈도	815	2,001	2,816
	계심	%	28.9%	71.1%
어머니만	빈도	811	2,390	3,201
	계심	%	25.3%	74.7%
가	빈도	435	1,032	1,467
	친아버지와	%	29.7%	70.3%
족	빈도	262	549	811
	새어머니와	%	32.3%	67.7%
형	빈도	67	258	325
	두분모두	%	20.6%	79.4%
태	빈도	172	367	539
	양부모	%	31.9%	68.1%
전	빈도	14,743	51,538	66,281
	안계심	%	22.2%	77.8%
체				

$\chi^2=242.298^{***}$ $p<.05^*$, $p<.01^{**}$, $p<.001^{***}$

가족형태별로 자살 생각을 경험한 바를 살펴보면, 두 분 모두 안 계신 경우가 31.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친어머니와 새아버지인 경우(32.3%),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인 경우(29.7%), 아버지만 계신 경우(28.9%), 어머니만 계신 경우(25.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8) 자살 시도 경험

〈표 200〉 가족형태별 자살 시도 경험

구분	사례수 %	자살 시도 경험		전체	
		있음	없음		
두분모두친 부모	빈도	3,553	53,552	57,105	
	%	6.2%	93.8%	100.0%	
아버지만 계심	빈도	274	2,541	2,815	
	%	9.7%	90.3%	100.0%	
어머니만 계심	빈도	249	2,949	3,198	
	%	7.8%	92.2%	100.0%	
가족 형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빈도	147	1,319	1,466
	%	10.0%	90.0%	100.0%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빈도	94	717	811
	%	11.6%	88.4%	100.0%	
두분모두 양부모	빈도	35	290	325	
	%	10.8%	89.2%	100.0%	
두분모두 안계심	빈도	78	461	539	
	%	14.5%	85.5%	100.0%	
전체	빈도	4,430	61,829	66,259	
	%	6.7%	93.3%	100.0%	

$\chi^2=186.379^{***}$ $p<.05^*$, $p<.01^{**}$, $p<.001^{***}$

가족형태별로 자살 시도를 경험한 바를 살펴보면, 두 분 모두 안 계신 경우가 14.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친어머니와 새아버지인 경우(11.6%), 두 분 모두 양부모인 경우(10.8%),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인 경우(10.0%), 아버지만 계신 경우(9.7%), 어머니만 계신 경우(7.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족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6) 거주형태별

(1)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표 201〉 거주형태별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구분	사례수 %	신체적 학대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부모님	빈도	54,867	2,168	601	247	200	58,083	
	%	94.5%	3.7%	1.0%	0.4%	0.3%	100.0%	
조부모님	빈도	2,006	89	34	18	12	2,159	
	%	92.9%	4.1%	1.6%	0.8%	0.6%	100.0%	
결혼한	빈도	178	8	5	3	3	197	
형제가족	%	90.4%	4.1%	2.5%	1.5%	1.5%	100.0%	
친척집	빈도	373	14	8	4	4	403	
	%	92.6%	3.5%	2.0%	1.0%	1.0%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283	7	7	1	2	300	
	%	94.3%	2.3%	2.3%	0.3%	0.7%	100.0%	
거주 형태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67	2	5	3	2	79
	%	84.8%	2.5%	6.3%	3.8%	2.5%	100.0%	
혼자 거주	빈도	168	8	6	1	6	189	
	%	88.9%	4.2%	3.2%	0.5%	3.2%	100.0%	
하숙	빈도	74	4	0	1	1	80	
	%	92.5%	5.0%	0.0%	1.3%	1.3%	100.0%	
기숙사	빈도	1,657	50	17	8	7	1,739	
	%	95.3%	2.9%	1.0%	0.5%	0.4%	100.0%	
아르바이트	빈도	28	2	4	2	7	43	
	%	65.1%	4.7%	9.3%	4.7%	16.3%	100.0%	
하는 곳 청소년보호 시설	빈도	278	26	21	22	25	372	
	%	74.7%	7.0%	5.6%	5.9%	6.7%	100.0%	
기타	빈도	509	31	12	9	9	570	
	%	89.3%	5.4%	2.1%	1.6%	1.6%	100.0%	
전 체	빈도	60,488	2,409	720	319	278	64,214	
	%	94.2%	3.8%	1.1%	0.5%	0.4%	100.0%	

$\chi^2=1140.841^{***}$

$p<.05^*$, $p<.01^{**}$, $p<.001^{***}$

거주형태별로 가정내 신체적 학대 경험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하는 곳 또는 청소년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학대 경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 ‘거의 매일’ 학대를 경험한다는 응답률에 있어서는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16.3%)와 청소년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6.7%)가 타 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2)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표 202〉 거주형태별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부모님	빈도	52,026	3,228	1,228	956	624	58,062	
	%	89.6%	5.6%	2.1%	1.6%	1.1%	100.0%	
조부모님	빈도	1,830	141	71	68	49	2,159	
	%	84.8%	6.5%	3.3%	3.1%	2.3%	100.0%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170	9	9	4	5	197	
	%	86.3%	4.6%	4.6%	2.0%	2.5%	100.0%	
친척집	빈도	353	24	12	8	5	402	
	%	87.8%	6.0%	3.0%	2.0%	1.2%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263	21	6	3	7	300	
	%	87.7%	7.0%	2.0%	1.0%	2.3%	100.0%	
거주 형태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58	8	4	3	6	79
	%	73.4%	10.1%	5.1%	3.8%	7.6%	100.0%	
혼자 거주	빈도	152	13	5	7	12	189	
	%	80.4%	6.9%	2.6%	3.7%	6.3%	100.0%	
하숙	빈도	71	3	2	1	3	80	
	%	88.8%	3.8%	2.5%	1.3%	3.8%	100.0%	
기숙사	빈도	1,600	74	35	19	10	1,738	
	%	92.1%	4.3%	2.0%	1.1%	0.6%	100.0%	
아르바이트	빈도	24	6	3	2	8	43	
	%	55.8%	14.0%	7.0%	4.7%	18.6%	100.0%	
청소년보호 시설	빈도	252	25	16	27	52	372	
	%	67.7%	6.7%	4.3%	7.3%	14.0%	100.0%	
기타	빈도	467	41	20	24	18	570	
	%	81.9%	7.2%	3.5%	4.2%	3.2%	100.0%	
전 체	빈도	57,266	3,593	1,411	1,122	799	64,191	
	%	89.2%	5.6%	2.2%	1.7%	1.2%	100.0%	

$\chi^2=946.331^{***}$

$p<.05^*$, $p<.01^{**}$, $p<.001^{***}$

거주형태별로 가정 내 폭언과 욕설에 시달린 경험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하는 곳 또는 청소년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 ‘거의 매일’ 시달린다는 응답률에 있어서는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18.6%)와 친구 또는 청소년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14.0%)가 타 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3)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표 203〉 거주형태별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구분	사례수 %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부모님	빈도	54,437	2,510	613	210	295	58,065	
	%	93.8%	4.3%	1.1%	0.4%	0.5%	100.0%	
조부모님	빈도	1,910	150	47	22	29	2,158	
	%	88.5%	7.0%	2.2%	1.0%	1.3%	100.0%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176	12	4	3	2	197	
	%	89.3%	6.1%	2.0%	1.5%	1.0%	100.0%	
친척집	빈도	357	27	10	2	6	402	
	%	88.8%	6.7%	2.5%	0.5%	1.5%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270	20	4	2	3	299	
	%	90.3%	6.7%	1.3%	0.7%	1.0%	100.0%	
거주 형태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47	7	5	5	15	79
	%	59.5%	8.9%	6.3%	6.3%	19.0%	100.0%	
혼자 거주	빈도	142	20	8	4	14	188	
	%	75.5%	10.6%	4.3%	2.1%	7.4%	100.0%	
하숙	빈도	70	6	2	1	1	80	
	%	87.5%	7.5%	2.5%	1.3%	1.3%	100.0%	
기숙사	빈도	1,657	52	10	6	13	1,738	
	%	95.3%	3.0%	0.6%	0.3%	0.7%	100.0%	
아르바이트	빈도	23	9	2	0	9	43	
	%	53.5%	20.9%	4.7%	0.0%	20.9%	100.0%	
청소년보호 시설	빈도	201	68	23	26	53	371	
	%	54.2%	18.3%	6.2%	7.0%	14.3%	100.0%	
기타	빈도	490	42	8	7	20	567	
	%	86.4%	7.4%	1.4%	1.2%	3.5%	100.0%	
전 체	빈도	59,780	2,923	736	288	460	64,187	
	%	93.1%	4.6%	1.1%	0.4%	0.7%	100.0%	

$\chi^2=2785.756^{***}$

$p<.05^*$, $p<.01^{**}$, $p<.001^{***}$

거주형태별로 3일 이상 가출을 시도해 본 경험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하는 곳 또는 청소년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는 응답률에 있어서는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20.9%)와 친구 또는 선후배와 거주하는 경우(19.0%)가 타 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4)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표 204〉 거주형태별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구분	사례수 %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부모님	빈도	45,596	8,408	2,246	1,014	735	57,999	
	%	78.6%	14.5%	3.9%	1.7%	1.3%	100.0%	
조부모님	빈도	1,569	339	124	75	47	2,154	
	%	72.8%	15.7%	5.8%	3.5%	2.2%	100.0%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142	34	13	1	6	196	
	%	72.4%	17.3%	6.6%	0.5%	3.1%	100.0%	
친척집	빈도	304	49	35	8	7	403	
	%	75.4%	12.2%	8.7%	2.0%	1.7%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235	38	14	4	8	299	
	%	78.6%	12.7%	4.7%	1.3%	2.7%	100.0%	
거주 형태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47	7	3	6	16	79
	%	59.5%	8.9%	3.8%	7.6%	20.3%	100.0%	
혼자 거주	빈도	127	31	10	6	15	189	
	%	67.2%	16.4%	5.3%	3.2%	7.9%	100.0%	
하숙	빈도	66	4	4	1	3	78	
	%	84.6%	5.1%	5.1%	1.3%	3.8%	100.0%	
기숙사	빈도	1,472	185	41	18	20	1,736	
	%	84.8%	10.7%	2.4%	1.0%	1.2%	100.0%	
아르바이트	빈도	20	9	3	3	8	43	
	%	46.5%	20.9%	7.0%	7.0%	18.6%	100.0%	
하는 곳 청소년보호 시설	빈도	192	62	26	36	54	370	
	%	51.9%	16.8%	7.0%	9.7%	14.6%	100.0%	
기타	빈도	411	81	29	19	25	565	
	%	72.7%	14.3%	5.1%	3.4%	4.4%	100.0%	
전 체	빈도	50,181	9,247	2,548	1,191	944	64,111	
	%	78.3%	14.4%	4.0%	1.9%	1.5%	100.0%	

$\chi^2=1193.615^{***}$

$p<.05^*$, $p<.01^{**}$, $p<.001^{***}$

거주형태별 심각한 가출 고민을 한 경험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하는 곳 또는 청소년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가출 고민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기숙사 또는 하숙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 ‘지속적’으로 고민한다는 응답률에 있어서는 친구 또는 선후배와 거주하는 경우(20.3%)와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18.6%)가 타 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5)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표 205〉 거주형태별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구분	사례수 %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부모님	빈도	49,488	5,173	1,568	811	958	57,998	
	%	85.3%	8.9%	2.7%	1.4%	1.7%	100.0%	
조부모님	빈도	1,714	233	82	62	64	2,155	
	%	79.5%	10.8%	3.8%	2.9%	3.0%	100.0%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154	21	10	5	5	195	
	%	79.0%	10.8%	5.1%	2.6%	2.6%	100.0%	
친척집	빈도	322	41	23	6	11	403	
	%	79.9%	10.2%	5.7%	1.5%	2.7%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231	39	8	9	12	299	
	%	77.3%	13.0%	2.7%	3.0%	4.0%	100.0%	
거주 형태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51	8	5	9	6	79
	%	64.6%	10.1%	6.3%	11.4%	7.6%	100.0%	
혼자 거주 태	빈도	122	31	13	6	16	188	
	%	64.9%	16.5%	6.9%	3.2%	8.5%	100.0%	
하숙	빈도	52	12	7	4	3	78	
	%	66.7%	15.4%	9.0%	5.1%	3.8%	100.0%	
기숙사	빈도	1,338	239	95	33	35	1,740	
	%	76.9%	13.7%	5.5%	1.9%	2.0%	100.0%	
아르바이트	빈도	19	9	3	3	8	42	
	%	45.2%	21.4%	7.1%	7.1%	19.0%	100.0%	
청소년보호 시설	빈도	230	48	20	18	54	370	
	%	62.2%	13.0%	5.4%	4.9%	14.6%	100.0%	
기타	빈도	459	47	22	18	22	568	
	%	80.8%	8.3%	3.9%	3.2%	3.9%	100.0%	
전 체	빈도	54,180	5,901	1,856	984	1,194	64,115	
	%	84.5%	9.2%	2.9%	1.5%	1.9%	100.0%	

$\chi^2=902.287^{***}$

$p<.05^*$, $p<.01^{**}$, $p<.001^{***}$

거주형태별로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을 한 경험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하는 곳 또는 청소년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학업중단 고민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 ‘지속적’으로 고민한다는 응답률에 있어서는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19.0%)와 청소년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14.6%)가 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6)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표 206〉 거주형태별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구분	사례수 %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부모님	빈도	56,614	923	222	110	150	58,019	
	%	97.6%	1.6%	0.4%	0.2%	0.3%	100.0%	
조부모님	빈도	2,055	67	16	5	11	2,154	
	%	95.4%	3.1%	0.7%	0.2%	0.5%	100.0%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180	8	5	1	2	196	
	%	91.8%	4.1%	2.6%	0.5%	1.0%	100.0%	
친척집	빈도	382	12	7	1	1	403	
	%	94.8%	3.0%	1.7%	0.2%	0.2%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285	10	2	1	1	299	
	%	95.3%	3.3%	0.7%	0.3%	0.3%	100.0%	
거주 형태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59	8	4	4	2	77
	%	76.6%	10.4%	5.2%	5.2%	2.6%	100.0%	
혼자 거주 태	빈도	161	9	6	2	11	189	
	%	85.2%	4.8%	3.2%	1.1%	5.8%	100.0%	
하숙	빈도	69	5	2	1	1	78	
	%	88.5%	6.4%	2.6%	1.3%	1.3%	100.0%	
기숙사	빈도	1,692	32	4	8	4	1,740	
	%	97.2%	1.8%	0.2%	0.5%	0.2%	100.0%	
아르바이트	빈도	30	3	1	2	6	42	
	%	71.4%	7.1%	2.4%	4.8%	14.3%	100.0%	
청소년보호 시설	빈도	298	32	14	9	16	369	
	%	80.8%	8.7%	3.8%	2.4%	4.3%	100.0%	
기타	빈도	535	14	4	8	7	568	
	%	94.2%	2.5%	0.7%	1.4%	1.2%	100.0%	
전 체	빈도	62,360	1,123	287	152	212	64,134	
	%	97.2%	1.8%	0.4%	0.2%	0.3%	100.0%	

$\chi^2=1335.775^{***}$

$p<.05^*$, $p<.01^{**}$, $p<.001^{***}$

거주형태별로 자퇴경고나 퇴학통보를 경험한 바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하는 곳, 친구 또는 선후배와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기숙사 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응답률에 있어서는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14.3%)와 혼자 거주하는 경우(5.8%), 청소년보호 시설(4.3%)이 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7) 학교폭력 피해 경험

〈표 207〉 거주형태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구분	사례수 %	학교폭력 피해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부모님	빈도	53,538	2,510	625	700	674	58,047	
	%	92.2%	4.3%	1.1%	1.2%	1.2%	100.0%	
조부모님	빈도	1,877	146	48	44	41	2,156	
	%	87.1%	6.8%	2.2%	2.0%	1.9%	100.0%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168	13	6	7	3	197	
	%	85.3%	6.6%	3.0%	3.6%	1.5%	100.0%	
친척집	빈도	364	20	8	8	3	403	
	%	90.3%	5.0%	2.0%	2.0%	0.7%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284	7	4	2	3	300	
	%	94.7%	2.3%	1.3%	0.7%	1.0%	100.0%	
거주 형태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69	2	3	5	0	79
	%	87.3%	2.5%	3.8%	6.3%	0.0%	100.0%	
혼자 거주	빈도	159	11	7	2	10	189	
	%	84.1%	5.8%	3.7%	1.1%	5.3%	100.0%	
하숙	빈도	74	3	2	1	0	80	
	%	92.5%	3.8%	2.5%	1.3%	0.0%	100.0%	
기숙사	빈도	1,624	64	14	16	21	1,739	
	%	93.4%	3.7%	0.8%	0.9%	1.2%	100.0%	
아르바이트	빈도	30	4	0	2	7	43	
	%	69.8%	9.3%	0.0%	4.7%	16.3%	100.0%	
하는 곳 청소년보호 시설	빈도	315	20	8	9	19	371	
	%	84.9%	5.4%	2.2%	2.4%	5.1%	100.0%	
기타	빈도	492	40	9	14	13	568	
	%	86.6%	7.0%	1.6%	2.5%	2.3%	100.0%	
전 체	빈도	58,994	2,840	734	810	794	64,172	
	%	91.9%	4.4%	1.1%	1.3%	1.2%	100.0%	

$\chi^2=343.277^{***}$

$p<.05^*$, $p<.01^{**}$, $p<.001^{***}$

거주형태별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하숙, 기숙사 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응답률에 있어서는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16.3%)와 혼자 거주하는 경우(5.3%), 청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5.1%)가 타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8) 학교폭력 가해 경험

〈표 208〉 거주형태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구분	사례수 %	학교폭력 가해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부모님	빈도	53,548	2,761	640	505	521	57,975	
	%	92.4%	4.8%	1.1%	0.9%	0.9%	100.0%	
조부모님	빈도	1,906	135	49	36	30	2,156	
	%	88.4%	6.3%	2.3%	1.7%	1.4%	100.0%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165	16	8	4	4	197	
	%	83.8%	8.1%	4.1%	2.0%	2.0%	100.0%	
친척집	빈도	366	20	5	7	4	402	
	%	91.0%	5.0%	1.2%	1.7%	1.0%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276	11	4	2	6	299	
	%	92.3%	3.7%	1.3%	0.7%	2.0%	100.0%	
거주 형태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65	5	2	3	4	79
	%	82.3%	6.3%	2.5%	3.8%	5.1%	100.0%	
혼자 거주	빈도	155	6	6	7	15	189	
	%	82.0%	3.2%	3.2%	3.7%	7.9%	100.0%	
하숙	빈도	64	10	0	3	1	78	
	%	82.1%	12.8%	0.0%	3.8%	1.3%	100.0%	
기숙사	빈도	1,615	80	16	12	16	1,739	
	%	92.9%	4.6%	0.9%	0.7%	0.9%	100.0%	
아르바이트	빈도	29	6	1	1	5	42	
	%	69.0%	14.3%	2.4%	2.4%	11.9%	100.0%	
청소년보호 시설	빈도	287	28	17	12	25	369	
	%	77.8%	7.6%	4.6%	3.3%	6.8%	100.0%	
기타	빈도	492	37	15	10	13	567	
	%	86.8%	6.5%	2.6%	1.8%	2.3%	100.0%	
전 체	빈도	58,968	3,115	763	602	644	64,092	
	%	92.0%	4.9%	1.2%	0.9%	1.0%	100.0%	

$\chi^2=536.263^{***}$

$p<.05^*$, $p<.01^{**}$, $p<.001^{***}$

거주형태별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 시설 또는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기숙사 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응답률에 있어서는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11.9%)와 혼자 거주하는 경우(7.9%), 청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6.8%)가 타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9)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표 209〉 거주형태별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부모님	빈도	57,404	214	128	68	184	57,998
	%	99.0%	0.4%	0.2%	0.1%	0.3%	100.0%
조부모님	빈도	2,119	10	9	5	11	2,154
	%	98.4%	0.5%	0.4%	0.2%	0.5%	100.0%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188	4	2	0	3	197
	%	95.4%	2.0%	1.0%	0.0%	1.5%	100.0%
친척집	빈도	394	2	5	0	2	403
	%	97.8%	0.5%	1.2%	0.0%	0.5%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297	0	1	0	1	299
	%	99.3%	0.0%	0.3%	0.0%	0.3%	100.0%
거주 형태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73	1	0	4	79
	%	92.4%	1.3%	0.0%	5.1%	1.3%	100.0%
혼자 거주	빈도	168	4	5	2	10	189
	%	88.9%	2.1%	2.6%	1.1%	5.3%	100.0%
하숙	빈도	77	0	0	1	0	78
	%	98.7%	0.0%	0.0%	1.3%	0.0%	100.0%
기숙사	빈도	1,727	3	1	2	7	1,740
	%	99.3%	0.2%	0.1%	0.1%	0.4%	100.0%
아르바이트 하는 곳	빈도	32	3	0	2	5	42
	%	76.2%	7.1%	0.0%	4.8%	11.9%	100.0%
청소년보호 시설	빈도	339	4	1	9	16	369
	%	91.9%	1.1%	0.3%	2.4%	4.3%	100.0%
기타	빈도	542	5	3	5	11	566
	%	95.8%	0.9%	0.5%	0.9%	1.9%	100.0%
전 체	빈도	63,360	250	155	98	251	64,114
	%	98.8%	0.4%	0.2%	0.2%	0.4%	100.0%

$\chi^2=983.958^{***}$

$p<.05^*$, $p<.01^{**}$, $p<.001^{***}$

거주형태별로 가스, 본드, 마약 흡입 경험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기숙사 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응답률에 있어서는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11.9%)와 혼자 거주하는 경우(5.3%), 청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4.3%)가 타 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0) 음주, 흡연 경험

〈표 210〉 거주형태별 음주, 흡연 경험

구분	사례수 %	음주, 흡연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부모님	빈도	44,289	5,041	3,615	1,789	3,227	57,961	
	%	76.4%	8.7%	6.2%	3.1%	5.6%	100.0%	
조부모님	빈도	1,448	217	181	99	204	2,149	
	%	67.4%	10.1%	8.4%	4.6%	9.5%	100.0%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142	17	19	10	9	197	
	%	72.1%	8.6%	9.6%	5.1%	4.6%	100.0%	
친척집	빈도	272	40	37	21	33	403	
	%	67.5%	9.9%	9.2%	5.2%	8.2%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183	38	30	16	32	299	
	%	61.2%	12.7%	10.0%	5.4%	10.7%	100.0%	
거주 형태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36	5	6	3	28	78
	%	46.2%	6.4%	7.7%	3.8%	35.9%	100.0%	
혼자 거주	빈도	86	16	24	12	50	188	
	%	45.7%	8.5%	12.8%	6.4%	26.6%	100.0%	
하숙	빈도	40	12	6	4	16	78	
	%	51.3%	15.4%	7.7%	5.1%	20.5%	100.0%	
기숙사	빈도	1,235	201	138	51	114	1,739	
	%	71.0%	11.6%	7.9%	2.9%	6.6%	100.0%	
아르바이트	빈도	23	4	1	4	11	43	
	%	53.5%	9.3%	2.3%	9.3%	25.6%	100.0%	
청소년보호 시설	빈도	167	19	24	30	130	370	
	%	45.1%	5.1%	6.5%	8.1%	35.1%	100.0%	
기타	빈도	383	45	40	31	68	567	
	%	67.5%	7.9%	7.1%	5.5%	12.0%	100.0%	
전 체	빈도	48,304	5,655	4,121	2,070	3,922	64,072	
	%	75.4%	8.8%	6.4%	3.2%	6.1%	100.0%	

$\chi^2=1212.051$ ***

$p<.05$, $p<.01$, $p<.001$ ***

거주형태별로 음주, 흡연 경험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 시설 또는 청소년 보호시설에 거주, 혼자 거주, 친구 또는 선후배와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기숙사 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응답률에 있어서는 친구 또는 선후배와 거주하는 경우(35.9%), 청소년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35.1%)가 타 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1)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표 211〉 거주형태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구분	사례수 %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부모님	빈도	44,164	6,571	3,667	2,455	1,122	57,979	
	%	76.2%	11.3%	6.3%	4.2%	1.9%	100.0%	
조부모님	빈도	1,681	217	102	85	68	2,153	
	%	78.1%	10.1%	4.7%	3.9%	3.2%	100.0%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155	16	13	9	4	197	
	%	78.7%	8.1%	6.6%	4.6%	2.0%	100.0%	
친척집	빈도	314	44	29	9	7	403	
	%	77.9%	10.9%	7.2%	2.2%	1.7%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247	27	13	6	6	299	
	%	82.6%	9.0%	4.3%	2.0%	2.0%	100.0%	
거 주 형 태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65	1	2	7	4	79
	%	82.3%	1.3%	2.5%	8.9%	5.1%	100.0%	
혼자 거주	빈도	154	14	5	3	12	188	
	%	81.9%	7.4%	2.7%	1.6%	6.4%	100.0%	
하숙	빈도	62	9	3	4	0	78	
	%	79.5%	11.5%	3.8%	5.1%	0.0%	100.0%	
기숙사	빈도	1,446	136	90	52	16	1,740	
	%	83.1%	7.8%	5.2%	3.0%	0.9%	100.0%	
아르바이트	빈도	25	6	2	2	8	43	
	%	58.1%	14.0%	4.7%	4.7%	18.6%	100.0%	
청소년보호 시설	빈도	289	24	11	21	24	369	
	%	78.3%	6.5%	3.0%	5.7%	6.5%	100.0%	
기타	빈도	425	63	23	22	33	566	
	%	75.1%	11.1%	4.1%	3.9%	5.8%	100.0%	
전 체	빈도	49,027	7,128	3,960	2,675	1,304	64,094	
	%	76.5%	11.1%	6.2%	4.2%	2.0%	100.0%	

$\chi^2=295.500^{***}$

$p<.05^*$, $p<.01^{**}$, $p<.001^{***}$

거주형태별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기숙사 또는 형제들과 함께 자취하는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응답률에 있어서는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18.6%)와 청소년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6.5%), 혼자 거주하는 경우(6.4%)가 타 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2)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표 212〉 거주형태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구분	사례수 %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제대로 일을 못한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부모님	빈도	32,693	9,235	7,329	6,175	2,590	58,022	
	%	56.3%	15.9%	12.6%	10.6%	4.5%	100.0%	
조부모님	빈도	1,287	273	232	229	136	2,157	
	%	59.7%	12.7%	10.8%	10.6%	6.3%	100.0%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124	31	16	17	9	197	
	%	62.9%	15.7%	8.1%	8.6%	4.6%	100.0%	
친척집	빈도	260	45	48	40	9	402	
	%	64.7%	11.2%	11.9%	10.0%	2.2%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188	36	37	25	14	300	
	%	62.7%	12.0%	12.3%	8.3%	4.7%	100.0%	
거 주 형 태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56	8	3	6	6	79
	%	70.9%	10.1%	3.8%	7.6%	7.6%	100.0%	
혼자 거주	빈도	108	25	23	15	18	189	
	%	57.1%	13.2%	12.2%	7.9%	9.5%	100.0%	
하숙	빈도	52	6	8	9	5	80	
	%	65.0%	7.5%	10.0%	11.3%	6.3%	100.0%	
기숙사	빈도	999	254	233	196	56	1,738	
	%	57.5%	14.6%	13.4%	11.3%	3.2%	100.0%	
아르바이트	빈도	22	5	5	1	9	42	
	%	52.4%	11.9%	11.9%	2.4%	21.4%	100.0%	
하는 곳 청소년보호 시설	빈도	257	38	28	22	26	371	
	%	69.3%	10.2%	7.5%	5.9%	7.0%	100.0%	
기타	빈도	336	79	63	52	39	569	
	%	59.1%	13.9%	11.1%	9.1%	6.9%	100.0%	
전 체	빈도	36,382	10,035	8,025	6,787	2,917	64,146	
	%	56.7%	15.6%	12.5%	10.6%	4.5%	100.0%	

$\chi^2=182.953^{***}$

$p<.05^*$, $p<.01^{**}$, $p<.001^{***}$

거주형태별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경험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거주하는 응답자와 부모님과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하숙 또는 친구 또는 선후배와 거주하는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응답률에 있어서는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21.4%)와 혼자 거주하는 경우(9.5%), 청소년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7.0%)가 타 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3)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표 213〉 거주형태별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구분	사례수 %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부모님	빈도	52,139	4,366	874	318	291	57,988	
	%	89.9%	7.5%	1.5%	0.5%	0.5%	100.0%	
조부모님	빈도	1,949	127	41	16	18	2,151	
	%	90.6%	5.9%	1.9%	0.7%	0.8%	100.0%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163	23	7	3	1	197	
	%	82.7%	11.7%	3.6%	1.5%	0.5%	100.0%	
친척집	빈도	346	37	12	4	4	403	
	%	85.9%	9.2%	3.0%	1.0%	1.0%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264	24	5	4	2	299	
	%	88.3%	8.0%	1.7%	1.3%	0.7%	100.0%	
거주 형태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60	9	5	2	3	79
	%	75.9%	11.4%	6.3%	2.5%	3.8%	100.0%	
혼자 거주	빈도	154	18	5	1	11	189	
	%	81.5%	9.5%	2.6%	0.5%	5.8%	100.0%	
하숙	빈도	70	4	3	0	1	78	
	%	89.7%	5.1%	3.8%	0.0%	1.3%	100.0%	
기숙사	빈도	1,571	122	34	7	5	1,739	
	%	90.3%	7.0%	2.0%	0.4%	0.3%	100.0%	
아르바이트	빈도	30	3	2	0	8	43	
	%	69.8%	7.0%	4.7%	0.0%	18.6%	100.0%	
청소년보호 시설	빈도	262	58	17	9	23	369	
	%	71.0%	15.7%	4.6%	2.4%	6.2%	100.0%	
기타	빈도	477	48	17	7	16	565	
	%	84.4%	8.5%	3.0%	1.2%	2.8%	100.0%	
전 체	빈도	57,485	4,839	1,022	371	383	64,100	
	%	89.7%	7.5%	1.6%	0.6%	0.6%	100.0%	

$\chi^2=769.155^{***}$

$p<.05^*$, $p<.01^{**}$, $p<.001^{***}$

거주형태별로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험을 살펴보면, 청소년 보호시설 또는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조부모님과 함께 거주 또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응답률에 있어서는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18.6%)와 청소년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6.2%), 혼자 거주하는 경우(5.8%)가 타 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4)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표 214〉 거주형태별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구분	사례수 %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부모님	빈도	54,433	2,440	528	223	239	57,863	
	%	94.1%	4.2%	0.9%	0.4%	0.4%	100.0%	
조부모님	빈도	1,995	95	31	14	14	2,149	
	%	92.8%	4.4%	1.4%	0.7%	0.7%	100.0%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180	12	4	1	0	197	
	%	91.4%	6.1%	2.0%	0.5%	0.0%	100.0%	
친척집	빈도	364	22	10	2	3	401	
	%	90.8%	5.5%	2.5%	0.5%	0.7%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279	9	5	3	3	299	
	%	93.3%	3.0%	1.7%	1.0%	1.0%	100.0%	
거주 형태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58	9	3	5	4	79
	%	73.4%	11.4%	3.8%	6.3%	5.1%	100.0%	
혼자 거주 태	빈도	159	8	10	3	9	189	
	%	84.1%	4.2%	5.3%	1.6%	4.8%	100.0%	
하숙	빈도	69	6	1	0	2	78	
	%	88.5%	7.7%	1.3%	0.0%	2.6%	100.0%	
기숙사	빈도	1,645	68	10	6	6	1,735	
	%	94.8%	3.9%	0.6%	0.3%	0.3%	100.0%	
아르바이트 하는 곳	빈도	31	4	1	1	6	43	
	%	72.1%	9.3%	2.3%	2.3%	14.0%	100.0%	
청소년보호 시설	빈도	285	38	16	9	21	369	
	%	77.2%	10.3%	4.3%	2.4%	5.7%	100.0%	
기타	빈도	497	34	8	8	16	563	
	%	88.3%	6.0%	1.4%	1.4%	2.8%	100.0%	
전 체	빈도	59,995	2,745	627	275	323	63,965	
	%	93.8%	4.3%	1.0%	0.4%	0.5%	100.0%	

$\chi^2=847.777^{***}$

$p<.05^*$, $p<.01^{**}$, $p<.001^{***}$

거주형태별로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뺏은 경험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거주하는 응답자, 친구 또는 선후배와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기숙사 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응답률에 있어서는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14.0%), 청소년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5.7%), 친구 또는 선후배와 거주하는 경우(5.1%)가 타 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5)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표 215〉 거주형태별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구분	사례수 %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전체
		있음	없음	
부모님	빈도	3,849	53,987	57,836
	%	6.7%	93.3%	100.0%
조부모님	빈도	147	2,005	2,152
	%	6.8%	93.2%	100.0%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24	174	198
	%	12.1%	87.9%	100.0%
친척집	빈도	28	370	398
	%	7.0%	93.0%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16	283	299
	%	5.4%	94.6%	100.0%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8	71	79
	%	10.1%	89.9%	100.0%
혼자 거주	빈도	26	163	189
	%	13.8%	86.2%	100.0%
하숙	빈도	6	74	80
	%	7.5%	92.5%	100.0%
기숙사	빈도	117	1,618	1,735
	%	6.7%	93.3%	100.0%
아르바이트하는 곳	빈도	11	31	42
	%	26.2%	73.8%	100.0%
청소년보호시설	빈도	56	314	370
	%	15.1%	84.9%	100.0%
기타	빈도	56	510	566
	%	9.9%	90.1%	100.0%
전체	빈도	4,344	59,600	63,944
	%	6.8%	93.2%	100.0%

$\chi^2=101.788^{***}$

$p<.05^*$, $p<.01^{**}$, $p<.001^{***}$

거주형태별로 성폭력(성희롱) 위협 경험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거주(26.2%), 청소년보호 시설에 거주(15.1%), 혼자 거주(13.8%), 결혼한 형제가족과 거주(12.1%), 친구 또는 선후배와 거주(10.1%) 순으로 성폭력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6)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표 216〉 거주형태별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구분	사례수 %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전체
		있음	없음	
부모님	빈도	3,227	54,618	57,845
	%	5.6%	94.4%	100.0%
조부모님	빈도	129	2,025	2,154
	%	6.0%	94.0%	100.0%
거주 형태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16	182
	%	8.1%	91.9%	100.0%
	친척집	빈도	18	380
	%	4.5%	95.5%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17	282
	%	5.7%	94.3%	100.0%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14	65
	%	17.7%	82.3%	100.0%
혼자 거주	빈도	25	164	189
	%	13.2%	86.8%	100.0%
하숙	빈도	3	77	80
	%	3.8%	96.3%	100.0%
기숙사	빈도	100	1,633	1,733
	%	5.8%	94.2%	100.0%
아르바이트하는 곳	빈도	10	33	43
	%	23.3%	76.7%	100.0%
청소년보호시설	빈도	41	329	370
	%	11.1%	88.9%	100.0%
기타	빈도	55	512	567
	%	9.7%	90.3%	100.0%
전체	빈도	3,655	60,300	63,955
	%	5.7%	94.3%	100.0%

$\chi^2=107.953^{***}$ $p<.05^*$, $p<.01^{**}$, $p<.001^{***}$

거주형태별로 성매매 유혹 경험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거주(23.3%), 친구 또는 선후배와 거주(17.7%), 혼자 거주(13.2%), 청소년보호 시설에 거주(11.1%), 기타(9.7%), 결혼한 형제가족과 거주(8.1%) 순으로 성매매 유혹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7) 자살 생각 경험

〈표 217〉 자살 생각 경험

구분	사례수 %	자살 생각 경험		전체
		있음	없음	
부모님	빈도	12,568	45,288	57,856
	%	21.7%	78.3%	100.0%
조부모님	빈도	609	1,544	2,153
	%	28.3%	71.7%	100.0%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43	155	198
	%	21.7%	78.3%	100.0%
친척집	빈도	96	303	399
	%	24.1%	75.9%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75	224	299
	%	25.1%	74.9%	100.0%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24	55	79
	%	30.4%	69.6%	100.0%
혼자 거주	빈도	76	113	189
	%	40.2%	59.8%	100.0%
하숙	빈도	19	61	80
	%	23.8%	76.3%	100.0%
기숙사	빈도	380	1,353	1,733
	%	21.9%	78.1%	100.0%
아르바이트하는 곳	빈도	20	23	43
	%	46.5%	53.5%	100.0%
청소년보호시설	빈도	139	232	371
	%	37.5%	62.5%	100.0%
기타	빈도	174	393	567
	%	30.7%	69.3%	100.0%
전체	빈도	14,223	49,744	63,967
	%	22.2%	77.8%	100.0%

$\chi^2=182.988^{***}$

$p<.05^*$, $p<.01^{**}$, $p<.001^{***}$

거주형태별로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거주(46.5%), 혼자 거주(40.2%), 청소년보호 시설 거주(37.5%), 기타(30.7%), 친구 또는 선후배와 거주(30.4%), 조부모님과 거주(28.3%) 순으로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8) 자살 시도 경험

〈표 218〉 자살 시도 경험

구분	사례수 %	자살 시도 경험		전체	
		있음	없음		
부모님	빈도	3,716	54,140	57,856	
	%	6.4%	93.6%	100.0%	
조부모님	빈도	203	1,950	2,153	
	%	9.4%	90.6%	100.0%	
거주형태	결혼한 형제가족	빈도	21	177	198
	%	10.6%	89.4%	100.0%	
친척집	빈도	31	368	399	
	%	7.8%	92.2%	100.0%	
형제들과 자취	빈도	30	270	300	
	%	10.0%	90.0%	100.0%	
친구 또는 선후배	빈도	17	61	78	
	%	21.8%	78.2%	100.0%	
혼자 거주	빈도	29	160	189	
	%	15.3%	84.7%	100.0%	
하숙	빈도	1	79	80	
	%	1.3%	98.8%	100.0%	
기숙사	빈도	100	1,634	1,734	
	%	5.8%	94.2%	100.0%	
아르바이트하는 곳	빈도	12	31	43	
	%	27.9%	72.1%	100.0%	
청소년보호시설	빈도	74	295	369	
	%	20.1%	79.9%	100.0%	
기타	빈도	66	500	566	
	%	11.7%	88.3%	100.0%	
전체	빈도	4,300	59,665	63,965	
	%	6.7%	93.3%	100.0%	

$\chi^2=258.416^{***}$

$p<.05^*$, $p<.01^{**}$, $p<.001^{***}$

거주형태별로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거주(27.9%), 친구 또는 선후배와 거주(21.8%), 청소년보호 시설 거주(20.1%), 혼자 거주(15.3%), 기타(11.7%), 형제들과 자취(10.0%) 순으로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7) 가정경제수준별

(1)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표 219〉 가정경제수준별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매우 어려운 편	빈도	1,582	108	57	49	87	1,883
	%	84.0%	5.7%	3.0%	2.6%	4.6%	100.0%
어려운 편	빈도	10,716	600	211	87	51	11,665
	%	91.9%	5.1%	1.8%	0.7%	0.4%	100.0%
보통	빈도	44,180	1,558	418	162	111	46,429
	%	95.2%	3.4%	0.9%	0.3%	0.2%	100.0%
잘사는 편	빈도	5,356	197	51	22	17	5,643
	%	94.9%	3.5%	0.9%	0.4%	0.3%	100.0%
매우 잘사는 편	빈도	846	28	19	7	22	922
	%	91.8%	3.0%	2.1%	0.8%	2.4%	100.0%
전체	빈도	62,680	2,491	756	327	288	66,542
	%	94.2%	3.7%	1.1%	0.5%	0.4%	100.0%

$\chi^2=1367.339^{***}$

$p<.05^*$,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로 가정내 신체적 학대 경험을 살펴보면, 경제 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 ‘매우 잘사는 편’, ‘어려운 편’ 순으로 학대 받은 경험이 많았다.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5.7%, 3.0%, 2.6%로 높았다. ‘거의 매일’ 학대 받았다는 응답은 ‘매우 어려운 편’(4.6%), ‘매우 잘사는 편’(2.4%)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2)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표 220〉 가정경제수준별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가정 경제 수준	매우 어려운 편	빈도 1,435 % 76.3%	128 6.8%	79 4.2%	91 4.8%	147 7.8%	1,880 100.0%
	어려운 편	빈도 9,786 % 83.8%	854 7.3%	432 3.7%	371 3.2%	239 2.0%	11,682 100.0%
전 체	보통	빈도 42,138 % 90.8%	2,454 5.3%	848 1.8%	608 1.3%	369 0.8%	46,417 100.0%
	잘사는 편	빈도 5,167 % 91.6%	258 4.6%	99 1.8%	74 1.3%	43 0.8%	5,641 100.0%
전 체	매우 잘사는 편	빈도 823 % 89.3%	32 3.5%	25 2.7%	20 2.2%	22 2.4%	922 100.0%
		빈도 59,349 % 89.2%	3,726 5.6%	1,483 2.2%	1,164 1.7%	820 1.2%	66,542 100.0%

$\chi^2=1482.323^{***}$ $p<.05^*$,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로 가정에서의 폭언과 욕설에 시달린 경험을 살펴보면, 경제 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 ‘어려운 편’, ‘매우 잘사는 편’ 순으로 시달린 경험이 많았다. ‘일 년에 1-2번’의 경우, 경제수준이 ‘어려운 편’인 응답자의 비율(7.3%)이 가장 높았다. ‘한 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험은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4.2%, 4.8%로 높았다. ‘거의 매일’ 시달렸다는 응답은 ‘매우 어려운 편’(7.8%), ‘매우 잘사는 편’(2.4%), ‘어려운 편’(2.0%)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3) 3일 이상 가출 시도 경험

〈표 221〉 가정경제수준별 3일 이상 가출 시도 경험

구분	사례수 %	3일 이상 가출 시도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매우 어려운 편	빈도	1,567	131	53	25	107	1,883
	%	83.2%	7.0%	2.8%	1.3%	5.7%	100.0%
어려운 편	빈도	10,583	732	193	82	94	11,684
	%	90.6%	6.3%	1.7%	0.7%	0.8%	100.0%
보통	빈도	43,725	1,895	420	154	214	46,408
	%	94.2%	4.1%	0.9%	0.3%	0.5%	100.0%
잘사는 편	빈도	5,296	228	60	27	34	5,645
	%	93.8%	4.0%	1.1%	0.5%	0.6%	100.0%
매우 잘사는 편	빈도	819	45	24	7	25	920
	%	89.0%	4.9%	2.6%	0.8%	2.7%	100.0%
전체	빈도	61,990	3,031	750	295	474	66,540
	%	93.2%	4.6%	1.1%	0.4%	0.7%	100.0%

$\chi^2=1089.899^{***}$

$p<.05^*$,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로 3일 이상 가출 시도 경험을 살펴보면, 경제 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 ‘매우 잘사는 편’, ‘어려운 편’ 순으로 가출 시도 경험이 많았다. ‘일 년에 1-2번’, ‘한 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7.0%, 2.8%, 1.3%로 높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은 ‘매우 어려운 편’(5.7%), ‘매우 잘사는 편’(2.7%)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4)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표 222〉 가정경제수준별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구분	사례수 %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매우 어려운 편	빈도	1,249	287	116	90	141	1,883	
	%	66.3%	15.2%	6.2%	4.8%	7.5%	100.0%	
가 정 경 제 수 준	어려운 편	빈도	8,321	2,106	665	342	244	11,678
		%	71.3%	18.0%	5.7%	2.9%	2.1%	100.0%
	보통	빈도	37,150	6,395	1,629	671	500	46,345
		%	80.2%	13.8%	3.5%	1.4%	1.1%	100.0%
	잘사는 편	빈도	4,545	738	184	103	75	5,645
		%	80.5%	13.1%	3.3%	1.8%	1.3%	100.0%
전 체	매우 잘사는 편	빈도	706	115	44	14	33	912
		%	77.4%	12.6%	4.8%	1.5%	3.6%	100.0%
	전체	빈도	51,971	9,641	2,638	1,220	993	66,463
		%	78.2%	14.5%	4.0%	1.8%	1.5%	100.0%

$\chi^2=1169.000^{***}$ $p<.05^*$,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로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을 살펴보면, 경제 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 ‘어려운 편’, ‘매우 잘사는 편’ 순으로 경험이 많았다. ‘일 년에 1-2번’의 경우, 경제수준이 ‘어려운 편’인 응답자의 비율(18.0%)이 가장 높았다. ‘한 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6.2%, 4.8%로 높았다. ‘거의 매일’ 확대 받았다는 응답은 ‘매우 어려운 편’ 우 5%), ‘매우 잘사는 편’(3.6%), ‘어려운 편’(2.1%)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5)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표 223〉 가정경제수준별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구분	사례수 %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 적		
매우 어려운 편	빈도	1,338	229	94	77	145	1,883	
	%	71.1%	12.2%	5.0%	4.1%	7.7%	100.0%	
가 정 경 제 수 준	어려운 편	빈도	9,082	1,459	524	272	340	11,677
		%	77.8%	12.5%	4.5%	2.3%	2.9%	100.0%
	보통	빈도	40,008	3,971	1,153	575	645	46,352
		%	86.3%	8.6%	2.5%	1.2%	1.4%	100.0%
	잘사는 편	빈도	5,012	366	116	65	81	5,640
		%	88.9%	6.5%	2.1%	1.2%	1.4%	100.0%
전 체	매우 잘사는 편	빈도	777	70	23	11	32	913
		%	85.1%	7.7%	2.5%	1.2%	3.5%	100.0%
전 체	빈도	56,217	6,095	1,910	1,000	1,243	66,465	
		%	84.6%	9.2%	2.9%	1.5%	1.9%	100.0%

$\chi^2=1178.657^{***}$ $p<.05^*$,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로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을 살펴보면, 경제 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 '어려운 편', '매우 잘사는 편' 순으로 학업중단 고민 경험이 많았다. '일년에 1-2번'의 경우, 경제수준이 '어려운 편'인 응답자의 비율(12.5%)이 가장 높았다. '한 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5.0%, 4.1%로 높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은 '매우 어려운 편'(7.7%), '매우 잘사는 편'(3.5%), '어려운 편'(2.9%)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6)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표 224〉 가정경제수준별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구분	사례수 %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매우 어려운 편	빈도	1,712	81	17	18	56	1,884	
	%	90.9%	4.3%	0.9%	1.0%	3.0%	100.0%	
가 정 경 제 수 준	어려운 편	빈도	11,273	275	66	38	30	11,682
		%	96.5%	2.4%	0.6%	0.3%	0.3%	100.0%
보통	빈도	45,332	685	178	73	100	46,368	
	%	97.8%	1.5%	0.4%	0.2%	0.2%	100.0%	
매우 잘사는 편	빈도	5,501	85	20	23	14	5,643	
	%	97.5%	1.5%	0.4%	0.4%	0.2%	100.0%	
전 체	빈도	64,679	1,145	292	155	219	66,490	
	%	97.3%	1.7%	0.4%	0.2%	0.3%	100.0%	

$\chi^2=729.888^{***}$

$p<.05^*$,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로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받은 경험을 살펴보면, 경제 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 ‘매우 잘사는 편’, ‘어려운 편’ 순으로 자퇴경고나 퇴학통보를 받은 경험이 많았다. ‘일 년에 1-2번’, ‘한 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4.3%, 0.9%, 1.0%로 높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은 ‘매우 어려운 편’(3.0%), ‘매우 잘사는 편’(2.1%)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7) 학교폭력 피해 경험

〈표 225〉 가정경제수준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구분	사례수 %	학교폭력 피해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매우 어려운 편	빈도	1,551	112	56	50	112	1,881
	%	82.5%	6.0%	3.0%	2.7%	6.0%	100.0%
어려운 편	빈도	10,264	703	208	260	215	11,650
	%	88.1%	6.0%	1.8%	2.2%	1.8%	100.0%
가정 경제 수준 보통	빈도	43,316	1,811	416	452	415	46,410
	%	93.3%	3.9%	0.9%	1.0%	0.9%	100.0%
잘사는 편	빈도	5,153	289	73	61	64	5,640
	%	91.4%	5.1%	1.3%	1.1%	1.1%	100.0%
매우 잘사는 편	빈도	820	52	7	11	30	920
	%	89.1%	5.7%	0.8%	1.2%	3.3%	100.0%
전체	빈도	61,104	2,967	760	834	836	66,501
	%	91.9%	4.5%	1.1%	1.3%	1.3%	100.0%

$\chi^2=876.967^{***}$

$p<.05^*$,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경제 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 ‘어려운 편’, ‘매우 잘사는 편’ 순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많았다. ‘일 년에 1-2 번’, ‘한 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6.0%, 3.0%, 2.7%로 높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은 ‘매우 어려운 편’(6.0%), ‘매우 잘사는 편’(3.3%), ‘어려운 편’(1.8%)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8) 학교폭력 가해 경험

〈표 226〉 가정경제수준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구분	사례수 %	학교폭력 가해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매우 어려운 편	빈도	1,598	111	37	39	97	1,882
	%	84.9%	5.9%	2.0%	2.1%	5.2%	100.0%
어려운 편	빈도	10,448	703	196	166	139	11,652
	%	89.7%	6.0%	1.7%	1.4%	1.2%	100.0%
가정 경제 수준 보통	빈도	43,087	2,075	470	366	336	46,334
	%	93.0%	4.5%	1.0%	0.8%	0.7%	100.0%
잘사는 편	빈도	5,142	308	74	54	61	5,639
	%	91.2%	5.5%	1.3%	1.0%	1.1%	100.0%
매우 잘사는 편	빈도	804	42	20	8	40	914
	%	88.0%	4.6%	2.2%	0.9%	4.4%	100.0%
전체	빈도	61,079	3,239	797	633	673	66,421
	%	92.0%	4.9%	1.2%	1.0%	1.0%	100.0%

$\chi^2=659.806^{***}$

$p<.05^*$,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살펴보면, 경제 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 ‘매우 잘사는 편’, ‘어려운 편’ 순으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많았다. ‘일 년에 1-2번’의 경우, 경제수준이 ‘어려운 편’인 응답자의 비율(6.0%)이 가장 높았다. ‘한 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는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5.0%, 4.1%로 높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은 ‘매우 어려운 편’(6.0%), ‘매우 잘사는 편’(3.3%), ‘어려운 편’(1.8%)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9)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표 227〉 가정경제수준별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매우 어려운 편	빈도	1,768	28	9	13	66	1,884
	%	93.8%	1.5%	0.5%	0.7%	3.5%	100.0%
어려운 편	빈도	11,498	59	47	26	42	11,672
	%	98.5%	0.5%	0.4%	0.2%	0.4%	100.0%
가정 경제 수준 보통	빈도	45,964	138	88	53	108	46,351
	%	99.2%	0.3%	0.2%	0.1%	0.2%	100.0%
잘사는 편	빈도	5,590	23	12	4	14	5,643
	%	99.1%	0.4%	0.2%	0.1%	0.2%	100.0%
매우 잘사는 편	빈도	864	9	5	5	31	914
	%	94.5%	1.0%	0.5%	0.5%	3.4%	100.0%
전체	빈도	65,684	257	161	101	261	66,464
	%	98.8%	0.4%	0.2%	0.2%	0.4%	100.0%

$\chi^2=876.796^{***}$

$p<.05^*$,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로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을 살펴보면, 경제 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 ‘매우 잘사는 편’, ‘어려운 편’ 순으로 약물 흡입 경험이 많았다. ‘일 년에 1-2번’, ‘한 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은 ‘매우 어려운 편’(3.5%), ‘매우 잘사는 편’(3.4%)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0) 음주, 흡연 경험

〈표 228〉 가정경제수준별 음주, 흡연 경험

구분	사례수 %	음주, 흡연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매우 어려운 편	빈도	1,180	171	165	81	286	1,883	
	%	62.7%	9.1%	8.8%	4.3%	15.2%	100.0%	
어려운 편	빈도	7,949	1,178	999	536	1,014	11,676	
	%	68.1%	10.1%	8.6%	4.6%	8.7%	100.0%	
가정 경제 수준	보통	빈도	35,833	3,988	2,768	1,345	2,379	46,313
		%	77.4%	8.6%	6.0%	2.9%	5.1%	100.0%
잘사는 편	빈도	4,593	402	257	139	247	5,638	
	%	81.5%	7.1%	4.6%	2.5%	4.4%	100.0%	
매우 잘사는 편	빈도	697	62	32	26	97	914	
	%	76.3%	6.8%	3.5%	2.8%	10.6%	100.0%	
전체	빈도	50,252	5,801	4,221	2,127	4,023	66,424	
	%	75.7%	8.7%	6.4%	3.2%	6.1%	100.0%	

$\chi^2=991.689^{***}$

$p<.05^*$,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로 음주와 흡연 경험을 살펴보면, 경제 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 '어려운 편', '매우 잘사는 편' 순으로 음주와 흡연 경험이 많았다. '일 년에 1-2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에는 경제수준이 '어려운 편'에 속하는 집단의 응답률이 10.1%와 4.6%로 높았으며, '한 달에 1번'의 경우에는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집단의 응답률이 (8.8%) 높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은 '매우 어려운 편'(15.2%), '매우 잘사는 편'(10.6%), '어려운 편'(8.7%)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11)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표 229〉 가정경제수준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구분	사례수 %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매우 어려운 편	빈도	1,396	156	102	92	134	1,880
	%	74.3%	8.3%	5.4%	4.9%	7.1%	100.0%
어려운 편	빈도	8,557	1,354	819	624	320	11,674
	%	73.3%	11.6%	7.0%	5.3%	2.7%	100.0%
가정 경제 수준 보통	빈도	35,743	5,140	2,837	1,833	786	46,339
	%	77.1%	11.1%	6.1%	4.0%	1.7%	100.0%
잘사는 편	빈도	4,393	643	301	209	96	5,642
	%	77.9%	11.4%	5.3%	3.7%	1.7%	100.0%
매우 잘사는 편	빈도	726	78	42	27	40	913
	%	79.5%	8.5%	4.6%	3.0%	4.4%	100.0%
전체	빈도	50,815	7,371	4,101	2,785	1,376	66,448
	%	76.5%	11.1%	6.2%	4.2%	2.1%	100.0%

$\chi^2=437.000^{***}$

$p<.05^*$,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어려운 편’, ‘매우 어려운 편’, ‘보통’ 순으로 갈등 경험이 많았다. ‘일 년에 1-2번’, ‘한 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 경제수준이 ‘어려운 편’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11.6%, 7.0%, 5.3%로 가장 많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은 ‘매우 어려운 편’(7.1%), ‘매우 잘사는 편’(4.4%), ‘어려운 편’(2.7%)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2)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표 230〉 가정경제수준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구분	사례수 %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제대로 일 못한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매우 어려운 편	빈도	1,147	216	159	159	198	1,879
	%	61.0%	11.5%	8.5%	8.5%	10.5%	100.0%
어려운 편	빈도	6,377	1,682	1,515	1,418	685	11,677
	%	54.6%	14.4%	13.0%	12.1%	5.9%	100.0%
가정 경제 수준 보통	빈도	26,183	7,464	5,930	4,878	1,929	46,384
	%	56.4%	16.1%	12.8%	10.5%	4.2%	100.0%
잘사는 편	빈도	3,337	942	640	506	214	5,639
	%	59.2%	16.7%	11.3%	9.0%	3.8%	100.0%
매우 잘사는 편	빈도	630	103	53	63	71	920
	%	68.5%	11.2%	5.8%	6.8%	7.7%	100.0%
전체	빈도	37,674	10,407	8,297	7,024	3,097	66,499
	%	56.7%	15.6%	12.5%	10.6%	4.7%	100.0%

$\chi^2=456.730^{***}$

$p<.05^*$,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로 인터넷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못한 경험을 살펴보면, 경제 수준이 ‘어려운 편’, ‘보통’, ‘잘사는 편’ 순으로 갈수록 경험이 많았다. ‘일 년에 1-2번’의 경우는 ‘잘사는 편’인 응답(16.7%)이, ‘한 달에 1번’과 ‘1주일에 1-2번’의 경우는 ‘어려운 편’에 속하는 응답 비율(13.0%, 12.1%)이 각각 높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은 ‘매우 어려운 편’(10.5%), ‘매우 잘사는 편’(7.7%), ‘어려운 편’(5.9%)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3)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표 231〉 가정경제수준별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구분	사례수 %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매우 어려운 편	빈도	1,540	183	54	20	83	1,880	
	%	81.9%	9.7%	2.9%	1.1%	4.4%	100.0%	
어려운 편	빈도	10,197	1,085	243	86	63	11,674	
	%	87.3%	9.3%	2.1%	0.7%	0.5%	100.0%	
가정 경제 수준	보통	빈도	42,032	3,244	644	224	202	46,346
		%	90.7%	7.0%	1.4%	0.5%	0.4%	100.0%
잘사는 편	빈도	5,042	440	99	39	19	5,639	
	%	89.4%	7.8%	1.8%	0.7%	0.3%	100.0%	
매우 잘사는 편	빈도	777	69	23	12	31	912	
	%	85.2%	7.6%	2.5%	1.3%	3.4%	100.0%	
전체	빈도	59,588	5,021	1,063	381	398	66,451	
	%	89.7%	7.6%	1.6%	0.6%	0.6%	100.0%	

$\chi^2=793.718^{***}$

$p<.05^*$,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로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험을 살펴보면, 경제 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 '매우 잘사는 편', '어려운 편' 순으로 경험이 많았다. '일 년에 1-2번', '한 달에 1번'의 경우, 경제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9.7%, 2.9%, 1.1%로 높았다. '1주일에 1-2번'의 경우는 '매우 잘사는 편'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1.3%)이 높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은 '매우 어려운 편'(4.4%), '매우 잘사는 편'(3.4%)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4)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표 232〉 가정경제수준별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구분	사례수 %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매우 어려운 편	빈도	1,631	112	39	22	71	1,875
	%	87.0%	6.0%	2.1%	1.2%	3.8%	100.0%
어려운 편	빈도	10,809	589	136	59	53	11,646
	%	92.8%	5.1%	1.2%	0.5%	0.5%	100.0%
가정 경제 수준 보통	빈도	43,706	1,818	409	161	157	46,251
	%	94.5%	3.9%	0.9%	0.3%	0.3%	100.0%
잘사는 편	빈도	5,245	275	53	31	23	5,627
	%	93.2%	4.9%	0.9%	0.6%	0.4%	100.0%
매우 잘사는 편	빈도	806	53	11	10	32	912
	%	88.4%	5.8%	1.2%	1.1%	3.5%	100.0%
전체	빈도	62,197	2,847	648	283	336	66,311
	%	93.8%	4.3%	1.0%	0.4%	0.5%	100.0%

$\chi^2=732.179^{***}$

$p<.05^*$,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로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뺏은 경험을 살펴보면, 경제 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 ‘매우 잘사는 편’, ‘어려운 편’ 순으로 경험이 많았다. ‘일 년에 1-2번’, ‘한 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6.0%, 2.1%, 1.2%로 높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은 ‘매우 어려운 편’(3.8%), ‘매우 잘사는 편’(3.5%)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5)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표 233〉 가정경제수준별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구분	사례수 %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전체	
		있음	없음		
매우 어려운 편	빈도	275	1,601	1,876	
	%	14.7%	85.3%	100.0%	
가 정 경 제 수 준	어려운 편	빈도	873	10,768	11,641
		%	7.5%	92.5%	100.0%
보통	빈도	2,797	43,433	46,230	
	%	6.1%	93.9%	100.0%	
매우 잘사는 편	잘사는 편	빈도	386	5,234	5,620
		%	6.9%	93.1%	100.0%
매우 잘사는 편	매우 잘사는 편	빈도	111	809	920
		%	12.1%	87.9%	100.0%
전 체	빈도	4,442	61,845	66,287	
		%	6.7%	93.3%	100.0%

$\chi^2=275.800^{***}$

$p<.05^*$,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로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을 살펴보면, 경제 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14.7%), ‘매우 잘사는 편’(12.1%), ‘어려운 편’(7.5%), ‘잘사는 편’(6.9%), ‘보통’(6.1%) 순으로 경험이 많았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6)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표 234〉 가정경제수준별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구분	사례수 %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전체
		있음	없음	
가 정 경 제 수 준	매우 어려운 편	빈도 233 12.4%	1,644 87.6%	1,877 100.0%
	어려운 편	빈도 702 6.0%	10,942 94.0%	11,644 100.0%
전 체	보통	빈도 2,323 5.0%	43,910 95.0%	46,233 100.0%
	잘사는 편	빈도 352 6.3%	5,273 93.7%	5,625 100.0%
전 체	매우 잘사는 편	빈도 111 12.1%	810 87.9%	921 100.0%
		빈도 3,721 5.6%	62,579 94.4%	66,300 100.0%

$\chi^2=274.384^{***}$

$p<.05^*$,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로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을 살펴보면, 경제 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12.4%), ‘매우 잘사는 편’(12.1%), ‘잘사는 편’(6.3%), ‘어려운 편’(6.0%), ‘보통’(5.0%) 순으로 경험이 많았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7) 자살 생각 경험

〈표 235〉 가정경제수준별 자살 생각 경험

구분	사례수 %	자살 생각 경험		전체
		있음	없음	
가 정 경 제 수 준	매우 어려운 편	빈도 678 36.1%	1,199 63.9%	1,877 100.0%
	어려운 편	빈도 3,378 29.0%	8,268 71.0%	11,646 100.0%
전 체	보통	빈도 9,354 20.2%	36,886 79.8%	46,240 100.0%
	잘사는 편	빈도 1,135 20.2%	4,490 79.8%	5,625 100.0%

	매우 잘사는 편	빈도	213	708	921
		%	23.1%	76.9%	100.0%
전체		빈도	14,758	51,551	66,309
		%	22.3%	77.7%	100.0%

$\chi^2=639.406^{***}$ $p<.05^*$,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로 자살 생각을 해 본 경험을 살펴보면, 경제 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36.1%), '어려운 편'(29.0%), '매우 잘사는 편'(23.1%), '잘사는 편'과 '보통'(20.2%) 순으로 경험이 많았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8) 자살 시도 경험

〈표 236〉 가정경제수준별 자살 시도 경험

구분	사례수	자살 시도 경험		전체	
		있음	없음		
가정경제수준	매우 어려운 편	빈도	308	1,569	1,877
		%	16.4%	83.6%	100.0%
가정경제수준	어려운 편	빈도	944	10,685	11,629
		%	8.1%	91.9%	100.0%
가정경제수준	보통	빈도	2,710	43,526	46,236
		%	5.9%	94.1%	100.0%
가정경제수준	잘사는 편	빈도	379	5,246	5,625
		%	6.7%	93.3%	100.0%
전체	매우 잘사는 편	빈도	99	821	920
		%	10.8%	89.2%	100.0%
전체		빈도	4,440	61,847	66,287
		%	6.7%	93.3%	100.0%

$\chi^2=396.862^{***}$ $p<.05^*$, $p<.01^{**}$, $p<.001^{***}$

가정경제수준별로 자살 시도를 해 본 경험을 살펴보면, 경제 수준이 '매우 어려운 편'(16.4%), '매우 잘사는 편'(10.8%), '어려운 편'(8.1%), '잘사는 편'(6.7%), '보통'(5.9%) 순으로 경험이 많았다. 이와 같은 거주형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다. 위기수준별 위기결과

(1)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표 237〉 위기수준별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정신체학대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위 기	1수준 빈도	42,297	1,146	238	88	60	43,829
	%	96.5%	2.6%	0.5%	0.2%	0.1%	100.0%
수 준	2수준 빈도	5,757	604	214	89	53	6,717
	%	85.7%	9.0%	3.2%	1.3%	0.8%	100.0%
전 체	3수준 빈도	830	156	116	54	97	1,253
	%	66.2%	12.5%	9.3%	4.3%	7.7%	100.0%
	빈도	48,884	1,906	568	231	210	51,799
	%	94.4%	3.7%	1.1%	0.4%	0.4%	100.0%

$$\chi^2=4603.346^{***}$$

$$p<.05^*, p<.01^{**}, p<.001^{***}$$

위기수준별로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을 살펴본 결과, 3수준(고위험군), 2수준(잠재적 위험군), 1수준(보통) 순으로 가정에서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년에 1-2번’, ‘한 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 3수준(고위험군)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12.5%, 9.3%, 4.3%로 가장 높았다. ‘거의 매일’ 경험했다는 응답도 3수준(고위험군)이 7.7%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위기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2)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표 238〉 위기수준별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위 기	1수준 빈도	40,684	1,948	576	417	184	43,809
	%	92.9%	4.4%	1.3%	1.0%	0.4%	100.0%
수 준	2수준 빈도	4,984	745	434	328	226	6,717
	%	74.2%	11.1%	6.5%	4.9%	3.4%	100.0%
전 체	3수준 빈도	633	159	125	146	190	1,253
	%	50.5%	12.7%	10.0%	11.7%	15.2%	100.0%
	빈도	46,301	2,852	1,135	891	600	51,779
	%	89.4%	5.5%	2.2%	1.7%	1.2%	100.0%

$$\chi^2=5958.305^{***}$$

$$p<.05^*, p<.01^{**}, p<.001^{***}$$

위기수준별로 가정에서의 폭언, 욕설에 시달린 경험을 살펴본 결과, 3수준(고위험군), 2수준(잠재적 위험군), 1수준(보통) 순으로 가정에서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년에 1-2번’, ‘한 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 3수준(고위험군)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거의 매일’ 경험했다는 응답도 3수준(고위험군)이 15.2%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위기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3)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표 239〉 위기수준별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구분	사례수 %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위 기 수 준	1수준	빈도	42,183	1,248	212	68	99	43,810
		%	96.3%	2.8%	0.5%	0.2%	0.2%	100.0%
2수준	빈도	5,406	883	237	98	94	6,718	
	%	80.5%	13.1%	3.5%	1.5%	1.4%	100.0%	
3수준	빈도	683	239	108	57	165	1,252	
	%	54.6%	19.1%	8.6%	4.6%	13.2%	100.0%	
전 체	빈도	48,272	2,370	557	223	358	51,780	
	%	93.2%	4.6%	1.1%	0.4%	0.7%	100.0%	

$$\chi^2=7228.785^{***}$$

$$p < .05^*, p < .01^{**}, p < .001^{***}$$

위기수준별로 3일 이상 가출을 시도해 본 경험을 살펴본 결과, 3수준(고위험군), 2수준(잠재적 위험군), 1수준(보통) 순으로 나타났다. ‘일 년에 1-2번’, ‘한 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 3수준(고위험군)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도 3수준(고위험군)이 13.2%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3수준의 경우 ‘한달에 1번’ 또는 ‘1주일에 1-2번’ 보다는 ‘지속적’인 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위기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4) 심각한 가출 고려 경험

〈표 240〉 위기수준별 심각한 가출 고려 경험

구분	사례수 %	심각한 가출 고려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1수준	빈도	36,901	5,273	1,020	342	186	43,722
	%	84.4%	12.1%	2.3%	0.8%	0.4%	100.0%
2수준	빈도	3,423	1,793	791	403	298	6,708
	%	51.0%	26.7%	11.8%	6.0%	4.4%	100.0%
3수준	빈도	439	206	202	142	261	1,250
	%	35.1%	16.5%	16.2%	11.4%	20.9%	100.0%
전체	빈도	40,763	7,272	2,013	887	745	51,680
	%	78.9%	14.1%	3.9%	1.7%	1.4%	100.0%

$\chi^2=9485.248^{***}$ $p<.05^*$, $p<.01^{**}$, $p<.001^{***}$

위기수준별로 심각한 가출을 고려해 본 경험을 살펴본 결과, 3수준(고위험군), 2수준(잠재적 위험군), 1수준(보통) 순으로 나타났다. ‘일 년에 1-2번’의 경우는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응답률(26.7%)이 가장 높았으며, ‘한 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는 3수준(고위험군)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16.2%, 11.4%)이 가장 높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도 3수준(고위험군)이 20.9%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위기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5) 심각한 학업중단 고려 경험

〈표 241〉 위기수준별 심각한 학업중단 고려 경험

구분	사례수 %	심각한 학업중단 고려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1수준	빈도	39,185	3,169	747	308	320	43,729
	%	89.6%	7.2%	1.7%	0.7%	0.7%	100.0%
2수준	빈도	4,140	1,329	567	324	344	6,704
	%	61.8%	19.8%	8.5%	4.8%	5.1%	100.0%
3수준	빈도	481	231	150	116	273	1,251
	%	38.4%	18.5%	12.0%	9.3%	21.8%	100.0%
전체	빈도	43,806	4,729	1,464	748	937	51,684
	%	84.8%	9.1%	2.8%	1.4%	1.8%	100.0%

$\chi^2=7976.401^{***}$ $p<.05^*$, $p<.01^{**}$, $p<.001^{***}$

위기수준별로 심각한 학업중단을 고려해 본 경험을 살펴본 결과, 3수준(고위험군), 2수준(잠재적 위험군), 1수준(보통) 순으로 나타났다. ‘일 년에 1-2번’의 경우는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응답률(19.8%)이 가장 높았으며, ‘한 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는 3수준(고위험군)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12.0%, 9.3%)이 가장 높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도 3수준(고위험군)이 21.8%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위기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6)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표 242〉 위기수준별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구분	사례수 %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1수준	빈도	43,165	416	69	38	46	43,734
위	%	98.7%	1.0%	0.2%	0.1%	0.1%	100.0%
기	빈도	6,210	325	91	50	37	6,713
수	%	92.5%	4.8%	1.4%	0.7%	0.6%	100.0%
준	빈도	962	116	56	31	85	1,250
3수준	%	77.0%	9.3%	4.5%	2.5%	6.8%	100.0%
전	빈도	50,337	857	216	119	168	51,697
체	%	97.4%	1.7%	0.4%	0.2%	0.3%	100.0%

$$\chi^2=3843.063^{***}$$

$$p < .05^*, p < .01^{**}, p < .001^{***}$$

위기수준별로 자퇴경고나 퇴학통보를 받은 경험을 살펴본 결과, 3수준(고위험군), 2수준(잠재적 위험군), 1수준(보통) 순으로 나타났다. ‘일 년에 1-2번’, ‘한 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 3수준(고위험군)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4.5%, 2.2%, 6.8%로 높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도 3수준(고위험군)이 6.8%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위기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7) 학교폭력 피해 경험

〈표 243〉 위기수준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구분	사례수 %	학교폭력 피해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위 기	1수준	빈도	41,051	1,640	348	427	333	43,799
		%	93.7%	3.7%	0.8%	1.0%	0.8%	100.0%
수 준	2수준	빈도	5,718	524	171	151	150	6,714
		%	85.2%	7.8%	2.5%	2.2%	2.2%	100.0%
전 체	3수준	빈도	926	114	65	33	112	1,250
		%	74.1%	9.1%	5.2%	2.6%	9.0%	100.0%
		빈도	47,695	2,278	584	611	595	51,763
		%	92.1%	4.4%	1.1%	1.2%	1.1%	100.0%

$$\chi^2=1614.249^{***}$$

$$p<.05^*, p<.01^{**}, p<.001^{***}$$

위기수준별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 3수준(고위험군), 2수준(잠재적 위험군), 1수준(보통) 순으로 나타났다. ‘일 년에 1-2번’, ‘한 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 3수준(고위험군)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9.1%, 5.2%, 2.6%로 높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도 3수준(고위험군)이 9.0%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위기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8) 학교폭력 가해 경험

〈표 244〉 위기수준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구분	사례수 %	학교폭력 가해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위 기	1수준	빈도	41,104	1,726	337	292	249	43,708
		%	94.0%	3.9%	0.8%	0.7%	0.6%	100.0%
수 준	2수준	빈도	5,708	581	186	108	121	6,704
		%	85.1%	8.7%	2.8%	1.6%	1.8%	100.0%
전 체	3수준	빈도	864	137	75	52	125	1,253
		%	69.0%	10.9%	6.0%	4.2%	10.0%	100.0%
		빈도	47,676	2,444	598	452	495	51,665
		%	92.3%	4.7%	1.2%	0.9%	1.0%	100.0%

$$\chi^2=2362.762^{***}$$

$$p<.05^*, p<.01^{**}, p<.001^{***}$$

위기수준별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 3수준(고위험군), 2수준(잠재적 위험군), 1수준(보통) 순으로 나타났다. ‘일 년에 1-2번’, ‘한 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 3수준(고위험군)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10.9%, 6.0%, 4.2%)이 가장 높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도 3수준(고위험군)이 10.0%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위기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9)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표 245〉 위기수준별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위 기 수 준	1수준	빈도 43,481	83	48	28	76	43,716
		% 99.5%	0.2%	0.1%	0.1%	0.2%	100.0%
2수준	빈도 6,527	66	47	25	42	6,707	
	% 97.3%	1.0%	0.7%	0.4%	0.6%	100.0%	
3수준	빈도 1,096	28	21	23	83	1,251	
	% 87.6%	2.2%	1.7%	1.8%	6.6%	100.0%	
전 체	빈도 51,104	177	116	76	201	51,674	
	% 98.9%	0.3%	0.2%	0.1%	0.4%	100.0%	

$$\chi^2 = 2075.389^{***}$$

$$p < .05^*, p < .01^{**}, p < .001^{***}$$

위기수준별로 가스, 본드, 마약류를 흡입해 본 경험을 살펴본 결과, 3수준(고위험군), 2수준(잠재적 위험군), 1수준(보통) 순으로 나타났다. ‘일 년에 1-2번’, ‘한 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 3수준(고위험군)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2.2%, 1.7%, 1.8%)이 가장 높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도 3수준(고위험군)이 6.6%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위기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0) 음주, 흡연 경험

〈표 246〉 위기수준별 음주, 흡연 경험

구분	사례수 %	음주, 흡연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1수준	빈도	35,038	3,545	2,348	1,078	1,683	43,692
	%	80.2%	8.1%	5.4%	2.5%	3.9%	100.0%
2수준	빈도	3,460	839	845	468	1,088	6,700
	%	51.6%	12.5%	12.6%	7.0%	16.2%	100.0%
3수준	빈도	422	119	143	126	440	1,250
	%	33.8%	9.5%	11.4%	10.1%	35.2%	100.0%
전체	빈도	38,920	4,503	3,336	1,672	3,211	51,642
	%	75.4%	8.7%	6.5%	3.2%	6.2%	100.0%

$\chi^2=5288.775$ $p<.05$, $p<.01$, $p<.001$

위기수준별로 음주와 흡연 경험을 살펴본 결과, 3수준(고위험군), 2수준(잠재적 위험군), 1수준(보통) 순으로 나타났다. ‘일 년에 1-2번’, ‘한 달에 1번의 경우는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응답(12.5%, 12.6%)이 많았고, ‘1주일에 1-2번’의 경우는 3수준(고위험군)에 속하는 응답이 많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도 3수준(고위험군)이 35.2%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위기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1)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표 247〉 위기수준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구분	사례수 %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1수준	빈도	34,761	4,590	2,366	1,477	513	43,707
	%	79.5%	10.5%	5.4%	3.4%	1.2%	100.0%
2수준	빈도	4,425	822	601	521	335	6,704
	%	66.0%	12.3%	9.0%	7.8%	5.0%	100.0%
3수준	빈도	733	114	114	103	187	1,251
	%	58.6%	9.1%	9.1%	8.2%	14.9%	100.0%
전체	빈도	39,919	5,526	3,081	2,101	1,035	51,662
	%	77.3%	10.7%	6.0%	4.1%	2.0%	100.0%

$\chi^2=2186.418$ $p<.05$, $p<.01$, $p<.001$

위기수준별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간 갈등을 살펴본 결과, 3수준(고위험군), 2수준(잠재적 위험군), 1수준(보통) 순으로 나타났다. ‘일 년에 1-2번’의 경우는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응답률(12.3%)이 가장 높았으며, ‘한 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는 3수준(고위험군)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9.1%, 8.2%)이 가장 높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도 3수준(고위험군)이 14.9%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위기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2)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표 248〉 위기수준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구분	사례수 %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1수준	빈도	25,668	6,931	5,383	4,261	1,527	43,770
	%	58.6%	15.8%	12.3%	9.7%	3.5%	100.0%
2수준	빈도	3,515	867	851	882	606	6,721
	%	52.3%	12.9%	12.7%	13.1%	9.0%	100.0%
3수준	빈도	626	130	130	122	246	1,254
	%	49.9%	10.4%	10.4%	9.7%	19.6%	100.0%
전체	빈도	29,809	7,928	6,364	5,265	2,379	51,745
	%	57.6%	15.3%	12.3%	10.2%	4.6%	100.0%

$$\chi^2=1195.578^{***}$$

$$p < .05^*, p < .01^{**}, p < .001^{***}$$

위기수준별로 인터넷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 3수준(고위험군), 2수준(잠재적 위험군), 1수준(보통) 순으로 나타났다. ‘일 년에 1-2번’의 경우는 1수준(보통)의 응답률(15.8%)이 가장 높았으며, ‘한 달에 1번’과 ‘1주일에 1-2번’의 경우는 2수준(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12.7%, 13.1%)이 가장 높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은 3수준(고위험군)이 19.6%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위기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3)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표 249〉 위기수준별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구분	사례수 %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위 기	1수준	빈도	40,205	2,722	492	172	114	43,705
		%	92.0%	6.2%	1.1%	0.4%	0.3%	100.0%
수 준	2수준	빈도	5,428	898	240	59	78	6,703
		%	81.0%	13.4%	3.6%	0.9%	1.2%	100.0%
전 체	3수준	빈도	823	197	76	40	113	1,249
		%	65.9%	15.8%	6.1%	3.2%	9.0%	100.0%
		빈도	46,456	3,817	808	271	305	51,657
		%	89.9%	7.4%	1.6%	0.5%	0.6%	100.0%

$\chi^2=2909.503^{***}$

$p<.05^*$, $p<.01^{**}$, $p<.001^{***}$

위기수준별로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험을 살펴본 결과, 3수준(고위험군), 2수준(잠재적 위험군), 1수준(보통) 순으로 나타났다. ‘일 년에 1-2번’, ‘한 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 3수준(고위험군)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15.8%, 6.1%, 3.2%로 높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도 3수준(고위험군)이 9.0%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위기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4)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표 250〉 위기수준별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구분	사례수 %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전체	
		전혀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위 기	1수준	빈도	41,729	1,430	218	109	110	43,596
		%	95.7%	3.3%	0.5%	0.3%	0.3%	100.0%
수 준	2수준	빈도	5,841	558	177	65	50	6,691
		%	87.3%	8.3%	2.6%	1.0%	0.7%	100.0%
전 체	3수준	빈도	871	162	79	34	103	1,249
		%	69.7%	13.0%	6.3%	2.7%	8.2%	100.0%
		빈도	48,441	2,150	474	208	263	51,536
		%	94.0%	4.2%	0.9%	0.4%	0.5%	100.0%

$\chi^2=3188.575^{***}$

$p<.05^*$, $p<.01^{**}$, $p<.001^{***}$

위기수준별로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뺏은 경험을 살펴본 결과, 3수준(고위험군), 2수준(잠재적 위험군), 1수준(보통) 순으로 나타났다. ‘일 년에 1-2번’, ‘한 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 3수준(고위험군)에 속하는 응답자의 비율(13.0%, 6.3%, 2.7%)이 가장 높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도 3수준(고위험군)이 8.2%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위기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5)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표 251〉 위기수준별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구분	사례수 %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위 기	1수준	빈도 2,639	40,995	43,634
	%	6.0%	94.0%	
수 준	2수준	빈도 662	6,029	6,691
	%	9.9%	90.1%	
전 체	3수준	빈도 291	957	1,248
	%	23.3%	76.7%	
		빈도 3,592	47,981	51,573
		%	7.0%	93.0%

$$\chi^2 = 660.205^{***}$$

$$p < .05^*, p < .01^{**}, p < .001^{***}$$

위기수준별로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을 살펴본 결과, 3수준(고위험군)의 23.3%,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9.9%, 1수준(보통)의 6.0%가 성폭력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와 같은 위기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6)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표 252〉 위기수준별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구분	사례수 %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위 기	1수준	빈도 2,192	41,446	43,638
	%	5.0%	95.0%	
수 준	2수준	빈도 563	6,132	6,695
	%	8.4%	91.6%	

3수준	빈도	244	1,007	1,251
	%	19.5%	80.5%	100.0%
전	빈도	2,999	48,585	51,584
	%	5.8%	94.2%	100.0%

$\chi^2=560.388^{***}$ $p<.05^*$, $p<.01^{**}$, $p<.001^{***}$

위기수준별로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을 살펴본 결과, 3수준(고위험군)의 19.5%,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8.4%, 1수준(보통)의 5.0%가 성매매 유혹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와 같은 위기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7) 자살 생각 경험

〈표 253〉 위기수준별 자살 생각 경험

구분	사례수 %	자살 생각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위	1수준	빈도	7,595	36,052	43,647
		%	17.4%	82.6%	100.0%
기	2수준	빈도	2,972	3,725	6,697
		%	44.4%	55.6%	100.0%
준	3수준	빈도	819	431	1,250
		%	65.5%	34.5%	100.0%
전	빈도	11,386	40,208	51,594	
	%	22.1%	77.9%	100.0%	

$\chi^2=3863.257^{***}$ $p<.05^*$, $p<.01^{**}$, $p<.001^{***}$

위기수준별로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을 살펴본 결과, 3수준(고위험군)의 65.5%,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44.4%, 1수준(보통)의 17.4%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응답했다. 이와 같은 위기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8) 자살 시도 경험

〈표 254〉 위기수준별 자살 시도 경험

구분	사례수 %	자살 시도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위	1수준	빈도	2,158	41,487	43,645
		%	4.9%	95.1%	100.0%

기 수 준 전 체	2수준	빈도	890	5,806	6,696
		%	13.3%	86.7%	100.0%
	3수준	빈도	440	812	1,252
		%	35.1%	64.9%	100.0%
		빈도	3,488	48,105	51,593
		%	6.8%	93.2%	100.0%

$\chi^2=2281.541^{***}$ $p<.05^*$, $p<.01^{**}$, $p<.001^{***}$

위기수준별로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을 살펴본 결과, 3수준(고위험군)의 35.1%, 2수준(잠재적 위험군)의 13.3%, 1수준(보통)의 4.9%가 자살을 시도해 본 것으로 응답했다. 이와 같은 위기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5. 보호요인

가. 가정의 지원

1) 개요

(1) 가정의 물질적 지원

〈표 255〉 가정의 물질적 지원 분포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정 의 물질 적 지 원	전혀 받지 못함	1,853	2.7	2.7
	부족함	7,311	10.5	10.5
	보통	21,961	31.5	31.6
	받고 있는 편임	16,268	23.3	23.4
	충분히 받고있음	22,055	31.6	31.8
	무응답	306	0.4	
합계		69,754	100.0	100.0

위기청소년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정의 물리적 지원을 조사대상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충분히 받고 있음’에 22,055명(31.6%)이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보통’(31.5%), ‘받고있는 편임’(23.3%), ‘부족함’(10.5%), ‘전혀 받지 못함’(2.7%), ‘무응답’(0.4%) 순으로 나타났다.

(2) 가정의 정서적 지원

〈표 256〉 가정의 정서적 지원 분포

구 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정의 정서적 지원	전혀 받지 못함	3,327	4.8	4.8
	부족함	8,628	12.4	12.4
	보통	27,877	40.0	40.2
	받고 있는 편임	15,981	22.9	22.0
	충분히 받고 있음	13,598	19.5	19.6
	무응답	343	0.5	
합계	69,754	100.0	100.0	

가정의 정서적 지원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보통’에 27,877명(40.0%)이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받고 있는 편임’(22.9%), ‘충분히 받고 있음’(19.5%), ‘부족함’(12.4%), ‘전혀 받지 못함’(4.8%), ‘무응답’(0.5%) 순으로 나타났다.

2) 가정의 지원별 위기수준

(1) 가정의 물질적 지원별 위기수준

〈표 257〉 가정의 물질적 지원별 위기수준 분포

구분	사례수 %	전체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전혀 받지 못함	빈도	882	322	217	1,421	
	%	62.1%	22.7%	15.3%	100.0%	
가정의 물질적 지원	부족함	빈도	3,792	1,568	395	5,755
	%	65.9%	27.2%	6.9%	100.0%	
보통	빈도	14,134	2,608	351	17,093	
	%	82.7%	15.3%	2.1%	100.0%	
받고 있는 편임	빈도	11,021	1,419	178	12,618	
	%	87.3%	11.2%	1.4%	100.0%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15,914	1,184	133	17,231	
	%	92.4%	6.9%	0.8%	100.0%	
전체	빈도	45,743	7,101	1,274	54,118	
	%	84.5%	13.1%	2.4%	100.0%	

$\chi^2=3786.485^{***}$

$p<.05^*$, $p<.01^{**}$, $p<.001^{***}$

가정의 물질적 지원에 따른 위기수준을 살펴본 결과, 물질적 지원을 적게 받을수록 위험수준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15.3%가 3수준에 해당되는 반면 ‘충분히 받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0.8%만이 3수준에 해당하였다.

(2)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위기수준

〈표 258〉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위기수준 분포

구분	사례수 %	전체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전혀 받지 못함	빈도	1,351	864	418	2,633
	%	51.3%	32.8%	15.9%	100.0%
	부족함	빈도	4,563	1,889	351
가정의 정서적 지원	%	67.1%	27.8%	5.2%	100.0%
보통	빈도	18,338	3,077	372	21,787
	%	84.2%	14.1%	1.7%	100.0%
	받고 있는 편임	빈도	11,389	878	80
지원	%	92.2%	7.1%	0.6%	100.0%
충분히 받고있음	빈도	10,101	388	53	10,542
	%	95.8%	3.7%	0.5%	100.0%
	전체	빈도	45,742	7,096	1,274
	%	84.5%	13.1%	2.4%	100.0%

$$\chi^2=6416.641^{***}$$

$$p<.05^*, p<.01^{**}, p<.001^{***}$$

가정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위기수준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지원을 적게 받을수록 위험수준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15.9%가 3수준에 해당되는 반면 ‘충분히 받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0.5%만이 3수준에 해당하였다.

3) 위기수준별 가정의 지원

(1) 위기수준별 가정의 물질적 지원

〈표 259〉 위기수준별 가정의 물질적 지원

			가정의 물질적지원					전체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보통	받고 있는 편임	충분히 받고있음	
전체	1수준	빈도	882	3,792	14,134	11,021	15,914	45,743
		%	1.9%	8.3%	30.9%	24.1%	34.8%	100.0%
위기수준	2수준	빈도	322	1,568	2,608	1,419	1,184	7,101
		%	4.5%	22.1%	36.7%	20.0%	16.7%	100.0%
수준	3수준	빈도	217	395	351	178	133	1,274
		%	17.0%	31.0%	27.6%	14.0%	10.4%	100.0%
전체	빈도	빈도	1,421	5,755	17,093	12,618	17,231	54,118
		%	2.6%	10.6%	31.6%	23.3%	31.8%	100.0%

$$\chi^2=3786.485^{***}$$

$$p<.05^*, p<.01^{**}, p<.001^{***}$$

위기수준별로 가정의 물질적 지원을 살펴본 결과, 1수준(보통) 집단의 경우, 충분히 물질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보통'(30.9%), '받고 있는 편임'(24.1%) 순이었다. 2수준(잠재적위험군) 집단의 경우는 가정의 물리적 지원에 대해 '보통'(36.7%), '부족함(22.1%)', '받고 있는 편'(20.2%)순으로 응답하였다.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에는 가정의 물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보통'(27.6%)이었으며 '전혀받지 못함'도 17.0%로 상대적으로 타 위기수준에 비하여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2) 위기수준별 가정의 정서적 지원

〈표 260〉 위기수준별 가정의 정서적 지원

		가정의 정서적지원					전체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보통	받고 있는 편임	충분히 받고있음		
전체	1수준	빈도	1,351	4,563	18,338	11,389	10,101	45,742
		%	3.0%	10.0%	40.1%	24.9%	22.1%	100.0%
위기수준	2수준	빈도	864	1,889	3,077	878	388	7,096
		%	12.2%	26.6%	43.4%	12.4%	5.5%	100.0%
수준	3수준	빈도	418	351	372	80	53	1,274
		%	32.8%	27.6%	29.2%	6.3%	4.2%	100.0%
전체		빈도	2,633	6,803	21,787	12,347	10,542	54,112
		%	4.9%	12.6%	40.3%	22.8%	19.5%	100.0%

$$\chi^2=6416.641^{***}$$

$$p<.05^*, p<.01^{**}, p<.001^{***}$$

위기수준별로 가정의 정서적 지원을 살펴본 결과, 1수준(보통) 집단의 경우, 보통으로 물질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4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받고 있는 편임'(24.9%), '충분히 받고 있음'(22.1%) 순이었다. 2수준(잠재적위험군) 집단의 경우는 가정의 정서적 지원에 대해 '보통'(43.4%), '부족함'(26.6%), '받고 있는 편'(12.4%), '전혀 받지 못함'(12.2%) 순으로 응답하였다. 3수준(고위험군)의 경우에는 가정의 물질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보통'(29.2%)이었으며 '부족함'도 27.6%로 상대적으로 타 위기수준에 비하여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4) 가정의 지원별 위기결과

(1)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위기결과

(가)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표 261〉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전혀 받지 못함	빈도	1,550	94	52	39	76	1,811	
	%	85.6%	5.2%	2.9%	2.2%	4.2%	100.0%	
가정 의 물 리 적 지 원	부족함	빈도	6,162	515	197	102	57	7,033
		%	87.6%	7.3%	2.8%	1.5%	0.8%	100.0%
보통	빈도	19,974	800	227	84	68	21,153	
	%	94.4%	3.8%	1.1%	0.4%	0.3%	100.0%	
받고있는 편임	빈도	14,662	606	162	53	33	15,516	
	%	94.5%	3.9%	1.0%	0.3%	0.2%	100.0%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20,270	480	118	47	49	20,964	
	%	96.7%	2.3%	0.6%	0.2%	0.2%	100.0%	
전 체	빈도	62,618	2,495	756	325	283	66,477	
	%	94.2%	3.8%	1.1%	0.5%	0.4%	100.0%	

$$\chi^2=1657.542^{***}$$

$$p<.05^*, p<.01^{**}, p<.001^{***}$$

가정의 물리적 지원에 따른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물리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보통’, ‘받고 있음’, ‘충분히 받고 있음’ 순으로 가정에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4.2%)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2)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표 262〉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가 정 의 물 리 적 지 원	전혀 받지못함	빈도 1,399 % 77.2%	106 5.8%	77 4.2%	89 4.9%	142 7.8%	1,813 100.0%
	부족함	빈도 5,525 % 78.6%	640 9.1%	331 4.7%	312 4.4%	223 3.2%	7,031 100.0%
전 체	보통	빈도 18,970 % 89.6%	1,193 5.6%	445 2.1%	338 1.6%	218 1.0%	21,164 100.0%
	받고있는 편임	빈도 13,856 % 89.4%	962 6.2%	346 2.2%	230 1.5%	113 0.7%	15,507 100.0%
전 체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19,536 % 93.2%	824 3.9%	285 1.4%	197 0.9%	121 0.6%	20,963 100.0%
		빈도 59,286 % 89.2%	3,725 5.6%	1,484 2.2%	1,166 1.8%	817 1.2%	66,478 100.0%

$\chi^2=2174.191^{***}$

$p<.05^*$, $p<.01^{**}$, $p<.001^{***}$

가정의 물리적 지원에 따른 가정에서의 폭언과 욕설에 시달린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물리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받고 있음’, ‘보통’, ‘충분히 받고 있음’ 순으로 가정에서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리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7.8%)과 ‘부족함’(3.2%)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3)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표 263〉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구분	사례수 %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가정	전혀 받지 못함	빈도 1,447	150	62	31	124	1,814
	%	79.8%	8.3%	3.4%	1.7%	6.8%	100.0%
정	부족함	빈도 6,046	608	186	87	105	7,032
	%	86.0%	8.6%	2.6%	1.2%	1.5%	100.0%
물리	보통	빈도 19,774	952	235	81	115	21,157
	%	93.5%	4.5%	1.1%	0.4%	0.5%	100.0%
적	받고 있는 편임	빈도 14,620	668	123	47	50	15,508
	%	94.3%	4.3%	0.8%	0.3%	0.3%	100.0%
원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20,039	660	141	49	75	20,964
	%	95.6%	3.1%	0.7%	0.2%	0.4%	100.0%
전체	빈도	61,926	3,038	747	295	469	66,475
	%	93.2%	4.6%	1.1%	0.4%	0.7%	100.0%

$$\chi^2=2076.344^{***}$$

$$p<.05^*, p<.01^{**}, p<.001^{***}$$

가정의 물리적 지원에 따른 3일 이상 가출 시도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물리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보통’, ‘받고 있음’, ‘충분히 받고 있음’ 순으로 가출 시도 경험을 하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6.8%)과 ‘부족함’(1.5%)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4)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표 264〉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구분	사례수 %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가정	전혀 받지 못함	빈도 1,216	252	112	88	146	1,814
	%	67.0%	13.9%	6.2%	4.9%	8.0%	100.0%
정	부족함	빈도 4,463	1,463	527	321	243	7,017
	%	63.6%	20.8%	7.5%	4.6%	3.5%	100.0%

물리 적 지 원 전 체	보통	빈도	16,640	2,994	840	391	257	21,122
		%	78.8%	14.2%	4.0%	1.9%	1.2%	100.0%
받고 있는 편 임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12,166	2,360	607	206	151	15,490
		%	78.5%	15.2%	3.9%	1.3%	1.0%	100.0%
전 체	보통	빈도	17,420	2,573	559	215	190	20,957
		%	83.1%	12.3%	2.7%	1.0%	0.9%	100.0%
전 체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51,905	9,642	2,645	1,221	987	66,400
		%	78.2%	14.5%	4.0%	1.8%	1.5%	100.0%

$\chi^2=2159.624^{***}$

$p<.05^*$, $p<.01^{**}$, $p<.001^{***}$

가정의 물리적 지원에 따른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물리적 지원이 '부족함', '전혀 받지 못함', '받고 있음', '보통', '충분히 받고 있음' 순으로 가출 고민을 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8.0%)과 '부족함'(3.5%)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5)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표 265〉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구분	사례수 %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가 정 의 물 리 적 지 원 전 체	전혀 받지 못함	빈도	1,312	214	94	63	130	1,813
		%	72.4%	11.8%	5.2%	3.5%	7.2%	100.0%
부 족 함	빈도	5,124	969	399	229	301	7,022	
		%	73.0%	13.8%	5.7%	3.3%	4.3%	100.0%
보 통	빈도	17,890	1,911	628	323	361	21,113	
		%	84.7%	9.1%	3.0%	1.5%	1.7%	100.0%
받 고 있 는 편 임	빈도	13,284	1,429	419	167	202	15,501	
		%	85.7%	9.2%	2.7%	1.1%	1.3%	100.0%
충 분 히 받 고 있 음	빈도	18,552	1,563	374	217	247	20,953	
		%	88.5%	7.5%	1.8%	1.0%	1.2%	100.0%
전 체	빈도	56,162	6,086	1,914	999	1,241	66,402	
		%	84.6%	9.2%	2.9%	1.5%	1.9%	100.0%

$\chi^2=1559.837^{***}$

$p<.05^*$, $p<.01^{**}$, $p<.001^{***}$

가정의 물리적 지원에 따른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물리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보통’, ‘받고 있음’, ‘충분히 받고 있음’ 순으로 학업중단 고민을 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7.2%)과 ‘부족함’(4.3%)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6)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표 266〉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구분	사례수 %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전혀 받지 못함	빈도	1,655	63	31	15	49	1,813	
	%	91.3%	3.5%	1.7%	0.8%	2.7%	100.0%	
가정 의 물 리 적 지 원	부족함	빈도	6,649	240	59	40	38	7,026
		%	94.6%	3.4%	0.8%	0.6%	0.5%	100.0%
보통	빈도	20,548	382	97	42	51	21,120	
	%	97.3%	1.8%	0.5%	0.2%	0.2%	100.0%	
받고 있는 편임	빈도	15,159	237	55	23	29	15,503	
	%	97.8%	1.5%	0.4%	0.1%	0.2%	100.0%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20,605	223	51	34	47	20,960	
	%	98.3%	1.1%	0.2%	0.2%	0.2%	100.0%	
전 체	빈도	64,616	1,145	293	154	214	66,422	
	%	97.3%	1.7%	0.4%	0.2%	0.3%	100.0%	

$\chi^2=7754.346^{***}$ $p < .05^*$, $p < .01^{**}$, $p < .001^{***}$

가정의 물리적 지원에 따른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물리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보통’, ‘받고 있음’, ‘충분히 받고 있음’ 순으로 자퇴경고나 퇴학통보를 받은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경험

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2.7%)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7) 학교폭력 피해 경험

〈표 267〉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구분	사례수 %	학교폭력 피해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가 정 의 물 리 적 지 원	전혀 받지못함	빈도	1,526	105	47	44	91	1,813
		%	84.2%	5.8%	2.6%	2.4%	5.0%	100.0%
가 정 의 물 리 적 지 원	부족함	빈도	6,170	442	121	140	155	7,028
		%	87.8%	6.3%	1.7%	2.0%	2.2%	100.0%
가 정 의 물 리 적 지 원	보통	빈도	19,489	923	263	248	215	21,138
		%	92.2%	4.4%	1.2%	1.2%	1.0%	100.0%
가 정 의 물 리 적 지 원	받고있는 편임	빈도	14,358	666	158	171	150	15,503
		%	92.6%	4.3%	1.0%	1.1%	1.0%	100.0%
가 정 의 물 리 적 지 원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19,500	830	171	232	220	20,953
		%	93.1%	4.0%	0.8%	1.1%	1.0%	100.0%
전 체		빈도	61,043	2,966	760	835	831	66,435
		%	91.9%	4.5%	1.1%	1.3%	1.3%	100.0%

$\chi^2=519.930^{***}$

$p < .05^*$, $p < .01^{**}$, $p < .001^{***}$

가정의 물리적 지원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물리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보통’, ‘받고 있음’, ‘충분히 받고 있음’ 순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5.0%)과 ‘부족함’(2.2%)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8) 학교폭력 가해 경험

〈표 268〉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구분	사례수 %	학교폭력 가해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전혀 받지 못함	빈도	1,521	116	47	42	86	1,812	
	%	83.9%	6.4%	2.6%	2.3%	4.7%	100.0%	
가 정 의 물 리 적 지 원	부족함	빈도	6,186	461	141	120	107	7,015
		%	88.2%	6.6%	2.0%	1.7%	1.5%	100.0%
보통	빈도	19,551	984	245	158	168	21,106	
	%	92.6%	4.7%	1.2%	0.7%	0.8%	100.0%	
받고 있는 편임	빈도	14,322	736	154	143	131	15,486	
	%	92.5%	4.8%	1.0%	0.9%	0.8%	100.0%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19,433	948	209	170	178	20,938	
	%	92.8%	4.5%	1.0%	0.8%	0.9%	100.0%	
전 체	빈도	61,013	3,245	796	633	670	66,357	
	%	91.9%	4.9%	1.2%	1.0%	1.0%	100.0%	

$\chi^2=544.058^{***}$

$p<.05^*$, $p<.01^{**}$, $p<.001^{***}$

가정의 물리적 지원에 따른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물리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받고 있음’, ‘보통’, ‘충분히 받고 있음’ 순으로 학교폭력 가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4.7%)과 ‘부족함’(1.5%)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9)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표 269〉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전혀 받지 못함	빈도	1,697	30	17	10	61	1,815	
	%	93.5%	1.7%	0.9%	0.6%	3.4%	100.0%	
가정 의 물 리 적 지 원	부족함	빈도	6,865	54	29	29	43	7,020
		%	97.8%	0.8%	0.4%	0.4%	0.6%	100.0%
받고 있는 편임	보통	빈도	20,875	85	68	30	55	21,113
		%	98.9%	0.4%	0.3%	0.1%	0.3%	100.0%
충분히 받고 있음	있음	빈도	15,390	37	26	12	32	15,497
		%	99.3%	0.2%	0.2%	0.1%	0.2%	100.0%
전 체	빈도	65,621	256	162	101	259	66,399	
		%	98.8%	0.4%	0.2%	0.2%	0.4%	100.0%

$\chi^2=704.167^{***}$

$p<.05^{\circ}$, $p<.01^{**}$, $p<.001^{***}$

가정의 물리적 지원에 따른 심각한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물리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보통’, ‘충분히 받고 있음’, ‘받고 있음’ 순으로 약물 흡입을 하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3.4%)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0) 음주, 흡연 경험

〈표 270〉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음주, 흡연 경험

구분	사례수 %	음주, 흡연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전혀 받지 못함	빈도	1,144	135	124	112	301	1,816	
	%	63.0%	7.4%	6.8%	6.2%	16.6%	100.0%	
가 정 의 물 리 적 지 원	부족함	빈도	4,337	745	721	387	828	7,018
		%	61.8%	10.6%	10.3%	5.5%	11.8%	100.0%
보통	빈도	16,036	1,799	1,335	687	1,246	21,103	
	%	76.0%	8.5%	6.3%	3.3%	5.9%	100.0%	
받고 있는 편임	빈도	11,851	1,420	980	459	774	15,484	
	%	76.5%	9.2%	6.3%	3.0%	5.0%	100.0%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16,823	1,700	1,067	481	869	20,940	
	%	80.3%	8.1%	5.1%	2.3%	4.1%	100.0%	
전 체	빈도	50,191	5,799	4,227	2,126	4,018	66,361	
	%	75.6%	8.7%	6.4%	3.2%	6.1%	100.0%	

$\chi^2=1639.252^{***}$

$p<.05^*$, $p<.01^{**}$, $p<.001^{***}$

가정의 물리적 지원에 따른 음주와 흡연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물리적 지원이 ‘부족함’, ‘전혀 받지 못함’, ‘보통’, ‘충분히 받고 있음’, ‘받고 있음’ 순으로 음주와 흡연을 하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16.6%)과 ‘부족함’(11.8%)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1)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표 271〉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구분	사례수 %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전혀 받지 못함	빈도	1,362	145	93	95	118	1,813	
	%	75.1%	8.0%	5.1%	5.2%	6.5%	100.0%	
가정 의 물 리 적 지 원	부족함	빈도	4,991	773	524	441	291	7,020
		%	71.1%	11.0%	7.5%	6.3%	4.1%	100.0%
받고 있는 편임	보통	빈도	16,245	2,310	1,288	873	395	21,111
		%	77.0%	10.9%	6.1%	4.1%	1.9%	100.0%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11,610	1,923	1,023	676	258	15,490	
		%	75.0%	12.4%	6.6%	4.4%	1.7%	100.0%
전 체	빈도	16,544	2,216	1,178	701	308	20,947	
		%	79.0%	10.6%	5.6%	3.3%	1.5%	100.0%
		빈도	50,752	7,367	4,106	2,786	1,370	66,381
		%	76.5%	11.1%	6.2%	4.2%	2.1%	100.0%

$\chi^2=619.240^{***}$

$p<.05^*$, $p<.01^{**}$, $p<.001^{***}$

가정의 물리적 지원에 따른 심각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물리적 지원이 ‘부족함’, ‘받고 있음’, ‘전혀 받지 못함’, ‘보통’, ‘충분히 받고 있음’ 순으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갈등을 경험하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6.5%)과 ‘부족함’(4.1%)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2)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표 272〉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구분	사례수 %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제대로 일 못한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전혀 받지 못함	빈도	1,139	186	181	139	167	1,812	
	%	62.9%	10.3%	10.0%	7.7%	9.2%	100.0%	
가정 의 물 리 적 지 원	부족함	빈도	3,883	949	852	848	499	7,031
		%	55.2%	13.5%	12.1%	12.1%	7.1%	100.0%
받고 있는 편임	보통	빈도	12,408	3,210	2,529	2,146	845	21,138
		%	58.7%	15.2%	12.0%	10.2%	4.0%	100.0%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8,316	2,695	2,135	1,732	629	15,507	
		%	53.6%	17.4%	13.8%	11.2%	4.1%	100.0%
전 체	빈도	37,618	10,391	8,307	7,016	3,101	66,433	
		%	56.6%	15.6%	12.5%	10.6%	4.7%	100.0%

$\chi^2=420.959^{***}$

$p<.05^*$, $p<.01^{**}$, $p<.001^{***}$

가정의 물리적 지원에 따른 심각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물리적 지원을 ‘받고 있음’, ‘부족함’, ‘충분히 받고 있음’, ‘보통’, ‘전혀 받지 못함’ 순으로 인터넷으로 인해 일에 차질을 빚는 응답자가 많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중에는 ‘전혀 받지 못함’(9.2%)과 ‘부족함’(7.1%)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3)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표 273〉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구분	사례수 %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전혀 받지 못함	빈도	1,493	163	47	24	81	1,808	
	%	82.6%	9.0%	2.6%	1.3%	4.5%	100.0%	
가정 의 물 리 적 지 원	부족함	빈도	5,923	742	204	72	77	7,018
		%	84.4%	10.6%	2.9%	1.0%	1.1%	100.0%
받고 있는 편임	보통	빈도	19,076	1,515	301	126	92	21,110
		%	90.4%	7.2%	1.4%	0.6%	0.4%	100.0%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13,864	1,272	235	64	60	15,495	
		%	89.5%	8.2%	1.5%	0.4%	0.4%	100.0%
전 체	빈도	59,527	5,019	1,063	383	394	66,386	
		%	89.7%	7.6%	1.6%	0.6%	0.6%	100.0%

$\chi^2=863.387^{***}$

$p<.05^*$, $p<.01^{**}$, $p<.001^{***}$

가정의 물리적 지원에 따른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물리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충분히 받고 있음’, ‘보통’, ‘받고 있음’ 순으로 훔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중에는 ‘전혀 받지 못함’(4.5%)과 ‘부족함’(1.1%)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4)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표 274〉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구분	사례수 %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전혀 받지 못함	빈도	1,553	111	45	22	77	1,808	
	%	85.9%	6.1%	2.5%	1.2%	4.3%	100.0%	
가정 의 물 리 적 지 원	부족함	빈도	6,349	427	119	48	55	6,998
		%	90.7%	6.1%	1.7%	0.7%	0.8%	100.0%
받고 있는 편임	보통	빈도	19,859	865	196	75	76	21,071
		%	94.2%	4.1%	0.9%	0.4%	0.4%	100.0%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14,500	719	136	56	49	15,460	
		%	93.8%	4.7%	0.9%	0.4%	0.3%	100.0%
전 체	빈도	19,877	724	149	82	76	20,908	
		%	95.1%	3.5%	0.7%	0.4%	0.4%	100.0%
전 체	빈도	62,138	2,846	645	283	333	66,245	
		%	93.8%	4.3%	1.0%	0.4%	0.5%	100.0%

$\chi^2=815.418^{***}$

$p<.05^*$, $p<.01^{**}$, $p<.001^{***}$

가정의 물리적 지원에 따른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뺏은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물리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충분히 받고 있음’, ‘보통’, ‘받고 있음’ 순으로 갈수록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4.3%)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5)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표 275〉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구분	사례수 %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전체
		있음	없음	
가정	전혀 받지 못함	빈도 247	1,557	1,804
		% 13.7%	86.3%	100.0%
의	부족함	빈도 603	6,409	7,012
		% 8.6%	91.4%	100.0%
물리	보통	빈도 1,289	19,771	21,060
		% 6.1%	93.9%	100.0%
적	받고 있는 편임	빈도 972	14,485	15,457
		% 6.3%	93.7%	100.0%
지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1,320	19,570	20,890
		% 6.3%	93.7%	100.0%
전		빈도 4,431	61,792	66,223
		% 6.7%	93.3%	100.0%

$\chi^2=202.149^{***}$

$p<.05^*$, $p<.01^{**}$, $p<.001^{***}$

가정의 물리적 지원에 따른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 받지 못함’이 13.7%, ‘부족함’이 8.6%, ‘받고있는 편임’과 ‘충분히 받고 있음’이 6.3%, 보통이 6.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6)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표 276〉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구분	사례수 %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전체
		있음	없음	
가정	전혀 받지 못함	빈도 238	1,567	1,805
		% 13.2%	86.8%	100.0%
의	부족함	빈도 497	6,518	7,015
		% 7.1%	92.9%	100.0%
물리	보통	빈도 1,115	19,949	21,064
		% 5.3%	94.7%	100.0%
적	받고 있는 편임	빈도 749	14,711	15,460
		% 4.8%	95.2%	100.0%
지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1,110	19,779	20,889
		% 5.3%	94.7%	100.0%
전		빈도 3,709	62,524	66,233
		% 5.6%	94.4%	100.0%

$\chi^2=249.392^{***}$

$p<.05^*$, $p<.01^{**}$, $p<.001^{***}$

가정의 물리적 지원에 따른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 받지 못함’이 13.2%, ‘부족함’이 7.1%, ‘충분히 받고 있음’과 ‘보통’이 5.3%, ‘받고있는 편임’이 4.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7) 자살 생각 경험

〈표 277〉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자살 생각 경험

구분	사례수 %	자살 생각 경험		전체
		있음	없음	
가정	전혀 받지 못함	빈도 602	1,203	1,805
	%	33.4%	66.6%	100.0%
의물리	부족함	빈도 2,311	4,704	7,015
	%	32.9%	67.1%	100.0%
적지	보통	빈도 4,484	16,586	21,070
	%	21.3%	78.7%	100.0%
원전	받고 있는 편임	빈도 3,209	12,256	15,465
	%	20.8%	79.2%	100.0%
체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4,145	16,741	20,886
	%	19.8%	80.2%	100.0%
전체	빈도	14,751	51,490	66,241
	%	22.3%	77.7%	100.0%

$$\chi^2=693.207^{***}$$

$$p < .05^*, p < .01^{**}, p < .001^{***}$$

가정의 물리적 지원에 따른 자살 생각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 받지 못함’이 33.4%, ‘부족함’이 32.9%, ‘보통’이 21.3%, ‘받고있는 편임’이 20.8%, ‘충분히 받고 있음’이 19.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8) 자살 시도 경험

〈표 278〉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자살 시도 경험

구분	사례수 %	자살 시도 경험		전체
		있음	없음	
가정	전혀 받지 못함	빈도 269	1,535	1,804
	%	14.9%	85.1%	100.0%
의물리	부족함	빈도 733	6,280	7,013
	%	10.5%	89.5%	100.0%

리	보통	빈도	1,310	19,743	21,053
		%	6.2%	93.8%	100.0%
적	받고 있는 편임	빈도	867	14,594	15,461
		%	5.6%	94.4%	100.0%
원	충분히 받고	빈도	1,248	19,641	20,889
	있음	%	6.0%	94.0%	100.0%
전		빈도	4,427	61,793	66,220
		%	6.7%	93.3%	100.0%

$\chi^2=408.112^{***}$ $p<.05^*$, $p<.01^{**}$, $p<.001^{***}$

가정의 물리적 지원에 따른 자살 시도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 받지 못함’이 14.9%, ‘부족함’이 10.5%, ‘보통’이 6.2%, ‘충분히 받고 있음’이 6.0%, ‘받고있는 편임’이 5.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정의 물리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2)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위기결과

(1)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표 279〉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가 정 의 정 서 적 지 원	전혀 받지 못함	빈도	2,543	269	138	91	111	3,152
		%	80.7%	8.5%	4.4%	2.9%	3.5%	100.0%
정	부족함	빈도	7,235	644	197	79	57	8,212
		%	88.1%	7.8%	2.4%	1.0%	0.7%	100.0%
서	보통	빈도	25,397	954	285	98	73	26,807
		%	94.7%	3.6%	1.1%	0.4%	0.3%	100.0%
적	받고 있는 편임	빈도	14,699	428	90	34	18	15,269
		%	96.3%	2.8%	0.6%	0.2%	0.1%	100.0%
원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12,737	193	46	22	27	13,025
		%	97.8%	1.5%	0.4%	0.2%	0.2%	100.0%
전		빈도	62,611	2,488	756	324	286	66,465
		%	94.2%	3.7%	1.1%	0.5%	0.4%	100.0%

$\chi^2=2661.421^{***}$ $p<.05^*$, $p<.01^{**}$, $p<.001^{***}$

가정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보통’, ‘받고 있음’, ‘충분히 받고 있음’ 순으로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거의 매일’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3.5%)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2)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표 280〉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전혀 받지 못함	빈도	2,152	278	197	232	292	3,151	
	%	68.3%	8.8%	6.3%	7.4%	9.3%	100.0%	
가정 의 정 서 적 받 고 있 는 편 임	부족함	빈도	6,304	908	414	375	211	8,212
	%	76.8%	11.1%	5.0%	4.6%	2.6%	100.0%	
정 보 통	빈도	24,178	1,488	564	356	215	26,801	
	%	90.2%	5.6%	2.1%	1.3%	0.8%	100.0%	
적 받 고 있 는 편 임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14,135	726	215	125	59	15,260
	%	92.6%	4.8%	1.4%	0.8%	0.4%	100.0%	
전 체	빈도	12,488	324	91	77	41	13,021	
	%	95.9%	2.5%	0.7%	0.6%	0.3%	100.0%	
	빈도	59,257	3,724	1,481	1,165	818	66,445	
	%	89.2%	5.6%	2.2%	1.8%	1.2%	100.0%	

$\chi^2=4959.086^{***}$ $p < .05^*$, $p < .01^{**}$, $p < .001^{***}$

가정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가정에서의 신체적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보통’, ‘받고 있음’, ‘충분히 받고 있음’ 순으로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응답자가 더 많았다. ‘거의 매일’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9.3%)과 ‘부족함’(2.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3)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표 281〉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구분	사례수 %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전혀 받지 못함	빈도	2,506	319	106	59	167	3,157
	%	79.4%	10.1%	3.4%	1.9%	5.3%	100.0%
가 정 의 부 족 함	빈도	7,230	656	174	74	74	8,208
	%	88.1%	8.0%	2.1%	0.9%	0.9%	100.0%
정 보 통	빈도	24,974	1,252	304	115	147	26,792
	%	93.2%	4.7%	1.1%	0.4%	0.5%	100.0%
적 받 고 있 는 편 임	빈도	14,563	519	107	27	46	15,262
	%	95.4%	3.4%	0.7%	0.2%	0.3%	100.0%
충 분 히 받 고 있 음	빈도	12,617	293	58	19	35	13,022
	%	96.9%	2.3%	0.4%	0.1%	0.3%	100.0%
전 체	빈도	61,890	3,039	749	294	469	66,441
	%	93.2%	4.6%	1.1%	0.4%	0.7%	100.0%

$\chi^2=2284.078^{***}$

$p<.05^*$, $p<.01^{**}$, $p<.001^{***}$

가정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3일 이상 가출 시도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보통’, ‘받고 있음’, ‘충분히 받고 있음’ 순으로 가출을 시도한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5.3%)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4)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표 282〉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구분	사례수 %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가 정 의 정 서 적 지 원	전혀 받지 못함	빈도 1,752 % 55.5%	554 17.6%	302 9.6%	233 7.4%	313 9.9%	3,154 100.0%
	부족함	빈도 4,922 % 60.1%	1,961 23.9%	737 9.0%	328 4.0%	244 3.0%	8,192 100.0%
보 통	빈도 21,139 % 79.0%	3,906 14.6%	1,006 3.8%	427 1.6%	276 1.0%	26,754 100.0%	
	받고 있는 편임	빈도 12,610 % 82.7%	2,028 13.3%	389 2.5%	137 0.9%	91 0.6%	15,255 100.0%
충 분 히 받 고 있 음	빈도 11,452 % 88.0%	1,187 9.1%	211 1.6%	97 0.7%	63 0.5%	13,010 100.0%	
	빈도 51,875 % 78.2%	9,636 14.5%	2,645 4.0%	1,222 1.8%	987 1.5%	66,365 100.0%	

$$\chi^2=5319.148^{***}$$

$$m \quad p<.05^*, \quad p<.01^{**}, \quad p<.001^{***}$$

가정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심각한 가출 고민을 살펴보면, 가정의 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보통’, ‘받고 있음’, ‘충분히 받고 있음’ 순으로 가출을 고민하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9.9%), ‘부족함’(3.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5)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표 283〉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구분	사례수 %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가 정 의 정 서 적 지 원	전혀 받지 못함	빈도 2,112 % 66.9%	425 13.5%	206 6.5%	138 4.4%	276 8.7%	3,157 100.0%
	부족함	빈도 6,117 % 74.6%	1,185 14.5%	407 5.0%	245 3.0%	243 3.0%	8,197 100.0%
보 통	빈도 22,760 % 85.1%	2,426 9.1%	773 2.9%	373 1.4%	425 1.6%	26,757 100.0%	
	받고 있는 편임	빈도 13,372 % 87.7%	1,228 8.1%	347 2.3%	137 0.9%	167 1.1%	15,251 100.0%

원	충분히 받고	빈도	11,763	825	182	105	130	13,005
	있음	%	90.4%	6.3%	1.4%	0.8%	1.0%	100.0%
전		빈도	56,124	6,089	1,915	998	1,241	66,367
		%	84.6%	9.2%	2.9%	1.5%	1.9%	100.0%

$\chi^2=2455.292^{***}$ $p<.05^*$, $p<.01^{**}$, $p<.001^{***}$

가정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심각한 가출 고민을 살펴보면, 가정의 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보통', '받고 있음', '충분히 받고 있음' 순으로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8.7%), '부족함'(3.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6)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표 284〉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구분	사례수 %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전혀 받지 못함	빈도	2,881	130	43	32	70	3,156	
	%	91.3%	4.1%	1.4%	1.0%	2.2%	100.0%	
가정	부족함	빈도	7,867	228	50	27	30	8,202
	%	95.9%	2.8%	0.6%	0.3%	0.4%	100.0%	
정	보통	빈도	25,999	497	139	60	65	26,760
	%	97.2%	1.9%	0.5%	0.2%	0.2%	100.0%	
서	받고 있는 편임	빈도	15,006	182	35	13	25	15,261
	%	98.3%	1.2%	0.2%	0.1%	0.2%	100.0%	
적	충분히 받고	빈도	12,832	105	26	21	24	13,008
	있음	%	98.6%	0.8%	0.2%	0.2%	0.2%	100.0%
전		빈도	64,585	1,142	293	153	214	66,387
	%	97.3%	1.7%	0.4%	0.2%	0.3%	100.0%	

$\chi^2=850.962^{***}$ $p<.05^*$, $p<.01^{**}$, $p<.001^{***}$

가정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받은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보통’, ‘받고 있음’, ‘충분히 받고 있음’ 순으로 경고나 통보를 받은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2.2%)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7) 학교폭력 피해 경험

〈표 285〉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구분	사례수 %	학교폭력 피해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가 정 의 정 서 적 지 원	전혀 받지 못함	빈도 2,665 % 84.4%	204 6.5%	66 2.1%	74 2.3%	147 4.7%	3,156 100.0%
	부족함	빈도 7,202 % 87.8%	527 6.4%	160 1.9%	150 1.8%	167 2.0%	8,206 100.0%
보 통	빈도 24,781 % 92.5%	1,111 4.1%	297 1.1%	317 1.2%	278 1.0%	26,784 100.0%	
	받고 있는 편임	빈도 14,144 % 92.7%	679 4.4%	141 0.9%	166 1.1%	133 0.9%	15,263 100.0%
충 분 히 받 고 있 음	빈도 12,241 % 94.1%	441 3.4%	96 0.7%	128 1.0%	108 0.8%	13,014 100.0%	
	전체	빈도 61,033 % 91.9%	2,962 4.5%	760 1.1%	835 1.3%	833 1.3%	66,423 100.0%

$$\chi^2 = 719.855^{***}$$

$$p < .05^*, p < .01^{**}, p < .001^{***}$$

가정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보통’, ‘받고 있음’, ‘충분히 받고 있음’ 순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4.7%), ‘부족함’(2.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8) 학교폭력 가해 경험

〈표 286〉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구분	사례수 %	학교폭력 가해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전혀 받지 못함	빈도	2,657	203	89	82	125	3,156	
	%	84.2%	6.4%	2.8%	2.6%	4.0%	100.0%	
가정 의 정서 적 지 원	부족함	빈도	7,258	567	160	101	107	8,193
		%	88.6%	6.9%	2.0%	1.2%	1.3%	100.0%
보통	빈도	24,706	1,255	317	240	228	26,746	
	%	92.4%	4.7%	1.2%	0.9%	0.9%	100.0%	
받고 있는 편임	빈도	14,169	716	137	126	100	15,248	
	%	92.9%	4.7%	0.9%	0.8%	0.7%	100.0%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12,209	506	92	84	110	13,001	
	%	93.9%	3.9%	0.7%	0.6%	0.8%	100.0%	
전 체	빈도	60,999	3,247	795	633	670	66,344	
	%	91.9%	4.9%	1.2%	1.0%	1.0%	100.0%	

$\chi^2=718.876^{***}$

$p<.05^*$, $p<.01^{**}$, $p<.001^{***}$

가정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보통’, ‘받고 있음’, ‘충분히 받고 있음’ 순으로 학교폭력 가해를 한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4.0%), ‘부족함’(1.3%)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9)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표 287〉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전혀 받지 못함	빈도	2,999	42	20	23	72	3,156	
	%	95.0%	1.3%	0.6%	0.7%	2.3%	100.0%	
가정 의 정 서 적 지 원	부족함	빈도	8,063	52	33	19	34	8,201
		%	98.3%	0.6%	0.4%	0.2%	0.4%	100.0%
보통	빈도	26,443	105	80	40	79	26,747	
	%	98.9%	0.4%	0.3%	0.1%	0.3%	100.0%	
받고 있는 편임	빈도	15,168	29	12	8	35	15,252	
	%	99.4%	0.2%	0.1%	0.1%	0.2%	100.0%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12,920	26	16	11	36	13,009	
	%	99.3%	0.2%	0.1%	0.1%	0.3%	100.0%	
전 체	빈도	65,593	254	161	101	256	66,365	
	%	98.8%	0.4%	0.2%	0.2%	0.4%	100.0%	

$\chi^2=575.967^{***}$

$p<.05^*$, $p<.01^{**}$, $p<.001^{***}$

가정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보통’, ‘충분히 받고 있음’, ‘받고 있음’ 순으로 흡입 경험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2.3%)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0) 음주, 흡연 경험

〈표 288〉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음주, 흡연 경험

구분	사례수 %	음주, 흡연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가 정 의 정 서 적 지 원	전혀 받지 못함	빈도	1,840	322	314	169	511	3,156
		%	58.3%	10.2%	9.9%	5.4%	16.2%	100.0%
	부족함	빈도	5,456	922	763	338	716	8,195
		%	66.6%	11.3%	9.3%	4.1%	8.7%	100.0%
	보통	빈도	20,121	2,278	1,662	944	1,733	26,738
		%	75.3%	8.5%	6.2%	3.5%	6.5%	100.0%
받 고 있 는 편 임	빈도	11,991	1,340	903	410	592	15,236	
	%	78.7%	8.8%	5.9%	2.7%	3.9%	100.0%	
충 분 히 받 고 있 음	빈도	10,753	929	584	267	467	13,000	
	%	82.7%	7.1%	4.5%	2.1%	3.6%	100.0%	
전 체	빈도	50,161	5,791	4,226	2,128	4,019	66,325	
	%	75.6%	8.7%	6.4%	3.2%	6.1%	100.0%	

$\chi^2=1709.491^{***}$

$p<.05^*$, $p<.01^{**}$, $p<.001^{***}$

가정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음주, 흡연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보통’, ‘받고 있음’, ‘충분히 받고 있음’ 순으로 음주와 흡연을 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16.2%), ‘부족함’(8.7%)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1)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표 289〉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구분	사례수 %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전혀 받지 못함	빈도	2,207	304	192	194	258	3,155	
	%	70.0%	9.6%	6.1%	6.1%	8.2%	100.0%	
가정 의 정 서 적 지 원	부족함	빈도	5,529	1,080	722	581	283	8,195
		%	67.5%	13.2%	8.8%	7.1%	3.5%	100.0%
보통	빈도	20,472	2,943	1,688	1,138	504	26,745	
	%	76.5%	11.0%	6.3%	4.3%	1.9%	100.0%	
받고 있는 편임	빈도	11,726	1,850	927	562	180	15,245	
	%	76.9%	12.1%	6.1%	3.7%	1.2%	100.0%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10,791	1,189	573	309	145	13,007	
	%	83.0%	9.1%	4.4%	2.4%	1.1%	100.0%	
전 체	빈도	50,725	7,366	4,102	2,784	1,370	66,347	
	%	76.5%	11.1%	6.2%	4.2%	2.1%	100.0%	

$\chi^2=1504.179^{***}$

$p<.05^*$, $p<.01^{**}$, $p<.001^{***}$

가정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정서적 지원이 ‘부족함’, ‘전혀 받지 못함’, ‘보통’, ‘받고 있음’, ‘충분히 받고 있음’ 순으로 가족과 갈등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8.2%), ‘부족함’(3.5%)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2)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표 290〉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구분	사례수 %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제대로 일 못한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전혀 받지 못함	빈도	1,798	331	327	348	352	3,156	
	%	57.0%	10.5%	10.4%	11.0%	11.2%	100.0%	
가정 의 정 서 적 지 원	부족함	빈도	4,027	1,197	1,194	1,165	620	8,203
		%	49.1%	14.6%	14.6%	14.2%	7.6%	100.0%
보통	빈도	15,548	4,099	3,294	2,752	1,089	26,782	
	%	58.1%	15.3%	12.3%	10.3%	4.1%	100.0%	
받고 있는 편임	빈도	8,252	2,753	2,081	1,606	562	15,254	
	%	54.1%	18.0%	13.6%	10.5%	3.7%	100.0%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7,963	2,012	1,409	1,144	476	13,004	
	%	61.2%	15.5%	10.8%	8.8%	3.7%	100.0%	
전 체	빈도	37,588	10,392	8,305	7,015	3,099	66,399	
	%	56.6%	15.7%	12.5%	10.6%	4.7%	100.0%	

$\chi^2=1016.647^{***}$

$p<.05^*$, $p<.01^{**}$, $p<.001^{***}$

가정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제대로 일하지 못한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정서적 지원이 ‘부족함’, ‘받고 있음’, ‘전혀 받지 못함’, ‘보통’, ‘충분히 받고 있음’ 순으로 일에 차질을 빚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11.2%), ‘부족함’(7.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3)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표 291〉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구분	사례수 %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가 정 의 정 서 적 지 원	전혀 받지 못함	빈도	2,572	330	94	46	105	3,147
		%	81.7%	10.5%	3.0%	1.5%	3.3%	100.0%
적 받 고 있 는 편 임	부족함	빈도	6,958	877	214	76	72	8,197
		%	84.9%	10.7%	2.6%	0.9%	0.9%	100.0%
충 분 히 받 고 있 음	보통	빈도	24,034	2,013	426	157	125	26,755
		%	89.8%	7.5%	1.6%	0.6%	0.5%	100.0%
전 체	받고 있는 편임	빈도	13,870	1,079	191	62	44	15,246
		%	91.0%	7.1%	1.3%	0.4%	0.3%	100.0%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12,057	723	137	41	48	13,006
		%	92.7%	5.6%	1.1%	0.3%	0.4%	100.0%
		빈도	59,491	5,022	1,062	382	394	66,351
		%	89.7%	7.6%	1.6%	0.6%	0.6%	100.0%

$\chi^2=936.643^{***}$

$p<.05^*$, $p<.01^{**}$, $p<.001^{***}$

가정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보통’, ‘받고 있음’, ‘충분히 받고 있음’ 순으로 훔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3.3%)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14)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표 292〉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구분	사례수 %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가 정 의 정 서 적 지 원	전혀 받지 못함	빈도	2,721	202	89	36	100	3,148
		%	86.4%	6.4%	2.8%	1.1%	3.2%	100.0%
적 받 고 있 는 편 임	부족함	빈도	7,472	470	133	64	39	8,178
		%	91.4%	5.7%	1.6%	0.8%	0.5%	100.0%

	보통	빈도	25,002	1,228	245	107	113	26,695
서		%	93.7%	4.6%	0.9%	0.4%	0.4%	100.0%
적 받고 있는 편임	빈도	빈도	14,473	555	105	47	39	15,219
지		%	95.1%	3.6%	0.7%	0.3%	0.3%	100.0%
원 충분히 받고	빈도	빈도	12,454	373	74	28	43	12,972
있음		%	96.0%	2.9%	0.6%	0.2%	0.3%	100.0%
전	빈도	빈도	62,122	2,828	646	282	334	66,212
체		%	93.8%	4.3%	1.0%	0.4%	0.5%	100.0%
			$\chi^2=926.643^{***}$ $p<.05^*$, $p<.01^{**}$, $p<.001^{***}$					

가정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뺏은 경험을 살펴보면, 가정의 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 ‘부족함’, ‘보통’, ‘받고 있음’, ‘충분히 받고 있음’ 순으로 갈취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 중 ‘전혀 받지 못함’(3.2%)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5)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표 293〉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구분	사례수 %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전혀 받지 못함	빈도	397	2,748	3,145
가	%	12.6%	87.4%	100.0%
정 부족함	빈도	652	7,525	8,177
의	%	8.0%	92.0%	100.0%
정 보통	빈도	1,674	25,007	26,681
서	%	6.3%	93.7%	100.0%
적 받고 있는 편임	빈도	889	14,325	15,214
지	%	5.8%	94.2%	100.0%
원 충분히 받고	빈도	820	12,149	12,969
있음	%	6.3%	93.7%	100.0%
전	빈도	4,432	61,754	66,186
체	%	6.7%	93.3%	100.0%
			$\chi^2=226.402^{***}$ $p<.05^*$, $p<.01^{**}$, $p<.001^{***}$	

가정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 받지 못함’이 12.6%, ‘부족함’이 8.0%, ‘보통’과 ‘충분히 받고 있음’이 6.3%, ‘받고 있는 편임’이 5.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6)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표 294〉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구분	사례수 %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전혀 받지 못함	빈도	350	2,798	3,148	
	%	11.1%	88.9%	100.0%	
가정 의 정 서 적 지 원	부족함	빈도	499	7,681	8,180
		%	6.1%	93.9%	100.0%
보통	빈도	1,479	25,208	26,687	
	%	5.5%	94.5%	100.0%	
받고 있는 편임	빈도	715	14,496	15,211	
	%	4.7%	95.3%	100.0%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660	12,312	12,972	
	%	5.1%	94.9%	100.0%	
전 체	빈도	3,703	62,495	66,198	
	%	5.6%	94.4%	100.0%	

$\chi^2=215.302^{***}$

$p < .05^*$, $p < .01^{**}$, $p < .001^{***}$

가정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 받지 못함’이 11.1%, ‘부족함’이 6.1%, ‘보통’이 5.5%, ‘충분히 받고 있음’이 5.1%, ‘받고있는 편임’이 4.7%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7) 자살 생각 경험

〈표 295〉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자살 생각 경험

구분	사례수 %	자살 생각 경험		전체	
		있음	없음		
가정	전혀 받지 못함	빈도	1,411	1,735	3,146
		%	44.9%	55.1%	100.0%
의정	부족함	빈도	2,983	5,197	8,180
		%	36.5%	63.5%	100.0%
서적	보통	빈도	5,448	21,247	26,695
		%	20.4%	79.6%	100.0%
적	받고 있는 편임	빈도	2,851	12,364	15,215
		%	18.7%	81.3%	100.0%
원	충분히 받고 있음	빈도	2,054	10,916	12,970
		%	15.8%	84.2%	100.0%
전체		빈도	14,747	51,459	66,206
		%	22.3%	77.7%	100.0%

$\chi^2=2351.971^{***}$

$p<.05^*$, $p<.01^{**}$, $p<.001^{***}$

가정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자살생각을 해 본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 받지 못함’이 44.9%, ‘부족함’이 36.5%, ‘보통’이 20.4%, ‘받고 있는 편임’이 18.7%, ‘충분히 받고 있음’이 15.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8) 자살 시도 경험

〈표 296〉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자살 시도 경험

구분	사례수 %	자살 시도 경험		전체	
		있음	없음		
가정	전혀 받지 못함	빈도	600	2,551	3,151
		%	19.0%	81.0%	100.0%
의정	부족함	빈도	776	7,408	8,184
		%	9.5%	90.5%	100.0%
서적	보통	빈도	1,610	25,077	26,687
		%	6.0%	94.0%	100.0%

받고 있는 편임	빈도	774	14,443	15,217
지	%	5.1%	94.9%	100.0%
원	충분히 받고	빈도	671	12,297
	있음	%	5.2%	94.8%
전	빈도	4,431	61,776	66,207
체	%	6.7%	93.3%	100.0%

$\chi^2=1000.778^{***}$ $p<.05^*$, $p<.01^{**}$, $p<.001^{***}$

가정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자살 시도 경험을 살펴보면, '전혀 받지 못함'이 19.0%, '부족함'이 9.5%, '보통'이 6.0%, '충분히 받고 있음'이 5.2%, '받고 있는 편임'이 5.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정의 정서적 지원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나. 1388 헬프콜

1) 개요

(1) 헬프콜 인지여부

〈표 297〉 헬프콜 인지 분포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인지여부	알고 있음	16,238	23.3	23.3
	모름	53,452	76.6	76.7
	무응답	64	0.1	
합계	69,754	100.0	100.0	

조사 대상자들이 1388 헬프콜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자 중 16,238명(23.3%)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 헬프콜 이용경험

〈표 298〉 헬프콜 이용경험 분포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이용경험	있음	1,444	2.1
	없음	68,209	97.8
	무응답	101	0.1
합계	69,754	100.0	

조사 대상자들이 1388 헬프콜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자 중 1,444명(2.1%)만이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 위기수준별 헬프콜 인지여부 및 헬프콜 이용경험

(1) 위기수준별 헬프콜 인지여부

〈표 299〉 위기수준별 헬프콜 인지여부

구분	사례수 %	헬프콜 인지 여부		전체
		알고 있음	모름	
1수준	빈도	10,808	35,097	45,905
	%	23.5%	76.5%	100.0%
2수준	빈도	1,619	5,496	7,115
	%	22.8%	77.2%	100.0%
3수준	빈도	358	923	1,281
	%	27.9%	72.1%	100.0%
전체	빈도	12,785	41,516	54,301
	%	23.5%	76.5%	100.0%

$$\chi^2=16.257^{***}$$

$$p<.05^{\circ}, p<.01^{**}, p<.001^{***}$$

위기수준별로 헬프콜의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3수준(고위험군)의 인지 비율이 27.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1수준(23.5%), 2수준(22.8%) 순이었다. 이와 같은 위기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2) 위기수준별 헬프콜 이용경험

〈표 300〉 위기수준별 헬프콜 이용경험

구분	사례수 %	헬프콜 이용 경험		전체
		있음	없음	
1수준	빈도	714	45,174	45,888
	%	1.6%	98.4%	100.0%
2수준	빈도	260	6,856	7,116
	%	3.7%	96.3%	100.0%
3수준	빈도	126	1,154	1,280
	%	9.8%	90.2%	100.0%
전체	빈도	1,100	53,184	54,284
	%	2.0%	98.0%	100.0%

$$\chi^2=540.077^{***}$$

$$p<.05^*, p<.01^{**}, p<.001^{***}$$

위기수준별로 헬프콜의 이용경험여부를 살펴본 결과, 심각한 수준일수록 헬프콜을 이용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수준(고위험군)은 이용비율이 9.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2수준(3.7%), 1수준(1.6%) 순이었다. 이와 같은 위기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3) 헬프콜 인지자 및 이용자의 위기수준

(1) 헬프콜 인지자의 위기수준

〈표 301〉 헬프콜 인지자의 위기수준

구분	사례수 %	전체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헬프콜	빈도	10,808	1,619	358	12,785
인지자	%	84.5%	12.7%	2.8%	100.0%

$$\chi^2=16.257^{***}$$

$$p<.05^*, p<.01^{**}, p<.001^{***}$$

헬프콜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위기수준을 살펴본 결과, 1수준에 84.5%, 2수준에 12.7%, 3수준에 2.8% 분포하였다.

(2) 헬프콜 이용자의 위기수준

〈표 302〉 헬프콜 이용자의 위기수준

구분	사례수 %	전체위기요소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헬프콜 이용자	빈도 %	714 64.9%	260 23.6%	126 11.5%	1,100 100.0%

$$\chi^2=540.077^{***}$$

$$p<.05^*, p<.01^{**}, p<.001^{***}$$

헬프콜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위기수준을 살펴본 결과, 1수준에 64.9%, 2수준에 23.6%, 3수준에 11.5% 분포하였다.

4) 헬프콜 이용여부와 위기결과

(1)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표 303〉 헬프콜 이용여부별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정신체학대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이 용 여 부	경험 빈도	1,177	85	57	40	28	1,387
	있음 %	84.9%	6.1%	4.1%	2.9%	2.0%	100.0%
부 전체	경험 빈도	61,654	2,413	704	286	260	65,317
	없음 %	94.4%	3.7%	1.1%	0.4%	0.4%	100.0%
전체	빈도	62,831	2,498	761	326	288	66,704
	%	94.2%	3.7%	1.1%	0.5%	0.4%	100.0%

$$\chi^2=392.908^{***}$$

$$p<.05^*, p<.01^{**}, p<.001^{***}$$

헬프콜 이용여부에 따른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주기에 상관없이 가정에서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프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2.0%가 ‘거의 매일’ 학대 경험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헬프콜 이용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2)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표 304〉 헬프콜 이용여부별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거의 매일	
이 용 여 부	경험 빈도	1,068	121	67	59	71	1,386
	있음 %	77.1%	8.7%	4.8%	4.3%	5.1%	100.0%
부 전체	경험 빈도	58,404	3,615	1,419	1,112	751	65,301
	없음 %	89.4%	5.5%	2.2%	1.7%	1.2%	100.0%
전체	빈도	59,472	3,736	1,486	1,171	822	66,687
	%	89.2%	5.6%	2.2%	1.8%	1.2%	100.0%

$$\chi^2=315.357^{***}$$

$$p<.05^{\circ}, p<.01^{**}, p<.001^{***}$$

헬프콜 이용여부에 따른 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린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주기에 상관없이 가정에서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림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프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5.1%가 ‘거의 매일’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같은 헬프콜 이용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3)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표 305〉 헬프콜 이용여부별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구분	사례수 %	3일 이상 가출시도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이 용 여 부	경험 빈도	1,021	149	71	41	105	1,387
	있음 %	73.6%	10.7%	5.1%	3.0%	7.6%	100.0%
부 전체	경험 빈도	61,096	2,896	681	255	370	65,298
	없음 %	93.6%	4.4%	1.0%	0.4%	0.6%	100.0%
전체	빈도	62,117	3,045	752	296	475	66,685
	%	93.1%	4.6%	1.1%	0.4%	0.7%	100.0%

$$\chi^2=1513.124^{***}$$

$$p<.05^{\circ}, p<.01^{**}, p<.001^{***}$$

헬프콜 이용여부에 따른 3일 이상 가출 시도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주기에 상관없이 가출 시도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프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6%가 ‘지속적’으로 가출 시도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헬프콜 이용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4)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표 306〉 헬프콜 이용여부별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구분	사례수 %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이 용 여 부	경험 있음	빈도 %	871 62.8%	242 17.5%	104 7.5%	76 5.5%	93 6.7%	1,386 100.0%
	경험 없음	빈도 %	51,207 78.5%	9,417 14.4%	2,548 3.9%	1,148 1.8%	902 1.4%	65,222 100.0%
전체	빈도	52,078	9,659	2,652	1,224	995	66,608	
	%	78.2%	14.5%	4.0%	1.8%	1.5%	100.0%	

$\chi^2=455.457^{***}$

$p < .05^*$, $p < .01^{**}$, $p < .001^{***}$

헬프콜 이용여부에 따른 심각한 가출 고민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주기에 상관없이 가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프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7%가 ‘지속적’으로 가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헬프콜 이용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5)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표 307〉 헬프콜 이용여부별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구분	사례수 %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이 용 여 부	경험 있음	빈도 %	1,011 73.0%	149 10.8%	67 4.8%	56 4.0%	101 7.3%	1,384 100.0%
	경험 없음	빈도 %	55,334 84.8%	5,953 9.1%	1,846 2.8%	946 1.5%	1,147 1.8%	65,226 100.0%
전체	빈도	56,345	6,102	1,913	1,002	1,248	66,610	
	%	84.6%	9.2%	2.9%	1.5%	1.9%	100.0%	

$\chi^2=327.959^{***}$

$p < .05^*$, $p < .01^{**}$, $p < .001^{***}$

헬프콜 이용여부에 따른 심각한 학업중단 고민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주기에 상관없이 학업중단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프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3%가 '지속적'으로 학업중단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헬프콜 이용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6)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표 308〉 헬프콜 이용여부별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구분	사례수 %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이용여부	경험 있음	빈도	1,217	80	43	19	24	1,383
		%	88.0%	5.8%	3.1%	1.4%	1.7%	100.0%
부	경험 없음	빈도	63,603	1,065	249	138	194	65,249
		%	97.5%	1.6%	0.4%	0.2%	0.3%	100.0%
전체	빈도	64,820	1,145	292	157	218	66,632	
	%	97.3%	1.7%	0.4%	0.2%	0.3%	100.0%	

$$\chi^2=541.564^*$$

$$p < .05^*, p < .01^{**}, p < .001^{***}$$

헬프콜 이용여부에 따른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주기에 상관없이 자퇴경고나 퇴학통보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프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1.7%가 '지속적'으로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받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헬프콜 이용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7) 학교폭력 피해 경험

〈표 309〉 헬프콜 이용여부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구분	사례수 %	학교폭력 피해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이용여부	경험 있음	빈도	1,163	103	36	34	49	1,385
		%	84.0%	7.4%	2.6%	2.5%	3.5%	100.0%
부	경험 없음	빈도	60,096	2,867	725	802	788	65,278

	없음	%	92.1%	4.4%	1.1%	1.2%	1.2%	100.0%
전체	빈도		61,259	2,970	761	836	837	66,663
	%		91.9%	4.5%	1.1%	1.3%	1.3%	100.0%

$\chi^2=139.152^{***}$

$p<.05^*$, $p<.01^{**}$, $p<.001^{***}$

헬프콜 이용여부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주기에 상관없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프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3.5%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헬프콜 이용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9) 학교폭력 가해 경험

〈표 310〉 헬프콜 이용여부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구분	사례수 %	학교폭력 가해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 1-2번	지속적		
이 용 여 부	경험 있음	빈도	1,138	107	60	29	52	1,386
	%		82.1%	7.7%	4.3%	2.1%	3.8%	100.0%
부	경험 없음	빈도	60,087	3,146	739	605	621	65,198
	%		92.2%	4.8%	1.1%	0.9%	1.0%	100.0%
전체	빈도		61,225	3,253	799	634	673	66,584
	%		92.0%	4.9%	1.2%	1.0%	1.0%	100.0%

$\chi^2=278.227^{***}$

$p<.05^*$, $p<.01^{**}$, $p<.001^{***}$

헬프콜 이용여부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주기에 상관없이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프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3.8%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헬프콜 이용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0) 가스, 본드, 마약 흡입 경험

〈표 311〉 헬프콜 이용여부별 가스, 본드, 마약 흡입 경험

구분	사례수 %	가스, 본드, 마약 흡입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이용 여 부	경험 있음	빈도	1,303	28	18	10	27	1,386
		%	94.0%	2.0%	1.3%	0.7%	1.9%	100.0%
	경험 없음	빈도	64,530	227	142	90	234	65,223
		%	98.9%	0.3%	0.2%	0.1%	0.4%	100.0%
전체	빈도	65,833	255	160	100	261	66,609	
	%	98.8%	0.4%	0.2%	0.2%	0.4%	100.0%	

$\chi^2=286.741^{***}$

$p<.05^*$, $p<.01^{**}$, $p<.001^{***}$

헬프콜 이용여부에 따른 가스, 본드, 마약 흡입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주기에 상관없이 약물 흡입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프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1.9%가 ‘지속적’으로 약물 흡입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헬프콜 이용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11) 음주, 흡연 경험

〈표 312〉 헬프콜 이용여부별 음주, 흡연 경험

구분	사례수 %	음주, 흡연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이 용 여 부	경험 있음	빈도	852	107	102	66	257	1,384
		%	61.6%	7.7%	7.4%	4.8%	18.6%	100.0%
	경험 없음	빈도	49,514	5,706	4,127	2,067	3,771	65,185
		%	76.0%	8.8%	6.3%	3.2%	5.8%	100.0%
전체	빈도	50,366	5,813	4,229	2,133	4,028	66,569	
	%	75.7%	8.7%	6.4%	3.2%	6.1%	100.0%	

$\chi^2=417.913^*$

$p<.05^*$, $p<.01^{**}$, $p<.001^{***}$

헬프콜 이용여부에 따른 음주와 흡연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일년에 1-2번’의 경우는 헬프콜 이용경험이 없는 응답자(8.8%)가, 나머지의 경우는 헬프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더 음주와 흡연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프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18.6%가 ‘지속적’으로 위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헬프콜 이용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2)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표 313〉 헬프콜 이용여부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구분	사례수 %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이 용 여 부	경험 있음	빈도	1,006	152	79	74	73	1,384
	%		72.7%	11.0%	5.7%	5.3%	5.3%	100.0%
	경험 없음	빈도	49,926	7,233	4,031	2,715	1,303	65,208
	%		76.6%	11.1%	6.2%	4.2%	2.0%	100.0%
전체	빈도		50,932	7,385	4,110	2,789	1,376	66,592
	%		76.5%	11.1%	6.2%	4.2%	2.1%	100.0%

$\chi^2=78.104^{***}$

$p < .05^*$, $p < .01^{**}$, $p < .001^{***}$

헬프콜 이용여부에 따른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경험을 살펴본 결과, ‘일년에 1-2번’과 ‘한달에 1번’의 경우는 헬프콜 이용경험이 없는 응답자(11.1%, 6.2%)가, ‘1주일에 1-2번’과 ‘지속적’인 경우는 헬프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5.3%, 5.3%)가 더 인터넷으로 인한 가족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프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5.3%가 ‘지속적’으로 위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헬프콜 이용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3)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표 314〉 헬프콜 이용여부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

구분	사례수 %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제대로 일하지 못한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이 용 여 부	경험 있음	빈도 817	181	132	126	131	1,387
		% 58.9%	13.0%	9.5%	9.1%	9.4%	100.0%
부 경 험 없 음	빈도 36,942	10,245	8,185	6,909	2,976	65,257	
		% 56.6%	15.7%	12.5%	10.6%	4.6%	100.0%
전 체	빈도 37,759	10,426	8,317	7,035	3,107	66,644	
		% 56.7%	15.6%	12.5%	10.6%	4.7%	100.0%

$\chi^2=89.727^{***}$

$p<.05^*$, $p<.01^{**}$, $p<.001^{***}$

헬프콜 이용여부에 따른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일년에 1-2번'과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의 경우는 헬프콜 이용경험이 없는 응답자(15.7%, 12.5%, 10.6%)가 헬프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보다 더 인터넷으로 인해 일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프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9.4%가 '지속적'으로 위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헬프콜 이용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14)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험

〈표 315〉 헬프콜 이용여부별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험

구분	사례수 %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이 용 여 부	경험 있음	빈도 1,099	170	48	26	40	1,383
		% 79.5%	12.3%	3.5%	1.9%	2.9%	100.0%
부 경 험 없 음	빈도 58,623	4,862	1,016	356	358	65,215	
		% 89.9%	7.5%	1.6%	0.5%	0.5%	100.0%
전 체	빈도 59,722	5,032	1,064	382	398	66,598	
		% 89.7%	7.6%	1.6%	0.6%	0.6%	100.0%

$\chi^2=255.822^{***}$

$p<.05^*$, $p<.01^{**}$, $p<.001^{***}$

헬프콜 이용여부에 따른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험을 살펴본 결과, 헬프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주기에 상관없이 훔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프

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2.9%는 ‘지속적’으로 절도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헬프콜 이용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5)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표 316〉 헬프콜 이용여부별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구분	사례수 %	타인의 물건 강제로 뺏은 경험					전체
		전혀 없음	일년에 1-2번	한달에 1번	1주일에 1-2번	지속적	
이 용 여 부	경험 빈도	1,150	120	34	30	46	1,380
	있음 %	83.3%	8.7%	2.5%	2.2%	3.3%	100.0%
부 없음	경험 빈도	61,199	2,722	614	253	290	65,078
	없음 %	94.0%	4.2%	0.9%	0.4%	0.4%	100.0%
전체	빈도	62,349	2,842	648	283	336	66,458
	%	93.8%	4.3%	1.0%	0.4%	0.5%	100.0%

$$\chi^2=436.917^{***}$$

$$p < .05^*, p < .01^{**}, p < .001^{***}$$

헬프콜 이용여부에 따른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험을 살펴본 결과, 헬프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주기에 상관없이 갈취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프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3.3%는 ‘지속적’으로 갈취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헬프콜 이용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6)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표 317〉 헬프콜 이용여부별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구분	사례수 %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이 용 여 부	경험 빈도	197	1,181	1,378
	있음 %	14.3%	85.7%	100.0%
부 없음	경험 빈도	4,253	60,800	65,053
	없음 %	6.5%	93.5%	100.0%
전체	빈도	4,450	61,981	66,431
	%	6.7%	93.3%	100.0%

$$\chi^2=129.959^*$$

$$p < .05^*, p < .01^{**}, p < .001^{***}$$

헬프콜 이용여부에 따른 성폭력(성희롱) 위협을 느낀 경험을 살펴본 결과, 헬프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14.3%)가 헬프콜 이용경험이 없는 응답자(6.5%) 보다

성폭력 위협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헬프콜 이용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7)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표 318〉 헬프콜 이용여부별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구분	사례수	%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이 용 여 부	경험	빈도	153	1,226	1,379
	있음	%	11.1%	88.9%	100.0%
부	경험	빈도	3,572	61,492	65,064
	없음	%	5.5%	94.5%	100.0%
전체	빈도		3,725	62,718	66,443
	%		5.6%	94.4%	100.0%

$\chi^2=80.166^{***}$ $p < .05^*$, $p < .01^{**}$, $p < .001^{***}$

헬프콜 이용여부에 따른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을 살펴본 결과, 헬프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11.1%)가 헬프콜 이용경험이 없는 응답자(5.5%) 보다 성매매 유혹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헬프콜 이용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18) 자살 생각 경험

〈표 319〉 헬프콜 이용여부별 자살 생각 경험

구분	사례수	%	자살 생각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이 용 여 부	경험	빈도	460	919	1,379
	있음	%	33.4%	66.6%	100.0%
부	경험	빈도	14,327	50,747	65,074
	없음	%	22.0%	78.0%	100.0%
전체	빈도		14,787	51,666	66,453
	%		22.3%	77.7%	100.0%

$\chi^2=100.394^{***}$ $p < .05^*$, $p < .01^{**}$, $p < .001^{***}$

헬프콜 이용여부에 따른 자살 생각 경험을 살펴본 결과, 헬프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33.4%)가 헬프콜 이용경험이 없는 응답자(22.0%) 보다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헬프콜 이용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p < .001$).

(19) 자살 시도 경험

〈표 320〉 헬프콜 이용여부별 자살 시도 경험

구분	사례수 %	자살 시도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이 용	경험 빈도	221	1,159	1,380
	있음 %	16.0%	84.0%	100.0%
여 부	경험 빈도	4,227	60,841	65,068
	없음 %	6.5%	93.5%	100.0%
전체	빈도	4,448	62,000	66,448
	%	6.7%	93.3%	100.0%

$\chi^2=196.012^{***}$

$p < .05^*$, $p < .01^{**}$, $p < .001^{***}$

헬프콜 이용여부에 따른 자살 시도 경험을 살펴본 결과, 헬프콜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16.0%)가 헬프콜 이용경험이 없는 응답자(6.5%) 보다 자살 시도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헬프콜 이용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V.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위기가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위기경험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걸쳐 총 69,75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으로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의 위기가능 수준의 분포 및 각 위기요소별 위기수준의 분포를 (1)16개 시도별, (2)성별, (3)학교급별, (4)학년별, (5)가족형태별, (6)거주형태별, (7)지각된 가정경제 수준별, (8)지각된 가정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원 수준 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1)신체적 학대 경험, (2)가정에서의 폭언이나 욕설로 시달린 경험, (3)가출고려 및 시도, (4)학업중단 고려, (5)자퇴경고 및 퇴학 통보 경험, (6)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 (7)가스, 본드, 마약류 흡입 경험, (8)음주 및 흡연 경험, (9)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및 일상장애 경험, (10)물품을 훔치거나 갈취한 경험, (11)성폭력(성희롱) 경험, (12)성매매 유혹 경험, (13)자살 생각 및 시도 경험 등을 위기경험으로 정의하고, 이들 각각을 위기 수준 및 각 위기요소별 위기수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가족복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1388 청소년 전화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들 각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통해 드러나 사실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려 한다.

1. 요약

본 조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반적 위기수준의 분포는 보통이라 할 수 있는 1수준은 유효응답자의 84.5%, 잠재적 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2수준은 13.1%, 그리고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3수준은 2.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위기요소별 위기수준의 분포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심리적 요소, 개인적 요소, 학교 요소, 지역사회 요소에서는 전반적 위기수준의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요소와 또래요소에

서는 고위험이라 할 수 있는 3수준의 비율이 각각 4.7%와 4.5%로 다른 영역의 2~3%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2수준의 경우, 다른 요소에서 보다 가정 및 또래 요소에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부모, 부모자녀 관계의 악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부정적 지각, 반사회적 가정구성원 및 가정결손 등의 문제 및 비행과 관련된 또래라는 요인이 전반적인 고위험수준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반적인 위기수준의 분포를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고위험군인 3수준의 경우 서울(2.9%), 경기(2.9%), 경남(2.9%), 전북(4.8%)이 타 지역에 비해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울산, 제주는 각각 1.4%, 1%, 제주 1%로 타 지역에 비해 낮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위기 요소별로 3수준의 비율을 살펴보면, 심리 요소, 개인 요소, 학교 요소에서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사회 요소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고위험 수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그 편차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 및 또래 요소에서는 전반적 위기수준의 분포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 경남, 전북 지역에서 고위험을 의미하는 3수준의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았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서울, 경기, 경남, 전북 지역의 전반적인 고위험수준 청소년들이 가정 및 또래 요인에 있어서의 위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반적인 위기수준 분포를 성별로 살펴보면, 고위험군의 경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 요소, 심리적 요소, 지역사회 요소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가정 요소, 또래 요소, 학교 요소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비율이 미미하지만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위기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고위험군 비율의 경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전문계고, 인문계고, 중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1.6%)와 인문계고(2%) 간의 차이는 0.4%로 미미하였다. 인문계고와 전문계고(3.6%) 간에는 1.6%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약 15.1%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전문계고와 12%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위험 요소별로 살펴보면, 개인 요소, 심리적 요소에서는 전반적 위기수준의 분포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가정 요소에서는 전문계고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고위험 수준으로 분류된

경우가 각각 7.7%와 24.8%로 중학교(3.1%) 및 인문계고(3.7%)와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래 요소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유지되었는데, 인문계고의 경우 4.7%로 가정 요소에서 보다 위험수준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른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과는 가정 및 또래 요소가 청소년들의 위기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전문계고 및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 더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소수만이 표집되어, 고위험군의 비율이 과대 추정되었거나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차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 위기 수준의 분포는 학년별로는 큰 편차가 없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위험군의 비율이 약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개별 위험 요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가정 요소 및 또래 요소에서 고등학생들의 고위험 수준 비율이 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고위험 수준 비율의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요소 및 또래 요소가 전반적 고위험군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특히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보다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효과가 더욱 커져간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족형태별 전반적 위기 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친부모를 제외한 편부, 편모, 재혼가정, 양부모, 부모 부재 모두의 경우 고위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편부의 경우 편모의 경우 보다 고위험군의 비율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도 더 높았다. 재혼 가정의 경우 편부와 편모의 경우 보다 고위험군의 비율이 더 높았는데,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경우가 친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경우보다 위험군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고위험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부모님 모두가 부재한 경우였지만, 표본 수가 지나치게 적어서 고위험군의 비율을 과대 또는 과소 추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친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형태가 아닌 경우 고위험군의 비율이 4%이상 10%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가정형태가 청소년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짐작하게 한다. 각 위험 요소별 고위험군 비율을 살펴보면, 다른 어떤 요소보다 가정 요소에서 고위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양친이 모두 부재한 경우를 제외하면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경우에 고위험 비율(20.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친아버지만 있

는 경우(14.5%)와 친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경우(14.3)였다. 어머니만 있는 경우도 고위험 비율이 8%로 낮지 않았다. 다음으로 고위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또래 요소에서인데, 가정 요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친아버지와 새어머니(8.6%), 친어머니와 새아버지(8%), 친아버지(6.7%) 순으로 고위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위기 요소들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가정 및 또래 요소만큼 높은 고위험 비율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거주형태별 전반적 위기 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유형을 제외하면 모두 표본 수가 적어서 위험수준의 분포를 안정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감수하고라도 나타난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고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고(30.3%), 그 다음이 청소년보호시설에 거주(21.5%), 친구 또는 선후배와 함께 거주(18.8%), 그리고 혼자 거주(15%) 등의 순으로 고위험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수가 많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고위험군 비율이 5%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2.1%에 비해 높았다.

지각된 가정경제수준별 전반적 위기 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비율(16%)이 가장 높았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 ‘매우 잘 사는 편’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6.9%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율은 ‘어려운 편’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비율(4.2%)보다 높다. 그러나 ‘어려운 편’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에서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된 비율(20.8%)이 높았다. ‘매우 잘 사는 편’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에서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된 비율이 8.2%로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2차와 3차 예방 개입 노력이 모두 시도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며, 고소득층 청소년의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3차 예방 개입적 노력이 시도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개별 위기 요소별 위험수준의 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어려운 편’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의 고위험수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매우 잘 사는 편’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정, 학교, 또래, 지역사회 요인들에서 고위험수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은 개인적, 심리적 문제 보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적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13가지 위기 상황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신체적 폭력은 약 5.8%가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친아버지와 새엄마로 이루어진 가족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보다 높은 비율(12.3%)의 신체적 폭력 경험이 보고되었다. 위기수준별로는 고위험군의 경우 가장 많은 신체적 폭력 경험비율(33.8%)을 보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속적으로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이 7.7%로 나타났다. 지각된 가정 경제적 수준별로 보면,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비율(16%)의 신체적 폭력 경험을 보고하였다. 언어적 폭력의 경우는 약 10.8%가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은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위기수준별로는 신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고위험군의 경우 가장 많은 언어적 폭력 경험 비율(49.5%)을 보였고,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15.2%로 높게 나타났다.

3일 이상의 가출시도 경험은 전체의 6.9%가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가출을 하고 있는 경우는 0.7%의 청소년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지역적으로 보면, 대체로 큰 편차가 없었으나 서울(9.6%)과 광주(8.5%), 경남(8%), 경기도(7.8%)에서 가출 경험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전문계고 재학 청소년들(9.2%)의 가출 시도 경험이 중학교(6.2%)나 인문계고(5.2%) 재학 청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의 21.8%의 청소년은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은 가출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지역별로 큰 편차는 없었으나 서울(25.1%)과 광주(25.7%)의 경우 가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타 지역보다 많았다. 또한 여자 청소년(25.1%)이 남자 청소년(18.9%)에 비해 가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가족형태별로는 재혼가정(친부와 계모, 계부와 친모) 청소년들의 가출 고려 경험의 비율(각각 34.6%, 33.3%)이 높았다.

전체의 15.4%의 학생 청소년은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은 학업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지속적으로 학업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도 약 3.4%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학업중단을 1~1.5%를 감안하면 이들 중 약 반은 실제 학업을 중단을 감행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자퇴경고나 퇴학통보 경험에 대한 응답에서는 전체의 약 2.7%가 최소한 일 년에 한 두 번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전체의 8.1%가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피해경험을 하고 있는 경우도 전체의 1.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있

어서는 전체의 8%가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스, 본드, 마약류 등의 흡입 경험은 전체의 1.2%가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은 그런 경험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음주 및 흡연경험은 전체의 24.3%가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은 있다고 하였으며, 전체의 6%는 지속적으로 음주 및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경기(27.2%), 경남(27.5%), 전남(27.4%)의 경우 음주 및 흡연 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가족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의 73.5%가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은 그런 갈등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족형태별로는 친부와 계모로 이루어진 가정의 청소년들이 높은 경험비율(26.6%)을 보고하였다. 인터넷 사용으로 일상적인 생활의 장애를 경험하는 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43.3%가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속적으로 경험한다고 응답은 전체의 4.7%에 달하였다. 대전(50.2%)과 경남(51.8%)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전문계고 재학 청소년(34.6%) 보다 중학교(44.3%)나 인문계고 재학 청소년들(48.6%)의 일상생활 장애 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험은 전체의 10.3%가 그리고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뺏은 경험은 전체의 6.2%가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성폭력(희롱) 위협을 느껴본 경험은 전체의 6.7%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서울(9.3%), 부산(12.2%), 경기(11.2%), 인천(10.8%)의 경우 타 지역보다 그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별로 보면,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 및 '매우 잘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 모두 다른 청소년들보다 성폭력(희롱) 위협 경험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각각 14.7%, 12.1%)이 높았다.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은 전체의 5.4%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산(10.7%), 인천(9.2%), 경기(9.5%)의 경우 성매매 유혹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타 지역보다 많았다.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별로 보면,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 및 '매우 잘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 모두 다른 청소년들보다 성매매 유혹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각각 12.4%, 12.1%)이 높았다. 성폭력(희롱) 위협 경험 및 성매매 유혹 경험 모두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시도를 생각해본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의 22.2%가 있다는 응답을 하였고, 실제 자살 시도를 해본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의 6.7%가 시도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서울(9.9%), 부산(10.3%), 경기(10.3%)로 타 지역의 청소년들 보다 자살시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28.9%로 남학생의 16.4%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기 수준별로 위기경험의 정도를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가출시도 경험(45.4%), 심각한 가출고려 경험(64.9%), 심각한 학업중단 고려 경험(61.6%), 자퇴경고 및 퇴학통보 경험(33%), 학교폭력 피해경험(25.9%), 학교폭력 가해경험(31%), 음주 및 흡연 경험(66.2%),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41.4%), 인터넷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경험(50.1%), 타인의 물건 훔친 경험(34.1%),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뺏은 경험(30.3%), 성폭력(희롱) 위협 경험(23.3%), 성매매 유혹 받은 경험(19.5%), 자살생각 경험(65.5%), 자살 시도 경험(35.1%) 모두에서 고위험군의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가정으로부터 물질적 지원은 전체의 86.8%는 보통 이상으로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위기수준별로 보면 고위험군의 경우 52%만이 보통 이상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서적 지원은 82.8%가 보통 이상으로 받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고위험군의 경우는 39.7%만이 가정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보통 이상 받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1388 청소년상담 전화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23.4%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의 약 9%만이 실제 1388 청소년상담 전화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388 청소년상담 전화에 대해 알고 있다는 청소년들 중 84.5%는 보통, 12.7%는 잠재적 위험군, 나머지 2.8%는 고위험군이었다. 1388 청소년상담 전화 이용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고위험군 11.5%, 잠재적 위험군 23.6%, 보통이 64.9%로 나타났다. 고위험군 내에서 1388 청소년상담 전화를 알고 있는 경우는 27.9%였으며, 고위험군 청소년의 약 9.8%만이 실제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1388 청소년상담 전화 이용자의 경우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경험을 제외하고는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모든 위기요소에 걸쳐 위기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2. 논의

이 조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위기 관련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고위험 청소년 규모 추정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은 약 2.4%로 이는 약 10~15만 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학업중단율을 약 1%로 보았을 때, 대상 학생수를 약 5만으로 추산하고 있는 관례에 따라 추정된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의 주된 대상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고위험군 청소년의 수가 과소 추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추정된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중 고위험 청소년이 아니라 학교 청소년 중 고위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 추정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위기요소별로 보면 가정적 고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이 4.7%, 또래 요소에서의 고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이 4.5%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략 20~25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가정 또는 또래 요소에 있어서 고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전체 위험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고위험 상황에 근접해 있는 청소년들의 수는 10~15만 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2) 가정 및 또래 요인의 심각성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고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고위험군에 속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주로 가정 및 또래 요인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가정 내에서의 성원들간의 폭력 및 갈등,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정서적 고립 등의 문제와 비행과 관련된 또래 문제가 이들 청소년들에게서 심각하게 경험되고 있다. 특히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또는 친어머니와 새아버지로 구성된 재혼 가족의 경우 가정 요인 및 또래 요인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친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들은 가족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지각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또는 가족에

대한 부정적 지각의 결과 비행 또래와의 교류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3) 가정 및 또래 요인에 대한 조기개입의 중요성

가정 및 또래 요인의 문제가 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커져가고, 중학교 보다는 고등학교 때 더 큰 폭의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추세는 발달정신병리학의 관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발달정신병리학의 관점에 따르면 초기의 작은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의 폭이 더욱 커져간다. 초기의 작은 문제가 발달상의 여러 과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파장이 증폭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기에 개입하여 상황을 바로 잡지 못하면 그 파장이 커져 고등학교 때는 더욱 넓은 범위의 영역에서 더욱 심각한 정도의 위기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조기에 개입하게 되면 그 파장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는 심리적 성숙을 피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조기 개입에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흔히 보호요인이라 불리며 다양한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역경에 처했어도 성공과 그리고 삶의 여러 측면에서 성공가능성을 증진시키는 특성을 의미하는 적응 유연성의 획득에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하는 한두 명의 성인이 결정적으로 기여한다(Stull, 1998). 이러한 사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동반자 사업의 성패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청소년 동반자 사업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4) 경제적 배경에 따른 고위험군의 특성 차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고위험군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그 다음은 고소득층 청소년들이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 및 심리적 요소를 포함한 모든 요소에 있어서 위기 수준이 높았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을 포함한 환경적, 경제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반면 고소득층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 속한 이들은 개인 요소 및 심리적 요소를 제외한 위기 요소에서 높은 위험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적 여건에 자신의 문제를 주로 귀인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개입은 삶의 문제에 관한 한 스스로의 책임을 자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자살 및 인터넷 중독 문제의 심각성

우리나라 청소년들 가운데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전체의 22.2%에 달하고 있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8.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실제 자살을 시도하는 첫 단계가 '자살에 관한 고려'인 만큼 이에 대한 예방적 개입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어왔지만 그 비율이 줄지 않고 있다. 인터넷 관련 문제를 주로 개인 내부의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개입 노력에 집중해 왔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군의 경우 50%이상이 인터넷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험 요인이 가정 및 또래 요인이라는 결과를 고려하면, 인터넷 관련 문제는 가정 및 또래 요인이라는 문제와 밀접히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개입 방안이 검토되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지역적 특성에 따른 고위험군의 발현 빈도 차이

위기 수준 및 위험 요소별 위기 수준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는 크지 않았으나, 몇몇 지역은 타 지역보다 고위험군의 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서울, 경기, 경남, 전북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지역의 경우 청소년 지원기관 개수가 타 지역에 비해 절대 수에 있어서 더 많은 곳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위험군 청소년의 발현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절대 수에 있어서는 많지만 그 지역의 전체 청소년 수를 고려하면 청소년 지원기관의 개수가 적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이들 지역에 고위험군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위기 요소들이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이들 4지역은 고위험군 비율이 높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수가 타 지역보다 많다. 셋째는 실제 이들 지역의 청소년 지원기관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 지역의 특성이 파악되고, 그 결과에 따라 청소년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든지 아니면 운영 측면에서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VI. 제 언

이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 및 그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및 개입 프로그램 마련

가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 및 실질적 개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요약 및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듯이, 가족 문제는 청소년을 위기로 몰아넣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재혼 가정의 경우 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 폭력 및 언어적 폭력의 문제도 청소년의 위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차적 예방으로 가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하며, 2차적 예방으로 편부 또는 편모, 재혼 가정의 부모들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이 개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3차 개입은 고위험군 청소년들이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을 받아드리고, 이를 토대로 언급되었던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형태의 개입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구조화된 환경을 갖춘 보호시설의 확충

위기청소년에게는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거처, 즉 안전지대가 필요하다. 가정의 경제적 환경, 부모의 혼인상태, 부모의 학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방식으로 인해 위기청소년들은 가정이 아닌 또 다른 안식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

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은 우선 소수의 청소년만을 수용할 수 있을 뿐이어서 대다수의 위기 청소년들이 위험상태에 방치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쉼터와 같은 청소년 보호시설 내에서도 청소년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시설을 확충하되, 보다 구조화된 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설로는 대안학교와 같은 교육 및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6개월 이상의 중장기 쉼터 형태가 적절할 것이다. 중장기 쉼터의 필요성은 이미 CYs-net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쉼터가 당장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부분적으로 청소년을 부모와 격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설이 대안학교의 기능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분류되고,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부모와의 격리를 위한 법적 근거 미약이라는 한계 내에서도 그 운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이미 2009년 10월 27일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위탁운영 및 위탁교육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령안은 대안학교의 설립을 보다 쉽게 하고, 위탁교육 및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단순히 청소년을 수용하는 형태 보다는 교과교육 및 대안교육, 그리고 생활지도가 함께 하는 학교형 보호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중첩적인 개입망의 필요

조기 개입 방안 및 예방 노력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위험 요소들에 있어서 위험 수준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높아지고, 고위험 상황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학년의 증가에 따라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저학년 시기의 작은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그 파장이 커져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조기에 문제에 개입하여 해결함으로써 그 장기적 여파를 줄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미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다. 그러

나 지금껏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만큼 효과적이지는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충실히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데 부분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외된 청소년이 아직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현 상황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욱 강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가능한 현실적 대안은 비록 미비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한 프로그램이 놓치는 청소년을 다른 프로그램이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다소 중첩된 안전망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독일이나 영국의 예에서 보듯이 청소년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학교, 지역사회, 정부의 차원에서 촘촘하게 얽혀져 있다. 영국의 커넥션즈 프로그램은 청소년동반자들간의 인적 연계를 통해 각 부처 및 시민단체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들이 one-stop으로 제공되게 되어 있다. 사실상 정부 부처별 및 다양한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청소년동반자들간의 인적 연계로 망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망을 빠져나가는 것도 어렵고, 일단 이 망 속에 들어오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이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독일도 학교 체제가 1차 안전망을 이루고 있어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청소년의 경우, 지역사회의 안전망에 걸리도록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사회의 안전망은 결코 청소년들의 교육 및 직업훈련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체제에 위협이 되는 청소년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지역사회의 2차 안전망으로 주저없이 보낼 수 있다. 2차 안전망에서는 청소년이 학교체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격리하여 적용 훈련을 실시하는 동시에 그 교육적 노력도 동시에 담보하고 있다. 결국,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통일성을 이루어 안전망을 빠져나가는 경우를 최소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동반자 사업의 경우, 불충분한 수의 청소년 동반자의 확보로 인해 동반자의 소진 및 잦은 이직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직 정부 부처 간, 각 부처 산하 서비스 전달기관들 간, 그리고 각 지방단체의 서비스 전달기관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제도적 미비를 극복하는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국과 같은 인적 연계 망 구축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연계망을 운영하는데 투여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영국과 같이 촘촘한 연계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별 서비스 제공 제도의 수를 늘려 다소 중복되는 형태의 안전망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가운데 그 중 핵이 되는 서비스는 독일의 경우에서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야 어느 한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이 발생할 경우, 다른 서비스 전달체계로 의뢰하여 적응력을 키운 후 복귀하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고위군 청소년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 필요

전문계 고등학생 및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고위험군의 발현 빈도가 높았다. 이는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놀라운 사실도 아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Wee Project와 보건가족복지부의 CYs-Net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동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보완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는 체제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5. 자살 예방 및 인터넷 관련 문제에 대한 개입방안 재검토 필요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 및 인터넷 관련 문제에 대한 개입 방안을 새로운 관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자살 및 인터넷 과다 사용문제는 지속적으로 사회

의 관심을 받아 오고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줄지 않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개입노력이 불충분 했거나 부분적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보다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지역별 청소년의 특성 및 유해 환경에 대한 검토 및 지역별 특화된 개입 모델 개발 필요

지역별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특화된 개입 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위험군의 발현 빈도 및 위험 요소들에 있어서 고위험 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지역에 따른 편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위험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가출 고려 및 시도 경험,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문제, 성폭력(희롱) 위협, 자살 고려 및 시도 경험 등이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면서 특정 지역에 높게 발현되고 있다. 이는 그 지역에 그런 위험 상황을 초래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으로 지역별로 이런 환경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서 그에 대응하는 특화된 개입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7.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

위기(가능)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들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각 정부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그런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단적으로 1388 청소년상담 전화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그 홍보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인지도 및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라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강용진 (2003) 비행청소년의 재 비행 방지를 위한 대안학교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태신(2006) 범죄 청소년 보호요인 강화를 위한 동물 매개 치료 및 심리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경찰청 <http://www.police.go.kr/>
- 고기홍(2003)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와 상담적 개입방안, 제주대학교 상담·봉사센터.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 교육인적자원부(2008). 학생변동현황통계자료.
- 구본용(2005) 위기(가능)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구본용, 신현숙, 유제민(2002).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중퇴모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0권(2), p35-57.
- 국가청소년위원회(2005a)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 : 국제적 동향 및 정책 과제, 2005국제심포지엄.
- 국가청소년위원회(2005b)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 권지은(1998)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지은, 이소희(1999)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의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4권(1), p79-101.
- 권현진(1997)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금명자(2005) 학교 밖 청소년 평가도구 개발연구, 청소년상담연구, p1-136.
- 김경식(1997) 중고교 중퇴생 문제의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7권(1),p 1-24.
- 김명숙(2008) 비행 청소년의 성행동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조절효과 : 청주대안교육센터 교육생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남(1994)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 간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미(2002) 결혼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이(1992) 청소년 연구의 동향과 과제;사회복지학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동향과 과제, 청소년연구정보자료, p57-71.
- 김성이(1997) 부모와 자녀간의 약물남용 관련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4권(1), p183-208.
- 김순규(2008)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과 보호요인,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p66-93.
- 김연정(2004) 가출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2002)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교유관계, 여가활동 및 행동특성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홍영오(2006),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 김장대(1998)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은(1998) 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 외(1997) 비행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연구Ⅱ, 청소년대화의광장, 청소년상담연구.
- 김진희 외(1995) 비행청소년의 상담지원정책, 청소년대화의 광장, 청소년상담연구.
- 김학수(2007)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기관과 청소년관련 기관의 연계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초(2001) 가출 청소년의 이해와 개입방법, 서울 ; 나눔의 집 p252-258
- 김향초(2005) 가출 청소년 이해와 지원 프로그램, 서울 ; 학지사 p288
- 김현식(2000)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 개인생활요인 및 교유관계 비교,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란(200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한 해결중심 상담 연구 :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영옥(2007)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들의 영향력 탐색, 한국청소년상담원, p77-89.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류진아, 권해수(2007) 학교 기반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모형 개발, 한국상담학회 47,

p1205~1221.

- 박영숙(1999)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방어기제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0권(2),p158-168.
- 박준학(2004)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장애학생 또래에 대한 수용태도, 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영(2000) 결손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임과 워먼트 요소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태수(1997) 청소년 비행의식의 형성 배경,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박현선(1998) 부모-자녀관계와 공부압력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문제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권(1), p93-118.
- 박혜경(2001) 초등학교 일반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비교연구 ; 화순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주미(2008)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정책의 변화 전망과 발전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p1-199.
- 백진영(2008)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 적응유연성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 <http://www.moj.go.kr/>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 서울 YMCA(1995). 외국 가출청소년 연구자료집.
- 서정아(2005) 청소년 유해매체 개선 대책 연구 : 인터넷 유해요인과 개인·환경적 보호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 송복, 손승영, 조혜정, 황창순, 김병관, 정경희(1996) 학업중퇴자 연구; 실태와 대책,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송복외(1996) 표기
- 신순갑(2008)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운영에 관한 연구 : 서초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현(2007) 보호관찰 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학교적응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국선(2001) 중퇴경험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종국(2002) 비행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한국청소년

- 년상담원, p101-121.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우정자, 김문섭, 최종혁(2003) 선진 각 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 청소년보호위원회.
- 우정자(2003) 선진각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
- 우정자(2004) 청소년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구성을 위한 이론적 틀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15(1), 한국청소년개발원.
- 원명희(2003)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학생폭력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2000), 청소년 탈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 유성경(2001) 청소년 비행수준에 따른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 분석, 한국심리학회. 13권(2).
- 유성경, 심혜원(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권(4), p189-206.
- 유성경, 이소래(2001), 청소년 비행 수준에 따른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유종관(1996)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행동특성 비교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호석(2008) 위기 및 가출청소년의 가출현황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청소년남자쉼터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희정(1999) 비행청소년 및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행동특성의 관계,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선(2000) 복교생의 학교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내 중고생을 중심으로,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옥현(2007) 가출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쉼터 이용 청소년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 김인경, 김길청(1990) 형사정책 제4호, p67-96.
- 윤철경 외(2001) 유럽국가의 청소년 정책, 한국청소년개발원.
- 윤철경 외(2005) 한국의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정책과제, 2005국제심포지엄.
- 윤철경(2006)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형관 정미향 유응모 (1992) 청소년 의식구조와 비행경험에 관한 실태조사, 청주대학교.
- 이남국(2001) 영국의 중앙정부 조직, 한국행정연구원.
- 이동근(2003) 청소년 상담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균(2008) 청소년 비행행동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p315-342.
- 이상오(2003) 독일의 청소년복지사업에 대한 일 고찰-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중심으로, 주성전문대학 청소년문화학과.
- 이상현, 윤명성(2007) 위기청소년의 가정과 학교생활 특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 이석형(2006)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석형(2008) 청소년비행 보호요인에 관한 타당성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p223-246.
- 이애령(2003)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애령(2004)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수(2009) 법교육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란(2002) 비행청소년의 음주,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영숙 외(1993) 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연구: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 이정희(1998) 비행청소년을 위한 심리극과 사회극 프로그램의 상담효과 요인 및 회기성과 분석,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현(2008) 청소년비행보호요인 및 환경요인간 상호작용이 청소년비행위험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소년학회, p407-430.
- 이종원, 박창남(2004)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 제2회 조사결과 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종원, 유승호(2003)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실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없음
- 이창식, 김윤정(2006) 청소년의 부양동기와 부양의식간의 관계: 성별과 거주지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3권(6),p101-125

- 이창호 외(2005)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방안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창호(2007) CYS-Net 효과성 평가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p1-138.
- 이춘화, 윤옥경(200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혜연(2002) 외국의 소외청소년 정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화련(2007) 비행청소년의 구조적 결손가정 유무와 비행행동에 따른 성격특성연구 ; 청소년 다면적 인성검사(MMPI-A)분석을 중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이희창(2008)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석민(1997) 중퇴생의 예방과 진로선도 대책, 진로교육연구 7권.
- 장승희(2006) 청소년 약물 남용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청소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아름(2008)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생활역량 비교분석, 동의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전경숙, 노재봉 (2003)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한국청소년 개발원.
- 전소은(2009)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강균(2008) 청소년비행의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 포천지역 중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성(1994) 경기 지역 청소년 비행 실태 조사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 정미현(2009) 울산광역시 청소년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 정재희(2009) 위기청소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비행유형에 미치는 영향,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인(1997)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의 역할 연구 : 학교차별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의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서울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원(2008) 사회적환경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복지학회, p149-165.

- 조규필(2005) 청소년쉼터가 가출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청소년쉼터의 개입기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숙(2007) 학교 중도탈락현상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해륜(2006) 서울시 가출청소년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승희(2002)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종단연구 II, 청소년상담연구, p1-175,
- 지승희(2003) 청소년비행 위험요소·보호요소척도의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권(2), p57-70.
- 지승희(2006) 위기청소년 실태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7)
- 청소년보호위원회(1998). 외국의 청소년보호 프로그램 I, II
-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가출청소년보호법·제도 연구.
- 최윤정(2004) 빈곤 청소년의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1권(3), p531-550.
- 최종숙(2002) 부모의 양육태도·자아개념·학교적응간의 관계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준영 외(1998·2000)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광주사회조사연구소.
- 통계청 <http://www.nso.go.kr/>
- 통계청(2007) 청소년 통계.
- 한국청소년개발원 <http://www.nypi.re.kr/>
-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위기청소년 지역사회보호 현황진단 및 발전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http://www.kyci.or.kr/>
- 한국청소년상담원(2004) 학교밖청소년 종합지원체제구축 운영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09,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동주(2006) 멘토링을 활용한 비행예방집단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비행경험이 있는 중학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한상철(1999) 소외 및 가출 청소년의 재분석과 비행행동 선택과정, 학생생활연구, 5권(1).

- 한상철(2001) 청소년기 위험행동의 원인 및 보호적 요소와 발달적 모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39권(4), p291-312.
- 한영옥(2007) 연구논문 : 재미 한인 청소년의 비행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청소년학회*, p95-116
- 행정자치부(2005) UN 청소년 정책 전문가 지역회의 : 주요청소년문제.
- 홍윤진(2002)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정책적 대응방안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은애(2000) 비행청소년 상담의 효과 :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순길(2006)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이용자특성분석 및 서비스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p1-106
- 適応指導教室整備指針; http://www.mext.go.jp/b_menu/public/2003/030306c.htm 참조
- Carter, J.C.(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t-risk students' resilience and dropout behavior,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Craig, C. & Herbert, D.(1997). *The State of the Children: an Examination of Government-Run Foster Care*, 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
- Crosson-Tower, C.(2001). *Exploring Child Welfare: A practice perspective*, (2nd ed.), Allyn & Bacon.
- Dupper, D.R.(1993) Preventing school dropout; *Guideline for school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in education*, vol 87(3).
- Garnezy,N.(1971) Vulnerability research and the issue of primary preven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1, p101-116.
- Garnezy, M Rutter, AM JOSEPHSON(1990),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Journal of Amer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 Kolko, David J(2000) Cognitive and family therapies for adolescent depression: Treatment specificity, mediation, and moder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8(4), p603-614.
- Kortenkamp, K. & Ehrle, J.(2002). *The Well-being of children involved with the child welfare system: a Nat'l overview*. the Urban Institute.
- Masten, A., Morison,p., & Pelligrini,D.(1985). A revised class play method of peer

- assessment. *Development psychology*, 21, 523-533.
- 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 *Educating homeless children and adolescents: Evaluating Policy & Practice*, 1992.
- Rumberger R.W.(1987) High school dropout; A review of issue and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57(2).
- Smith, C., Carlson, B. E.(1997), *Stress, Coping,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Youth*, *Social Service Review*
- Voydanoff&Donnelly, Brenda W(1993) Relations between parental control and warmth and child well-being in step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7(2), Sep, p222-232.
- Walker S. et al.(1998) School performance in adolescent jamaican girls; Association with health, Soci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for dropout, *Journal of Adolescent*, 21.
- Ziesemer.C.(1984) Student and staff perceptions of tryancy and court referrals, *Social work in education* 6, p167-178.

부 록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을 통해 청소년관련 연구 및 경기도 청소년지원 정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 되었습니다.

이 설문지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여러분의 개별 응답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전체 응답자 내용을 취합하여 한꺼번에 통계처리 할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불성실한 응답이나 한 문항이라도 빠지면 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되어 도내 청소년 연구 및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V표시를 해 주세요.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나이? 만_____ 세

3. 학교?

- ① 중학교 ② 인문계 고등학교 ③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④ 학교에 다니지 않음

4. 학년?

- ① 중1 ② 중2 ③ 중3 ④ 고1 ⑤ 고2 ⑥ 고3 ⑦ 해당없음

5. 지역(현재 재학중인 학교 소재지)은 어디입니까?

- 1) 수원시 2) 성남시 3) 부천시 4) 안양시 5) 안산시
6) 용인시 7) 평택시 8) 광명시 9) 이천시 10) 군포시
11) 화성시 12) 이천시 13) 김포시 14) 광주시 15) 안성시
16) 하남시 17) 의왕시 18) 오산시 19) 여주군 20) 양평군
21) 과천시 22) 고양시 23) 의정부시 24) 남양주시 25) 구리시
26) 파주시 27) 포천시 28) 양주시 29) 동두천시 30) 연천군
31) 가평군

6. 부모님은 다음 사항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양친 모두 친부모 ② 아버지만 계시다 ③ 어머니만 계시다
④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⑤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⑥ 양친 모두 양부모
⑦ 양친 모두 안 계시다

7.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 ① 부모님 ② 할아버지(할머니) ③ 결혼한 형제가족 ④ 친척집
⑤ 형제들과 자취 ⑥ 친구 또는 선후배 ⑦ 혼자 살고 있다
⑧ 하숙하고 있다 ⑨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
⑩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지내고 있다
⑪ 청소년보호시설(쉼터, 그룹홈, 일시보호시설, 소년원)
⑫ 기타(구체적으로 어디에서?_____)

8. 가정의 경제수준(월수입)은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① 매우 어려운 편이다 ② 어려운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사는 편이다
 ⑤ 매우 잘사는 편이다
9. '청소년전화 헬프콜 1388'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청소년전화 헬프콜 1388'을 이용해 본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0.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얼마만큼의 물질적 지원(예- 학비, 학원비, 용돈 등)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V표 해주세요
 ①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받고 있는 편이다
 ⑤ 충분히 받고 있다
12.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얼마만큼의 정서적 지원(예- 고민 상담, 대화, 관심, 칭찬등)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V표 해주세요
 ①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받고 있는 편이다
 ⑤ 충분히 받고 있다

※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를 골라 V표 해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3.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14. 늘 마음이 슬퍼진다.					
15.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16. 나의 잘못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					
17. 자살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본 적이 있다.					
18.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19. 나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20. 신경이 매우 날카롭고 불안하다.					
21. 가끔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된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22. 아무 이유도 없이 두려워진다.					
23.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24. 다른 사람과 치고받으며 잘 싸운다.					
25.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26. 답답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27.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한다.					
28. 침착하지 못하다고 꾸중을 들을 때가 자주 있다.					
29. 최근에 나는 자제력을 잃을 때가 많다.					
30.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해서 후회할 때가 있다.					
31. 나는 이제까지 나 자신을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					
32. 나는 내가 미워질 때가 가끔 있다.					
33. 대체로 나는 학교에서 낙오자라고 생각한다.					
34. 가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35. 나는 몸이 매우 허약한 편이다.					
36. 늘 기운이 없고 피곤하다.					
37. 나는 나의 외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다.					
38. 내가 뚱뚱하고 비만인 것이 부끄럽다.					
39. 나에게 이성을 끄는 매력이 없는 것 같다.					
40. 나는 흡연한 경험이 있다.					
41. 나는 음주한 경험이 있다.					
42. 나는 심대들이 흡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43. 나는 심대들이 음주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44. 나는 문제를 나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내 자신을 원망한다.					
45.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누군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46.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앉아서 고민만 할 뿐이고 실제로 해결하려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47.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일이 귀찮아서 잠을 청한다.					
48.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엉뚱한 상상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49.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50. 부모님은 나에게 심하게 욕을 하신다.					
51.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52.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53.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54.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55.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하고 긴장된다.					
56.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다른 형제를 더 귀여워하신다.					
57. 우리 식구들은 심대들이 담배를 피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58. 우리 식구들은 심대들이 술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59. 나는 부모님에게 왜 혼나는지 모른 채 혼나는 경우가 많다.					
60. 우리 부모님은 너무 무섭게 나를 대하신다.					
61. 가족이나 친척 중에 감옥에 갓었던 분이 계신다.					
62. 가족 중 약물 복용을 하거나 알코올 중독이 사람이 있다.					
63. 비행을 저지르는 형제가 있다.					
64. 가족 중 가출했던 혹은 가출한 사람이 있다.					
65.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는 것을 본 적이 있다.					
66.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					
67. 부모님이 이혼이나 별거 중이시다.					
68. 우리 부모님은 재혼을 하셨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69. 부모님의 실직으로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다.					
70. 나는 공부하는 것이 재미없다.					
71. 나는 공부를 못한다.					
72.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73.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74. 나는 학교가 싫다.					
75. 우리 학교는 체벌이 너무 심하다.					
76. 나는 가끔 수업도중에 땡땡이를 친다.					
77. 선생님이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					
78.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79. 선생님은 나에게 싫은 소리를 자주 하시는 편이다.					
80. 선생님에게 심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81. 학원, 과외활동 등 방과 후에 할 일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82. 나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가는 학원이 많다.					
83. 나는 부모님께 학원 간다고 하고 안 간 적이 많다.					
84. 나는 방과 후에 돈을 벌어야 한다.					
85. 나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86. 나에게는 약물남용(예: 본드, 니스, 신나) 하는 친구가 있다.					
87. 나에게는 가출한 친구가 있다.					
88. 나에게는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간 친구가 있다.					
89. 나에게는 폭력서클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90.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술집 등 유흥업소가 많다.					
91. 우리 동네에는 범죄가 많다.					
92. 우리 동네에서는 밤중에 다니면 위험하다.					
93.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 자신이 경험했던 것에 대해 솔직히 답하여 주세요(√표).

99. 최근 1년 동안 학교로부터 자퇴경고나 퇴학을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전혀 없다 ②일년에 1-2번 ③한 달에 1번 ④1주일에 1-2번
⑤거의 매일
100.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신체폭행·따돌림·괴롭힘·언어폭력 등)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전혀 없다 ②일년에 1-2번 ③한 달에 1번 ④1주일에 1-2번
⑤거의 매일
101.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신체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괴롭힘, 언어폭력 등)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전혀 없다 ②일년에 1-2번 ③한 달에 1번 ④1주일에 1-2번
⑤지속적으로(10회 이상) 있다
102. 최근 3개월 내에 가스, 본드, 마약류를 흡입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전혀 없다 ②일년에 1-2번 ③한 달에 1번 ④1주일에 1-2번
⑤지속적으로(10회 이상) 있다
103. 최근 3개월 내에 음주 및 흡연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전혀 없다 ②일년에 1-2번 ③한 달에 1번 ④1주일에 1-2번
⑤지속적으로(10회 이상) 있다
104. 최근 3개월 이내에 인터넷(게임 등) 사용으로 인해 타인(부모, 교사 등)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①전혀 없다 ②일년에 1-2번 ③한 달에 1번 ④1주일에 1-2번
⑤지속적으로(10회 이상) 있다
105. 최근 3개월 이내에 인터넷(게임 등)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전혀 없다 ②일년에 1-2번 ③한 달에 1번 ④1주일에 1-2번
⑤지속적으로(10회 이상) 있다

A National Survey of Youth Risk Behaviors

ABSTRACT

Currently, a significant number of adolescents engage in behaviors that place them at risk for the leading causes of mortality and morbidity. Diverse surrounding factors such as family, individual and social environments are assumed to affect these youth risk behaviors. Family disorganization is a good example of a malevolent environmental factor. When negatively influenced by these surrounding factors, adolescents could exhibit various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s which could lead them to at risk situation. In order to provide effective support for these at-risk youth, it is necessary to collect the data of their risk situations, risk types, and risk levels, and to put them into consideration with an adolescent'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However, most survey on adolescents' risk behaviors have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ir results of adolescents' risk types, risk levels, risk factors, and the frequency of being at risk and in making a comparison among adolescents at different areas due to inconsistent survey questions and sampling methods.

Thus, this study aimed to grasp the current condition of youth risk behaviors and to compare the condition among adolescents at different areas in order to devise area-specific approach for at risk youth.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selected and discussed.

First, in order to establish an efficient supporting policy for at-risk youth, the attempt was made to define the concept of at-risk youth.

Second, characteristics of at-risk youth were examined in order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m.

Third, reviewing the current laws and supporting systems for at-risk youth,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ones, directions of policy development

for at-risk youth were revealed.

Fourth, data of 2008 survey, conducted by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with 69,754 adolescents in 16 cities and provinces were analyzed. Probability and level of risk behaviors of youth were analyzed depending on the following variables; (1) residing area (16 cities and provinces), (2) gender, (3) school level, (4) grades, (5) family types, (6) living types, (7) perceived family economic status, and (8) perceived emotional support from family members. Youth risk behaviors were defined as follows; (1) physical abuse, (2) verbal abuse at home, (3) runaway thoughts and attempts, (4) dropout thoughts, (5) warning of dropout or expulsion from school, (6) school violence (either victims or perpetrators), (7) drug abuse (gas, bonds, other drugs), (8) drinking and smoking, (9) internet related problems (family conflict or other mental disorders), (10) stealing, (11) sexual abuse (12) tempting to sex trafficking (13) suicidal thoughts or attempts. Risk levels of each risk behavior were analyzed. Finally, the statistics of 1388 youth hotline run by both the Korean Youth Counseling Institute and Counseling and Resource Center for Youth in 16 cities and provinces were analyzed.

Fifth, in order to provide an effective support for at-risk youth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urveys, the size of high risk youth, impact of family and peer environments, significance of early intervention for family and peer factors, morbidity of suicide and internet addiction, area difference in the size of high risk youth and in the prevalence of each risk behavior were discussed in terms of how to approach those problem behaviors and implications of the result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and discussions of this study, followings were revealed as necessary areas for consideration for high risk youth support; (1) Policy making and an intervention program development to strengthen the family function of dropout students, (2) reiterated intervention network formation, (3) consistent verification of efficacy of the

program for high-risk dropout youth, (4) re-examination of the suicide prevention programs and of the intervention for internet use relate problems, (5) investigating the malevolent environmental factors for adolescents in relevant areas, (6) developing an area-specific intervention model for adolescents, and (7) publicizing the high-risk youth supporting system/program.